



#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 5 호

2025년 11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 학 농 민 혁 명 연 구 소

# 동학농민혁명 연구

## 제5호

2025년 11월

---

---

### 목 차

#### ▣ 특집논문 1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신진희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	3
김양식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과 성격 .....	41
	- 발굴·등록된 참여자를 중심으로 -	
김희태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75
	-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	

#### ▣ 특집논문 2 ▣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정경민	고창지역 민보군의 거의(學義) 정당화와 의리론 .....	123
	- 『거의록』과 『취의록』을 중심으로 -	
조재곤	고창지역 영학당과 결세 저항운동 .....	151
신진희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	189
최진욱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내용 검토와 사료적 가치 분석 .....	223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Vol.5

2025. November

▣ 일반논문 ▣

고석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기억들 .....	267
지수걸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	313
원도연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	361
나하나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접주 허선의 가계검토 .....	391

▣ 부 록 ▣

연구소 소식 .....	417
위원회 명단 .....	42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	43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	453
연구소 발간 자료 .....	460



---

## ▣▣▣ 특집논문 1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신진희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과 성격  
- 발굴·등록된 참여자를 중심으로 -  
김양식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  
김희태

---

〈특집논문 1〉은 2025년 6월 2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발표문으로 구성하였다. 발표된 논문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이에 따라 조사·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지역별 활동과 성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033명이며 그 유족은 13,839명이다. (2025년 11월 기준)



##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신진희\*

### 〈목 차〉

머리말

I. 상주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II. 성주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III. 진주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IV. 창원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을 살피고자 했다. 조선시대 경상도는 좌도와 우도로 구분하였는데, 경상우도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손들의 신청보다 '직권등록'된 경우가 많았다. 22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92명이 '직권등록'된 사례이고, 약 84.6%를 차지했다. 둘째, 경상좌도의 등록 참여자보다 경상우도의 등록 참여자가 많았다. 충청도·전라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경상우도에서도 상주진과 진주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많

\* 국립경국대학교 강사

았다. 이곳과 관련된 사료(史料)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직권등록’이 많기 때문에 후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혈연·지연 외에도 동학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사료(史料)가 부족하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사례를 밝히기에 미흡하다. 앞으로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직권등록, 상주진, 진주진

##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3월 제정되었으며, 2017년 일부 개정되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4년 9월 출범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 유족 10,567명을 등록하고 활동을 종료했으나 추가등록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2월 특별법을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sup>1)</sup>

2025년 3월 현재, 등록된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총 3,908명이고, 그

---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s://cdpr.go.kr>)

가운데 경상도 활동 인물은 227명(5.8%)이다. 주 활동지는 아니지만 경상도에서 활동한 흔적이 있는 인물이 18명인데, 이들까지 합하면 245명이다(〈표 1〉에서 괄호로 표기). 경상남북도 각 시군별로 구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경상도에서 활동(활동 흔적)한 참여자의 시군별 인원 수  
(2025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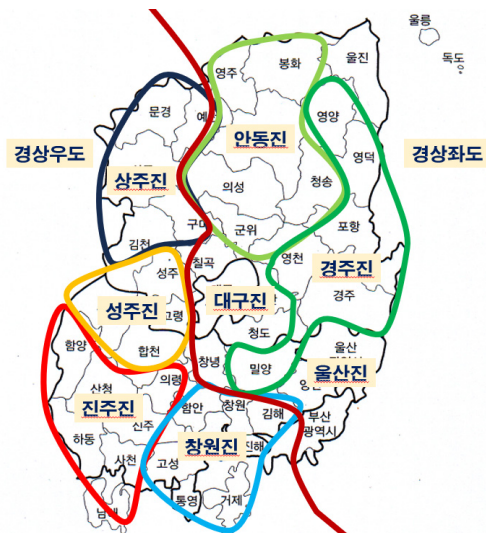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도	합계
시군	거창	고성	곤양	김해	고령	구미	김산	김천	문경	시군 미상	-
명	2	8	2	1	1	3	19	1	2		
시군	남해	사천	산청	삼가	봉화	상주	선산	성주	순흥		
명	3	2	1	2	1	58 (13)	1	11	1		
시군	양산	진주	하동	-	안동	영주	예천	의성	함창	시군 미상	-
명	1	12 (1)	36 (4)	-	3	4	20	1	2		
합계	70(5)				127(13)					30	227 (18)

각 시군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경상남도의 경우 하동(36명, 경상도 전체의 15.85%, 경남 등록자의 51.4%)에서 활동한 인물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진주(12명, 5.29%, 17.14%)와 고성(8명, 3.52%, 11.43%)이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상주(58명, 경상도 전체의 25.55%, 경북 등록자의 45.67%)에서 활동한 인물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예천(20명, 8.81%, 15.75%)과 김산(19명, 8.37%, 14.96%)이 뒤를 이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직권등록’ 방식을 통해 등록된 참여자들이다. 경상도 활동 등록 참여자 192(208)명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직권등록’은 사료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하는 것을 이른다. 사료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유

족들을 파악할 수 없고, 일부 추적을 하더라도 집안에서조차 동학농민  
군 활동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 경상도는 낙동강의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라고 군사행정  
상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하였다. 좌도는 경주에, 우도는 상주에 감영을  
두었다. 우도의 감영은 다시 성주 팔거현, 달성 등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1607년 대구에 감사가 머무는 처소를 두게 하면서 감영도 이곳에 정착  
하였다.<sup>2)</sup> 경상우도는 상주진·성주진·진주진·창원진을 일컫는다.<sup>3)</sup> 이  
해를 위해 오늘날 지도 위에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면 아래 <지도 1>  
과 같다.



<지도 1> 경상좌·우도 및 각 진의 대략적인 영역

- 2) 『선조실록』 선조 40(1607)년 2월 14일 정미 3번째 기사(「하삼도의 감사 처소에 군  
량 등 물자를 보관하고 대구의 유민을 위무하게 하다」).
- 3) 『세조실록』 세조 3(1457)년 10월 20일 경술 2번째 기사(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  
익·좌익·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다). 군사적 목적인 鎭은 위치가 조금  
씩 바뀌었다. 1894년에 맞춰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어 세조실록 1457년 10월 기사  
에 근거하여 나누어 서술한다.

경상좌·우도로 구분하면, 경상좌도보다는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전라도·충청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주진과 진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많았다. 227명 가운데, 경상우도 등록 참여자 186명(81.9%), 시군 미상인 30명(13.1%), 경상좌도 등록 참여자 11명(4.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경상우도·좌도의 동학농민군 참여자 등록 현황

경상우도		경상좌도		경상도
상주진	105	안동진	10	30
성주진	14	경주진	0	
진주진	58	대구진	0	
창원진	9	울산진	1	
소계	186	소계	11	30

<표 2>에서도 확인되듯이 경상도 등록 참여자들의 활동지역은 대부분 경상우도였다. 충청도와 전라도에 접해 있었기에 포착된 활동이 더 많았을 듯하다. 경상좌도의 경우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고 가장 먼저 동학이 전파되었던 곳이지만, 1871년 ‘이필제의 난’으로 그 조직이 와해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아 등록 참여자가 많지 않다.

이 글은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증언을 토대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을 살피는 연구는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202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증언록으로는 『다시피는 녹두꽃』(1994, 역사문제연구소),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1997, 역사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고 사료들을 기초로 하여 경상우도를 상주진·성주진·진주진·창원진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 참여자들의 등록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 I. 상주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 조직으로 활발했던 포는 예천·문경 일대의 관동포(關東包, 이원팔), 상주·선산·김산 일대의 충경포(忠慶包, 임규호), 상주·예천 일대의 상공포(尙功包, 이관영), 선산·김산 일대의 선산포(善山包), 김산·개령 일대의 영동포(永同包) 등이다.<sup>4)</sup> 이 다섯 개의 포 조직들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곳이 상주진이다.

상주는 조선전기 경상우도의 감영이 있었던 곳이다. 상주진은 함창·선산·개령·김산·문경·예천·용궁을 포함한 지역이다. 함창은 상주에 속해 있고, 선산은 현재 구미, 개령·김산은 김천에 속하고, 용궁은 예천에 속한다.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5개의 포가 활동했던 지역이기에, 등록 참여자도 105명으로 경상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이다.

〈표 3〉 상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등록 현황

시군	상주		선산	김천		문경	예천		합계
	상주	함창		개령	김산		용궁	예천	
명	57(13)	2	4	-	20(6)	2(1)	-	20(2)	105(22)

위 표에 있는 괄호 속 숫자는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해당 지역에서도 활동했던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수이다. 상주에서 활동한 13명은 모두 보은·영동·청산·황간 등 충청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주에서도 활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붙잡히거나 총살된 인물들이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면서 활동한 점으로 보아 충경포에 속한 이들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김산에서 활동한 6명은 성주에서도 활

4)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8~9쪽 참조.

동하였던 인물로, 동학농민군의 성주관아 점거와 관련된 인물이다. 문경에서 활동한 인물은 주로 예천에서도 활동했다. 또 예천에서 활동한 인물은 문경에서도 활동했던 이력이 확인된다. 상주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보은·영동·청산·황간 등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상주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57명 중 상주·보은·청주 등 충청도와 경상도를 다니면서 활동한 권병덕(權秉惠, 1868~1943)에 대해 살펴보자.<sup>5)</sup> 그의 본관은 안동, 호는 청암(淸菴)·정암(貞菴)·우운(又雲)이다. 청암(淸菴)은 1918년에 받은 도호이다.<sup>6)</sup> 그는 아버지 권문영(權文永)과 어머니 신문화(申文燁)의 아들로, 외가가 있던 충북 청원에서 태어났다. 1883년 원세화(元世華)의 큰딸과 혼인하고 다음 해 상주에 신흠살림을 차렸다. 18세에 임규호(任奎鎬)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했으며, 1886년 청주접주로 임명되었다. 1893년 2월 복합상소와 3월 보은취회에도 참여하였다.<sup>7)</sup> 1894년 3월 10일 청산군(靑山郡) 포전리(浦田里) 김연국(金演局)의 집에서 손병희(孫秉熙)·이관영(李觀永)·권재조(權在朝)·권병덕·임정재(任貞宰)·이원팔(李元八)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다. 1894년 4월 당시 청산접주로 활약하였다.<sup>8)</sup> 1895년 기록에는 그가 상주를 담당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sup>9)</sup> 그가 충청도에서 태어나 상주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5) 이원섭, 2022, 「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30, 한국종교학연구회에서 권병덕 자료가 2004년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어 있다고 한다.

6) 「第三編 義菴聖師(1918.04.13.)」, 『天道敎書』(『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7) 「第十章 爲師訟冤」, 『侍天敎宗釋史』(『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8)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淸戰役」,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9) 「第十三章 松菴傳授, 戊戌遭難」,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권병덕의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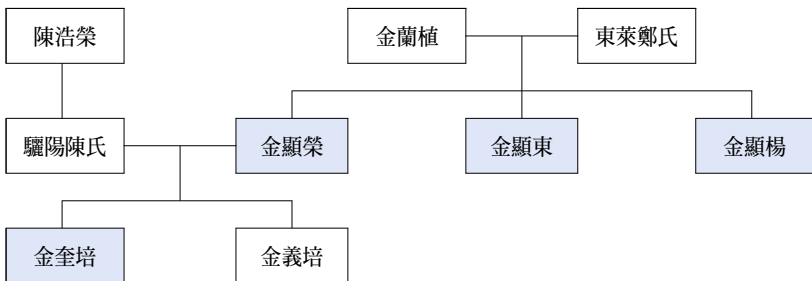
손병희가 1905년 12월 천도교를 일으키자, 권병덕은 천도교의 전제 관장(典制觀長)·이문관장대리(理文觀長代理)·금융관장(金融觀長)·보문관 장(普文館長) 등을 역임하였다. 권병덕은 잠시 천도교를 떠나 시천교에 몸을 담았다가 1916년 다시 천도교로 돌아왔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렀다.<sup>10)</sup> 출옥 후에는 천도교 종리원(宗理院)의 서무과 주임을 거쳐, 중앙교회 심계원장·감사원장·선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922년 손병희가 사망하고 천도교가 구파와 신파로 나뉘었을 때, 권병덕은 천도교 구파와 함께 활동하였다.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고, 1928년 2월 신간회 대구지회에서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족운동과 신간회의 미래에 대해 연설하였다.

10)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08.01.) ; 「판결문」(고등법원, 1920.03.22.)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0.08.09.)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10.30.) ; 「형사 사건부」.

1930년대 중반 일제의 민족말살통치에 대응하여 역사책을 저술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조전란사(李朝戰亂史)』, 『조선총사(朝鮮總史)』를 들 수 있다. 『조선총사(朝鮮總史)』는 신라 때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볼모로 잡힌 왕자를 탈출시키고 죽음을 맞은 박제상, 고려 때 일본 정벌군에 참여하여 무용을 보인 김방경, 한국과 일본의 강제 병합을 전후로 하여 나라를 위해 활약한 최익현·민영환·전명운·장인환 등의 활약을 담고 있다. 일제는 이를 문제 삼아 삭제처분을 내렸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령장이 추서되었다.<sup>11)</sup>

상공포는 상주 공동면(功東面)과 공서면(功西面)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친 포이다.<sup>12)</sup> 다만 그 구성원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밝힌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상공포 소속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상주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은 김현영(金顯榮)이다. 그는 상주 모서면 대접주로서 아들 김규배(金奎培), 동생 김현동(金顯東)·김현양(金顯楊)과 함께 상주읍성을 점령하고 보은전투 등에 참여한 인물이다.

〈표 4〉 김현영 가계도(金海金氏京派統合譜所, 『金海金氏京派統合譜』, 1991)



김현영 부자·형제 외에도 보은까지 가서 활동한 인물은 남진갑(南眞

11)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참조.

12)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12쪽.

甲), 권병덕(權秉惠) 등이 있다. 상주에서 활동한 인물 가운데 최시형이 머물렀던 청산에서 활약한 인물들도 확인된다. 김순여(金順汝)·윤경오(尹景五)·전명숙(全明叔)·최인숙(崔仁叔)이 그들이다. 이들은 상주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청산에서 기포를 준비하던 중 잡혀서 12월 14일 상주에서 총살되었다.<sup>13)</sup>

김산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인물은 20명이다. 1894년 당시 김산·지례·개령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김천이 되었다. 현재 김천 시내에는 1894년 당시 김산군 김천면이었다. 김산에서는 1894년 8월부터 동학농민군이 활동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죽전(竹田) 남정훈(南廷薰), 진목(眞木) 편보언(片輔彦)·편백현(片白現)을 들 수 있다.<sup>14)</sup> 도집강 편보언은 충청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sup>15)</sup>

김천장터에 도소를 세우고 활동했던 도집강 편보언(片甫彦)은 10월 대구에서 파견된 병정 200명과 싸우지도 못하고 흩어졌다.<sup>16)</sup> 12월 25일 김천시장에서 총살되었던 이는 편보언, 남정훈 등 외에도 20명에 이른다고 한다.<sup>17)</sup> 김산 일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가운데 편보언만 후손이 확인되고 나머지 18명의 유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인물들 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별계(別啓)』에서 김천집주 김성심(金性心)이라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13) 「甲午十二月二十八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14) 崔鳳吉, 「甲午八月」,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15)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11쪽 참조.

16) 崔鳳吉, 「甲午十月」,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17) 崔鳳吉, 「甲午十二月」,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그는 김산군 마좌산(馬左山)에 거주했고, 김천접주로서 성주관아 점거에 나섰던 인물이다.<sup>18)</sup> 마좌산(馬左山)은 김산군 군내면(郡內面) 소속 14개 마을 중 마좌동(馬佐洞)이다.<sup>19)</sup>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김천군 감천면(甘川面) 소속 7개 마을 중 지좌동(智佐洞)이 되었다. 김산군 고가대면(古加大面) 지수동(智水洞), 지대동(池大洞), 군내면 마좌동이 합해져서 지좌동이 되었다.<sup>20)</sup> 현재 김천시 지좌동이다. 후에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

김산 동학농민군은 선산읍성과 해평 일본군 병참부를 공격대상으로 정했다. 영동포와 선산포가 합세하여 9월 22일 선산읍성을 점거하였다. 9월 18일 최시형의 기포령 이후 동학농민군 활동을 제2차 봉기라고 표현하는데, 선산읍성 점거가 김산 동학농민군이 제2차 봉기 시기에 활약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읍성이 점거되자, 선산 향리가 해평에 있던 일본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본군 병참부 주둔병은 기습을 감행해왔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패하여 선산읍성을 내어줬다.<sup>21)</sup>

선산에서 활동한 인물은 김봉동(金鳳東)·한문출(韓文出)·한정교(韓貞敎)·신두문(申斗文)이다. 김봉동(金鳳東, 1862~1947)은 『도암세고(桃巖世稿)』의 「약력(略歷)」과 1940년대에 작성한 제문에 그의 선산 동학농민군 활동과 패하여 흩어진 사건을 입증할 수 있었다.<sup>22)</sup> 신두문은 1894년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다가 10월 14일 선산에서 붙잡혀 24일 총살된 기록이 남아 있다.<sup>23)</sup> 선산포의 대접주가 확인되지 않는데, 신두

18) 「甲午十一月十一日封 啓」, 『별계(別啓)』.

19)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3쪽.

20) 越知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동경: 兵林館印刷所, 530쪽.

21)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34쪽 참조.

22) 金重默(김봉동의 아들), 2016, 「遜山處士茶村公事蹟」, 『桃巖世稿』, 엔코리안(주), 17·23쪽 ; 金頊祚, 檀紀4340(2007), 「桃巖世傳(필사본)」, 10~11쪽.

23) 「甲午十一月」, 『召募日記』(『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 「甲午十一月」, 『召募日

문이 대접주의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sup>24)</sup> 경상도 지례에서 작성된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선산의 수접자(首接者) 김접주(金接主)가 상산김씨이고,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 거주자라고 쓰여진 것이 발견되었다.<sup>25)</sup>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문경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한 인물은 채홍우(蔡洪禹)와 황기용(黃基用)이다. 채홍우는 인천채씨이고, 황기용(죽보명 黃基仁)은 장수황씨이며, 경북 문경 산북면 석봉리 출신이다. 석봉리는 관동수접주 최맹순이 용기상을 가장하여 동학을 포교하였던 소야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소야리는 1894년 당시 예천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문경에 속하는 곳이다. 또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던 석문과도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천 동학농민군과 활동을 함께 하였다.

문경 석봉리에서 예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물은 채홍우, 황기용 외에도 채성우(蔡成禹)가 있다.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채성우는 채홍우와 재종형제지간으로<sup>26)</sup>, 채홍우의 전사소식을 집에 전달한 인물이다. 이들은 증조할아버지인 채흠(蔡愼)의 둘째 아들 채기중(蔡耆仲)과 셋째아들 채기방(蔡耆邦)의 손자들이다.<sup>27)</sup>

---

記』(『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3) ; 「甲午十一月十二日 到付」,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 「甲午十二月二十六日 到付監營移文」,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 「도착한 순영의 이문」, 『召募事實(金山)』(『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 兩湖都巡撫營, 「소모사 정의묵이 베껴서 보고함\_12월 6일」, 『甲午軍政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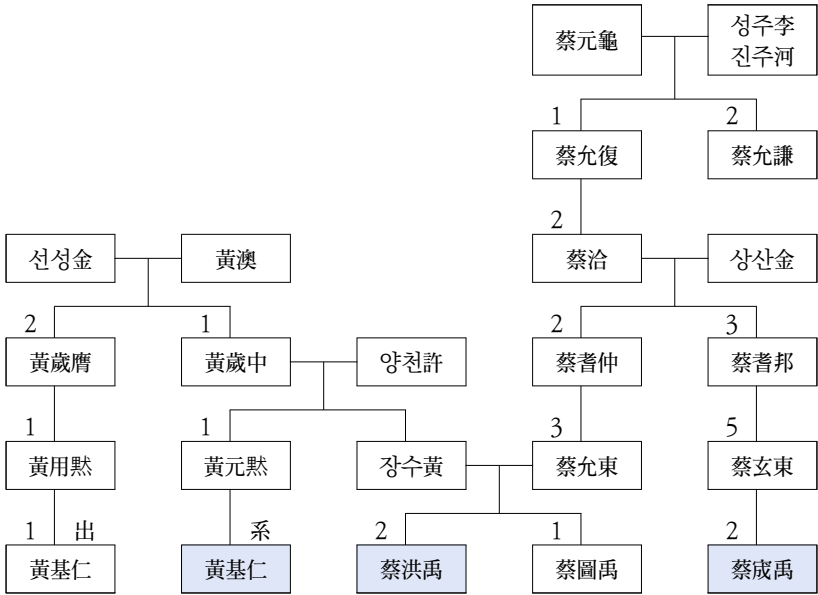
24)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12쪽 참조.

25) 신진희, 2025,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2025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발표집)』, 고창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전북사학회, 67~68쪽 참조.

26) 卷之二, 1977, 『仁川蔡氏大同譜』, 177~181쪽 ; 卷之七, 1977, 『仁川蔡氏大同譜』, 46~54쪽.

채홍우와 황기용(족보명 黃基仁)은 사촌지간이다. 채홍우의 어머니가 장수황씨이고, 황기용의 양부(養父)인 황원묵(黃元默)의 누이이다.<sup>28)</sup> 즉, 채홍우의 외사촌이 황기용이고, 황기용의 고종사촌이 채홍우인 것이다.

〈표 5〉 채홍우·채성우·황기용 가계도(『仁川蔡氏大同譜』 참조)



27) 신진희, 2024,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52쪽에는 채원묵(蔡元龜)의 아들인 채운복(蔡允復)과 채운겸(蔡允謙)의 후손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채흠(蔡洽)의 아들인 채기중(蔡耆仲)과 채기방(蔡耆邦)의 손자들로 수정한다.

28) 長水黃氏少尹公派譜所, 1981, 『長水黃氏世譜』, 譜典出版社, 27쪽(신진희, 2024,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52쪽 재인용). 황세중(黃歲中)은 1남4녀를 두었는데, 아들인 황원묵(黃元默)은 자식이 없어 황기용(황기인)을 양자로 들였다. 첫째 딸은 가평이씨, 둘째와 셋째 딸은 인천채씨, 넷째는 진주강씨와 혼인하였다. 둘째 딸이 채홍우의 어머니이다.

예천은 관동포 대접주 이원팔(李元八)의 영향을 받았고, 그 조직을 확대한 것은 수접주 최맹순이었다.<sup>29)</sup> 최맹순은 강원도 춘천사람인데 예천에서 용기상으로 위장하여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였다. 1894년 11월 21일 문경에서 붙잡혔고 다음날 아들 최한걸과 함께 처형되었다. 예천이 관동포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3일 예천 금당실에 금곡포덕소가 설치되고, 20일 경상도·충청도·강원도 각 접소에 사통을 보내 예천읍을 공격하자는 의견이 진행되었다. 관동대접(關東大接)과 상북(尙北)·용궁·충경(忠慶)·예천·안동·풍기(豐基)·영주(榮川)·상주·함창·문경(聞慶)·단양(丹陽)·청풍(淸風)의 13접주가 상주 산양(山陽)과 예천 금곡 및 화지(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 상주진은 상주 산양, 예천 금곡, 화지에서 경상도·충청도·강원도 각 접이 모여 예천읍을 공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곳이다. 경상도·충청도·강원도 3도의 동학농민군이 함께 움직인 것으로 그 특징을 유추할 수 있을 듯하다.

상주를 중심으로 북동쪽으로는 예천을, 남쪽으로는 김산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움직였다. 외부에서 유입된 동학농민군과 그 지역 출신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움직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진출한 것이다. 예천의 동학농민군은 안동진으로, 선산·김산의 동학농민군은 성주진으로 진출하였다.

상주진 동학농민군은 충청포·영동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상주 동학농민군과 관동포의 영향을 받은 예천의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상주진은 상주를 기준으로, 북동쪽으로는 예천-안동-의성-의흥 동학농민군의 활동, 남쪽으로는 상주-김천-선산-성주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연결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29)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10쪽 참조.

## II. 성주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성주진은 성주·합천·초계·거창·고령·지례 등을 포함한 지역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주진의 김산·선산 동학농민군과 성주 동학농민군, 충청도·전라도 동학농민군의 영향을 모두 받은 것이다.

성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인물은 14명이다. 성주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많았다. 표로 만들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성주에서 활동한 11명은 대부분 김산에서도 활동한 인물들이다. 김상필(金尙弼)·김치서(金致瑞)·이오철(李五哲)·이응원(李應元)·전명준(全命俊)·현복만(玄卜萬) 등 6명은 성주에서 활동하다가 1895년 1월 24일 김산에서 포살당한 인물이다.<sup>30)</sup>

<표 6> 성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시군	성주	합천		거창	고령	김천	합계
		초계	합천			지례	
명	11(1)	-	-	2	1	-	14(1)

성주진과 관련된 사항을 『세장년록(世藏年錄)』에서 살필 수 있다. 성주는 아전들이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죽였고 이에 동학농민군이 총과 창을 들고 대마 시장에 모였고, 뒤이어 성주부 안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인가를 불에 태웠다.<sup>31)</sup> 성주에서 활동한 11명의 등록 참여자 중 장여진(張汝振)은 동학농민군 좌익장으로서 성주 함락에 참여했다가 황간에서 체포되어 총살되었고, 김두희(金斗熙)의 경우 고령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성주 등지를 다니면서 보급품을 전달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30) 「정월 19일 경영에 보낸 보이」, 『召募事實(金山)』(『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31) 「甲午八月」(1894년 8월 초6일자,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표 7〉 성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비고
1	姜基万	?~1894	거창		
2	吳聖瑞	?~1894	거창		
3	金斗熙	1860~1895	고령	성주	
4	金尙弼	?~1895	성주	김산	
5	金致瑞	?~1895	성주	김산	
6	文龍云	?~?	성주		접주
7	徐達龍	?~?	성주		접주
8	孫千八	?~?	성주		
9	李五哲	?~1895	성주	김산	
10	李應元	?~1895	성주	김산	
11	張汝振	?~1894	성주	황간	좌익장
12	張義重	?~?	성주		
13	全命俊	?~1895	성주	김산	
14	玄卜萬	?~1895	성주	김산	

성주는 8월 23일 동학농민군이 읍내로 들어왔는데, 전라도 경계에 살던 사람들과 성주·김산 동학농민군이 합세하고, 거기에 황간에서 온 동학농민군도 함께하였다. 이들이 모였던 곳이 성주 대마장터[代馬市]였다.<sup>32)</sup> 성주목사 오석영(吳錫永)은 놀라 대구감영으로 가서 경상감사 조병호(趙秉鎬)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접견조차 하지 못하였다.

성주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김상필(金尙弼)·김치서(金致瑞)·이오철(李五哲)·이응원(李應元)·전명준(全命俊)·현복만(玄卜萬)·장여진(張汝振)·문용운(文龍云)·서달용(徐達龍)·손천팔(孫千八)·장의중(張義重) 등이다. 문용운·서달용은 8월 28일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성주관아를 공격

32) 「甲午八月」(1894년 8월 초6일자, 『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34~35쪽 참조.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거창에서 활동한 강기만(姜基萬)과 오성서(吳聖瑞)는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활약하다가 12월 거창민보군에게 피살되었다.<sup>33)</sup> 거창의 민보군을 구성한 사람들은 전감찰(前監察) 신세해(愼世海), 전사과(前司果) 유영환(兪永煥), 전도사(前都事) 이현규(李鉉奎), 전주사(前主事) 이준학(李埈學), 전중군(前中軍) 정찬건(鄭燦健),<sup>34)</sup> 거창유학(居昌幼學) 강달주(姜達周), 전거창부사(前居昌府使) 소모사(召募使) 정관섭(丁觀燮) 등이 다.<sup>35)</sup> 강기만과 오성서를 “두령(頭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sup>36)</sup> 동학농민군을 통솔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지례는 현재 김천시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김산과 함께 동학농민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한 동학농민군에 관한 기록이 있다. “본현 남면(南面)의 백성 등이 붙잡아 낸 비류가 네 놈인데 그 가운데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 등은 작년 8월에 패거리를 거느리고 고을에 들어와서 관문(官門)에서 말뚝을 부리고 촌리(村里)에서 재물을 토색하였고 또 성주(星州)·금산(錦山)·황간(黃澗)·영동(永同)에서 작변(作變)할 때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자복을 받아낸 뒤 정월 초5일에 모두 즉시 총살하였습니다. 신채봉(申彩鳳)은 위협을 당하여 도당에 들어간 것을 뚜렷하게 해명하였기 때문에 신칙하여 풀어 보냈습니다.”<sup>37)</sup>

이 기록을 통해 지례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성주·금산·황간·영동 등 경상도는 물론 충청도에서도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재덕(金

33) 朴衡采, 1915, 「第十一章 甲午敎厄」, 『侍天敎宗釋史』(『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29,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34) 「義旅」, 『東學黨征討人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35) 『甲午軍功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36) 康弼道,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淸戰役」,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37)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신채봉(申彩鳳) 등 네 명의 동학농민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뒤에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 Ⅲ. 진주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진주진은 사천·곤양·하동·남해·단성·산음·의령·함양·삼가·안음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진주는 영호대도소 김개남(金開南), 대접주 김인배(金仁培)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893년 보은집회에서 하동 접 50여 명과 진주접 60여 명이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다.<sup>38)</sup> 서부 경남의 동학농민군은 백낙도(白樂道, 白道弘)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최시형의 명을 받아 진주에서 손웅구·고만준·임정룡·임말룡 등 수천 명에게 동학을 전파하였고 보은집회 이후 진주 덕산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sup>39)</sup> 1894년 1월 12일 함안을 시작으로 16·17일 사천, 3월 말 김해에서 농민군이 활동하였다.<sup>40)</sup> 등록 참여자의 비중을 보면 진주와 하동이 중심이었다.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진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시군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의령	함양		합천	합계
		사천	곤양			단성	산음		함양	안음	삼가	
명	12(2)	2	2	36(6)	3	-	1	-	-	-	2	58(8)

38) 어윤중, 「宣撫使再次狀啓」, 『聚語』(김양식, 2014,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42쪽 재인용).

39) 김양식, 2014,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42쪽.

40) 김양식, 2014,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41쪽.

진주와 하동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다. 하동이 36명으로 진주진에서 활동한 58명 가운데 6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아마 고승산전투에 참여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동·진주 외에도 사천·곤양·남해·산음·삼가 등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있다. 외부에서 들어와 활동한 이들은 진주와 하동에서 활동했고, 사천·곤양·남해·산음·삼가 등에서 활동한 인물은 없었다.

9월 15일 김인배가 점령한 곤양의 접주는 김학두(金學斗)이고, 등록 참여자로서 곤양에서 활동한 2명은 김성룡(金成龍), 장학용(張鶴用)이다. 김성룡은 10월 곤양에서 포를 일으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sup>41)</sup> 장학용은 곤양 외에도 광양에서도 활약하다가 붙잡혀 12월 총살되었다. 광양현에서 붙잡힌 동학농민군의 명단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곤양 출신자 임재석(林在石)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10월 들어 동학농민군은 관군에 쫓겨 순천으로 후퇴, 22일 다시 진격해 섬거역에서 일본군·관군과 함께 싸움을 벌였다. 패한 동학농민군은 광양으로 후퇴했고 11월 10일 좌수영으로 진격했다. 16일과 20일에도 좌수영을 공격했으나 입성에 실패했다.

김인배의 처남이자, 고부봉기부터 참여하여, 전주 입성 후 순천·하동·진주 등 영호남을 아우르면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조승현(趙升鉉, 1870~1948)을 살펴보자. 김인배와 혼인한 김제조씨는 무진생으로 1868년생이다.<sup>43)</sup> 다시 말하면 조승현의 누나였다. 따라서 김인배(金仁培, 족보명 金龍培)는 조승현의 자형이 된다. 김인배의 아내인 김제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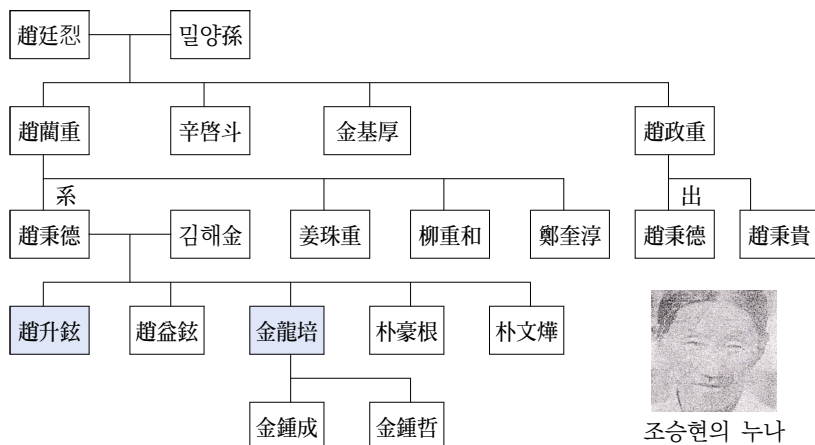
41) 『第二編 海月神師』, 『天道敎書』(『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42) 統理衙門 編, 「甲午十二月 日」,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43) 『金堤趙氏大同譜』 上卷, 檀紀4307(1974), 498~199쪽 ; 김해김씨 경파통합보소, 1991, 『金海金氏 京派統合譜』, 배영출판사, 881~882쪽 ; 김제조씨대종회 홈페이지([www.gimjecho.com](http://www.gimjecho.com)) 참조.

의 사진이 남아 있어 가계도 안에 넣었다.<sup>44)</sup> 가계도는 <표 9>와 같다.

<표 9> 조승현 가계도(『金堤趙氏大同譜』 참조)



조승현의 누나

12월 일본군·관군이 동학농민군을 광양으로 밀어붙였다. 6일 밤 김 인배는 처남 조승현을 불러 “장부가 사지(死地)에서 죽음을 얻는 것은 오직 떳떳한 일이고 다만 뜻을 이루지 못함이 한(恨)이로다. 나는 공생동사를 맹세한 동지들과 최후를 같이 할 것이니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시오”했다. 이에 조승현은 광양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고, 김인배는 부대장 유하덕(劉夏德) 등 90여 명이 붙잡혀 포살 당했다. 광양읍의 빙고등(氷庫嶺)이 당시 동학농민군 포살장이었다고 한다. 김인배의 아내이자 조승현의 누나 김제조씨는 어린 첫 아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둘째 아들을 임신한 몸으로 행상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sup>45)</sup>

진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하동이다. 이곳의 접주는 여장협(余章協)이다. 8월부터 하동의 민보군이

44)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259~260쪽.

45)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259~260쪽 참조.

반격에 나섰고 제주 여장협은 영호대도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sup>46)</sup> 이에 영호대도소 김개남(金開南)이 하동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대일항전이 시작되었다. 총대장 김인배(金仁培)와 부대장 유하덕(劉夏德)이 직접 영호대도소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 1894년 9월 1일 새벽 하동부를 점령한 동학농민군 중 김인배가 이끄는 주력부대는 5~6일 간 하동에 머물다가 진주방면으로 진격하였다. 9월 15일 곤양을 점령한 김인배는 곤양 동학농민군과 함께 진주로 향했다.<sup>47)</sup>

진주는 9월 1일 동학농민군이 조직적으로 일어나 활동하였고 8일 73개 면민 대집회를 읍내 장터에서 열고 충청대도소를 설치하였다. 17일 영호대도소 선봉부대가 진주로 들어왔고 18일 김인배가 이끄는 동학농민군도 들어왔다. 진주병사 민준호(閔俊鎬)는 진주성문을 열고 동학농민군을 맞이하였다.<sup>48)</sup>

남해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인물은 3명이다. 박용필朴(容弼), 정용태(鄭龍泰), 정원섭(鄭元燮, 1873~1945)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하동제주 여장협(余章協)의 장인이라고 하는 정원섭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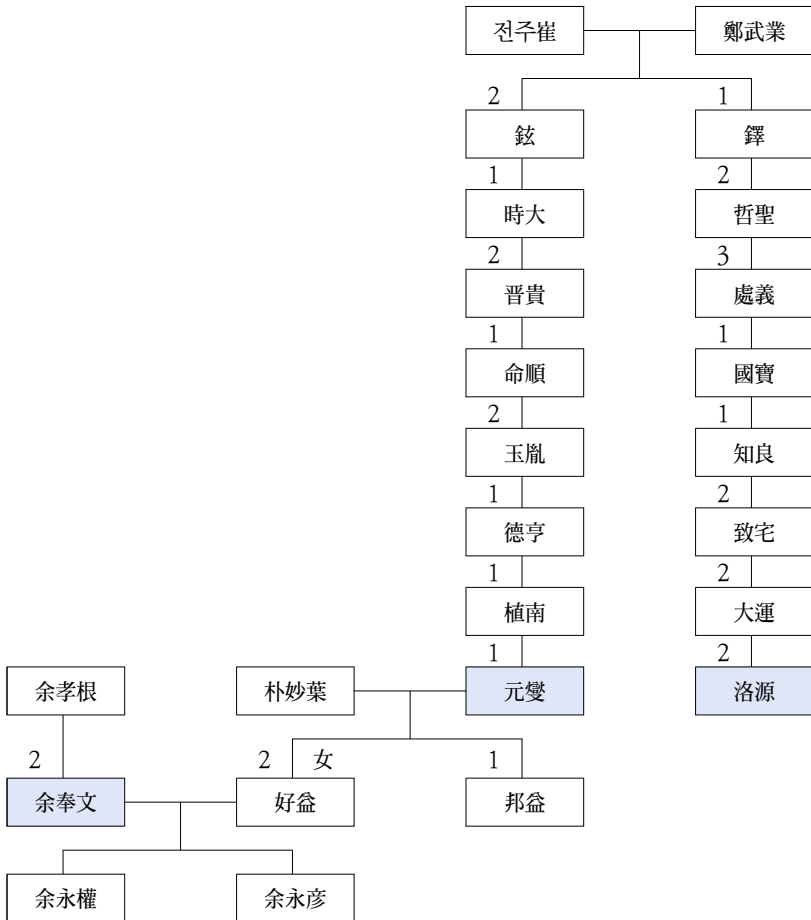
여장협(余章協)은 하동접주로 하동에서 활약한 인물이고, 하동 민보군의 반격을 받아 영호대도소에 지원을 요청한 인물이기도 하다. 의령 여씨 족보에는 정원섭의 딸 여호익이 혼인한 여봉문이 여장엽(余將燁)으로 표기되어 있다. 직권등록되어 있는 인물이 여장협(余章協)이기 때문에 여장협(余章協)이 여장엽(余將燁)과 동일 인물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동접주 여장협(余將燁)의 다른 이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장엽이 하동접주 여장협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듯하다.

46)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258쪽.

47) 김양식, 2014,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44쪽.

48) 「兵荒三之四」, 『柏谷誌』(『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표 10〉 정원섭, 정낙원 가계도(『晉陽鄭氏世譜』 참조)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하동에서 활동한 6명도 있다. 고광신(高光臣)은 광양 영호도회소 접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으나 광양 옥곡에서 하동 민보군에게 붙잡혀 처형되었다. 고광신과 함께 처형된 인물이 박정주(朴正周)·류윤거(柳允擧)·박사영(朴士永)·김백현(金伯賢)·김선준(金先俊) 등이다.<sup>49)</sup>

진양정씨 족보를 보면, 정원섭은 부인 밀양박씨와의 사이에 1남 3녀

를 두었다. 장녀인 정호익(鄭好益, 1903년생)이 여효근(余孝根)의 아들인 여봉문(余奉文)과 혼인하여 여영권(余永權), 여영언(余永彦)을 두었다고 한다.<sup>50)</sup> 제적등본에는 정호익의 아버지는 정원섭, 어머니는 박묘엽(朴妙葉)이고, 여효근의 둘째 아들인 여봉문과 혼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51)</sup> 남해 출신으로 하동에서 전사한 정낙원(鄭洛元)도 진양정씨 일가다<표 10 참고>.

진주·하동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경우, 대부분 1894년 (음)10월 14일 일본군과 벌였던 고성산전투와 관련이 된다. 이 전투는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동학농민군 즉사 186명, 생포 2명 등으로 동학농민군의 피해가 컸던 전투이다.<sup>52)</sup> 고성산 전투와 관련하여 『주한일본 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 남아있다. 1894년 11월 19일(양) 발신된 「晋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 중 별지(別紙)로 첨부된 ‘제4보고’가 그것이다.

어제 11일 오전 4시 진천을 출발하여 서쪽 30리 남짓한 곳에 있는 水谷村에 모여 있는 동학당을 공격하려고 그 마을에 갔더니, 동학당이 산과 들에 가득 차서 대략 1,400~1,500명이 있었다(그 지방 사람의 말로는 4,000~5,000명이라고 함). 8시 5분 그들이 사격해 오므로 응전하였다. 점차 攻進하여 가는데, 그들의 절반은 산위에, 나머지 절반은 산 북쪽으로 퇴거했다. 그래서 먼저 산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였으나, 산꼭대기 무벽에 의지해서 완강하게 방어했으며 또 북쪽으로 퇴거하였던 적도 다시 나와 우리의 우측을 습격했다. 10시 15분 1개 소대를 가지고 산위의 성벽으로 돌입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때에 우리 부상자는 3명이었다. 다른

49) 慶尙監司, 慶尙監營, 「甲午十二月二十八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50) 『晉陽鄭氏世譜』 卷四, 晉陽鄭氏 僉正公波大宗會, 1997, 199쪽.

51) 「정원섭 제적등본」

52)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4)晋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1개 소대로는 계속 우측 적진으로 돌입시켰다. 이보다 앞서 엔다[遠田] 중위로 하여금 1개 소대를 인솔, 좌측으로부터 적을 구축하고 그곳에 있는 적을 격파하여 드디어 적의 배후에 이르러 적군을 격멸 소탕케 하였다. 오전 11시 대오를 수습하였다. 적은 서북쪽 덕산(지리산 쪽)을 향하여 패퇴하였다. 계속 이를 추적했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가까운 마을에는 유기된 부상자가 있을 뿐이었다.<sup>53)</sup>

뒤이어 일본군 부상자와 동학농민군 즉사자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일본군 제4중대 상등병 다카하시 센지[高橋淺次] 우측흉부 총상, 일등졸 오노야마 우시마쓰[小野山丑彌] 대퇴전하부 총상, 후지모토 겐사에몬[藤本源左衛門] 척골골절이었다. 부상이 있었을 뿐 일본군에서 전사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동학농민군은 즉사 186명, 생포 2명(토포사에게 인도), 화약 30관(사용할 수 없게 처분), 조선돈 6관 790문, 말 17두, 소 2두, 가마니 1개, 쌀 5두는 현지에서 사용하고, 아마바시[今橋] 소좌에게 보낸 9개 물품은 총 136정, 칼 18자루, 나팔 3개, 큰북 3개, 기(旗) 3기, 화살 2다발, 탄환 5관, 동제화분 5개, 창 54자루였다.<sup>54)</sup>

이 전투에서 부자간, 형제간 참전한 사례도 꽤 많다. 진양하씨 집안의 인물들인 하수태(河壽泰)와 같은 마을 출신인 하성원(河聖源)·하성하(河聖夏)·하성기(河聖基) 삼형제, 사천 동학농민군으로 고성산전투에서 전사한 육상규(陸相奎)·육병명(陸炳明) 부자(父子), 윤상준(尹相俊)·윤상선(尹相善) 형제, 양태환(梁台煥)·양기환(梁箕煥) 형제, 신관오(申寬梧)·신관준(申寬俊) 형제 등이 그러하다.

53)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_(4)晋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54)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_(4)晋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 IV. 창원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창원진은 김해·고성·웅천·칠원·함안·진해·거제를 포함한 지역을 일컫는다. 전라도와 접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홍묵이 남긴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에 근거하여 고성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군이 포착될 뿐이다.

〈표 11〉 창원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시군	창원	김해	고성	진해		함안		거제	합계
				진해	웅천	칠원	함안		
명	-	1	8	-	-	-	-	-	9

김해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김동명(金東明)이 유일하다. 김해접주로서 동학농민군 활동에 나섰던 인물이다.<sup>55)</sup> 같은 자료에 “동(叻) 송

〈표 12〉 창원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金東明	?~?	김해			접주
2	姜渭弼	?~?	고성			접주
3	金相憲	?~?	고성			
4	金日洙	?~?	고성			
5	朴奎信	?~?	고성			
6	朴文璣	?~?	고성			
7	李應道	?~1894	고성			접주
8	鄭大權	?~1894	고성			
9	崔應七	?~?	고성			

55) 康弼道,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遭難」,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문수(宋文洙)”라고 적힌 것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소”은 앞의 “김해접주”로 판단되지만, 접주가 2명인 것인지 아니면 “접주”라는 표현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성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은 8명이다. 강위필(姜渭弼)과 김일수(金日洙)는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9)에서 그 이름이 확인된다. 김상헌(金相憲), 박규신(朴奎信), 박문기(朴文璣), 이응도(李應道), 정대권(鄭大權), 최응칠(崔應七) 등 6명은 오형묵이 남긴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최응칠을 장두(狀頭)로 삼아 1894년 9월 13일 고성에 들어가 포랑미를 수송하였다. 관군의 추격을 받고 잡히지 않은 인물은 김상헌·박규신이고 4명은 모두 잡혔다. 박문기는 수감되었고, 이응도·정대권은 진주에서 총살되었다. 장두였던 최응칠은 진주가 아니라 통영에 수감되었다.

창원진은 경상우도의 상주진·성주진·진주진에 비해 동학농민군 관련 기록이 많지 않다. 하지만 창원부사 이종서(李鍾緒)가 소모사로 임명된 점, 오형묵이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을 남긴 점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맺음말

본문에서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았다. 등록된 경상우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후손들의 신청보다는 대부분이 ‘직권등록’된 경우였다. 227명 중 192명이 ‘직권등록’된 인물들로 약 84.6%를 차지한다. 유족들이 신청한 경우는 3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마 동학농민군에 대한 활동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경상좌·우도로 구분하면, 경상좌도보다는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전라도·충청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227명 가운데, 경상우도에도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이 186명(81.9%), 시군 미상인 30명(13.1%), 경상좌도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이 11명(4.8%)이다. 전라도와 충청도와 접경지역인 상주진과 진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경상우도의 경우에는 상주진과 진주진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 참여자의 등록 숫자가 더 많았던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료가 경상도의 다른 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에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등록 참여자의 연령을 살펴보자. 참여 당시 연령이 확인되는 인물은 40명인데, 10대 2명, 20대 12명, 30대 12명, 40대 1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김현영은 40대, 편보언은 30대, 전기항은 60대, 김인배가 20대였다. 245명 가운데 40명만 확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0대, 30대, 40대가 중심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경상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을 살펴면서 부족한 점도 드러났다.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혈연·지연은 물론 연비·연원이라는 동학조직의 관련성도 있어 보이지만 짐작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유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사례보다 직권등록된 경우가 많아 생물연대는 물론, 동학농민군 참여 사실을 밝히는 데에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된 인물 가운데 가운데 천도교에 들어가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이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권병덕의 사례가 그러하다.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거나 관련 내용에 언급된 인물을 살필 경우는 국가보훈부 혹은 독립기념관 등 기관과 연계하

여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 앞으로도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많이 등록되길 기대해 본다.

투고일 : 2025. 10. 9. 심사완료일 : 2025. 10. 30. 게재확정일 : 2025. 11. 10.

## 참고문헌

### 〈1차 사료〉

『선조실록』

『세조실록』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響山日記』

「판결문」

「형사사건부」

金重默(김봉동의 아들), 2016, 「遜山處士茶村公事蹟」, 『桃巖世稿』, 엔코리안(주).

金瑣祚, 2007, 『桃巖世傳(필사본)』, 檀紀4340.

『仁川蔡氏大同譜』

『金堤趙氏大同譜』.

長水黃氏少尹公派譜所, 1981, 『長水黃氏世譜』, 譜典出版社.

김해김씨 경파통합보소, 1991, 『金海金氏 京派統合譜』, 배영출판사.

晉陽鄭氏 僉正公波大宗會, 1997, 『晉陽鄭氏世譜』 卷四.

### 〈단행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甲午軍功錄」,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a, 「甲午軍政實記」,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a,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a, 「東學道宗繹史」,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別啓」,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世藏年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b, 「召募事實(金山)」,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召募事實(尙州)」,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b, 「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b, 「侍天敎宗繹史」,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天道敎書」,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 〈연구논문〉

김양식, 2014,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제26호,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37~62쪽.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제12호, 동학학회, 181~224쪽.

신진희, 2024,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진희, 2025,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동학농민혁명 연구』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진희, 2016,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원섭, 2022, 「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제40집, 한국종교학연구회, 91~115쪽.

### 〈기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김제조씨대종회 홈페이지([www.gimjecho.com](http://www.gimjecho.com))

〈부록 1〉 상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姜萬哲	?~1894	상주	.	.	.
2	姜善甫	?~1894	상주	.	.	포도대장
3	姜弘伊	?~1894	상주	.	.	.
4	具八先	?~1894	상주	.	.	접사
5	權秉惠	?~?	상주	보은	청주	.
6	權和汝	?~?	상주	.	.	.
7	權和一	?~1894	상주	.	.	.
8	金福孫	?~?	상주	.	.	.
9	金順五	?~1894	상주	.	.	.
10	金項羽	?~?	상주	.	.	.
11	金京俊	?~1894	상주	.	.	.
12	金奎培	1874~1945	상주	보은	.	.
13	金達文	?~1894	상주	.	.	.
14	金順汝	?~1894	상주	청산	.	.
15	金哲命	?~1894	상주	.	.	.
16	金顯東	1850~1894	상주	보은	.	.
17	金顯揚	1864~1945	상주	.	.	.
18	金顯榮	1849~1911	상주	보은	.	대접주
19	南戒一	?~1894	상주	.	.	.
20	南戎一	?~1894	상주	.	.	.
21	南眞甲	?~1894	상주	보은	.	.
22	李觀永	?~?	상주	.	.	상공대접주
23	李圭三	?~1894	상주	.	.	접주
24	李道生	?~1894	상주	.	.	.
25	李得伊	?~1894	상주	.	.	.
26	李用卜	?~1894	상주	.	.	.
27	李義城	?~1894	상주	.	.	.
28	李太平	?~1894	상주	.	.	.
29	李化春	?~1894	상주	.	.	접주
30	朴起奉	?~1894	상주	.	.	.
31	朴方乙	?~?	상주	.	.	.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32	朴時昌	?~?	상주	.	.	.
33	朴昌鉉	?~1894	상주	.	.	.
34	朴和實	?~1894	상주	.	.	.
35	朴孝植	?~1894	상주	.	.	.
36	裋春瑞	?~1894	상주	.	.	.
37	徐致大	?~1894	상주	.	.	접사
38	孫德汝	?~1894	상주	.	.	.
39	辛光瑞	?~?	상주	.	.	접주
40	安致瑞	?~?	상주	.	.	.
41	億孫	?~1894	상주	.	.	.
42	嚴用汝	?~?	상주	.	.	.
43	俞鶴彦	?~1894	상주	.	.	.
44	尹景五	?~1894	상주	청산	.	.
45	尹光周	?~?	상주	.	.	접주
46	張判成	?~1894	상주	.	.	.
47	全明叔	?~1894	상주	청산	.	.
48	全五福	?~1894	상주	.	.	.
49	鄭奇福	?~?	상주	.	.	접주
50	鄭順汝	?~1894	상주	.	.	접주
51	鄭汗	?~?	상주	.	.	.
52	趙君涉	?~?	상주	.	.	.
53	趙南奎	1867~1947	상주	.	.	접사
54	趙曰京	?~1894	상주	.	.	충경집 편의장
55	趙仲僉	?~?	상주	.	.	접주
56	崔善長	?~1894	상주	.	.	.
57	崔仁叔	?~1894	상주	청산	.	.
58	朴性西	?~?	함창	.	.	.
59	朴性善	?~?	함창	.	.	.
60	金鳳東	1862~1947	구미	.	.	.
61	韓文出	1848~1929	구미	.	.	.
62	韓貞教	1879~1940	구미	.	.	.
63	申斗文	?~1894	선산	.	.	.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64	姜 榮	?~1894	김산			접주
65	康柱然	?~?	김산			접주
66	權學書	?~?	김산			접주
67	金奉伊	?~1894	김산			.
68	金定文	?~?	김산			접주
69	金致云	?~?	김산			.
70	金太和	?~?	김산			.
71	南聖元	?~1894	김산			.
72	南廷薰	?~1894	김산			.
73	裊君憲	?~?	김산			접주
74	李守元	?~1894	김산			.
75	李麟吉	?~1894	김산			.
76	李柱一	?~?	김산			수접주
77	張箕遠	?~?	김산			접주
78	張正用	?~?	김산			.
79	曹卜用	?~1894	김산			.
80	曹舜在	?~?	김산			접주
81	崔福只	?~1894	김산			.
82	片白現	?~1894	김산			.
83	片甫彦	1856~1894	김천			도집강
84	蔡洪禹	1857~1894	문경	예천		
85	黃基用	1867~1923	문경	예천		
86	高商武	?~1894	예천			부접주
87	高俊一	?~?	예천			.
88	權景咸	?~?	예천			접주
89	權順文	?~?	예천			접주
90	金魯淵	?~?	예천			접사
91	朴來憲	?~?	예천			접주
92	朴顯聲	?~?	예천			접주
93	安國辰	?~?	예천			.
94	尹尙明	?~1894	예천			.
95	尹致文	1863~1894	예천			.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96	李正浩	?~1894	예천	.		.
97	李宗海	?~1894	예천	.		.
98	張卜極	?~1894	예천	.		접사
99	全基恒	1827~1900	예천	문경		모량도감
100	鄭明彦	?~1894	예천	.		접사
101	趙成吉	?~?	예천	.		접주
102	崔孟淳	?~1894	예천	.		관동수접주
103	崔用鶴	?~?	예천	.		.
104	崔元白	?~?	예천	.		.
105	崔汗杰	?~1894	예천	.		.

〈부록 2〉 진주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金達德	?~1894	진주	.		
2	金昌奎	?~?	진주	.		
3	金卷順	?~1894	진주	.		
4	金性大	?~1894	진주	.		
5	金昌慶	?~1894	진주	.		
6	林石俊	?~1894	진주	.		
7	朴在華	?~?	진주	.		
8	白弘錫	?~1894	진주	.		
9	孫殷錫	?~?	진주	.		접주
10	全熙淳	?~?	진주	.		
11	崔學元	?~1894	진주	.		
12	河聖夏	1849~?	진주	하동		
13	李斗元	?~?	사천	.		도집
14	林在石	?~1894	사천	광양		
15	金成龍	?~?	곤양	.		
16	張鶴用	?~1894	곤양	광양		
17	姜夢生	?~1894	하동	.	.	증정
18	姜五元	?~1894	하동	.	.	증정
19	金敬連	?~1894	하동	.	.	대정
20	金旦桂	?~1894	하동	.	.	증정
21	金命完	?~1894	하동	.	.	대정
22	金性在	1870~1932	하동	.	.	.
23	金在禧	?~1894	하동	.	.	.
24	金學斗	1849~1921	하동	.	.	접주
25	金華順	1862~1896	하동	.	.	.
26	柳允學	?~?	하동	.	.	.
27	朴士永	?~?	하동	.	.	.
28	朴正周	?~?	하동	.	.	.
29	白道弘	?~?	하동	.	.	대접주
30	成洛周	1854~1894	하동	.	.	.
31	申寬梧	1856~1899	하동	.	.	.

번호	이름	생몰연대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32	申寬俊	1861~1894	하동	.	.	.
33	梁箕煥	1871~1906	하동	.	.	.
34	梁台煥	1861~1894	하동	.	.	.
35	余章協	?~?	하동	.	.	.
36	邕方奎	?~?	하동	.	.	.
37	陸炳明	1874~1894	하동	.	.	.
38	陸相奎	1854~1894	하동	.	.	.
39	尹相善	1872~?	하동	.	.	.
40	尹相俊	1854~1894	하동	.	.	.
41	全伯賢	?~?	하동	.	.	.
42	鄭洛元	1867~1894	하동	.	.	.
43	趙性仁	?~1894	하동	.	.	중정
44	趙升鉉	1870~1948	하동	진주	광양	.
45	崔璣鉉	1873~1895	하동	.	.	.
46	崔蒙元	?~1894	하동	.	.	대정
47	崔聖俊	?~1894	하동	.	.	대정
48	崔鶴權	?~1894	하동	.	.	집강
49	河聖基	1855~1932	하동	.	.	.
50	河聖源	1842~1894	하동	.	.	.
51	河壽泰	1861~1894	하동	.	.	.
52	韓明善	?~1894	하동	.	.	대정
53	朴容弼	1854~1939	남해	.	.	대정
54	鄭龍泰	?~?	남해	.	.	.
55	鄭元燮	1873~1945	남해	.	.	.
56	金壽碩	?~1894	산청	하동	.	.
57	高百俊	?~1894	삼가	.	.	.
58	高汝眞	?~1894	삼가	.	.	.

## 〈Abstract〉

# Current Status of Registration of Participants in Donghak Peasant Army in Gyeongsang-right-do

Shin, Jin-Hui\*

This study examine the registration status of Donghak Peasant Army participants who were active in Gyeongsang-right-do. During the Joseon Dynasty, Gyeongsang-do was divided into left and right roads, the status of registration as a participant in Donghak Peasant Army in Gyeongsang-right-do is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ore cases of 'authority registration' than applications from descendants. 227 people were registered, 192 people were 'authority registered', accounting for about 84.6%. Second, there were more registered participants in Gyeongsang-right-do than in Gyeongsang-left-do. This may be because it borders Chungcheong-do and Jeolla-do. Third,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re active in Sangju-jin and Jinju-jin in Gyeongsang-do.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historical data related to this place.

There was also something I felt sorry for. Because there are many "authority registrations," the descendants are often not identified.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see the data that descendants can provide. It seems to be related to the Donghak organization in addition to blood ties and regionalism. However, there is not enough historical data to clarify. It is not enough to reveal the case of Donghak Peasant

---

\*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Army in 1894. I look forward to it being revealed in the future.

**Key word** : Gyeongsang-right-do, Donghak Peasant Army, Authority registered, Sangju-jin, Jinju-jin

##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과 성격 - 발굴·등록된 참여자를 중심으로 -

김양식\*

###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출생과 사망

I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 지역과 활동

III.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삶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3,903명 중 충청도에서 활동한 1,22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다. 이 연구는 참여자의 생몰연대, 본적지, 활동지역, 활동 내용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충청도 동학농민군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충청도 동학농민군의 주축은 30대 전후의 청장년층으로, 출생 연도가 확인된 참여자 중 1860년대생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사망은 1894년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집중되었는데, 사망자 728명 중 82.1%가 그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은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및 정부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10월부터 11월에 집중적으로 희생되었다.

활동 지역의 경우, 참여자의 94%가 충청도 내에서만 활동했으며, 충남 지역의 참여자가 충북보다 3.6배 많았다. 충남은 천안권, 내포권, 공주권으로 나뉘어 각 지역의 특징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충청도와 인접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등 타 지역과 연계해 활동하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참여자는 131명이다. 이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거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학·천도교 활동을 이어가 3.1운동에 참여한 예가 많았으나, 숫적으로는 고향을 등지거나 숨어지내며 가난과 삶의 역경을 이겨낸 참여자가 훨씬 많았다. 그 때문에 참여자들의 후손 역시 ‘역적의 자식’으로 불운하게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가난한 삶을 이어간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일은 과거에 대한 현재의 보답이 아닐 수 없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군, 충청도, 참여자, 3.1운동

##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지만, 그 실상이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음지에 있었을 뿐 아니라, 역적의 자식으로 살아온 후손들 역시 선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행히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해 9월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는 특별법이 개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2024년 12말 현재 등록된 참여자는 총 3,903명으로,

그 가운데 충청도에서 활동한 참여자는 총 1,228명이다. 그 가운데 1차 등록 149명, 2차 등록 15명, 직권등록 1,064명이다. 충청도에서만 참여한 동학농민군 외에 타지역 출신으로 충청도에서도 활동한 참여자도 포함하였다. 한 예로 전봉준의 경우 주로 활동한 지역이 전라도이지만 충청도에서도 활동하여 충청도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공한 참여자 등록 엑셀파일을 분석하였다. 이 파일에는 참여자의 생몰연대·본적·활동지역·활동내용 등 다양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한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되,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은 참여자 관련 자료나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정성적인 접근을 하였다.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관한 분석은 이미 충남지역 참여자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바가 있다.<sup>1)</sup>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충남 외에 충북지역까지 포함해 2024년 12월말까지 발굴·등록된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현황과 특징에 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공한 엑셀 파일만을 이용한 점, 2024년 12월말까지 발굴·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상의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더욱이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이미 알려진 참여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분석내용은 한 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연구상의 한계를 전제로 함을 미리 밝혀둔다.

---

1) 정을경, 2022, 「혁명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충남지역 동학농민군 분석을 통해」, 『동학학보』 61.

# 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출생과 사망

## 1. 출생

충청도 참여자 1,228명 가운데 출생연도가 밝혀진 인물은 22.6%이다. 그 가운데 최고령자는 1821년생 임재수이다. 임재수는 충북 단양 출신으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1895년 3월에 장 일백에 삼천리 유배형을 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73세였던 임재수가 단양 출신이라는 점이다. 단양은 충청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이 전파된 곳이다.

단양에 동학이 알려진 것은 수운 최제우가 활동하던 1860년대 초부터이다. 단양에 사는 민사엽은 1862년 12월에 동학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 해월 최시형은 1871년에 경상도 영해에서 일어난 이필제난 이후 삼엄해진 감시망과 동학에 대한 탄압을 피해 영춘·영월·정선 등지로 옮겨다니면서 비밀포교지를 만들고 동학을 은밀히 전파할 수 있었다. 한때 최시형은 단양 정석현 집에서 이름을 숨기고 머슴살이를 하다 정선으로 거처를 옮긴 일도 있었다.

해월은 보다 안전한 곳을 찾던 중, 영춘 장현곡에서 1872년 3월부터 1874년 1월까지 약 2년간 머문 뒤 단양 대강면 도솔봉 밑에 있는 절골〈寺洞, 현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로 1874년 4월초에 이사하였다. 이 때부터 동학은 점점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해월이 머무르는 절골은 점점 동학도들로 넘쳐났다. 동학 조직도 해월 중심의 단일지도 체제가 자리잡고 날로 확대되었다. 동학도인 역시 점점 늘어났다. 해월은 더 넓은 숙소가 있는 이웃 마을인 송고(일명 새두둑, 현 단양군 대강면 신구리)로 1875년 2월에 옮겨살았다.

이 때부터 동학에 대한 입소문이 크게 나면서 동학도인 역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해월을 찾아와 동학 수도절차를 묻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러자 해월은 1880년 6월에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고,

다음 해 1881년에는 단양 남면 천동(샘골)에 사는 여규덕의 집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학은 점차 충청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1883년경에 이르면 청주, 충주, 청풍, 괴산, 연풍, 진천, 공주 등지에서 동학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1880년 전후 단양은 동학이 충청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였는데, 이때 단양과 청풍 등지에서 해월과 함께 활동한 인물이 성두한의 아버지 성종연, 강차주(강수), 전중삼, 김봉암 등이다. 성종연·강차주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성종연의 경우 그의 아들 성두한을 비롯해 성두한의 6촌형제들까지 동학에 가입시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충북 북부지역 4군의 동학농민혁명은 1880년대부터 조직화된 동학을 배경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sup>2)</sup>

이처럼 단양 출신 임재수를 비롯해 1820년대생을 시작으로 그 이후 출생자들이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는데, 1830년대생은 12명, 1840년대생은 28명, 1850년대생은 79명, 1860년대생은 98명으로 점점 많아졌다. 그러다 1870년대생은 54명, 1880년대생은 1명으로 급감하였다. 1880년대생 1명은 1880년에 전북 여산에서 출생한 이상우로, 전라도 여산 마산도소에서 봉도에 임명되어 각종 문서 대필업무를 담당하였고 논산 황학대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이것으로 보아 충청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은 1860년대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850년대생이었다. 1850~60년대생이 출생연도를 알 수 있는 동학농민군 277명 가운데 63.9%에 이른다. 이들은 1894년에 25~45세로, 30대 전후의 청중년층이 동학농민군의 주축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850년대생인 서장옥, 박인호, 김연국, 임기준, 1860년대생인 손병희, 문장준 등이다.

---

2) 신영우, 2016, 「성두한과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충북학』 18, 29~30쪽.

이들의 충청도 출생지역은 다양하였다. 본적이 확인 가능한 참여자는 모두 171명이다. 그 가운데 충남 103명(태안 26명, 서산 25명, 예산 14명, 공주 10명, 아산 7명, 논산 6명, 금산·홍성 각 4명, 서천 3명, 부여 2명, 천안 1명), 충북 28명(청주 10, 옥천 6명, 보은 4명, 괴산·음성·진천·영동 각 2명), 충청도 1명이다. 나머지는 강원도 4명, 경기도 5명, 경북 3명, 서울 3명, 전북 13명 등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이 활발히 활동하던 지역일수록 충청도를 본적으로 한 참여자가 많았다. 동학농민혁명기 충청지역은 2월부터 모든 지역으로 동학이 확산되고 6월 하순 일본의 경북공 점령과 청일전쟁을 계기로 동학도들이 봉기하였을 뿐 아니라, 9월 동학교단의 기포령에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학도들이 총봉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본적이 충청도 전역에 걸쳐 있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태안·서산·예산지역에서 출생한 참여자의 등록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활발히 전개된 데다 참여자의 회고록이 남아 있고 1965년에 천도교 태안교구에서 작성한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교자 명단』이 이른 시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충북 북부지역은 성두한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활동한 참여자로 등록된 인원은 단양 성두한·김선달, 충주 김성철, 제천 김영진, 영춘 박명수, 청풍 황거복 등 모두 43명이나, 본적이 충청도로 명시된 참여자는 한 명도 없다. 그 이유는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충주에서 활동한 홍순옥(1868년생, 1차 등록) 외에는 42명 모두 기록에서 확인되는 참여자를 직권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즉, 참여자의 유족 신청으로 등록된 참여자가 없다. 앞으로 충북 북부지역 참여자 유족을 적극 찾아낼 필요가 있다.

## 2. 사망

충청도 참여자 1,228명 가운데 사망연도가 확인되는 인원은 728명으로 절반이 약간 넘는 59.2%이다. 그 가운데 1894년에 사망한 참여자는 사망연도가 확인되는 728명 가운데 82.1%인 597명에 이른다. 동학농민혁명 와중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은 것은 실제 전투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전투 이후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나,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기록물이나 족보·제적부 등에서 사망연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망연도 현황

연도	1894	1895	1896 ~99	1900 ~09	1910 ~09	1920 ~19	1930 ~39	1940 ~49	1950 ~59	1960 ~69	1970 이후	불명
인원	597	31	7	16	13	16	16	19	9	3	1	500

1894년에 사망한 시기는 동학농민군 2차 봉기가 시작된 9월 10명, 10월 168명, 11월 224명, 12월 156명이다. 이는 충청지역 전투가 주로 10월부터 11월에 집중되었던 일련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0월 21일 천안 세성산전투에서 수백명의 동학농민군이 전사하였고, 10월 28일 홍주성전투 역시 수백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 9일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동학농민군이 퇴각하면서 벌어진 논산 황학대전투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망시기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표 2〉 1894년에 사망한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사망시기

월	3	4	5	6	7	8	9	10	11	12	불명
인원	0	1	0	1	1	0	10	168	224	156	36

1894년 9월 이전에 사망한 참여자는 소수인데, 4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나방환이다. 그는 4월에 서천지역에서 김제로 이동하여 활동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는 금강이 바라보이는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출신으로, 4월 2일 집을 나가 김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지역에서도 이미 무장기포가 일어나는 무렵부터 농민군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었다. 특히 남접과 기맥이 통하고 있던 서장옥이 이끈 것으로 추정되는 진잠, 보은, 옥천, 영동, 금산 등지에서 활발하였다.

그러나 북접 동학교단에서는 남접에 호응하여 기포하는 행위를 엄단하였다. 이 때문에 충청지역의 농민군들 가운데는 전라도로 내려와 농민군 주력부대와 합세하는 자들이 많았다. 나방환도 이 무렵 인근의 농민군들과 함께 전라도로 내려 갔다가 그 곳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을 전후한 시기는 농민군 주력부대가 고부, 태인, 금구 등을 휩쓸고 있을 때였으며, 인근한 지역에서도 농민군들과 관군의 충돌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sup>3)</sup> 나방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서천지역에서도 금강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문사형이다. 그는 6월 15일 홍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주를 비롯한 내포지역은 2월 6일 일어난 덕산 농민봉기를 계기로 동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서산 같은 경우 2월 이후 한 두 달 사이에 서산 일군이 거의 동학화가 되었을 정도이다.<sup>4)</sup>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승승장구하던 4월 초순에 충남 진산·이인·회덕·목천과 충북 옥천·청산·보은 등지에도 동학도들이 집결해 있었다. 충청도 곳곳에서 동학도들이 활동하였으나, 지방관들은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었다. 내포지역에서도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4월 9일에는 동학을 음해하고 재물을 수탈하던 서산의 이진사를

3) 역사문제연구소, 1997,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역사비평사.

4) 洪鍾植, 1929, 「동학과 동학란」, 『신인간』 34.

혼내준 사건이 있었다. 내포지역 동학은 날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동안 묶고 쌓인 폐단들이 하나 둘 바로잡혀가고 있었다. 실제 그 무렵 내포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본 상인은 내포 주민 절반 이상이 동학도였고, 동학에 대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5월에 들어와 충청도지역은 전라도와는 달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충청감영과 병영에서 관군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동학도를 단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사형도 홍주지역에서 활동하다 6월 15일 경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7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기병석이다. 실제 그는 11월 홍성지역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7,8월 홍주지역은 동학의 세상이 되다시피 하여 전사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병석의 사망월은 11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94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연도는 1895년이다. 모두 31명이 1895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가운데 19명이 1월에 사망하였다. 나머지 12명 역시 2~4월에 사망한 참여자가 성두한을 비롯한 10명, 12월이 1명, 불명이 1명이다. 12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태안 출신의 장학성인데, 그는 체포되어 옥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불명 1명은 최만식으로 전북 김제 출신이다. 성두한은 사망월이 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전봉준 등과 재판을 받고 3월 30일 처형되어 2~4월에 사망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1894년 12월에서 1895년 초에 사망한 경우는 실제 전투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보다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관군이나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단적인 예로 전라도 남원의 경우에도 사망자 대부분은 정부군이나 일본군이 떠나간 12월 5일 이후 다음해 초까지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5)</sup> 이

---

5) 남원군 천도교구, 1923, 『殉教略歷』.

때문에 충청지역 동학농민군 역시 1894년 12월에서 다음 해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았다.

1896~1899년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6명이다. 그 가운데 4명은 1898년에 사망한 참여자이다. 그 가운데에는 서산지역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뒤 자결한 권옥련,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피신 중 마을사람의 밀고로 관군에 체포되어 처형된 문영목, 충북 문의에서 도소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서상열, 그리고 1898년에 원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해월 최시형이 있다. 이 시기에 최시형을 비롯한 2명이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황국협회를 동원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킨 대한제국 정부는 더 한층 황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닉한 동학농민군들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존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 참여자 현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년대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기간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은 것은 1900년에 사망한 참여자가 서상호, 서장옥, 손천민, 손영오, 이원팔 등 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서장옥, 손천민, 이원팔은 관군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된 참여자로서, 모두 북접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대접주들이다. 이 역시 1898년부터 강화된 생존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1900년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참여자의 사망연도가 집중되는 것은 1910년대 13명, 1920년대 16명, 1930년대 16명, 1940년대 19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다 감소하였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노환에 따른 자연사이다. 동학농민군들이 1880년 전후 출생자가 많은 만큼, 1940년에 이르면 60세 전후이기 때문에 당시의 평균수명이 40.5세였던 것을 놓고 볼 때 이 시기에 사망연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1950년대 이후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13명이다. 모두 장수한 참

여자들이다. 심지어 참여자 엄이경은 1875년생으로 1985년에 돌아가셨을 정도로 111세 천수를 누리고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1910년대 이후 사망한 참여자 대부분은 유족의 참여자 신청으로 등록된 참여자들이다. 그 이유는 늦게까지 생존하시어 후손들에게 구전을 전할 시간이 많았고 후손들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 I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 지역과 활동

### 1.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참여자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충청도에서만 활동한 참여자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라도와 강원도·경상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참여자도 포함하였다. 그 가운데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참여자는 충청도 120명, 충남 808명, 충북 226명 총 1,154명으로 전체의 94%에 이른다.

충남지역이 충북보다 3.6배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충남은 1894년 10월 세성산전투, 이인전투, 예산전투, 홍주성전투, 11월 공주 우금치전투, 논산전투, 한산·서천전투 등 동학농민군 희생이 컸던 대규모의 전투가 많았을 뿐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어 참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충북은 9월 청주성전투, 10월 괴산전투, 충주 안보전투, 11월 김개남부대의 청주성전투, 12월 보은 복실전투가 있었을지라도 관련 기록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에서 전개된 전투에 참여하였던 동학농민군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직권 등록된 참여자가 소수이다.

〈표 3〉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지역

지역	충청도	충남	충북	전라도	전북	전남	경북	경기도	강원도	계
충청도	120									120
충남		808	2		2			2		814
충북		2	226	1	1	1	13			244
전라도	1									1
전북	1	17	2							20
전남	1	1	2							4
경북			10							10
경기도	4		6							10
강원도			5							5
계	127	828	253	1	3	1	13	2		1,228

충북지역 참여자 분포 현황은 〈표 4〉와 같다. 충북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참여자는 226명으로, 충북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보은 > 청주 > 옥천 > 충주 > 청산 순으로 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충북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현황

지역	괴산	단양	문의	보은	영동	영춘	옥천	음성	음죽	제천
인원	5	2	8	62	11	5	29	12	3	4
지역	진천	청산	청안	청주	청풍	충주	황간	회인	계	
인원	5	16	3	46	3	25	1	7	247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었던 충북 보은·청주 등지는 10월 20일 전후에 주로 체포되어 사망하였다. 그 이유는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과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이 제일 먼저 충북지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두황이 이끄는 1천여 명의 장위영부대는 10월 9일 죽산을 출발하여 10월 11일 청주성에 도착하였다. 경리청부대도 전날 청주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청주병영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북접 동학농민군의 근

거지인 보은 장내리를 조속히 초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0월 13일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과 경리청·진남영 병대는 보은 장내리로 총출동하여 14일 장내리를 초토화하였다. 손병희가 기거하면서 북접농민군 대도소로 사용하던 큰 기와집과 400여 채의 초막, 수백호의 민가는 모두 불탔다. 다행인 것은 장내리에 집결해 있던 북접농민군이 정부군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 장내리를 떠나 옥천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에 따라 공주 충청감영이 위급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이두황부대는 10월 16일 보은을 출발해 목천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정부군이 휩쓸고 간 충북지역은 또다시 일본군이 진입하였다. 일본군 후보보병 제19대대 3개 중대는 10월 15일(양 11.12) 용산을 출발해 계획대로 작전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충북지역으로 출병한 일본군은 용인→죽산→청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남하하는 일본군 중로군과 이천→장호원→충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오는 일본군 동로군이였다. 서로군은 수원을 거쳐 천안→공주로 향하였다.

일본군 동로군은 예정대로 10월 19일 충주 가흥에 도착하여 10월 24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강원도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이동하였다. 그 이유는 충주지역의 경우 9,10월 충주지역 가흥과 안보 병참부 소속 일본군들이 어느 정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두한을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들이 강원도로 이동한 데다 강원도 홍천 등지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규모가 확대되어, 일본군 동로 중대는 강원도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충북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을 한 일본군 후보보병은 중로군이였다. 중로군은 미나미 고시로가 이끄는 후보보병 제19대대 본부와 제3중대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군대였다. 병력 규모도 조선의 교도중대 316명을 포함해서 총 520명에 이르렀다. 중로군은 10월 22일 진천에 도착해서 청주→문의→옥천을 거쳐 11월 10일 금산으로 이동할 때까지 17일간 충북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

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일본군 중로군은 충북지역에서 체류한 17일 가운데 6일이나 문의에 머물 정도로 청주 주변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4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10월 26일 있었던 문의 지명전투는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이끄는 중로군이 직접 전투를 벌였을 정도이다. 문의 지명전투는 미나미가 직접 지휘한 중로군 본대의 첫 전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군 후비보병 중군은 공주 우금치전투가 끝난 11월 10일이나 가서야 금산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충북 중부지역은 충청병영인 진남영 소속 관군이 지속적으로 활동한 데다 10월에 정부군과 일본군이 연이어 진군하여 많은 동학농민군의 희생이 있었던 반면, 북부지역은 약간 다른 양상이었다.

9월 27일 새벽 6시 2천명의 동학농민군이 충주 안보병참부를 기습 공격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의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이 본격화되었다. 우선 일본군 송파병참부 주둔병 20명이 지원병으로 9월 29일 가흥병참부에 도착한 뒤, 10월 1일 청풍지역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화력이 부족한 동학농민군은 패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쓰러졌다. 성두한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도 단양→제천→영춘을 거쳐 강원도로 후퇴하였다.

동학농민군이 떠나간 청풍지역에는 또다시 일본군이 진군하였다. 서울에서 10월 15일 출발한 일본군(후비보병 제19대대 제1중대 동로 분견대) 200명 병력이었다. 이들은 10월 19일 충주 가흥에 도착하자마자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수색하여 초토화시켰다. 먼저 충주 소태면 동막마을 동학 근거지를 소탕한 뒤 청풍으로 이동, 동학 지도자와 참여자를 찾아내 학살하고 집을 불태우는 등 철저히 보복하였다.

충북 북부지역은 일본군에 뒤이어 지역유생들이 조직한 민보군에 의해 또다시 철저히 파괴되었다. 제천 유생 서상무 등이 조직한 민보군은 11월 24일 성두한의 사촌인 성운환의 거점인 청풍 학현을 기습하여 13명을 총살하고 충주 적곡으로 가 성두한의 아버지 성종연을 체포하였

다. 뒤이어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생촌전 마을로 이동하여, 동학농민군 20여 명을 총살하고 불을 질러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 그리고 성두한의 아들과 처를 붙잡아 제천 감옥에 가두었다. 성두한은 어디선가 체포되어 1895년 2월 21일경 서울로 압송되어 전봉준 등과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sup>6)</sup>

이처럼 충북 북부지역은 중부지역과 달리 민보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많이 희생된 점이다. 이는 충북 남부지역, 즉, 영동, 황간, 청산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 점은 후술할 것이다.

충남지역 역시 지역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충남지역은 충북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다. 이들 지역은 크게 천안권, 내포권, 공주권 셋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표 5〉 충남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현황

지역	공주	결성	금산	남포	노성	논산	당진	대흥	덕산	면천
인원	82	5	5	9	1	13	3	19	8	8
지역	목천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신창	아산	안면도	연기	예산
인원	53	3	16	64	5	15	16	1	3	24
지역	온양	유구	은진	이인	임천	전의	정산	직산	진산	진잠
인원	28	28	16	13	2	1	7	15	2	6
지역	천안	청양	태안	한산	해미	홍산	홍성	회덕	효포	
인원	55	1	130	10	45	4	126	3	3	

먼저 천안권은 확인된 참여자가 천안 55명, 목천 53명, 직산, 전의 1명, 온양 28명, 아산 16명, 신창 15명 등이다. 동학농민군 희생이 시작된 것은 9월 이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던 세성산전투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충북 보은 장내리를 초토화한 이두황부대는 곧바로 공주로 가지 않

6) 신영우, 앞의 논문 참조.

고 10월 16일 보은을 출발해 10월 20일 천안 목천으로 이동, 다음날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세성산에서 동학농민군과 접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다.

특히 세성산전투 이후 이두황부대 뿐 아니라 민보군에 의해 많은 동학농민군이 체포·살해되었다. 그 가운데 소모관 정기봉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기봉은 경기도 안성의 전주사로서, 안성·죽산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공로로 순무영에서 기전소모관으로 임명된 민보군이 다.<sup>7)</sup> 그는 세성산전투 다음 날인 10월 22일 목천 동리로 행군하였다가 세성산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 이희인, 한철영 등 60여 명을 포획하였다. 이희인은 좌우도 도급찰이었고, 한철영 역시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였다. 그 외에 명색 있는 동학농민군 12명을 모두 총살하고, 나머지 50명은 귀화하기를 원하여 풀어주었다.<sup>8)</sup> 정기봉은 23일에도 장돌용·안천복을 붙잡아 이두황부대에 보냈다. 24일에는 목천 갈전면에 이르러, 그곳에 모여 있던 수백명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해 총과 칼 100여자루를 노획하였다.<sup>9)</sup> 이들 동학농민군은 모두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천안 의병장 윤영렬도 세성산전투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는데 가담하였다. 그는 천안에 사는 전감찰로서, 의병, 즉 동학농민군에 대한 민간 토벌대인 민보군을 조직하여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10월 24일 천안 남쪽 소거리에 사는 김화성, 나채익, 홍치엽, 이선일 등 4명을 붙잡아 직접 심문하였다. 윤영렬은 이들 4명을 모두 직접 총살하는 한편, 김나귀, 김순경, 임만진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아 이두황부대에 인계하였다.<sup>10)</sup> 그는 이 공로로 10월 27일 선봉진의 별군관으로 임명되었다.<sup>11)</sup>

---

7)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9월 26일조.

8)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0월 22일조.

9)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0월 24일조.

10) 『巡撫先鋒陣膽錄』, 『東學亂記錄』 하, 437~439쪽.

11)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0월 27일조.

그밖에 10월 22일 선봉진 별군관 최문환은 세성산전투에서 패한 뒤 돌아온 직산 대접주 이천여·김춘일·김용희 등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모두 효수되었다. 또 목천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최창규와 김병현도 27일 최문환에 의해 체포되어 선봉진에 인계, 목이 잘리었다.<sup>12)</sup>

이와 같이 순무영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공을 세운 인물들을 소모관·별군관 등으로 임명하고 이들에 의해 조직된 민보군은 현지 사정에 밝아 동학농민군을 손쉽게 염탐하고 체포할 수 있었다. 천안지역에서 활약한 윤영렬 등은 그 이후에도 온양 등지로 이동하여 동학농민군을 수색·체포하는데 앞장을 섰고, 직권 등록된 상당수가 이들에 의해 체포되어 이름 석자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 체포한 동학농민군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다음으로 충남지역에서 참여자로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내포권이다. 내포권은 태안 130명, 홍성 126명, 예산 24명 등 많은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내포지역이 참여자 등록이 많았던 것은 태안 출신 동학농민군 회고록인 『문장준역사』와 『조석현역사』(1923)가 남아 있고, 1965년에 천도교 태안교구에서 작성한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교자 명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이 박인호를 중심으로 격렬히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10월 1일 태안과 서산에서 각각 기포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은 10월 24일 승전곡 전투, 10월 27일 신례원 관작리전투에서 승리한 뒤 10월 28일 홍주성 전투에서 수백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홍주성전투 이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희생이 컸던 것은 이두황이 지휘하는 장위영군, 7월부터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홍주성 관군, 일본군, 민보군 모두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위영군은 11월

---

12) 『순무선봉진등록』, 475~476쪽.

6일 덕산 가야동에서 도착한 이후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 11월 10일 홍주성을 출발하여 공주로 이동하였다.

아카마츠 쿠니후(赤松國封) 소위가 이끄는 일본군 1소대는 10월 19일 아산을 도착하여 10월 24일 승전곡전투에서 패한 뒤 홍주성에 머물다 11월 9일 대홍을 거쳐 떠나갔다. 동학농민군 피해는 아카마츠소대보다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장 야마무라 타다마사(山村忠正) 대위가 인솔하는 1개 중대병력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서산·해미·예산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은 부대였다. 이들은 11월 4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아산에 상륙, 신창과 신례원을 경유하여 홍주성전투가 끝난 11월 7일 홍주에 도착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9일 1개 소대를 해미로 파견하여 잠복해 있던 동학농민군 수백명을 체포한 뒤, 그중 2명을 참형하고 48명을 총대로 때려죽인 뒤, 11월 13일 홍주로 귀환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14일 1개 소대를 홍주에 남겨놓고 홍주를 떠나 해미로 향하였다. 도중에 숨어 있는 동학농민군 수십명을 잡자, 이들을 모두 홍주로 보내면서 홍주목사로 하여금 도착 즉시 신속하게 처형하도록 하였다. 해미에 도착한 야마무라대위는 14일 밤 일본군 11명과 조선인 순검 김용희, 그리고 해미의 민보군 21명(민병장 金龍山)을 서산으로 파견하여 잠복해 있는 동학농민군들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나머지 일본군을 인솔하여 11월 15일 지름길로 태안으로 향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15일 오후 3시 태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본군 5~10명씩을 각지에 파견하여 동학농민군 1백명을 체포하였다. 이때 같이 온 해미의 민보군이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서산에 파견된 일본군도 동학농민군 84명을 잡아 태안으로 왔다. 야마무라대위는 동학농민군을 철야로 조사하여 동학농민군 지도자 30명을 총대로 타살하는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런 다음 11월 16일 오후 2시반에 태안을 떠나 서산을 거쳐 인천으로 귀대하였다.

이렇게 일본군에게 동학농민군들이 학살당한 뒤에도 홍주성 관군과

민보군에 의해 귀가한 동학농민군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특히 유림들이 주도하는 유희와 민보군 조직은 해산한 동학농민군에게 가장 위협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홍주성전투 이후 내포지역 민보군 실상은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홍주에서 동학농민군을 격파한 이후 또 태안·서산·해미에 유막(儒幕)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으며 -(중략)-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동학을 믿는다고 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동학을 믿지 않으니 -(중략)- 태안·서산·해미에서 죄인들을 묶어서 유막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날마다 파다하게 퍼졌으며 홍주성 근처에 동학농민군들의 유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하였다. 저 홍주성은 동학농민군들의 저승이었다. 유막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길을 다니기가 지난날보다 더욱 어려웠으니 난세의 변화를 미리 헤아리기는 어려웠다.”<sup>13)</sup>

홍주성전투 이후 태안·서산 등지의 유림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유막, 즉, 검문소를 설치한 다음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지도자급은 직접 처형하거나 홍주성으로 보냈다. 그래서 홍주성 앞은 동학농민군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정도이다. 게다가 그들은 민보군(유희군)이라는 민병대를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처형하였다. 특히 이들은 어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가 동학 활동을 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

실제 해미에서 후퇴한 동학농민군들은 태안관아 뒤 백화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별군관 이창식이 이끄는 민보군 30명은 11월 13일 백화산을 공격하여, 유규희·최성서·최성일·안순칠·피만석 등 5명을 체포

---

13) 김현제, 『피난록』.

하여 상부로 압송하였다. 그 뿐만 아니다. 법대로 처치한다는 명분을 내 세워 많은 동학농민군들을 현장에서 처형하는 등 행패를 일삼고 되돌아 갔다.<sup>14)</sup>

다음으로 공주권은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군이 공주 82명, 부여 16명, 이인 13명, 은진 16명, 논산 13명, 유구 28명, 효포 1명 등 171명이다. 이들 가운데 142명이 직권 등록된 참여자로, 이들은 10월 23일 이후 전개된 이인·효포·우금치전투와 논산 황학대전투 등에 참여한 뒤 체포되어 이름 석자만 기록으로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참여자들이다. 유구에서는 28가운데 27명이 체포되어 11월 12일 동시에 처형되었고, 공주 82명 가운데 68명은 모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사망하였다. 부여 16명 가운데 5명은 마을 주민들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11월 19일 처형된 참여자이고, 5명은 7월 집강소기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공주권 참여자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로 사망한 시기가 우금치전투 이후이며, 또 하나는 충청감영이 있었던 공주 주변지역이었기 때문에 관군에 의해 직접 처형된 사례가 많았다.

## 2. 충청지역과 타지역 모두 활동한 참여자

앞의 <표 3>에서 충청도는 물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등 지에서도 활동한 참여자도 있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된 참여자는 모두 29명인데, 그 가운데는 전봉준, 여산 출신으로 공주·논산전투에 참여한 김경삼,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전봉준부대 일원이었던 송주성, 공주·원평전투에 참여한 최흥식 3형제, 청주성 공격 때 김개남부대 선봉진으로 활약한 강시원 등이 있다. 초기부터 전봉준과 뜻을 같이 해 공주 우금치전투까지 참여한 인물이 대부분이다. 실제 전봉준과 김개남부대에 편입되어 공주와 청주성 공격에

---

14) 『순무선봉진등록』, 12월 초8일, 10일.

가담한 전라도 출신이 최소 수천명에 이를텐데, 참여자로 등록된 인원은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참여자는 23명인데, 이들은 모두 충북과 경북을 오간 인물들이다. 충북은 경북과 인접한 황간, 영동, 청산, 보은이고 경북은 상주이다. 이들은 상주에서 기포하여 활동하다 영동 등지에서 체포되거나, 반대로 영동 등지에서 기포하여 활동한 뒤 상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사례이다. 실제 23명 가운데 4명은 12월 14일, 9명은 12월 22일 동시에 상주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상주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을 처형한 주체 역시 상주 민보군이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9월 29일 상주에서 소모사로 임명된 정의묵이다. 그는 10월에 상주 유생 김석중을 소모영의 유격장으로 임명하여 유격병대를 조직한 뒤 11월부터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대는 11월 말에서 12월에 고을 경계를 넘어 보은과 옥천 청산, 영동 등지를 수색하여 최시형을 찾아내 전과를 올리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학도들의 집을 수색하거나 지도자급 인물의 경우 총살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접농민군이 영동 용산전투와 보은 북실전투를 치루면서 최후를 맞이하는데 큰 타격을 가한 핵심 세력이였다. 이는 김석중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 작성한 『토비대략(討匪大略)』에 생생히 나타나 있으며, 이 기록물에 보이는 많은 동학농민군이 직권등록되었다.

그밖에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인물은 12명으로, 그 가운데에는 충남 아산에서 활동하다 12월에 수원에서 처형된 안교선,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동학농민군의 좌익장을 맡은 이종훈 등이 있다. 나머지는 주로 경기도 이천·안성 등지에서 활동하다 충청도에서 체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강원도와 충북을 오간 참여자가 5명인데, 그 가운데는 관동대접주 이원팔과 10월에 홍천과 충주에서 활동한 심상현·오창섭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강원도쪽은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지역적 연결

성을 가지고 있는 점인데, 이는 관동접의 지역영역이 강원도 남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예천과 같은 경북 북부지역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충북 북부지역 최고 지도자는 성두한이었다. 그는 강원도 정선 등지의 동학농민군과 연대하여 강릉 선교장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두 세력이 연합한 것은 이원팔이 대접주로 있는 강원도 관동포와 연원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8월 하순 예천 보수집강소에서 동학도 11명을 생매장한 것을 징치하기 위해 예천 화지에서 동학농민군 대회를 열었는데, 이 모임에는 경상도 동학도 외에 관동대접주 이원팔을 비롯해 성두한도 청풍·단양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석한 일이 있었다.<sup>15)</sup>

### III.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삶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록 참여자는 <표 2>와 같이 131명이다. 이들에게서는 아래와 같은 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재판을 받은 경우이다.

<표 6>과 같이 체포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는 중요 인물인 경우 서울로 압송되어 정식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재판이 크게 두 시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1895년에 집중되었는데, 교수형을 당한 성두한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에서 체포된 참여자들이다.

그 다음 재판은 1898~190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때 최시형, 서장옥, 손천민이 재판을 받고 각각 교수형을 당하였다. 이들은 1880년대부터 동학교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도 긴

---

15) 신영우, 앞의 논문 참조.

〈표 6〉 1895년 이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재판을 받은 참여자

이름	출신	1894 나이	신분	직업	활동	재판 (연도)
성두한	청풍	47	평민	농업	청풍·단양·영춘· 제천에서 맹활약	교수 (1895.3)
안창항	영춘	56	평민	농업	소백산에서 수도, 민간 선동	징역 (1895.3)
조명운	천안	41	평민	농업	천안서 일본인 살해	유배 (1895.3)
김치선	천안	45	평민	농업	천안서 일본인 살해	유배 (1895.3)
임재수	단양	73	평민	농업	청풍지역에서 성두한과 함께 활동	유배 (1895.3)
김영진	청풍	32	평민	농업	청풍에서 성두한과 함께 활동	유배 (1895.3)
민진호	청주	34	평민	농업	청주에서 무기 탈취	징역 (1895.3)
김순영	청산	71	평민	농업	청산에서 활동	징역 (1895.3)
손해창	영동	25	평민	농업	영동에서 활약	유배 (1895.3)
성종우	영춘	48	평민	농업	강원도 정선·평창 등지에서 활약	유배 (1895.4)
성운한	청풍	33	평민	농업	청풍·영춘·제천 등지에서 활약	징역 (1895.4)
허 운	진천	52	평민	유학	진천 용소에서 활동	유배 (1895.4)
황하일	보은	48	평민	농업	동학당 활동	징역 (1895.5)
임기준	공주	43	평민	농업	동학당 활동, 귀순	유배 (1895.5)
김성원	당진	44	평민		동학농민 동원, 묘지 침해	징역 (1896.11)
최시형	경주	68	평민		동학당 활동	교수 (1898.7)
서장옥	청주	43	평민	농업	동학 남접의 우두머리	교수 (1900.7)
손사민	청주	38	양반	학문	청주에서 활약, 우금치전투 참가	교수 (1900.7)

\*자료: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동학 관련 판결문집』.

\*혐의 없음으로 석방된 사례는 제외하였음.

밀하게 연관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체포되어 교수형을 받은 것은 1898년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한 대한제국 정부가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손병희가 감시를 피해 1901년에 일본으로 망명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역경 속에서도 동학·천도교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단 핵심인물들로서, 서장옥, 손천민, 손병희, 박인호,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최시형은 1898년 3월 원주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6월 2일 교수형을 당하였다. 손병희는 1897년 12월 제3세 동학 교주로 최시형으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뒤 동학에 대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 교세를 유지하면서 동학 재건에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는 1901년에 이용구와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렇게 동학 교세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동학 재건 움직임이 가능하였던 것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은 동학도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동학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출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천도교단에서 활동한 인물은 67명이고 그 가운데 54명이 직책을 맡았을 정도이다. 그 가운데 천도교 제4세 교주 박인호를 비롯하여 조원상, 이종선, 최준모 등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하였다.<sup>16)</sup>

문장로(1846~1919)는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출신의 수접주로, 1894년 10월 1일 기포부터 10월 28일 홍주성전투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였다. 홍주성전투에서 패한 뒤 태안으로 돌아와 지목을 피해 토굴에서 숨어지냈다.

그러나 관군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아들이 대신 자진 체포되어 11월 15일 태안 관아에서 총살형을 당하였다. 그의 가옥과 전답은 모두 몰수

---

16) 정을경, 앞의 논문 참조.

당하고 임야는 벌목되어 불탄 관아를 증진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뒤에서 문장로는 감시를 피해 토굴에서 8년을 지내다, 1900년에 동학지도부가 내린 조직 강화 밀명을 받고 비밀리에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문장로와 그의 가족을 체포하면 포상한다는 방이 붙고 대대적인 색출 움직임이 있자, 1902년 2월에 안면도→원산도를 거쳐 홍성에 이르러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다시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자 1904년 2월 공주 사곡면, 1908년 1월 공주 신상면을 거쳐 1910년대에 예산 신암면에 정착해 살면서도 동학 수련과 조직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 1919년에 9월 73세로 돌아가셨다.<sup>17)</sup>

이런 사례는 문장로와 같이 활동하였던 조석현(1862~193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태안 원북면 신두리 출신으로 갑오년에 9월 기포부터 참전해 승전곡전투→신례원전투→홍주성전투 등에 참가한 뒤 혼자 떠돌다 우연히 대접주 박희인을 만나 같이 동행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다 지극정성으로 박인호를 모시면서 동학의 맥을 이어갔다. 그는 이곳저곳을 옮겨살면서 끝내 태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1915년에 예산 간양리에 정착하여 천도교에 헌신하다 1931년에 작고하였다.<sup>18)</sup>

최동석(1872~1948)은 청주 대주리에서 손병희·서택순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살았던 접주였다. 그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족보에는 동학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접주로 활약한 사실도 동네사람들이 알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최동석은 고향 마을에 거주하였는데, 가난한 삶 속에서도 동학·천도교를 이어가 오랫동안 천도교 청주교구장을 지냈다고 한다.

손필규(1870~1938)는 논산 은진면 남산리 출생으로, 1894년 7월에 동학에 들어가 초산접주로서 활동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동

---

17)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6, 『태안에서 접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햇불』, 296~297쪽.

18) 위 책, 474~475쪽.

학 활동을 계속 이어가,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천도교 논산교구장이었던 손필규는 논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천도교 중앙조직과 연결된 특별 성미금 문제에 연류되어 투옥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1938년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준용(1860~1945)은 춘천 서면 출신이다. 동학농민혁명 때 공주 전투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농토를 팔아 어려운 처지에 처한 동학도인과 최시형 등을 도왔다고 한다. 1907년에는 의병전투에도 참가하였고, 1910년대에는 천도교 춘천교구 창립에 기여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춘천교구장으로서 춘천장터 만시세시위를 주도하다 검거되어 1년 6개월 수감되기도 하였다. 출옥한 이후에도 계속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1945년에 작고하였다.<sup>19)</sup>

조영구(1867~1950)는 서천 출신이다. 1887년에 동학에 들어와 대접주가 되고 1894년 7월에 도집강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서천을 비롯한 ‘저산 칠읍’의 대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바 있는데, 3.1운동 때는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다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어 20일간 수감되었고 귀향 뒤에도 서천경찰서에서 또다시 구타·구금되었다.<sup>20)</sup>

이병춘(1864~1933)은 임실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기 전시기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최시형·손병희와 연계되어 동학·천도교 중요 인물로서 활동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3.1운동 때는 천도교 전주교구장으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3년간 투옥되었고 출감 이후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전달하다 체포되어 또다시 2년의 옥고를 치렀다. 현재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sup>21)</sup>

이러한 사례는 천도교 청주교구장을 지낸 서우순(서택순), 음성교구

---

19) 김용조 외, 2004, 『춘천의 3.1운동과 호암 이준용 선생』, 큰나무.

20) 『조영구일기』.

21)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장과 천도교종법사를 지낸 괴산의 이원익,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예산 전투에 참가한 뒤 부상으로 귀가하여 1910년에 천도교 대성당 건축자금을 제공하고 3.1운동 때는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는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천도교 수원교구 일에 힘쓴 이병인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생존한 동학도들이 동학·천도교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며 그것이 바탕이 되어 1910년대 천도교 부흥과 전국적인 3.1운동이 가능하였다.

특히 충청지역은 1880년대 이후 최시형이 동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진원지인 데다가 북접 동학교단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 더욱이 최시형에서 충청도 출신 손병희·박인호로 동학·천도교 도통이 이어진 결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이 천도교로 이어진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 때문에 충청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아 천도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그 맥이 3.1운동에 닿는 인적 계보가 강하였다.

셋째,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 경우이다.

정부는 해산한 동학농민군을 색출하고 감시하기 위해 향약과 오가작통법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동학농민군은 편히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 대안은 집을 버리고 피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야만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장준(?~1923)은 태안 원북면 방갈리 출신으로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인물이다. 그는 홍주성전투를 끝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나, 11월 15일경 체포된 뒤 보령 수영으로 끌려가 투옥되었다. 감옥에는 다른 동지들도 있었다. 이들은 감옥 안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10여 일 보낸 뒤 엄형 취조를 받고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다. 문장준은 친척인 문장권과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3일 동안 유리걸식하여 천행만고 끝에 방갈리 집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민보군의 지목은 갈수록 심해졌다. 언

제든 민보군의 손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다.

결국 문장준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김선여를 비롯한 동지 5명과 가족을 데리고 태안에서 배를 타고 구사일생으로 피신하여 이리저리 떠돌다가 광덕산 만복골 등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다. 이때 문장준과 같이 광덕산 만복골로 피신한 동학농민군은 이영규(1863~1915), 김봉호(1872~1954), 이선중(1875~1958), 함한석(1870~1938) 등이 있었다. 광덕산 만복골은 산이 높지 않으면서도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태안에서 피신한 동학농민군들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집단 생활을 하다 다시 태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아산·예산 등지로 옮겨 살았다.<sup>22)</sup>

박병옥(1869~1904)은 고창 신탄면 무림리 출생으로, 1894년 3월 무장기포 이래 전봉준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는 9월 이후 공주전투에서 패퇴한 뒤 내변산 깊숙이 잠적하여 7,8년 은둔생활을 하다 어느 스님이 집에 연락하여 비밀리에 집에 돌아왔으나, 35세 되던 1904년에 별세하였다고 한다.<sup>23)</sup>

이런 사례는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매우 많았다. 향약과 오가작통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터전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과 논밭을 버리고 낯선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 맺음말

지금까지 충청도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2004년부터 2024년 12말 현재 등록된 동학농

---

22)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앞의 책, 300~301쪽.

2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내부자료.

민혁명 참여자 총 3,903명 가운데 충청도에서 활동한 참여자 총 1,228명의 생물연대·본적지·활동지역·활동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충청도 참여자 1,228명 가운데 출생연도가 밝혀진 인물은 22.6%이다. 그 가운데 최고령자는 1821년생 단양 출신 임재수인데, 이는 단양이 충청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이 전파된 곳이란 점과 일치한다. 단양 출신 임재수를 비롯해 1820년대생을 시작으로 그 이후 출생자들이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는데, 1860년대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850년대생으로, 이들이 전체의 63.9%에 이른다. 이들은 1894년에 25~45세로, 30대 전후의 청중년층이 동학농민군의 주축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의 사망시기는 사망연도가 확인되는 728명 가운데 1894년에 사망한 참여자가 82.1%인 597명이었다. 이들의 사망시기는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및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10월부터 11월에 집중되었다. 1894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연도는 1895년으로, 모두 31명이다. 이들은 1895년 1월에서 4월 사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사형된 참여자들이다. 그 이후 생존한 참여자들은 1897년부터 1900년 사이에 집중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나머지 생존자들은 주로 노환에 따른 자연사로 1910년대부터 점점 증가하다 1940년대에 가장 많은 19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들의 활동지역은 크게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경우와 타 지역에서도 활동한 참여자로 나뉜다.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참여자는 충청도 120명, 충남 808명, 충북 226명 총 1,154명으로 전체의 94%에 이른다. 충남지역이 충북보다 3.6배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충북지역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있다. 성두한이 활약한 충북 북부지역은 충북 중부지역과 달리 민보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많이 희생되었다. 이는 성리학 기반이 강한 제천 민보군 때문이다. 이는 충북 남부지역, 즉, 영동, 황간, 청산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충남지역 역시 지역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충남지역은 충북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는데, 크게 천안권, 내포권, 공주권 셋으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천안권은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던 10월 21일 세성산전투를 계기로 많은 참여자가 사망하였고, 참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내포권은 수백명이 사망한 10월 28일 홍주성전투 이후에도 이두황이 지휘하는 장위영군, 7월부터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홍주성 관군, 일본군, 민보군 모두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주권은 등록된 참여자가 171명이다. 이들은 주로 우금치전투 이후 공주 주변지역에서 관군에게 체포된 사례가 많았다.

충청지역과 타 지역 모두 활동한 참여자는 70명인데, 크게 충청도와 전라도, 충청도와 경상도, 충청도와 강원도, 충청도와 경기도 등에 걸쳐 있었다. 이는 충청지역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9월 이후 공주 우금치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충남 남부지역인 한산·서천은 전북 임피 등지의 동학농민군과 연결되어 있었고, 충북 남부지역인 영동·보은 등은 경북 상주와 상호 연결되어 있었으며, 충북 북부 제천·단양지역은 강원도 정선 등지와 연결되어 동학농민군이 오가면서 활동하였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참여자는 131명이다. 이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거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학·천도교 활동을 이어가 3.1운동에 참여한 예가 많았으나, 숫적으로는 고향을 등지거나 숨어지내며 가난과 삶의 역경을 이겨낸 참여자가 훨씬 많았다. 그 때문에 참여자들의 후손 역시 '역적의 자식'으로 불운하게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가난한 삶을 이어간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일은 과거에 대한 현재의 보답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일이 분석하여 종합한 것이 아니라, 전체 등록 참여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전체적인 추세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긍정적

이나,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를 일일이 분석해서 통계 데이터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글은 2024년 12월말까지 발굴·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상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발굴·등록되고 새로운 정보가 찾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은 다음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차후 과제로 미룬다.

투고일 : 2025. 9. 18. 심사완료일 : 2025. 10. 29. 게재확정일 : 2025. 11. 10.

## 참고문헌

### 〈자료〉

『承政院日記』

『巡撫先鋒陣膽錄』

김현제, 『피난록』.

남원군 천도교구, 1923, 『殉教略歷』.

洪鍾植, 1929, 「동학과 동학단」, 『신인간』 제34호.

총무처 정부기록부존소, 1994, 『동학관련판결문집』.

### 〈단행본〉

역사문제연구소, 1997,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역사비평사.

김응조 외, 2004, 『춘천의 3.1운동과 호암 이준용 선생』, 큰나무.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6, 『태안에서 점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

### 〈연구논문〉

신영우, 2016, 「성두한과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충북학』 제18집, 충북연구원.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제53권, 동학학회, 243~267쪽.

정을경, 2022, 「혁명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충남지역 동학농민군 분석을 통해」, 『동학학보』 제61권, 동학학회, 279~316쪽.

## 〈Abstract〉

#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onghak Peasant Army in the Chungcheong Region

Kim, Yang-sik\*

This paper analyzes the data of 1,228 individuals from the Chungcheong region who were registered as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etween 2004 and 2024, out of a total of 3,903 participant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general trend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Chungcheong region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ir birth and death dates, original domiciles, areas of activity, and the nature of their particip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r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Chungcheong region consisted of young and middle-aged adults around their 30s, with those born in the 1860s being the most numerous among the participants whose birth years were confirmed. Deaths were heavily concentrated in 1894, when 82.1% of the 728 confirmed deaths occurred. These casualties were particularly high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a period marked by fierce battles between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apanese military, and government forces.

Regarding areas of activity, 94% of the participants were active only within the Chungcheong region, with participants from South Chungcheong Province outnumbering those from North Chungcheong Province by 3.6 times. South Chungcheong's participants were grouped into the Cheonan,

---

\* Director of Research,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Naepo, and Gongju areas, each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Some participants also operated in collaboration with forces from neighboring provinces such as Jeolla, Gyeongsang, Gangwon, and Gyeonggi.

Among the participants, 131 were confirmed to have died after the revolution. While many of them were arrested, faced trials, and continued their Donghak or Cheondogyo activities, even participating in the March 1st Movement, a far larger number fled their hometowns or lived in hiding, enduring poverty and hardship. As a result, it was common for their descendants to be born into misfortune, often being called 'traitors' children,' and continuing to live difficult lives. Therefore, the paper concludes that restoring the honor and remembering the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ir descendants is a form of repayment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army, Chungcheong region, Participants, March 1st Movement

##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

김희태\*\*

### 〈목 차〉

머리말

I. 무안·함평·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II. 무안·함평·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

맺음말

### 〈국문초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2025년 9월 28일 기준 4,033명인데 직권등록이 3,347명, 1차 496명, 2차 190명이다. 전라도 서남부(무안·함평·영광)에서는 203명이

\* 본고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2025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문(「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2025.06.25, 정읍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67~110쪽)를 수정 보완하였다.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전 전라남도 문화유산전문위원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직권등록이 159명이다.

참여자의 신분은 주로 '농업'으로 표기되었으나, 김응문 등 유학자·관직 경험자가 있어 단순히 '농민'으로 규정하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여 형태도 전투 직접 참여뿐 아니라 보호·지원까지 포함되며, 여성 참여자 정동화는 남편을 은신시키고 열행을 기려 최초로 여성 참여자로 등록이 이루어졌다. 또 '조이[召史]'로 기록된 여성들의 직권등록 필요성도 제기해 보았다.

명예회복 측면에서는 유해·유적의 보존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안 김응문(김창구) 장군의 유해는 2022년 발굴·DNA 검증을 거쳐 유일하게 후손과 일치함이 확인되었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청이 시도되었으나 제도상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역사적·정신사적 가치에 따라 향후 재검토가 요구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망된다. 전적지로는 황토현·우금치·황룡·석대들·무장기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고막포 전적지도 국가지정 필요성이 크다. 더불어 주둔지·묘소·기념비 등 관련 유적과 유물도 점진적 국가유산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동학농민혁명 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유적지를 포함하여 기록이나 자료, 현장, 시설물 등도 지정하고 관리해야만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이 한단계 앞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농민이 주축이지만 유학자·여성·지원자의 역할도 포함되며, 단순 신분 구분을 넘어선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 유해와 전적지 보존, 여성 참여자 발굴, 명예회복은 동학농민혁명을 오늘에 계승하는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무안·함평·영광지역,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산, 김응문 유해

##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혁명군은 2025년 9월 28일 기준 4,033명인데 직권등록이 3,347명(82.99%), 1차 496명(12.30%), 2차 190명(4.71%)이다.<sup>1)</sup> 이 가운데 전라도 서남부 지역, 특 무안군·함평군·영광군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자

의 활동과 성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정리<sup>2)</sup>를 한바 있는데, 이같은 권역별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져 집성된다면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는 지역명을 검색어로 하여 확인하면, 무안은 77명, 함평은 98명, 영광은 41명<sup>4)</sup> 등 216명이다. 이 가운데 중복된 농민군을 제외하면 196명이고, 추가 검색을 통해 확인한 7명<sup>5)</sup>을 포함하면 203명이다.<sup>6)</sup> 이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동학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참여자검색 (<https://www.cdpr.go.kr> 이하 '누리집 참여자')
- 2) 김희태, 2022,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나주학 총서 2집-』, 나주시, 121~150쪽.  
김희태, 2024, 「유족 증인과 자료로 본 전라도 장흥·강진지역 동학농민군의 순국」, 『유족 증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63~121쪽.
- 3) 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가운데 '전라도'로 검색하면 1,900명으로 47.1%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권역별로 구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남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전라남도에서 조사할 때 서·북부 지역(영광·함평·장성·무안·진도), 중부지역(광주·나주·화순), 중북부 지역(담양·곡성·구례), 남부지역(장흥·강진·보성·영암·해남), 동부지역(순천·광양)으로 구분한 바 있다.(이상식·홍영기·박맹수, 1996,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 4) '영광' 검색어로 42건이 검색되는데 김영광(金永光)은 지명 영광과는 관련이 없어 제외하였다.
- 5) 김용경(金龍京, 1880.02.06.~1918.04.03.)(전주 등재, 영광 참여), 김재묵(金在默, 1868.10.10.~1901.01.11.)(고창 등재, 영광 참여), 임천서(林天瑞, 1864.~1895.03.)(고창 등재, 함평 참여), 전장하(全章夏, 1860.03.23~1894.11.20)(나주 등재, 함평 참여), 최평집(崔平執, 1872.12.12.~?)(장성 등재, 영광 참여), 최도열(崔道烈, 1870~1894)(홍천 등재, 함평 참여) 등이다.
- 6) 203명의 참여자에 대해 재단 설립 내용을 보완하여 인명 초성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발표문에 실은 바 있다. 각 지역 사례 1명씩 예시한다.

연번	참여자	참여 내용	참여 지역	순국일	순국 장소	출신지 (본적)	관련 유산	등록일	등록			○무안, ●영광, ◎함평
									직	1	2	
1	강대진	접주로서	전라도	?~1894.	나주			2009.	○			●

활동에 대해서 기존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sup>7)</sup>

이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참여자에 대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참여했던 분들의 신분이나 직업에 관해서 농업(농민)과 유학자의  
경우를 무안 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사례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동학농  
민혁명 직접 참여자가 아니지만 참여자를 보호했던 참여자와 여성의 역  
할에 대해서이다. 여성의 경우, ‘조이[召史]’로 표기된 경우도 참여자로  
직권등록을 먼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  
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해의 보존, 유적지의 보존, 참여자의  
현양 등에 대해서이다. 무안 김응문장군 유해의 국가유산 등록, 고막포  
전적지의 국가유산 추진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姜大振)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군 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영광	12.30.				11.25				
11	김덕구 (金德九)	1894년 3월 형제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백산전투와 나주 고막원 전투에 참전. 12월 8일 관군에 체포되어 처형 당해 순국함.	전라도 나주 무안	1868.3.20.~ 1894.12.8.		(무안)	비석	2006. 10.04	○			○
143	이태형 (李泰亨)	1894년 함평접주 이화진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12월 이고창의 밀고로 체포되어 나주 일본군 진영에서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41.~1894. 12.24.	나주	(함평)		2009. 01.16		○		◎

-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관련 자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를 참고하였다. 개  
설적인 내용은 이상식·홍영기·박맹수,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앞책을 주로 참고하  
였다.

# I. 무안·함평·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 1. 무안지역

무안지역<sup>8)</sup>에 ‘동학’이 언제부터 전파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인근 나주가 1885년, 장흥과 강진이 1891년과 1892년에 동학이 전파된 점으로 보아 1890년을 전후하여 무안에도 동학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92년 무안의 김의환·이병경, 청계의 조병연·이병대·고군제·함기연, 몽탄면 한용준, 1893년에는 청계면 송두옥·송두옥·한택울·송군병·박인화, 무안을 정인섭 등이 입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운동을 위해 상경한 대표 40인 가운데 무안의 배규찬이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배규찬은 무안의 대접주인 배상옥(배규인)의 동생이다. 1893년 3월에 있던 보은집회는 당시 무안군에서는 80여 명의 동학교도가 참여하고 있다.

---

8) 무안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이화·배항섭·왕현종, 2006,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호남 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08, 『무안동학농민혁명사』.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2013, 『무안군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과업 결과 보고서』.

배항섭, 2015,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38쪽.

정경운·임선주, 2015,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과활성화 전략-무안지역 및 고막포전투지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29,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15~249쪽.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5,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김봉근, 2022, 「김응문(金應文) 일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유체발굴의 의의」, 『동학학보』 62, 동학학회, 259~292쪽.

홍동현, 2024,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지역적 특징」, 『남도문화연구』 53,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29~259쪽.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5,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자료』.

1894년 3월 25일 전봉준이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한 백산대회에 지도자급으로 배상옥,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연교, 노영학, 노윤화,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경춘, 이동근 김응문 등 15명이 다수의 사람을 이끌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월 18일 함평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 일부가 무안을 넘어가서 하루를 머물다가 나주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수가 처음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2,000명~14,0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세가 결집되었다.

무안지역에서는 배상옥의 근거지인 청계면(당시 이서면(二西面))<sup>9)</sup> 청천리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비를 마련하고 무기를 제작하고 군사훈련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응문 일가의 동학농민군도 배상옥과 연계하여 군비 제공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해제면 석용리 석산마을 민대들에서 최씨 삼형제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들이 훈련하였고, 이후 고막포 전투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2차 봉기 시기에 전봉준이 삼례에서 재봉기를 선언했을 때, 무안 배상옥이 2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호응했으나, 배상옥 부대는 후방 방어를 위해 무안으로 되돌아왔다. 나주성 공략을 위해 배상옥(배규인)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1월 17일 고막포로 모여들어, 나주 수성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헤아릴 수 없는 동학농민군이 고막포에서 순국<sup>10)</sup>하였다.<sup>11)</sup>

9)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행정 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중요한 부분이다. ‘청계면’ 행정지명은 1914년에 일서면(一西面)과 이서면(二西面)이 합쳐져 부르게 된 일종의 합성지명이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당시의 행정 지명을 표기한다. 이하 같다.  
김정호 편저, 1988., 『지방연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광주일보출판국.  
윤여정 엮음, 2009., 『대한민국 행정지명』제1권 전남·광주편, 향지사.

10)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쟁 참전 관련 죽음은 순도(殉道), 순교(殉教), 순국(殉國) 등 여러 표기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라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규정된 ‘국권(國權)’과 ‘애국’의 관점에서 ‘순국’ 용어를 쓰고자 한다. 「독

무안에 진출한 순무영선봉진 부대(이규태)에 피체된 동학농민혁명군은 효수나 총살, 화형 등 가혹한 처형을 당하여 순국하였다. 12월 8일 접주 배정규와 박순서가 피체되어 총살당해 순국하였다.

12월 9일 김응문을 비롯하여 18명이 체포당하였는데 김응문(김창구)·김자문(김덕구)·정여삼·김여정(김우신)·장용진·조덕근 등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국하였다.<sup>12)</sup> 2022년 김응문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 동학 참여자와 유족이 일치함이 확인<sup>13)</sup>되어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신원이 확인된 순국자로 기록되게 되었다.

12월 12일 김효문(김영구, 김응문 동생)·배규찬·오덕민·조광오·김문일·박경지·박기운·양대숙·서여칠·박기운 등도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였다.<sup>14)</sup> 무안읍[당시 외읍면(外邑面)] 교촌리 송림마을 ‘차발머리’, 무안읍 성 남문 밖 불무제 등이 처형장소였다고 한다.

배상옥은 해남에서 은거하고 있다가 12월 24일 해남 유생 윤규룡이 이끄는 민보군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군 보병대위 마스끼 세이보(松木正保)에게 총살당해 순국하였다.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 군대 어데 두고 쑥국대 밑에 잡드느뇨’라는 애닦은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sup>15)</sup>

---

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권침탈(國權侵奪)’(제4조)의 ‘국권’과 구분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이 추구한 ‘보국안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나 동학농민군이 ‘주인’이나 ‘주어’가 되는 서술을 할 필요가 있다.

- 11) “十一月十二日 州西三平里 水多面虎咸村接戰時…又有被逐至古幕浦橋邊 落水死者殆過數百餘計 而因潮漲未的其數”(『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630))
- 12) 호남초토사(나주목사 겸임)가 보고한 기록에는 ‘經訊後致斃’라 하였고, 현지에서는 효수당해 순국한 것으로 전해 온다.(『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奎17189) 및 이이화·배항섭·왕현종, 2006,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호남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205쪽. 주 52) 참조.
-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주)디엔에이링크·인류진화연구소, 2022.10., 『김응문 일가 유골 조사 및 유전자검사 용역-인류학 및 유전자검사 보고서』.
- 14)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奎17189)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77명<sup>16)</sup>이 검색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을 분석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참여자의 본적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참여자 가운데 무안 본적이 확인된 동학 참여자는 26명이다.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다. 10대는 1명(오인겸, 19세), 20대는 12명, 30대가 5명, 40대가 7명, 50대가 1명(최장현, 57세)이다. 2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은데 절반에 가까운 46.15%이다.

참여 당시 직업을 보면, 농업이 22명, 직업이 확인된 않은분이 4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의 참여가 압도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그런데 김응문의 경우에는 무안향교의 직임을 맡았고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 올라 있어 유학자라 할 수 있는데,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도 동학군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다..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3월이 4명(김덕구, 김여정, 박인화, 배상옥), 4월이 3명(김기봉, 김영문, 김응문), 11월이 2명(김우백, 박치상)이고, 17명은 1894년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참여 당시 직책은 대접주 1명(배병헌), 접주 3명(박기옥, 박명하, 배상옥)이다. 배병헌은 31세이고, 박명하는 28세, 박기옥은 47세. 배상옥은 32세였다.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고창 1명(박인화), 나주 1명(김덕구), 함평 1명(장경광)이고, 23명은 무안이다. 1차 참여는 나주가 6명으로 박인화는 1차 고창, 2차 무안으로 확인되며, 5명은 1차 무안, 2차 나주이다.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분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

15)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앞책 참조.

1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 참여자 검색은 전체, 참여자명, 참여 내용, 참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무안의 경우, 참여지역은 70명, 참여내용은 71명으로 검색된다.

그리고 현장 전투 중 전사하여 순국한 분은 3명(최선현, 최장현, 최기현)이다. 총상 등 부상은 2명(박인화, 박치상), 피체되어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한 분은 1명(백용선)이다. 피신은 3명(박병하, 오인겸, 장재명)이다.

〈표 1〉 무안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sup>17)</sup>

연번	동학 농민군	재세 시기	참여월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 변동	등록 구분
							1	2		
1	김기봉 金基鳳 <sup>18)</sup>	1868~1894	1894.04	27		-	무안		처형 순국	1차
2	김덕구 金德九	1868~1894	1894.03	27		농업	나주	무안	처형 순국	1차
3	김여정 金汝正	1867~1894	1894.03	28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4	김영구 金永九	1851~1894	1894.04	45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5	김우백 金禹栢	1875~1904	1894.11	20		농업	무안		-	1차
6	김응문 金應文	1849~1894	1894.04	46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7	박규상 朴奎相	1849~1894	1894.00	46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8	박기옥 朴淇玉	1848~1894	1894.00	47	접주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9	박병하 朴炳夏	1867~1921	1894.00	28	접주	-	무안		피신	1차
10	박인화 朴仁和	1847~1926	1894.03	48		농업	고창	나주	총상	1차
11	박치상 朴致相	1869~1949	1894.11	26		농업	무안	나주	부상	2차
12	배병만 裵炳慢	1872~1894	1894.00	2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3	배병현 裵炳顯	1864~1894	1894.00	31	대접 주	-	무안		처형 순국	1차

1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자료 참조. 이하 같음.

연번	동학 농민군	재세 시기	참여월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 변동	등록 구분
							1	2		
14	배병환 裴炳煥	1862~1894	1894.00	3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5	배상옥 裴相玉	1863~1894	1894.03	32	접주	농업	무안	나주	-	1차
16	배용보 裴用甫	1871~1944	1894.00	24		농업	무안		-	1차
17	배정기 裴槿基	1862~1941	1894.00	3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8	백용선 白用善	1869~1895	1894.00	26		농업	무안		병사 순국	1차
19	오인겸 吳仁兼	1876~1948	1894.00	19		농업	무안		피신	2차
20	이병화 李炳化	1866~1894	1894.00	29		-	무안		처형 순국	2차
21	장경광 張京光	1868~1922	1894.00	27		농업	함평		-	1차
22	장재명 張在明	1862~1916	1894.00	33		농업	무안		피신	2차
23	최기현 崔琪鉉	1866~1894	1894.00	29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24	최선현 崔善鉉	1852~1894	1894.00	43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25	최성모 崔聖模	1848~1894	1894.00	47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26	최장현 崔璋鉉	1838~1894	1894.00	57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18) 참여자 개별 행적은 따로 정리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에서는 2~3줄 정도 요약문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더 자세하게 늘려가야 한다. 한 사례만 예시한다. 김기봉(金基鳳, 1868~1894.1212) : 다른 이름 김문일(金文日), 김문일(金文一), 김용봉(金用奉). 무안지역 대접주 배상옥, 김응문, 김효문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관군에게 체포되어 12월 처형당해 순국하였다. 『선봉진 각읍로발관급간결(鋒陣各邑に發關及甘結)』 문서 가운데 1894년 12월 12일 무안현에 발송한 감결[甘結務安縣 同日]에 배규찬(裴奎瓚), 오덕민(吳德敏), 조광오(趙光五), 김문일(金文日), 박경지(朴京之), 박기운(朴沂雲), 김효문(金孝文), 양대숙(梁大叔), 서여칠(徐汝七), 박기연(朴淇年)이 함께 올라 있는데 이 가운데 김문일이 김기봉이다. 처형당해 순국한 것은 12월 12일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김기봉의 이름이 ‘호적’은 김기봉(金基

## 2. 함평지역

함평지역<sup>19)</sup>은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로 1862년의 함평농민항쟁을 들 수 있다.<sup>20)</sup> 이 농민항쟁의 주역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일부는 달성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좌절하고 말았다. 이같은 사회사정이 있던 함평에 동학이 언제 전파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sup>21)</sup> 다만, 무장의 손화증파가 호남의 대표적인 동학 조직인 것으로 보아 인근 함평에도 동학이 일찍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평에는 유명한 동학접주 이화진이 활약했던 본거지이며 이화진의 고숙이고 명망있던 장옥삼을 비롯한 장경삼, 장공삼 삼형제가 동학농민혁명군으로 활약한 것을 보면 함평의 동학활동은 세력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함평을 출신으로 무과에 합격하여 고군산첨사(1890.10~1891.07)를 지냈던 이태형(李泰亨, 李啓均, 자 相三, 1841~1894)이나 해보면 출신으로 학식이 있

---

鳳), 『무안현감결』은 김문일(金文日), 『나주김씨대동세보(羅州金氏大同世譜)』(3권, 2000)는 김용봉(金用奉, 자 文一) 등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무안현감결』과 세보에서 자(字)의 한자음이 일치하고, 족보에 기록된 별세일이 '갑오 십이월 이십일(甲午十二月二十日)'임이 확인되며, 『무안현감결』에서 함께 처형당해 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김효문이 김문일[기봉]과 같은 나주김씨로 같은 몽탄면[당시 석진면] 다산리 차피[茶山] 마을에 살았음이 확인됨을 근거로 '金基鳳-金文日-金文一'이 동일인임이 확인되었다.

19) 함평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소영, 2024,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교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동학학보』 71, 동학학회, 233~268쪽.

20) 신영호, 2005, 「1862년 함평 농민항쟁에 대한 재검토: 대립세력의 분석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1892년경 자료인 「동학도개국음모건(東學徒開國陰謀件)」에 이경인(李景寅, 李鎭九, 자 珍九, 1851~1895) 이름이 올라 있어 동학교도이거나 동학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소영,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교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앞 논문, 243~244쪽.) 한편, 이경인은 변절하여 동학농민군 이태형을 밀고하였고 이태형은 1894년 12월 30일 나주에서 총살로 처형당해 순국한다. (『兩湖右先鋒日記』(乙未正月, 1895년 1월)) 일반적으로 '이교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용어도 동학농민군을 주어로 한다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었던 집주 정평오(鄭平五, 1847~1894)는 함평지역 세거사족이라 할 함평이씨와 진주정씨라는 점<sup>22)</sup>도 활발한 함평 동학농민세력과 연계될 것 같다.

동학농민군의 함평현 점령은 4월 16일인데, 당시 현감 권풍식의 보고 내용에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용 자세하게 나온다. 동학농민군의 수가 6~7천명에 이르렀다는 점, 말을 탄 사람이 100여명이고 갑옷·투구·전투모로 무장했다는 점, 동학군은 관문을 부수고 동현으로 바로 들어갔고 각 면의 사민 100여명이 호위했다는 점, 군교·아전·관노·사령·수성군 등은 150명이었는데 절반이 부상당했고 흩어졌다는 점, 동학군들은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음의 폐단과 백성의 병폐를 바로잡고 보국안민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선언, 사민들이 동현에 들어와 호위하는 것을 보고 현감의 치적을 알 수 있다고 한 점, 부유한 백성에게 식량을 내게 하여 인가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sup>23)</sup>

함평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98명이다. 이 가운데 함평 본적이 확인된 분은 9명이다.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보인다. 30대는 2명(임경윤, 전장하), 40대는 5명으로 가장 많다. 50대가 2명(장경삼, 이태형)이다.

함평 본적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함평 출신 정동화(鄭東華, 1848~1913)는 나주 나동환의 배우자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최초의 여성 동학 참여자이자 부부가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나동환이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다가 함평 처가로 피신하였다. 관군이 정동화에게 나동환의 소재를 알려고 압슬형을 가했으나 말하지 않았다고 하며, 뒤에 열부비가 세워졌다. '동학농민군의 보호'에 해당되어 참여자로 등록된 것이다.

참여 당시 직업은 함평 본적 9명 모두가 농업이다. 무안의 경우처럼

---

2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함평현 성씨조에 '李', 『여지도서』(1760년) 함평현 성씨조에 '鄭[晉州]'이 올라 있다.

23) 『兩湖招討謄錄』(光緒二十年四月二十日 承政院 開拆, 1894년 04월 20일)

유학자나 복수의 직업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4월이 2명(정평오, 임경운), 12월이 3명(장경삼, 장공삼, 장옥삼)이다. 4명(이태형, 전장하, 전창섭, 장삼여)은 1894년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표 2〉 함평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연번	동학 농민군	재세 시기	참여월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 변동	등록 구분
							1	2		
1	이태형 李泰亨	1841~1894	1894.	54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2	임경운 林京允	1863~1923	1894.04	32		농업	함평	영광	-	1차
3	장경삼 張京三	1842~1894	1894.12	53		농업	영광	무안	처형 순국	1차
4	장공삼 張公三	1854~1895	1894.12	41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5	장옥삼 張玉三	1851~1895	1894.12	44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6	전장하 全章夏	1860~1894	1894.	35	군포관	농업	나주		전사 순국	1차
7	전창섭 全昌燮	1854~1894	1894.	41		농업	함평	나주	전사 순국	1차
8	정삼여 鄭三汝	1847~1894	1894.	48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9	정평오 鄭平五	1847~1921	1894.04	48	대접주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女	정동화 鄭東華	1848~1913	1895	46			나주	함평	피체 고문	2차

참여 당시 직책은 대접주 1명(정평오), 군포관 1명(전장하)이다. 정평오는 48세이고, 전장하는 35세였다. 군포관은 군량이나 군수물을 담당하는 직임으로 보인다. 대접주 정평오는 호남초토영 문서에서 ‘거괴(巨魁)’로 표기되고 있다. 다음 기록이다.

“거괴 윤정보(尹正甫)·장경삼(張京三)·박춘서(朴春西)·정평오(鄭平五)·김시환(金時煥)·윤찬진(尹贊辰)·김경문(金京文)·박경중(朴京仲)은 [1894년 갑오 12월] 11일에 잡을 때에 쏘아 죽였다.”<sup>24)</sup>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함평이 가장 많은 6명(전창섭, 이태형, 장공삼, 장옥삼, 정평오, 임경윤), 나주(전장하), 무안(정삼여), 영광(정경삼)이 각각 1명이다.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동학군이 6명(정삼여, 장경삼, 장공삼, 정평오, 장옥삼, 이태형)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현장 전투 중 전사하여 순국한 동학군은 2명(전창섭, 전장하)이다. 1명(임경윤)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평오와 장경삼은 1894년 12월 11일 잡혀서 포살[총살]을 당해 순국했다.

### 3. 영광지역

영광지역<sup>25)</sup>의 동학 전파는 비교적 이른 시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손화중이 영광과 이웃한 무장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광의 동학농민군은 20여일간 계속된 보은 집회에서 4월 2일 해산하여 돌아왔다. 영광의 동학농민군은 4월 12일 정오 무렵 영광군을 점령했다. 영광군수는 법성포 조창에서 곡식을 싣고 칠산 바다로 도망쳤다. 동학

24)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奎17189)

25) 영광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영광향토문화연구회, 1995, 『동학농민혁명 영광사료집』.

신영우, 2012,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동학학회, 99~140쪽.

조재근, 2018, 「동학농민전쟁과 전운영(轉運營)-송문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34, 역사학연구소, 121~152쪽.

권용수, 2023, 「1894년 호남 지역 동학농민군의 독자적 都所 설립」,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농민군은 무기고를 부수고 성안의 토호 집을 불사르고 관속들을 징치하였다. 4월 16일 함평으로 이동했다. 1894년 12월 3일 양경수, 5일 서우순, 9일 오준숙, 최준숙, 12일 송진팔, 21일 양경수, 송문수, 1895년 1월 20일 남궁달, 박복암, 오홍순, 이만순, 김풍조 등이 체포를 당했고 일부는 처형당하여 순국하였다.<sup>26)</sup>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영광 연고인은 41명이다. 영광 본적이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7명이다.

〈표 3〉 영광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연번	동학 농민군	재세시기	참여월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 변동	등록 구분
							1	2		
1	김용경 金龍京	1880~1918	1894.	15		농업	전주		피신	2차
2	김재묵 金在默	1868~1901	1894.03	27		-	고창		피체	1차
3	이관현 李官現	1865~?	1894.04	30		농업	영광	함평	행방 불명	1차
4	장호진 張昊鎭	1871~1949	1894.04	24	접주	농업	영광	장성	-	1차
5	최시철 崔時澈	1870~1894	1894.03	25		농업	고창	무안	처형 순국	1차
6	최재신 崔載愼	1829~1895	1894.03	66		농업	영광	고창	처형 순국	1차
7	최평집 崔平執	1872~?	1894.03	23		농업	장성		-	1차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10대에서 60대까지이다. 10대는 1명(김용경, 15세), 20대는 4명(최평집, 장호진, 최시철, 김재묵), 30대는 1명(이관현), 60대가 1명(최재신, 66세)이다. 비율로 보면 20대가 57.1%에 이른다. 참여 당시 직업을 보면, 7명 가운데 6명이 농업이다.

26) 이상식·홍영기·박맹수,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앞책.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3월이 4명(최재신, 최평집, 김재묵, 최시철), 1894년 4월이 2명(이관현, 장호진)이다. 참여 당시 직책은 접주가 1명(장호진)인데 24세였다.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영광 3명(장호진, 최재신, 이관현), 고창 2명(최시철, 김재묵), 장성 1명(최평집), 전주 1명(김용경)이다.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동학군이 2명(최시철, 최재신), 피체 1명(김재묵), 피신 1명(김용경), 행방불명 1명(이관현) 등이다.

## II. 무안·함평·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성격<sup>27)</sup>

### 1. 농민과 유학자 - 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사례

동학농민혁명은 그 용어가 지칭하듯이 농민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앞서 무안, 함평, 영광의 등록 참여자의 경우도 대부분이 직업을 ‘농업’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과 유학자[유생]는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무안의 나주김씨 김응문의 경우에는 무안 향교 장의를 역임하고 노사 기정진(1798~1879)의 문인록에 들어 있다.

무안 출신으로 기정진의 문인록에 오른 사람은 모두 30명인데 절반에 해당되는 14명이 나주김씨이다.<sup>28)</sup> 이러한 정신은 김응문(창구) 일가<sup>29)</sup>가 1890년대 무안향교의 장의와 재장을 맡아 무안향교를 이끌어

27) 본장 ‘참여자의 성격’은 1장과 관련한 흐름속에서 지역, 시기, 인물, 장소, 자료(기록, 구전 등)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방법(<자료> 연표 참조)과 본고에서처럼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주제발표문에는 1) 농민과 유학자-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2) 참전과 보호-여성 동학 참여자 정동화 부분까지만 원고를 실었고, 3) 교도와 밀고-함평 ‘이교창’ 사례, 4) 遺骸와 遺産-무안 김응문장군 유해, 5) 戰蹟과 史蹟-고막포 전적지는 ppt로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교도와 밀고-함평 ‘이교창’ 사례’는 주21)에 간략히 언급했다.

28) 『蘆沙先生淵源錄』, 1960.

갔는데, 1894년 부패한 정부를 일소하고,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무안향교의 직임을 맡았던 김창구(김응문)와 김영구(김효문) 역시 노사기정진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창구는 1887년(고종 24), 김영구는 1889년(고종 26) 무안향교 장의를 지냈다. 김영구는 다시 동학농민혁명이 있던 1894년 봄에는 재장[전교]을 지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김창구(김응문) 일가는 1880년대에 향교의 장의를 맡았고, 1894년에 향교의 재장을 맡을 정도로 무안 사회에서 중망이 높았던 것이다.<sup>30)</sup>

〈표 4〉 김응문 일가 무안향교의 직임

연대	직책	성명	자, 본관	호, 선대
丁亥(1887년) 秋	掌議	金昌九 (1849~1894.12.09.)	字 應文, 羅州人	號 茶史, 鷲岩適 後
己丑(1889년) 春	掌議	金永九 (1851~1894.12.12.)	字 孝文, 羅州人	號 孝亨, 鷲岩適 後
甲午(1894년) 春	齋長	金永九	字 孝文, 羅州人	號 孝亨, 鷲岩適 後

이처럼 김응문이나 김효문의 직업은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에는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무안향교 재장 역임 등 유생으로 활동했던 터라 직업이나 신분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다.

29) 김응문 일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 현황

참여자				등록유족	비고
등록명	재세기간	제적부	족보(字)		
김응문(金應文)	1849~1894.12.09	창구(昌九)	응문	김○○ 등 54명	
김영구(金永九)	1851~1894.12.12	영구	효문(孝文)	김○○ 등 14명	김응문의 동생
김덕구(金德九)	1868~1894.12.09	덕구	자문(子文)	김○○ 등 61명	김응문의 동생
김여정(金汝正)	1867~1894	우신(禹信)	여정	김○○ 등 79명	김응문의 아들

30) 김봉곤, 「김응문(金應文) 일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유체발굴의 의의」, 앞 논문, 268~269쪽. 김봉곤의 논문에서는 1987년 판 『무안향교지』를 인용하였는데, 필자는 1932년 판 『무안향교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를 통해 확인하였다.

함평 이태형(1841~1894)의 경우도 ‘농업’으로 표기되었지만, 무과에 합격하여 고군산첨사(1890.10~1891.07)를 지낸 무관 관직자이다. 이를 ‘농업-농민’의 범주로 분류하기 보다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말기 당시 사회는 ‘농본(農本)’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농사는 기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예를 들면 약국을 경영했다든지, 유학자로서 서당 훈장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집성된다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신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2. 참전과 보호 - 여성 동학 참여자 정동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전쟁에 직접 참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쟁 현장에서 전사 순국하거나 포살당해 순국하기도 하고 교수형이나 화형 당하여 순국하기도 한다. 부상을 당하거나 피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도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동록 기준에는 물자를 지원하거나 보호를 해 준 경우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1)</sup> 자료상의 제약이 있겠지만, 이 조항에 따른 참여자 등록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호’와 관련하여 등록된 정동화(1848~1913)의 사례를 살펴본다. 정동화는 함평 출신이지만 함평 본적으로는 분류되지는 않았다. 나주의 나동환(1849~1937)과 혼인하였기에 나주 본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등록 사유는 함평과 관련된다. 정동화는 여성 동학인으로서 최초라는 점과 동학농민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학농민군을 보호하는데

---

31) 참여자로 인정되는 자 : ① 1차 또는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②1차 또는 2차 봉기 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별표1] : 참여자 유족등록 심의기준(시행세칙 제12조제3항 관련))

참여한 사례로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32)</sup>

나동환은 동학 교장이자 접주로 나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처가인 함평군 해보면 연암리 다라실로 피신하였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관군이 들이닥쳤으나, 정동화는 남편과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관군들에게 잡혀 압של형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남편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였고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가 별세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나동환 의적비<sup>33)</sup>와 부인 진주정씨[정동화] 효열행적비<sup>34)</sup>가 세워졌다.<sup>35)</sup> 나동환은 2024년 11월 11일 참여자로 등록되었다.<sup>36)</sup> 부인 정동화에 대해서도 참여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2025년 4월 10일 등록이 결정되었다. 정동화의 사례처럼 보호와 관련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인명이 확인되지 않고 ‘직임’이나 ‘신분’이라 할 ‘조이[召史, 소사]’<sup>37)</sup>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인명

---

32) 2025년 4월 20일 등록된 최시화(崔時燾, 1842.12.19.~1920.2.6.)도 여성 동학 참여자이다. 참여지역은 강원도 정선이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 중 여성은 2인이 등록되었다.

33) 崔南九 찬, 1974. 『吏曹叅判羅州羅公東煥義蹟碑』.)

34) 羅平集 찬, 1972, 『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

35) 나천수, 2022, 「다시 쓰는 나주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나주 동학 접주 羅東煥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4, 268~269쪽. 나천수회장은 나동환과 정동화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조사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36) 나주 나동환의 참여자 등록과정에 참여(2024.08.05.)하여 “나동환의 부인 진주정씨 정동화의 경우도 동학농민혁명군을 보호하는데 있어 고문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내용이 <나주나공동환의적비>(1972)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1974) 등에 기록이 있어 참여자 등록 검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37) ‘召史’는 ‘조이’로 발음하는데 한자 표기를 따라 ‘소사’로 읽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는 “소사(召史) : 「의존 명사.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로 올라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번역문은 ‘조이’, ‘소사’로 혼용해 쓰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번역문 표기는 그대로 따른다. 한편, 『順天 前座首 次知 張召史』라 하여 ‘召史’를 남성 관직과 관련되는 용어로 쓴 사례도 있다.(『兩湖右先鋒日記』

이 기록되지 않은 채 전해 오는 수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인명을, 13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확인하기란 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다. 따라서 ‘직임’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그대로 직권 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예회복법」 입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미 등록된 참여자의 경우에도 ‘직임’ 또는 ‘별칭’일 것으로 보이는 동학군들이 직권 등록된 사례가 있다. ‘장강다구(張江多九)’<sup>38)</sup>와 ‘강감역(姜監役)’<sup>39)</sup>이다. 이를 참조하여, 여성 동학인의 경우에도 ‘성(姓)+조이[召史, 소사]’ 표기 그대로 직권등록을 먼저 했으면 한다. 그것이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의 ‘특별한 목적’이 아닐까 한다. ‘인명’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소극적 논리보다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표기대로 등록[직권]을 먼저 하고 확인할 자료를 찾아 가자는 것이다. ‘법령’도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조이[召史]’는 그 호칭을 그대로 쓴다<sup>40)</sup>는 오가작통법의 규칙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41)</sup>

‘조이[召史, 소사]’로 표기된 사례는 점에 있는 노파 양조이(店婆梁召

---

(乙未正月)

38)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爰及將領姓名並錄成冊』(1895). 장강다구(張江多九)는 사료에 나오는 인명이지만, 지역에서 흔히 쓰던 ‘깡다구-강다구’의 별칭이 올랐을 수도 있다. 본명이나 족보 등에 오른 인명[본명]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명이 확인되지 않은 탓인지 직권등록만 된 상태이다.

39) 김재홍, 『嶺上日記』(甲午八月, 1894.08). 감역(監役)은 인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의 표기 또는 호칭을 그대로 사료에 표기하였고, 이를 근거로 참여자로 직권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표기 역시 본명이 확인되지 않았던지 직권등록에 머물고 있다. 감역은 조선 시대에 선공감(繕工監)에서 토목이나 건축 공사를 감독하던 종구품의 벼슬이다. 일반적으로 공사 등에 관계되는 책임자급 기술인을 일컫기도 한다.

40) 『甲午軍政實記』(五家統規)

41) 한편, 천주교 복자(福者, 124위) 중 김조이 아나스타시아(1789~1839.10.경), 심조이 바르바라(1813~1839.11.11.), 이조이 막달레나(1808~1840.01.04.)는 세례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름이 ‘조이’로 표기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CBCK한국천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124위복자약전)

史)<sup>42)</sup>, 허내원의 처 이조이·정국찬의 처 김조이(許乃元妻李召史鄭國贊妻金召史)<sup>43)</sup>, 접귀 전유창의 처 이소사(接魁全有昌妻李召史)<sup>44)</sup>, 엄조이[嚴召史]<sup>45)</sup>, 엄소사(嚴召史)<sup>46)</sup>, 여자 동학 이소사 남편 김양문(女東學李召史之夫金良文)<sup>47)</sup>, 남편 접주 김일의 처 문소사(南面接主金一之妻文召史)<sup>48)</sup> 등이다. 특히 장흥 김양문의 처 이소사는 사료에서도 ‘여동학(女東學)’, ‘여동학이소사(女東學李召史)’<sup>49)</sup>로 표기할 만큼 직접 동학농민전쟁을 수행했던 동학 여장군으로 불리우고 있다.<sup>50)</sup>

### 3. 유해와 유산 - 무안 김응문장군 유해

동학농민혁명군의 유해(遺骸)에 대해서 유산(遺産, 국가유산[문화재])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안 동학농민군 대접주 김응문(김창구) 유해는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전쟁 고막포 전투 등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당하여 순국한 동학군 인간유해이다. 당시 호남초토영(초토사 나주목사 겸임)에서 중앙에 보낸 공문서에는 ‘경신후치폐(經訊後致斃)’로 기록되어 있다.<sup>51)</sup> 이는 신문을 받은 뒤 최종 판결 이전에 죽는 것을 말한다. 고문과 악형으로 인한 것

42) 『隨錄』(營奇)

43) 『兩湖招討謄錄』(光緒二十年四月十二日 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臣洪啓薰謹啓爲相考事)

44)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1894.12, 奎17189).

45) 『巡撫先鋒陣謄錄』(乙未正月初十日, 1895년 1월 10일)

46) 『先鋒陣呈報牒』(光州牧使爲牒報事)

47) 『兩湖右先鋒日記』(乙未 正月[1895년 01월])

48) 『兩湖右先鋒日記』(乙未 正月[1895년01월])

49) 『兩湖右先鋒日記』(乙未 正月[1895년 01월])

50) 장흥 이소사에 대해서는 위의환, 2009, 「여동학 이소사」, 『장흥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II』, 천도교장흥교구, 222~230쪽 ; 배항섭, 2010, 「동학농민전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전남 장흥지역 사례를 단서로-」, 『동학학회』 19, 267~269쪽. 등 참조.

51)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並錄成冊』(1894.12, 奎17189).

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효수당하여 순국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sup>52)</sup> 김응문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2008년 참여자로 등록되었고 유족도 등록되었다.<sup>53)</sup>

김응문 접주의 유해는 1894년 12월 9일 순국한 뒤 매장되었다가, 동학농민군 지도자묘역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4월 28일 발굴되었다. 이후 실시된 DNA 분석을 통해 직계 후손이 확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동학농민혁명군 유해로 규명되었으며,<sup>54)</sup> 이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sup>55)</sup>

이어 유족·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유해 처리 방향을 논의하였고, 2023년 2월 27일 무안군이 유족으로부터 유해를 인수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추모관에 봉안하였다. 이어 기념재단의 ‘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는 유해 보존과 공개 원칙을 마련하며 국가등록문화재<sup>56)</sup> 등록을 추진하였다.

등록 신청서 작성은 전문가 협력 속에 진행되었으며, 유해의 성격 검토, 법령 분석, 가치 판단 등이 포함된 신청서<sup>57)</sup>가 완성되었다. 이 신청

---

52) 이이화·배항섭·왕현중, 2006,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호남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205쪽.

53) 주29) 참조.

5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주관), 〈㉞디엔에이링크·인류진화연구소(검사), 앞 책.〉

5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2.11.03., 『김응문 일가 유골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김응문 일가 유골 관련 학술 세미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56) ‘문화재’ 용어는 2024년 5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본고에서는 김응문 유해 등록 추진 당시(2023) ‘문화재’ 등 용어는 그대로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유산’ 용어도 함께 쓰고자 한다.

57) 『무안 동학농민군 김응문 유해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서』. 필자가 신청서 기본안을 작성하였다. 조사 정리 과정에서 박석면이사장(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병규부장, 전동근조사관(이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 제공과 최종호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 김삼기위원(전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관)의 자문에 힘 입었다. 그리고 박맹수교수(전 원광대총장), 최성환교수(목포대 사학과)의 도움말이 있

서는 유족, 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무안군, 전라남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24일 전라남도에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은 2023년 9월 26일, “사람의 유해는 생물학적 생성물로서 국가등록문화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3조 해석을 근거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sup>58)</sup> 이는 인골이 자연유산 범주로 분류되어 유형문화유산·기념물 등 문화유산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법령 체계 때문이었다.

이 결정은 동학농민혁명군 유해가 가진 역사·정신·학술적 의미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불러왔다. 김응문 유해는 순국 시기가 명확하고 출토 정보가 분명하며, 직계 후손과 DNA가 일치하는 국가적 희소 사례로서 역사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문화유산적 해석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등록이 어렵게 된 이후, 학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인간 유해를 자연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역사·정신·문화의 관점에서 보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2024년 5월 국가유산 제도로 개편된 뒤에도 유해류 유산의 정의와 보호 범위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어, 김응문 유해 사례는 향후 국가 차원의 법령 정비와 정책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정점이자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이를 구성하는 인물·유적·기록유산은 지속

---

었다. 특히 최종호교수는 문화재 관계 법령의 분석과 적용, 문화재적 가치의 방향 정립에 있어 세밀한 교시를 해 주었다. 감사드린다.

58)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 제출에 대한 회신(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4188, 2023. 9. 26./10. 3. 접수)

적으로 문화유산 제도 안에서 재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학 전쟁 참여자의 실체적 자료, 특히 신원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유해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2022년 발굴된 김응문 유해는 DNA 분석을 통해 신원·후손·출토지·연대가 모두 교차 검증된 동학농민군의 유일한 유해로 동학농민혁명 연구사에서 매우 이례적이지 전례 없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와 더불어 인간 유해의 문화유산적 성격을 검토하여 국가유산 지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자.

현행 국가유산 체계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 유해는 어느 범주에도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인골은 매장유산의 ‘중요출토자료’로 분류되어 자연유산적 관리에 머물렀으나, 국제적으로는 이미 인간 유해를 자연사 자료에서 분리해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문화자료로 다루는 기준이 정착되었다. 유네스코 및 ICOM 가이드라인은 인간 유해에 내재한 의례·정체성·기억·폭력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이를 자연유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59)</sup>

김응문 유해는 1894년 순국 이후 130년이 경과해 「근현대문화유산법」의 ‘50년 이상 형성 요건’을 충족한다.<sup>60)</sup> 또한 문화유산 유형 분류에서 유해는 인위적 제작물이 아닌 역사적 사건에 의해 발생한 ‘형성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효수 등 국가 폭력의 결과를 ‘제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 더불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인골을 역사적·학술적 보존 대상인 중요출토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sup>61)</sup>에서, 김응문 유해는 법령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59)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에 다자조약으로 마련되었고 현행 협약의 발효일은 1983년 5월 14일이다.)

6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61) 문화재청(보도자료), 2022.07.19., 「국가 등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 근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판단된다.

학술적으로도 김응문 유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신원·혈통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사례로, 사료의 희소성과 학문적 활용성이 탁월하다. 유해의 상태는 19세기 말 전투·처형·사회사의 복원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발굴 과정에서 이루어진 DNA 분석과 매장 양상 조사는 인류학·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더불어 실제 기반의 역사교육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유산은 전적지·유적·유물·기록 등 비인간적 요소 중심이며, 동학혁명 주체였던 농민군의 실체를 입증하는 유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응문 유해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최초의 실제유산으로, 향후 인체유래 문화유산의 제도화 과정<sup>62)</sup>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유해는 단순한 생물학적 잔존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기억, 의례, 세계관이 응축된 문화적 실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응문 유해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 민중항쟁의 역사, 지역 공동체 기억의 핵심을 이루는 상징적·문화적 가치까지 포함한다고 하겠다. 지역사회가 김응문을 기억 공동체의 중심 인물로 재인식하고 있다는 점<sup>63)</sup>도 문화유산 지정의 당위성으로 내세울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발굴이나 분묘 확인은 보은 북실의 동학농민군 집단매장지 시굴, 홍천 서석 풍암리의 동학농민군 집단매장지 발굴 등 몇 사례가 있고<sup>64)</sup>, 진도 동학농민혁명 유해<sup>65)</sup>나 장흥 동학농민혁

---

62) 「문화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간 유해를 문화유산의 범주로 명확히 포함시키는 조문 정비가 필요하고, 인류학·역사학·유전학 등 학제 간 공동 연구를 확대하여 자료적 신뢰도를 강화해야 하며, 후손·지역사회 윤리 기준 확립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63) 김희태, 2025.09.26., 「동학농민혁명군 김응문 일가의 유해와 ‘국가유산’」, 『무안 동학 아카데미』(유인물),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47~162쪽.

64) 신영우, 202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해 발굴과 그 의미」, 『김응문 일가 유골

명군 묘역이 있지만<sup>66)</sup>, ‘김응문 유해’는 유족과 유전자 일치가 확인된 동학농민군 인골로서는 최초 유일 사례라는 점, 그리고 출토지, 매장시기, 장소, 기록, 지역 연고 등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단순히 한 개인의 유해를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적 기억을 회복하는 역사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적·학술적 의미가 매우 크다.<sup>67)</sup>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관련하여 국가유산 지정 또는 등록 사례와 비교할 때 주인공이라 할 동학농민군의 유해는 당연히 국가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는 동학농민군이 수기로 쓴 기록유산으로서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sup>68)</sup>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태어나고 생활한 곳이나 유적<sup>69)</sup>, 동학군이 남겼거나 관련된 기록<sup>70)</sup>,

---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 학술세미나」, 9~13쪽.

65) 박맹수, 2016.10.20., 「진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그 의미」, 『진도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와 그 위상 -2016년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국제학술회의-』, 전라남도·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59~85쪽.

66) 장흥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흥 공설공원묘지 정비(무연묘) 관련 장흥 동학농민군 학술조사 보고서』.

67) 조선시대 이전의 출토 인골 연구 성과와 완주 초남이성지 천주교 순교자 윤지충(바오로) 등의 유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가 된다.

방유리, 2023.12.13., 「발굴조사 중요출토자료 현장조사 및 공동연구 진행 실무-인골·미라 조사연구 사례와 유관 법령-」, 『발굴조사 중요출토자료 정책공청회 발표자료집』, 문화재청·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 대전전통나래관, 51쪽.

완주군·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왕주문화재연구소·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 2021.12.09., 『최초순교자 유해 발굴의 의의와 역사 재조명을 위한 과제-초남이성지 학술세미나-』,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6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69) 유적(6) : 정읍 전봉준 유적(국가 사적), 인제 동경대전 간행터(강원 기념물), 고창 전봉준 생가터, 원평집강소 터, 말목장터와 감나무(이상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나주 금성도평비(전남 문화유산자료). 국가유산청 누리집 참조. 이하 같음.

70) 기록물(18) : 강진 강재 일사(剛齋 日史), 나주 금성정의록(이상 전남 유형문화유

동학농민군이 싸운 전적 현장<sup>71)</sup>, 심지어는 동학군을 토벌과 관련된 기록물<sup>72)</sup>도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그 주인공이라 할 동학농민혁명군의 유해도 하루빨리 국가유산 반열에 올라야 하고,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의 한 방안 될 것이다.

#### 4. 전적과 사적 - 고막포 전적지

동학농민혁명 전적(戰蹟)은 5개소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史蹟)이며, 1개소는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전라도 서남부의 대표적 전적지이자 가장 많은 순국자가 나온 고막포 전적지<sup>73)</sup>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적지 외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주둔지, 훈련지, 인물 생가지, 묘소, 기념비 등)이나 유물[고문서, 문헌 등]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산 지정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막포전적은 사적의 유형별로는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과 “역사적 사건 기념과 관련된 유적”에 해당된다. 역사적 가치는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에 해당하고, 학술적 가치는 “역사시대의 정치·사회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에 해당한다.

---

산), 사발통문과 일괄문서)(전북 유형문화유산), 태안 갑오동학혁명 순도자 명단(충남 등록문화유산), 석남역사, 순교약력과 종리원사 부 동학사(이상 전북 문화유산 자료),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이상 국가등록문화유산)

71) 전적지(6) : 정읍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 고창 무장기포지(이상 국가 사적),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72) 기록물2(3) : 흥선대원군 효유문, 흥계훈유서와 양호전기, 소모사실(召募事實)(이상 전북 유형문화유산)

73) 배향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앞논문.  
왕현중, 2015.11.13.,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과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앞 논문.

홍동현, 2024,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지역적 특징」, 앞 논문.

무안·함평·영광 등 전라도 서남부 동학농민혁명군은 1894년 11월 15일 나주 서쪽 30리 지점인 고막포(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소재)와 고막원(현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소재) 일대에 집결하였고, 나주 서쪽의 동학농민혁명군과 합세하여 나주 서쪽 5개면을 함락하고 나주 수다면(현 다시면)의 장등참(진등참, 현 다시면 동곡리, 문동리 일원)에 이르러 나주읍성을 점령하려고 기세를 올렸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나주목사(민종렬, 호남초토사 겸임)는 급히 용진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호동과 선동·지산동 경계에 있는 산)에 출동한 수성군을 불러들여, 17일 도통장·부통장·중군장으로 하여금 포군 300명을 영솔하고 물리치게 하였다. 이에 수성군은 20리 떨어진 자지현(紫芝峴, 현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신결산과 여미산 사이 고개)을 넘어갔는데, 날이 저물자 초동시(草洞市, 현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초동마을[셋골])에 가서 주둔하였다. 이때 마침 전왕(田旺, 현 왕곡면)·지량(知良, 현 영산동)·상곡(上谷, 현 영산동) 등 3개 면에서 민보군이 일어났고, 의거통령(義舉統領) 박훈양(朴薰陽)·나사집(羅史集)·임노규(林魯圭)가 이끄는 민병 수천 명이 관군의 뒤에 포진하였다.

11월 18일에는 장등(長嶝, 진등)에서 진을 마주하고 수성군과 동학농민군이 격돌하였다. 포군 300명과 3,000명의 민보군이 포진하고, 대포군(大砲軍)과 천보총을 쏘면서 진격해 들어가고, 중군이 동학농민군의 왼쪽을 기습하자, 동학농민군 대열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동학농민군은 수성군에게 추격당하면서 순국하였고 10리가 넘는 벌판을 지나 고막포에 이르렀다. 고막포에서는 입지상 동학농민군이 물에 떨어지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호남초토사가 작성한 공식문서에도 “동학군이 고막포교에 이르러 물에 빠져 낙수사(落水死)한 동학군 수백 명이 넘어[殆過數百]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sup>74)</sup>는 기록이 있다. 나주 관

74) “又有被逮至古幕浦橋邊 落水死者殆過數百餘計 而因潮漲未的其數”(『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1894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이 문서에 대해서

내 다른 6개소의 전투에서 665명의 순국 동학농민군이 확인되는데<sup>75)</sup>, 고막포 전투는 호남초토영에서도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수백명의 순국자가 있었던 것이다.

고막포 전투는 광주, 나주, 무안, 함평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총집결하여 북쪽과 서남쪽에서 나주성을 공략해 간 대규모 공방전 중에 일어난 전투로 무안과 함평 지역 농민혁명군이 주도한 전투였다.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함평군 등은 김응문 유족 등과 함께 매년 고막포 석교 부근에서 고막포 전투 기념제를 해 오고 있다.

동학농민전쟁 고막포전적에 대하여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검토할 부분이 있다.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에 ‘동학농민혁명 유산’을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 제8조 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업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유적지<sup>76)</sup>를 정비하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해야 하고 관련자료의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도 조사와 함께 분류와 정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규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동학농민혁명 유산’을 규정화하여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유산 관련 법규가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유산을 지정하

---

는 김희태, 2024, 「포살동도수효급소획죽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爰及所獲汁物 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동학농민혁명 연구』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참조.

75) 김희태, 2022.,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앞 논문, 131쪽.

7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 유적지정보에는 인물유적[집터 가옥 활동 피체지 순절지 묘지 동상 기타], 전투·집결[모의지 훈련지 전투지 점령지 집결지 주둔지 이동로 기타], 기념시설[기념비 기념탑 동상 조형물], 기념공간[전시관 추모관 복합건물] 대분류[4]-중분류[23]체계로 376개소의 유적지 정보가 올라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기록유산 등 동산유산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

여 관리하는 제도가 참고가 된다.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사례는 현충시설<sup>77)</sup>, 건축자산<sup>78)</sup>, 국가지정기록물<sup>79)</sup>, 5·18민주화운동 사적지<sup>80)</sup>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조례로만 관련 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sup>81)</sup>

## 맺음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혁명군은 2025년 9월 28일 기준 4,033명인데 직권등록이 3,347명(82.99%), 1차 496명(12.30%), 2차 190명(4.71%)이다. 지역명을 검색어로 확인하면 77명, 합평은 98

- 
- 7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 조항을 추가해 개정(2001.01.26)하고 대통령령으로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2.03.20), 「현충시설 관리 지침」(2003.02.23)을 제정하여 독립운동 관련시설(1,001), 국가수호 관련시설(1,337) 2,338개소 지정 관리함.
- 7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 [등록된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함].
- 79)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소장 기록물 중 중요한 것을 2008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제1호는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이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38조에 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80)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는 법률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1998년 1월 12일에 27개소(24개 지역)가 조례 없이 지정되었다. 2005년에 「5·18 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4년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로 통합되었다. 29호까지 지정함.
- 81) 김희태, 2025.09.16.,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특징〉 토론회」, 『2025년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학술대회-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75~78쪽.

명, 영광은 41명 등 206명이다. 이 가운데 중복된 인물 제외하면 196명이고, 추가검색을 통해 확인한 동학군을 포함하면 203명이다. 이 동학군들을 중심으로 무안·함평·영광 등 전라도 서남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은 몇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참여자에 대한 것으로 신분이나 직업에 관해서 농업[농민]과 유학자[유생]의 경우를 무안 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사례이다. 그리고 동학농민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동학군을 보호했던 참여자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다른 하나는,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해의 보존, 유적지의 보존과 현양 등에 대해서이다. 무안 김응문장군 유해의 국가유산 등록, 고막포 전적의 국가유산 추진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안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해 오고 있다. 무안, 함평, 영광의 등록 참여자의 경우에도 참여자 대부분이 직업을 ‘농업’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과 유학자는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무안의 나주김씨 김응문의 경우에는 무안 향교 재장을 역임하고 노사기정진의 문인록에 들어 있는 유학자이다. 특히 무안 출신으로 노사기정진의 문인록에 오른 사람은 모두 30명인데 절반에 해당되는 14명이 나주김씨라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김응문이나 김효문의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무안향교 재장 역임 등 유학자[유생]로서 활동했던 터라 직업이나 신분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하고, 이같은 사례가 집성된다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신분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함평 이태형(1841~1894)의 경우도 ‘농업’으로 표기되었지만, 무과에 합격하여 고군산첨사(1890.10~1891.07)를 지낸 적이 있다. 이를 ‘농업-농민’의 범주로 분류하기 보다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전쟁에 직접 참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쟁 현장에서 전사 순국하거나 포살당해 순국하기도 하고 교수형이나 화형 당하여 순국하기도 한다. 부상을 당하거나 피신하는 경우도 있

지만, 이들도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록 기준에는 물자를 지원하거나 보호를 해 준 경우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와 관련하여 등록된 여성 동학 참여자 정동화의 사례가 있다, 나주 본적으로 등록되었지만, 함평출신이고, 함평의 친정 동네로 남편 나동환을 피신시켰고, 관군이 행선지를 문초해도 알려 주지 않았다. 이같은 열행을 기려 열부 포장을 하고 행적비를 세웠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동학참여자로 등록되었다.

자료상의 제약이 있겠지만, 이 조항에 따른 참여자 등록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인명이 알려진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칭이나 직임으로 보이는 ‘조이(召史, 소사)’로 표기된 경우도 우선 직권 등록을 했으면 한다. 남성의 경우에도 능주 장강다구(張江多九), 남원 강감역(姜監役) 등 별칭이나 직임으로 보이지만, 기록이 있어 등록(직권등록)된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장흥 이소사(李召史)의 경우, 동학군의 ‘지원이나 보호’를 뛰어 넘어 직접 동학군으로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해(遺骸)에 대해서 유산(遺産)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무안 동학농민군 대접주 김응문은 1894년 고문으로 순국한 인물로, 유해는 2022년 발굴되어 직계 후손이 확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동학농민혁명군 유해로 규명되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중요한 성과였다. 2023년 유해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추모관에 봉안한 뒤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사람의 유해는 생물학적 생성물로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 해석에 따라 등록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동학농민혁명군 유해가 지닌 역사·정신·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협소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김응문 유해는 순국 시기와 출토 정보가 명확하고 DNA로 후손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동학농민군 실체자료로, 그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매

우 크다. 국제 기준 역시 인간 유해를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문화자료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인간 유해를 자연유산 범주로 보고 있어 문화유산적 해석이 부족한 점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후 학계와 지역 사회는 인간 유해를 자연유산이 아닌 역사·정신·문화유산으로 재정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국가유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유해류의 법적 지위는 공백 상태여서 김응문 사례가 제도 정비의 기준점이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응문 유해는 법적 요건뿐 아니라 학술적·역사적·교육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인체유래 문화자료로서, 국가유산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활용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정읍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 고창 무장기포지 5개소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이며,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전라도 서남부의 대표적 전적지이자 가장 많은 순국자가 나온 고막포 전적지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적지 외에도 관련 유적[주둔지, 훈련지, 인물 생가지, 묘소, 기념비 등]이나 유물[고문서, 문헌 등]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산 지정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동학농민혁명 유산’을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투고일 : 2025. 10. 10. 심사완료일 : 2025. 10. 30. 게재확정일 : 2025. 11. 3.
--

## 참고문헌

### <자료>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규장각 소장, 奎17189.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將領姓名竝錄成冊』, 규장각 소장, 奎17190.

『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錦城正義錄』, 李炳壽.

『羅州金氏大同譜』, 2001.

『蘆沙先生淵源錄』, 澹對軒, 1960.

『東學亂記錄』, 『한국사료총서10』, 국사편찬위원회, 1959.

『東學史』, 吳知泳, 草稿本, 국사편찬위원회DB.

『務安鄉校誌』, 무안향교, 1932.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甘結務安縣 十二日.

『天道教書』, 天道教中央總部, 1921.

### <단행본>

김정호 편저, 1988, 『지방언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광주일보출판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5,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주관기관)·(주)디엔에이링크·인류진화연구소(검사기관),  
2022.10., 『김응문 일가 유골 조사 및 유전자검사 용역-인류학 및 유전자검  
사 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2, 『김응문 일가 유골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 학술세미나』, 동학농민혁  
명기념재단 교육관.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2.11.03.,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무안승달문예회관.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7.11.28., 『무안동학농민혁명연구 동아리활동  
보고회』.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무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16.12.16., 『무안동  
학농민혁명연구 동아리 활동 결과 발표회』.

무안군·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2013,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  
사업 기본계획수립』.

무안군사편찬위원회편, 1994, 『무안군사』.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08, 『무안동학농민혁명사』.

윤여정 역음, 2009., 『대한민국 행정지명』제1권 전남·광주편, 향지사.

이상식·박맹수·홍영기, 1996,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이이화·배항섭·왕현중, 2006,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호남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전용호, 2023, 『역사에 헌신한 의인 가족 4대-동학혁명에서 5월항쟁까지-』, 심미안.

전주시·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9, 『한국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사업 기록』.

최현식, 1983, 『갑오동학혁명사』, 금강출판사.

## 〈논문〉

김봉곤, 2022, 「김응문(金應文) 일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유체발굴의 의의」, 『동학학보』 제62호, 동학학회, 259~292쪽.

김봉곤, 2021, 「나주 동학농민군 활동 재조명」,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시민사회로의 확산』,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김봉곤, 2020,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연구』 제79권,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61~95쪽.

김희태, 2019. 10.30.,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방안」,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국제학술대회-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 나주시·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김희태, 2020.10.28.,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구축-자료구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나주시, 105~119쪽. ; 나주시, 2022,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김희태, 2024, 「유족 증언과 자료로 본 전라도 장흥·강진지역 동학농민군의 순국」,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희태, 2024, 「포살동도수효급소획죽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交及所獲汁物 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 민전쟁 기록 -」, 『동학농민혁명 연구』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희태, 2025.09.16.,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특징〉 토론편」, 『2025년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학술대회-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희태, 2025.09.26., 「동학농민혁명군 김응문 일가의 유해와 ‘국가유산」, 『무안 동학 아카데미』(유인물),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47~162쪽.

- 배석오, 1994, 「동학혁명과 무안지방의 봉기」, 『무안군사』, 무안군사편찬위원회.
- 배항섭, 2015,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5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38쪽.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5.11.13.,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 배항섭, 2002a, 「제1차 동학농민혁명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 제11집, 한국동학학회, 31~71쪽.
- 배항섭, 2002b, 「제1차 동학농민혁명전쟁 시기 농민군의 행동양태와 지향」,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1권, 한국근현대사학회, 7~34쪽.
- 신영우, 2022.11.0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해 발굴과 그 의미」, 『김응문 일가 유골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 학술세미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 왕현중, 2015.11.13.,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과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정경운·임선주, 2015,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과 활성화 전략-무안지역 및 고막포전투지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제29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15~249쪽.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5.11.13.,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 정소영, 2024,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고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동학학보』 제71호, 동학학회, 233~268쪽.
- 표영삼, 2000, 「전라도 서남부 혁명운동」, 『교사교리운동』 제8호.
- 홍동현, 2024,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지역적 특징」, 『남도문화연구』 제53권,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29~259쪽.

## 〈기타〉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www.db.history.go.kr>)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 한국천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https://cbck.or.kr/koreanmartyrs>)

〈자료〉 전라도 서남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관련 연표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비고
1892.	동학입교	무안 조병연(趙炳淵)(청계면 남성리), 이병대(李炳戴)(청계면 남안리), 고군제(高君濟)(청계면 도림리), 한용준(韓用準)(박곡면[몽탄면] 갈곡리), 함기연(咸奇淵)(남리)	이병대 고군제 함기연	
1892.07.17		무안 김의환(金義煥)	김의환	
1892.11.07		무안 이병경(李秉炯)	이병경	
1893.		무안 송두옥, 송두옥, 한택을, 송군병, 박인화(청계면), 무안읍 정인섭(무안읍)	송두옥 <sup>82)</sup> 한택을 송군병 정인섭	
1893.02.11	광화문 복합상소	무안 배상옥(규옥, 상선) 동생 배규찬 참여		
1893.03.11	보은 취회(장내리)	무안 배규인 등 무안집 80여명 참여		
1893.03.27		영광 동학군 호남 영광 등지에서 100여이 보은 도착(『취어』) *전라도 23고을 참여(나주, 남원, 무안, 순창, 순천, 영광, 영암, 장수, 전주, 태인, 함평/장흥, 익산, 여산, 진도, 임실, 부안. 고흥, 강진, 광양/임피, 함열)		
1893.04.02	함평, 영광 동학군 해산	함평, 영광, 남원, 순창, 무장, 태인 등지 동학군 200여명 해산하여 돌아감.		
*1894.01.10	고부 농민 봉기	고부 농민봉기, 고부관아 점령		
1894.02.28	영광 민란	영광에서 농민항쟁(민란)이 일어남(오하기문)		
*1894.03.13	고부 농민 해산	고부 농민 해산		
1894.03.15	무안 동학군 무장과 합세	무안 배상옥(배규인), 해남 김춘두 등과 무장의 동학 농민군과 합세		
*1894.03.20	무장기포 (1차기포)	동학농민군 무장포고문 공포 영광 법성 진량면 용현리에 대밭의 죽창으로 무장,		
*1894.03.23		무장기포 동학군, 고부 다시 점령		
1894.03.26. ~29	백산대회, 호남창의대장 소 설치	백산으로 이동, 부안 김제 고부 태안 영광 등지 농민 결집 연합부대 편성, 지도부 확대 개편		
		전라도 53고을 중 전남 영광, 무안, 장성, 나주, 광주 등 17개 고을 기병, 백산 참여(동학사)		
		무안 배상옥, 김응문 등 장령급 15명 참석, 그 외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연	노윤화 임경춘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비고
		교, 노영학, 노윤화,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경춘, 이동근(이여춘)		
1894.04.02	정부, 양호초토사 홍계훈 임명	정부, 전라감사 겸 장위영 점령관 홍계훈을 양호초토사, 이문영을 전라병사로 임명 *홍계훈부대(800명), 서울, 인천(04.03), 군산(04.06), 임피, 전주 도착(04.07)		
1894.04.04	동학군, 범성포 이항에 통문	영광 범성포 이항(吏鄕)들에게 통문을 보내 폐막 시정 촉구		
1894.04.06	나주 서문 전투	무안 배상옥과 함평의 이화진이 연합해 나주 수성군과의 싸움에서 동학군 이여춘(이동근) 등 30명 체포당함.		
*1894.04.06. ~.07	정읍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군 황토현 전투 승리, 전라감영군 대파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차례로 점령		
1894.04.11	무안 동학군 처형 순국	무안 이여춘(이동근) 등 3명 처형당해 순국함. 27명 출신 고을[自邑]에서 처리토록 함.		
1894.04.12	영광군 점령	백산 운집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격파하고 정읍, 흥덕, 고창, 무장을 거쳐 영광 도착, 4일간 주둔. 「대적시 약속(大敵時 約束) 4항」, 「12조 계군호령(戒軍號令)」 동학군, 영광군 점령, 군기고에서 군기 탈취		
1894.04.14	영광 범성포 폐단개혁	동학군, 영광 범성포 산과 구수산 등에 주둔. 일본인 객주 여각 습격, 폐단 개혁		
1894.04.16	동학군 무안 진출	동학농민군, 무안으로 진출		
	동학군 함평 관아 점령	동학농민군 전봉준 주력군 6~7천명이 함평으로 남하, 함평 관아 점령		
1894.04.18	동학군 무안 주둔 함평 이동	무안 배상옥 주도 동학농민군 7~8천명 무안 산내면에 주둔 후 함평으로 이동		
	전봉준, 나주공형에 글 보냄	함평에서 전봉준장군이 나주목의 공형(公兄)에게 동학교인 석방하면 나주 공격을 앞겠다는 뜻을 나주목사에게 전해 달라고 글을 보냄.		
1894.04.21	경군 영광도착	경군(홍계훈), 전주(04.18) 출발하여 동학농민군 추격을 시작하여 금구, 태인, 정읍, 고창을 거쳐 영광에 도착		
1894.04.19	전봉준, 양호초토사에 글 보냄	함평에서 전봉준장군이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 글을 보냄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비고
1894.04.중순	동학군 무기 탈취	무안 배상옥 부대 무안현 등 29개소 무기 탈취		
1894.04.21	경군 영광 이동	경군(홍계훈), 영광 도착		
1894.04.22	동학군 장성, 나주 이동	동학농민군 주력부대 함평 떠나 장성으로 이동. 일부는 나주로 향함.		
	경군, 장성 이동	홍계훈, 경군 470명 중 300명을 이학승, 원세록 등에게 인솔하여 대포 2문을 주어 동학농민군을 추격하게 함		
*1894.04.23	장성 황룡촌 전투	동학농민군 황룡촌 전투 승리, 경군 정예부대 대파		
*1894.04.27	전주성 점령	동학농민군, 전주성 점령		
*1894.05.04	청국군 상륙	청국군(淸國軍), 아산만 상륙		
*1894.05.06	일본군 상륙	일본군, 인천항 상륙		
*1894.05.08	전주 화약	동학농민군 전주화약(和約) 체결, 동학농민군은 해산하고 고을로 돌아가 폐정개혁 단행		
1894.05.09	동학군 지주, 탐관오리 공격	무안 동학농민군 악덕 지주와 탐관오리 공격		
1894.05.00	집강소 설치	무안 청계면 청천리 청천재에 집강소 설치		
1894.06.00	동학군 목포진 공격	무안 배상옥 목포진 공격		
*1894.07.01	일본군 선전포고	일본군 선전 포고		
*1894.07.06	집강소 설치	전봉준, 전라감사 김학진과 집강소 설치 합의		
1894.07.00	함평성 공격	함평 접주(거괴) 이은중이 함평성을 공격함 (12.15 현감 보고)		
1894.07.말	동학군 세력	무안 배상옥 세력 몇만 명에 이름.*전봉준, 김개남의 2.5배에 이름		
1894.09.10	삼례기포 (2차기포)	동학농민군 9월 재봉기. 반일 민족항쟁 시작 무안 배상옥, 김응문 등 농민군 2,000명 삼례 집결 *기록에는 삼례에 집결했다고 되어 있으나 후방 방어를 목적으로 무안에 주둔한 것으로 추정		
*1894.10.12 ~16	남북접 논산 집결	남북접 동학농민군 논산 집결		
1894.10.00	동학 입교	영광 서우순(道內面 古城里) 동학 입교(무장장재면 남계리 오응문에게 동학을 전수 받음)	*오응문	
*1894.11.08. ~11	공주 우금치전투	동학농민군 공주 우금치전투, 패배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비고
1894.11.16. ~21	고막포 전투	무안, 함평 동학농민군 나주 공격을 위해 고막포 일대 집결, 나주 수성군과 접전 농민군 5~6만명, 사상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함		
1894.11.00	동학군 활동	함평 이화진의 수종 박준상은 해제로 고부 부민 황경여의 도조를 받으러 갔다가 접주 최문빈(최장현)의 방해로 실패.		
1894.11.20	나주 집결	동학농민군 나주성 집결. 손화중, 최경선, 장흥 이방언,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담양 국문보 등		
	영광 점령	영광 동부면 접주[괴수] 양경수(梁京洙) 등이 마구 포를 쏘며 성을 침입하여 영광군 다시 점령		
1894.11.22	함평으로 이동	고창 임천서가 기병하여 함평으로 갔다고 함 (봉납일기)		
1894.11.27	광주 입성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손화중 등 광주 입성		
	전봉준, 동학군해산	전봉준 장군, 장성 갈재에서 군대해산, 은신		
*1894.11.27	태인전투	동학농민군 태인전투 패배, 동학농민군 주력 해산		
1894.11.28	선봉장 군 나주로 출발	선봉장 이규태, 통위영 2개소 병력과 일본군 100여명과 전주에서 나주로 출발		
*1894.12.01. ~10	동학군 해산	광주에서 동학군 해산		
	동학지도자 피체	동학 주요 지도자 최경선(12.1, 동복) 전봉준(12.2) 김개남(12.3), 손화중(고창) 등 피체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등 돌아와 활동		
1894.12.02	함평 접주 등 포살 순국	함평 접주 김경오, 이춘익, 이재면, 이곤진, 김성필, 김인오, 김성서, 노덕팔 <sup>83)</sup> 등은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함	김성필 <sup>84)</sup>	
1894.12.03	영광 양경수 피체	영광 양경수, 진사 김응선을 중심으로 조직된 수성군에 잡힐 때 총살당해 순국 <sup>85)</sup>		
1894.12.05	함평 이화진 포살 순국	함평 이화진 포살당해 순국. 수종 6명 붙잡음.		
	영광 서우순 등 처형 순국	영광 서우순, 함평 동학지도자들과 함께 피체 처형 당해 순국	최준숙 <sup>86)</sup>	
		영광 접주(적괴) 송문수 <sup>87)</sup> , 오태숙 효수[효경] 당해 순국		
		영광 최준숙 등 9명,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 영광 박인지 등 10명, 압송당하여 장위영 [장위대관]에 넘겨짐.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비고
1894.12.06	함평 접주 5인 처형 순국	함평 접주 김치오, 정원오, 정곤서, 김경선, 윤경옥 등 처형당해 순국.		
	함평 접주 이화진 수종 6명 피체	이화진의 수종 조병목, 서우순, 김문조, 이응모, 김봉규, 박준상 등 피체 구속해 처분 기다림(함평현감 첩보)		
1894.12.07	무안 동학군 이동	무안 배상옥 영암, 강진 등지로 이동		
	함평 접주 5명 처형순국	함평 접주 이두연, 김학필, 이관섭 <sup>88)</sup> , 이창규, 공명오 처형당해 순국(12.10 현감 보고)		
1894.12.08	무안 2명 처형 순국	무안 접주(접괴) 배정규, 박순서 포살당해 순국. 무안 서여칠 등 6명,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함	배정규 <sup>89)</sup>	
1894.12.08	함평 접주 이은중 피체	함평 접주(거괴) 이은중이 수성군에게 체포당함. 함평현에서 조사하여 초토영으로 압송할 것을 보고(12.15. 현감 보고)		
1894.12.09	함평 접주 8인 처형 순국	함평 접주(거괴) 윤정보, 장경삼, 대접주 박춘서, 정평오, 김시환, 윤찬진, 김경문, 박경중 등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12.10 현감 보고)	김경문 <sup>90)</sup>	
1894.12.09	무안 동학군 신문 후 순국	무안 동학농민군 18명 피체, 접주(거괴) 김응문(김창구), 김자문(김덕구), 정여삼, 김여옥, 장용진, 조덕근 신문을 겪은 뒤 순국함.		
		무안 동학군 12명,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함.		
		*좌선봉장 이규택 무안현 도착		
1894.12.10	일본군 함평도착	일본학살군, 후비보병 독립 제19대의 제2중대(서로군) 함평 도착.		
1894.12.12	무안 동학군 처형 순국	무안 동학군 70명 생포(30명 처결, 40명 구속) 배규찬, 김효문(김영구), 오덕민, 조광오, 김문일(文一, 文日, 김기봉, 김용봉), 박경지, 박기운, 양대숙, 서여칠, 박기연, 박규상, 박기옥 등 처형당해 순국		
		영광 출신 송진팔 등 18명이 무장에서 피체 영광으로 압송되어 경중에 따라 처형당해 순국.		
1894.12.14	좌선봉장, 무안 배상옥 체포 지시	좌선봉장 이규택 무안 수성군 오한수에게 해남에 있는 배상옥 잡을 것을 명령		
1894.12.15	장흥 석대들 전투	무안 배상옥이 참여한 것으로 보임, 전투에서 패배 후 해남, 완도 등으로 피신		
1894.12.22	함평 이화진 수종 6명	함평 접주 이화진의 수종 조병목, 서우순, 김문조, 이응모, 김봉규, 박준상의 동학 입도와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비고
	조사	정, 활동상 자세히 조사. 김봉규는 구타당해 순국함.		
1894.12.23	무안 동학군 해남에서 피체	해남에서 무안 접주(박치경, 박채현) 접사(임학) 김몽길 등 4명 체포당함.		
1894.12.24	무안 배상옥 해남에서 처형 순국	무안 배상옥, 해남 은소면[현 송지면]에서 윤규룡에게 잡히자 일본군 보병 대위 마스게 세이보(松本正保)에게 현장에서 총살 당해 순국(현상금 1,000냥)		
1894.12.27	무안 해제 최씨 3명 처형 순국	무안 해제면 최장현(최문빈), 최선현, 최기현 삼형제 처형당해 순국		
1894.12.28	무안 배상옥 마부 해남에서 처형 순국	김종곤(金鍾坤) 거(居) 무안(務安) 배규인(裴奎仁)의 마부 패도(佩刀) 아울러 포살당해 순국. 윤석호(尹石浩), 윤문여(尹文汝) 거(居) 무안(務安) 배상옥(裴相玉)을 수종(隨從)하여 청계민(淸溪民)들에게 잡혀 포살당해 순국.	패도 (佩刀) <sup>91)</sup>	
1894.12.30	나주 일본진영, 포살 순국	나주 일본진영에서 영광 14명 포살당해 순국, 영광 ; 대접주 이현숙(李賢淑)·노명인(魯明彦)·정기경(丁基京), 접주 도령기수(都令旗手) 박인지(朴仁之), 접주 김관서(金寬西)·전후겸(全厚兼)·강대진(姜大振)·조명구(曹明九)·임명진(林明辰)·김원실(金元實)·황상련(黃相連)·봉운홍(奉允弘)·고휴진(高休鎭)·봉윤정(奉允正)·신항용(申恒用) 나주 일본진영에서 함평 25명 포살당해 순국. 함평(咸平) : 도독대장(都督大將) 이상삼(李相三), 접주 이익성(李益成)·이경식(李京植)·최유현(崔有憲)·박용무(朴用武)·장소회(張所回)·박겸오(朴兼五)·최기현(崔基玄)·노인경(盧仁京)·노홍상(魯洪尙)·최문빈(崔文彬, 최정현)·이오서(李五瑞)·장현국(張賢局)·서치운(徐致雲)·이계성(李季成)·이창주(李昌朱)·이순백(李順伯)·박만중(朴萬宗)·박문팔(朴文八)·윤상근(尹相近)·최이현(崔二玄)·김치오(金致五)·윤영국(尹永菊)·김덕홍(金德洪)·김춘경(金春京)	이현숙	
1895.01.05	무안 박정환 처형 순국	무안 박정환, 무안 교동 일본 진영에서 처형 당해 순국		
1895.01.06	우선봉군 영광 도착	양호우선봉군, 영광 도착하여 머무름. 동학 접주[거괴, 소위 의병장] 이현숙이 양호우선봉군에 포박당하여 문초당함. 동학군 15명이 간힘.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비고
		양호우선봉군, 법성(法聖)의 백성들을 안무(按撫)하고자 교장 양기영과 병대 30명을 보냄.		
1895.01.09	함평 동학군 포박	함평 동학 도독대장(都督大將, 소위 수성장) 이상삼(李相三)이 양호우선봉군에 포박당하여 문초당함. 동학군 27명이 갇힘.		
1895.01.11	무안 백용선 병사 순국	무안 백용선(청계면 남안리), 고문 후유증 병사		
	홍낙관, 손화중 함평으로 압송	홍낙관·손화중을 같이 압송하라 하여 함평으로 압송. *홍낙관(洪洛寬)은 1월 9일 흥덕현 임리(林里)에서 잡힘. 손화중(孫化中)을 고부군 부안고면(扶安古面) 수강산(壽江山) 산당(山堂)에서 12월 11일 잡힘.		
1895.01.12	양호우선봉군 군기등 획득 기록	양호우선봉군, 각처에서 획득한 군기와 돈·곡식·소·말에 대한 기록 법성(法聖) : 전문(錢文) 1000냥, 백미 433석, 조(租) 37석. 백미와 조는 해당 진[該鎭]의 이방처소[吏房處]에 맡겨 두었다. 총 148자루 중에서 100자루는 스즈끼(鈴木)의 지시에 따라 영광 수성군에 내어주고, 나머지는 부수었다. 철창(鐵槍) 279자루, 환도(環刀) 9자루는 다 부수었다.		
1895.01.18	우선봉군, 일본군대와 합침	영광에서 양호우선봉군과 일본 군대가 합침		
1895.01.19	함평 21명 피체	함평 서우순 등 10여명 경군에 피체 우진영(나주) 압송 심문.		
		함평 홍곤삼 등 11명 피체 압송당하여 조사 받음.		
1895.01.20	영광 5명 피체	영광 법성진 남궁달, 박복암 피체, 나주 우진영으로 압송당함.		
		영광 오홍순, 이만순, 김풍중 등 피체		
*1895.03.30	동학지도자 처형 순국	*동학 주요 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환 등 교수형 처형당해 순국.		

82) 『천도교서』 제2편 海月神鋒)

83) 『開國五百三年 十二月 日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文及所獲汁物并錄成冊』,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07.)에는 노덕휘(魯德輝)로 기록.

84)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文及所獲汁物并錄成冊]와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07.)에 “김성필(金成必)” 기록.

- 
- 85)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21.) ;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86)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87) 송문수 : 흥농, 법성 일대 활동,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현숙(법성포 鎭吏)에 의해 피체 효수 당해 순국. 이현숙도 효수당함.
- 88) 이관섭(李觀燮) :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 『전남 동학농민혁명사』는 이관섭으로 오기.
- 89)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90) 『선봉진정보첩』 함평현감 첩보(1894.12.10.).
- 91) “김종곤(金鍾坤) 거(居) 무안(務安) 배규인(裵奎仁)의 마부(馬夫) 패도(佩刀) 아울러 28일(廿八日) 포살(砲殺)”(『各陣將卒成冊』 罪人錄(甲午十二月 日))

〈Abstract〉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Jeolla Province  
- Focusing on Muan, Hampyeong, and Yeonggwang  
Regions -

Kim, Hee-Tae\*

As of September 28, 2025, there are 4,033 registered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cluding 3,347 official registrations, 496 first-round, and 190 second-round registrations.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Jeolla Province (Muan, Hampyeong, and Yeonggwang), 203 individuals have been identified, of whom 159 were officially registered.

Most participants are recorded with the social status of “farmer,” yet figures such as Kim Eung-mun, a Confucian scholar and former government official, indicate that the simplistic classification as mere peasants requires re-evaluation. Participation extended beyond direct combat to include support and protection activities. For instance, Jeong Dong-hwa, the first officially registered female participant, sheltered her husband during the uprising and was recognized for her loyal and virtuous conduct. The study also raises the need for official registration of women listed as “Joi (召史)”, a historical term for female attendants

---

\* The investigator of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Former Cultural Heritage Senior Researcher,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or servants.

In terms of restoring honor, the preservation of remains and historic site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he remains of General Kim Eung-mun of Muan were excavated in 2022 and verified through DNA testing — the only case confirmed with descendants. Although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a Registered National Cultural Heritage was submitted, it faced institutional limitation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historical and spiritual significance, re-evaluation and legal reform are needed. Several battle sites — Hwangtohyeon, Ugeumchi, Hwangnyong, Seokdae Field, and Mujang Uprising Site — have been designated as historic sites, while Gomakpo Battle Site also warrants national designation. Gradu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esignating related heritage sites and relics, including military bases, tombs, and monuments, as national heritage.

Furthermor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nor Restora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introduce a system for designating and managing Donghak Peasant Revolution Heritage, encompassing not only sites but also documents, records, field remains, and facilities. Only through such integrated management can the restoration of honor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dvance meaningfully.

In conclusion, while the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primarily peasants, the inclusion of Confucian scholars, women, and supporters reveals a multi-layered composition beyond simple class distinctions. The preservation of remains and battlefields, the rediscovery of female participants,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emerge as essential tasks for carrying the spiri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to the present day.

**Key word :**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uan, Hampyeong and Yeonggwang Regions, The southwestern region of Jeolla Province, Heritag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ortal remains Mortal remains

---

▣▣▣ 특집논문 2 ▣▣▣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

고창지역 민보군의 거의(擧義) 정당화와 의리론  
- 『거의록』과 『취의록』을 중심으로 -  
정경민

고창지역 영학당과 결세 저항운동  
조재곤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신진희

『이풍암공신행록(李豊菴公實行錄)』의 내용 검토와 사료적 가치 분석  
최진욱

---

〈특집논문 2〉는 2025년 9월 30일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고창 학술대회 발표문으로 구성하였다. 발표된 논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 활동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고창지역 민보군의 거의(擧義) 정당화와 의리론\*

- 『거의록』과 『취의록』을 중심으로 -

정경민\*\*

### 〈목 차〉

머리말

I. 고창 지역 민보군의 반동학 활동

II. 고창 지역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와 의리론

맺음말

### 〈국문초록〉

민보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조선정부를 도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보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또한 조선사회에 대한 개혁구상에서도 동학농민군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보수세력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분들로부터 유익한 심사서를 받을 수 있었다. 세심하게 심사서를 작성해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엔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고창은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도 동학농민군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지역이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지 않게 동학농민혁명에 동의 내지는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창지역 민보군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민보군도 거병을 위해서는 조선정부와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자신들이 동학농민군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거의록」과 「취의록」은 민보군에서 어떠한 논리를 내세웠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보군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한 바람직한 조선사회는 군자, 향대부 등으로 표현되는 유자들이 함께 하면서 신분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였다.

민보군은 조선사회의 구성원들이 신분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조선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인 의(義)라고 이해하였다. 민보군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의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사학(邪學)이거나 난을 일으키는 역적,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난신적자였다. 이러한 행동의 정당화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통문을 작성하였고, 조선정부에는 별도의 글을 올렸다.

민보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동학농민군보다 의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거의를 정당화하였다. 민보군의 거의 정당화를 위한 주장이 바로 이러한 의리론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득권에 속한 민보군 인사들이 은밀하게 통문을 돌리면서 ‘여론전’을 전개하며, 동학농민군과 의리를 둘러싼 경쟁을 해야만 했던 것은 당시 고창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민보군보다 동학농민군의 의리 혹은 주장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거의록, 취의록, 동학농민군, 민보군, 거의(學義)

##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간으로 보더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을 비롯

하여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을 막론하고 당대 조선사회에서 두루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는 모두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으나, 대체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단계별 전개과정, 농민군의 활동양상과 지향점, 동학교단과 농민군 지도자들의 활동, 동학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 농민군 집강소 등<sup>1)</sup>에 관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기존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인식한 보수유림층의 동향도 주목을 받았다. 보수유생층은 동학농민군과 동학교단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민보군, 유회군(儒會軍) 등으로 불리며 동학농민군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sup>2)</sup> 이들에 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sup>3)</sup>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되어 지역사례에 대한 연구들도 생산되었다. 특히 고창<sup>4)</sup>은 무장기포가 일어난 지역으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제출되었다.<sup>5)</sup>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반대 입장에 있었던 고창 지역 민보군의 활동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졌다.<sup>6)</sup>

---

1) 박맹수·김봉곤·조성환, 2019, 「전라도 근대사 연구 현황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286쪽.

2) 민보군 연구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와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바가 있다.(박상진, 2020, 「동학농민혁명 시기 지평 민보군 연구」, 『강원사학』 35. ; 박정민, 2025, 「1894년 남원지역 동학 농민군과 민보군의 전투: 방아치·관음치 전투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59. ; 신진희, 2016,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현주, 2023,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 근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4) 현재 고창은 1914년 무장현, 흥덕현, 고창현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5) 박맹수, 김봉곤, 조성환, 위의 논문, 289쪽의 각주 17번에 소개된 연구성과 참조.

6) 박찬승, 2008, 「전봉준·손화중의 茂長起包와 반농민군의 동향」,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 신영우, 2012,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

이렇듯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동학농민군과 민보군 양 측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특징을 보여준다. 더욱이 고창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료집이 발간되는 등 동학농민혁명 지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sup>7)</sup>

이번 글에서는 제1장에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창 지역 민보군의 활동과 그 성격을 정리하고, 제2장에서 『거의록(擧義錄)』과 『취의록(聚義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민보군의 활동과 거의(擧義)를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거의록』은 고창 지역에서 활동한 민보군들의 활동기록을 모은 자료이다. 백낙규(白樂奎)가 쓴 서문, 이규채(李圭彩)가 쓴 거의사실(擧義事實), 지역사회에 은밀하게 돌린 취의통문(聚義通文), 밀령(密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민보군이 수성군으로 활동할 때 맡은 소임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취의록』은 민보군의 명단을 적은 기록이며, 『거의록』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취의통문이 첨부되어 있다. 『거의록』에 있는 명단 이외에도 추가된 명단들이 있다. 이 자료들은 고창 지역 민보군에 의해서 생산된 자료로써 자신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당시 어떠한 논리로 거의를 정당화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거의에 참여한 인물들도 보여준다.

고창 지역 민보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반대편에 있었던 보수적인 인물들이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이다. 동학농민군과 대칭점에 있었던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고창 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7) 성주현, 2013, 「동학농민혁명운동 이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 『승실사학』 30, 145쪽.

## I. 고창 지역 민보군의 반동학 활동<sup>8)</sup>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패전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패전하면서 보수유림층이 반동학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고창 지역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1894년 12월 1일 조선정부에서 파견한 경군과 일본군으로 구성된 부대는 흥덕에 들어왔다가, 다음날 고창으로 이동하였다가 12월 3일에는 무장으로 갔다. 무장에서는 3일 동안 머무르며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sup>9)</sup> 경군과 일본군으로 구성된 부대는 흥덕에 경군 20명을 보내서 민보군과 함께 수색작전을 전개하였고, 고창에는 경군 30명, 일본군 20명을 보냈다. 이 때 고창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체포가 진행되었다. 12월 1일에는 흥덕에서 동학농민군 2명이 붙잡혀서 진중으로 압송되었고, 12월 2일 무장에서는 해당 지역민들이 동학농민군을 잡아왔다. 경군도 14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42명을 체포하고, 김경운(金景云)을 효수하였다. 이외에도 12월 17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에 동학농민군이 붙잡혔다.<sup>10)</sup>

고창지역 민보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은 경군과 일본군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 이후였다. 하지만 고창지역 민보군은 그 이전부터 거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영중(姜泳重)은 평소 시절을 슬퍼하고 개탄해하던 선비로서, 평상시에 충의로써 자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때를 당하고, 유학

---

8) 해당 장은 신영우(신영우, 2012,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박찬승(박찬승, 2008, 「전봉준·손화중의 茂長起包와 반농민군의 동향」,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등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였다.

9) 신영우, 2012, 앞의 논문, 112쪽.

10) 신영우, 2012, 앞의 논문, 113~114쪽.

의 운수가 다해가는 때를 당하여 늘 답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중략) 그들이 모의한 것은 대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들의 형세는 날로 불어나고, 한쪽 손으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중략) 동도들을 정발할 생각이 일어나 옷을 펼쳐입고 운후를 찾아뵈었다.<sup>11)</sup>

위의 내용은 1894년 12월 이규채가 작성한 「거의사실(學義事實)」에 수록된 것이다. 강영증이 흥덕현감 윤석진(尹錫禎)을 찾아가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윤석진은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임지에 남아 있었다. 9월 초순경 윤석진에게 강영증이 찾아가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이다.<sup>12)</sup>

처음에 거의를 논의할 때는 수십 명이 동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취의록』에는 흥덕현 77명, 고창현 439명, 고부 부안면 15명, 부안 건선면 우포 10명, 장성 북이면 8명, 무장현 48명 모두 597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경군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 12월 초순 이후에 서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서명자들의 거주자를 보면, 오늘날의 고창인 흥덕현, 고창현, 무장현 이외에도 고부 부안면, 부안 건선면, 장성 북이면을 거주지로 하는 사람들이 확인된다.

이는 고창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고부, 부안, 장성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경군이 오게 되면서 거의가 본격화되었고 참여한 인원들에게 역할이 분배되었다.

---

11)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2쪽.

12) 박찬승, 2008, 앞의 책, 81~82쪽.

13) 박찬승, 2008, 앞의 책, 82쪽.

강영중을 수성좌부장으로 삼고, 감찰 신종관(愼宗寬)을 도령장으로 삼고, 진사 김상환(金商煥)을 주희관으로 삼고, 진사 이병광(李秉光)을 우부장으로 삼고, 황재진(黃在鎭)을 도찰원으로 삼고, 첨사 박래민(朴來敏)을 중군으로 삼고, 최영섭(崔榮涉)을 별참모로 삼고, 박윤화(朴胤和)를 도호장으로 삼고, 강수중(姜守重)을 고창수성장으로 삼고, 이석구(李錫九)를 좌부장으로 삼고, 김상렬(金相烈)을 우부장으로 삼고, 진사 김영철(金榮喆)을 참모로 삼고, 전 현감 은수룡(殷壽龍)을 별장으로 삼고 유광희(柳光熙)를 서사(書史)로 삼았다.<sup>14)</sup>

강영중이 수성좌부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하여 거의에 참여한 인사들은 각자 역할을 부여받고 본격적으로 경군을 도와 동학농민군을 수색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sup>15)</sup> 사실 민보군의 군사력이 강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예로 11월에 고창지역에 차치구 지휘 하의 동학농민군 일부가 남아 있었을 때, 민보군이 봉기를 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 차치구가 아전들을 살해하는 등 위협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고창의 김영철 등이 11월 15일 흥덕현감 윤석진에게 강영중 등을 흥덕, 고창의 수성장으로 임명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청원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윤석진은 이를 만류하였다.<sup>16)</sup>

14)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2쪽.

15) “강영중이 물러나와 여러 벼들과 널리 충의를 지닌 사람을 구하여 수실에서 백에 이르는 사람들을 얻었는데, 이들은 모두 뜻을 같이하고 같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일제히 함성을 맞추고 몸을 떨쳐 일어나 왕사를 도와 적을 토벌하기를 원하였다.”(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3쪽.) 해당 내용을 보면 강영중이 민보군을 모으고, 활동에 나서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왕사 곧 경군을 도와 적을 토벌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적인 목표였다. “같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모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덕”을 크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박찬승, 2008, 앞의 책, 82~83쪽.

그런데 열흘 정도가 지난 11월 25일 흥덕현감 윤석진은 고부의 강영중 등에게 밀령을 전달하였다.

지금 곧 듣건대, 전적(全賊, 전봉준)이 패주하였다 하니, 왕사가 전라도 경내로 들어가면 너희 백성들이 아마도 살아날 수 있는 때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손적(孫賊, 손화중)은 아직까지 그 기세가 치성하니, 생령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관(官)은 국가적 근심에 늘 연애(涓埃)의 탄식이 있는 바, 적도들이 패배하여 흩어지는 날, 만약 평민들을 살상하는 폐단이 일어난다면 관에서 뜻하지 않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일제히 대의를 향해 달려 나가 흩어진 적들을 잡아 죽일 것이로되,<sup>17)</sup>

윤석진이 내린 밀령을 보면 당시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전봉준이 패주하였고, 경군이 전라도 경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것이다. 다만 손화중 부대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생령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진은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여 흩어지게 될 때, 일반 평민들이 해를 당할 경우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 의도는 유사시에 민보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진의 명령은 11월 29일에 보낸 전령(傳令)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려왔다.

저 동도들이 사방으로 소란을 피우고 요동치되,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어, 담당 영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왕사가 인근 장소에 도착하여 둔을 치고, 죄를 성토하고 적을 토벌하되, 옥석을 분간하여 처리하고 있다. (중략) 너희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일어나 흩어진 적도들을

---

17) 2009, 「저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42~443쪽.

무찔러 죽인다면, 어찌 안전을 획득하는 좋은 계책이 되지 않겠는가?<sup>18)</sup>

윤석진의 전령을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초기 과정에서는 지방관청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웠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경군과 일본군이 오면서 전황이 바뀌고 있음을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지점은 “죄를 성토하고 적을 토벌하되, 옥석을 분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체는 경군(京軍)이었다. 민보군에게는 “일제히 일어나 흠어진 적도들을 무찔러 죽인다면” 좋은 계책이지만, 이는 조선정부의 통제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태반이 백면서생들인지라,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인즉, 더불어 안락함을 같이 누릴 수는 있지만, 더불어 환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요, 근심 속에서 즐거움이 찾아오고, 즐거움 속에서 근심이 찾아온다는 도리를 모르는 자들이니, 이것이 이른바 관이 우선 염려되는 바이다. 이에 영을 내려 깨우치니, 이후 비록 어떤 날에 만약 시급한 회문(回文)이 있게 되면, 같은 읍이건 다른 읍이건 논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대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로되, 만약 혹시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먼저 그 목을 베어 군율을 엄히 시행할 것이다. 이에 깊이 유념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것이다.<sup>19)</sup>

위의 내용은 전령의 뒷부분이다. 윤석진은 민보군을 “백면서생”으로 보고 있으며, “용기와 결단력”도 부족하고, “더불어 안락함을 같이 누릴 수는 있지만, 더불어 환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요, 근심 속에서 즐거움이 찾아오고, 즐거움 속에서 근심이 찾아온다는 도리를 모르는 자들”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염려”가 될 정도였다. 그래서 명령에

18)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43~444쪽.

19)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44쪽.

따를 짓을 지시하면서 명령을 어길 경우 그 목을 베어 군율을 엄하게 시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윤석진이 민보군의 거의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전투력이나 엄청난 기강이라는 기준에서는 그 역량이 실제 필요한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민보군은 흥덕수성청, 고창수성청 등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전투에 실제로 참전하기 보다는 색출작전에 동원되었다.

흥덕의 수성군은 이동면 은동(二東面 隱洞)에서 서상옥(徐相玉)을, 일서면 진목정(一西面 眞木亭)에서 정무경(鄭武景)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흥덕의 대접주 고태국도 체포하여 효수형에 처하였다. 이외에도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고성천(高成天), 강윤언(姜允彦), 김태운(金太云), 추운문(秋允文) 등도 흥덕의 수성군에 의해서 붙잡혔다. 그리고 차치구도 체포되어 처형되고 말았다. 이렇듯 민보군은 수성군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군 색출작전에 투입되었고, 이들의 행적은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에도 기록될 정도였다.<sup>20)</sup>

이와같이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을 함으로써 세력이 약화되자 그 틈을 타고 이른바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경군과 함께 행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그들의 특징을 활용하여 동학농민군을 색출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등 반동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 II. 고창 지역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와 의리론

고창 지역의 민보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

---

20) 박찬승, 2008, 앞의 책, 91~93쪽.

는데 경군, 일본군을 보조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이 군대와 동일하게 전투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생활해왔던 점을 활용하여 행동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당시 지역사회 내에서 당위성을 가지지 못했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그 기세가 줄어들고 부대를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민보군의 편을 들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조선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동학농민군의 문제제기에 동의 내지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호응했다는 것이었다.<sup>21)</sup>

이는 달리 말하면 민보군 측도 동학농민군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였고, 이를 해당 지역 구성원들에게 설득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소한 해당 지역 구성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민보군의 행동에 반발하는 것은 억제해야만 했다. 민보군은 이를 위해서 동학농민군을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전개하였다.

장보(章甫 : 유자(儒者)을 말함)의 창의를 예부터 있지 않았던 일이었으나 우리 동방의 용사지변(龍蛇之變 : 임진왜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동도(東徒)들의 작란(作亂)에 미치어 붓을 던지고 창을 휘두르는 선비들

---

21) 「취의통문」에는 민보군 측의 이러한 고민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도 있다. “세상에 혹 난신적자가 있기도 하니, 자식이면서 적이 되면 그 적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신하이면서 난을 일으키되”(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7쪽.) 이 표현은 난신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 표현일 수도 있으나,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호응한 인원들이 매우 많았다는 점, 고창, 흥덕 등의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여론이 민보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현원(軒輊)이 전쟁을 벌인 이래, 처음 있는 유생으로 구성된 병사들(儒兵)이다.<sup>22)</sup>

위의 글은 『취의록』 내에 수록되어 있는 「거의사실(舉義事實)」의 첫 부분이다. 이 글은 1894년 12월 이규채(李圭彩)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규채는 유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의 기원을 임진왜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하게 된 이유를 동도들의 작란-동학농민혁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규채는 동학농민혁명을 난(亂)으로 규정하였으며, 고금을 통틀어서 유자(儒者)들이 거의한 일이 없었는데, 당대에는 유자들이 거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거의의 기원을 임진왜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은 당시 조선 전토에 걸쳐서 전쟁이 진행되었고,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1876년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을 전후해서도 조일 간의 분쟁은 지속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동학농민군이 척왜(斥倭)를 주장할 정도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기원으로 하면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을 임진왜란의 일본의 위치로 자리매김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는 이규채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동학농민군을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당시 조선사회에서 일본세력 만큼이나 용인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일본세력과 동일시 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단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대개 춘추의 법에 따르면,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의이다. 어찌 유독 입곡(笠穀)을 타고 호

---

22) 2009, 「취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4쪽.

부(虎符)를 가진 연후에 적을 토벌할 수 있겠는가? 도도한 물결처럼 천하에 능히 춘추대의를 밝힐 수 있는 곳은 우리 동방 뿐이었다.<sup>23)</sup>

이규채는 이어서 민보군의 거의(學義)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규채가 언급한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의이다.”라는 것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의리론이었다. “사람마다”라는 말은 곧 누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유독 입곡(笠轂)을 타고 호부(虎符)를 가진 연후에 적을 토벌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입곡은 병거(兵車)를 의미하는데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이며, 호부는 원래는 군대를 출동시킬 때 사용하는 부절(符節)로 지방 수령의 관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관직에 있지 않더라도 거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민보군이 관직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춘추대의라는 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보군의 행위는 의를 행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의 의리론은 통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니, 사람이 가야할 바른 길은, 크기는 천지와 같고, 밝기는 일월과 같이 뚜렷하다.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신하로서 그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닌 이가 일삼아야 할 마땅한 바로서, 모든 도리가 이것에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님이 없다. 그래서 선왕(先王)들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우선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 성명(聖明)에 이르러서도, 한결같이 옛 제도를 따르시어 지키고 이루셨으니, 예약과 문물은 이에 환하였으며, 덕으로 베푼 정치의 교화는 이로써 꽃을 피웠다. 이렇게 즐거이 기쁨을 누리 세상에 사치함이 없고 세속에서는 명분

---

23)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4쪽.

과 절개를 숭상하였다. 생각하니 우리 동토(東土)의 원기(元氣)는 이렇게 아름다웠으니, 이는 진실로 백세토록 바뀌지 않았던 법도였다.<sup>24)</sup>

위의 글은 1894년 9월 9일 작성되어 강영중(姜泳重), 박운화(朴胤和), 최영섭(崔榮涉), 이회백(李會白), 박추화(朴鍾和), 최규섭(崔圭涉), 김봉섭(金鳳燮), 이길의(李吉儀) 등이 서명한 「취의통문(聚義通文)」이다.

「취의통문(聚義通文)」은 “비밀스레”지만 “돌려가며 보고 알도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작성되었다. 이는 강영중, 박운화, 최영섭 등으로 대표되는 민보군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이를 널리 알리면서 민보군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한 상황이었고, 당시 분위기도 동학농민혁명에 동조하는 이들이 더 많았기에 “비밀스레” 여론전을 전개해야만 했던 것이었다.

통문을 보면 “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며,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것으로는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아비로 섬기고, 신하로서 그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닌 이가 일삼아야 할 마땅한 바로서, 모든 도리가 이것에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님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의를 섬겨야 하며, 이는 “선왕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우선으로 삼”을 정도였다. 당대의 임금인 고종도 “한결같이 옛 제도를 따르”면서, “덕으로 베푸는 정치의 교화”가 “꽃을 피”울 정도였으며, “명분과 절개를 숭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는 “백세토록 바뀌지 않았던 법도였”고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었던 것이다.

즉 민보군의 인식에서 의는 당시 조선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사회의 기본준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군도 이미 동학농민

---

24) 2009, 「저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4~435쪽.

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에 근거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sup>25)</sup>

민보군은 어떠한 점을 근거로 동학농민군이 난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보았을까? 「취의통문」에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난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동학(東學)의 학(學)이 무슨 학인데 학이 아닌 것으로 난을 일으키는가? 지금 그들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또한 난이 되는 까닭을 말하여 그 죄상을 들고자 하노라. 이른바 동학이라는 것은, 이번 봄부터 일어나서 서로 모여들어 도적질을 하고, 완부(完府, 전주)를 범하였으니, 이 얼마나 위중한 짓인가?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첫 번째 까닭이다.<sup>26)</sup>

민보군 측은 동학을 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난으로 보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모여들어 도적질을 하고, 완부를 범”한 것을 들고 있다. 도적질을 하고 전라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전주를 점령한 것은, 의에 어긋남은 물론이며 국왕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 때 성조에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고자 정벌한 것은 다만 평정하여 편안히 모이게 할 뿐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용서하여 귀화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천은(天恩)이 망극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버티면서 흠어지지 않고, 비록 높은 벼슬을 누리던 옛 족속 후손들이나 여염집의 양민들이라 하더라도 으르고 협박하여 같이 그 무리로 끌어들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은 성읍을 공격하고, 작은 무리들은 향리를 노략질하고 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두 번째 까닭이다.<sup>27)</sup>

---

25) 동학농민혁명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의를 둘러싼 전체적인 경쟁구도에 관해서는 다 음과 연구성과를 참조(김현주, 2020,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담론』 93.)

26)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5쪽.

민보군 측은 위와 같이 동학을 난으로 규정하는 두 번째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조선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을 하는 동시에 난민이 일반 양민으로 교화되도록 국왕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 측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해산하지 않은 것만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었다.

동학농민군 측이 “높은 벼슬을 누리던 옛 족속 후손들”로 표현한 지방의 유력자들이나 그 후손들을 동학에 강제로 끌어들인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염집의 양민들”로 표현한 일반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여, “성읍을 공격하고”, “향리를 노략질”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비난하였다. 바로 이것이 동학이 학이 아니라 난이라는 것이었다.

즉 민보군 측의 논리를 살펴보면, 조선정부가 전통적인 방법대로 군사를 보내서 진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위무를 하여 난민이 일반 양민이 되도록 도리를 다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난민으로 활동하면서 국왕의 통치체제를 부정하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학의 무리는 난신적자로 의를 거스르고 의를 잃어버린 이들이었다. 이러한 무리에 지방의 유력자들이나 그 후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를 지키는 지방향촌세력들을 “학”이 아닌 “난”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의 시각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난”의 지역으로 ‘오염’시키는 것이었다.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니 그 화가 백골에 미치고, 사람들의 집을 부수니 창생에게 원한을 맺고 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세 번째 까닭이다. 부녀자들과 재물을 금수처럼 겁탈하고, 사대부들의 의관을 뚱 무더기에 빠뜨리며, 명분을 문란케 하여 공과 사가

---

27)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5쪽.

헛되이 무너지고, 사람의 도리를 쓸어버려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네 번째 까닭이다. 도적들이 황지(潢池)를 농단하여 병권을 휘두르고, 창고의 곡식을 빼앗으며, 관리를 능욕하고, 관군을 항거하였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다섯 번째 까닭이다.<sup>28)</sup>

민보군 측은 동학이 난이 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이유를 계속 언급하면서 동학농민군의 불의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화가 백골에 미치”게 하면서 “사람들의 집을 부수”기까지 한 이들로 규정하고, “부녀자들과 재물을 금수처럼 겁탈하”는 등 도적들이 세력화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전형적인 도적들의 모습이었다.

반역자와 도적은 조선사회에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다. 민보군에게 동학농민군은 “사대부들의 의관을 뚝 무더기에 빠뜨리”고, “공과 사”를 “무너지”게 함으로써 “사람의 도리”가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게”한 원인의 제공자였던 것이다.

민보군의 이러한 시각은 통문의 후반부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춘추의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대의에 따라 곧 성토하려 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관의 명령에 근거해 먼저 세상의 향로(鄉老)·향대부(鄉大夫)와 이웃 읍의 여러 군자들에게 이서(移書)한다. 우리 성조 오백 년 이래, 모두 인화(仁化)의 덕과 예의의 기운을 입은 데다가 또한 그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고 그 아비를 아비로 섬길 줄을 아니, 신하가 충성을 바치고,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것은, 인화에 의해 행해지는 까닭이다. 예의를 숭상하여 받들 날은 바로 오늘이다.<sup>29)</sup>

28)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5~436쪽.

29)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7쪽.

민보군은 “춘추의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대의”에 따라 동학농민군을 성토하고자 하던 중에 “관의 명령에 근거”하여 “세상의 향로, 향대부와 이웃 읍의 여러 군자들에게” 글을 보내는 것임을 밝혔다. 자신들의 행동은 조선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줄을 아”는 의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의를 숭상하여 받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오늘날 저 흉악한 무리들은 인의(人義)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반역을 저질러 임금의 위엄을 범하였다. 참으로 임금과 아버지가 노할 노릇이고, 신하와 자식이 원수로 여길 일이다. 그러니 진실로 하루라도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살 수 있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마땅히 정법(正法)에 따라 그들의 죄상을 성토해야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으며, 스스로 천박하다 하여 뒤로 물러서서 진실로 오백 년 이래로 생생시키고 함양하고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30)</sup>

위의 글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동학농민군을 민보군과 대비시키는 내용이다. 동학농민군은 “흉악한 무리들”로 “인의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반역을 저질러 임금의 위엄을 범”하고야 말았다.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임금과 아버지가 노할 노릇이고, 신하와 자식이 원수로 여길 일”이었다. 그 정도가 심하여 “하루라도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살 수 있게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민보군과 다르게 의를 저버리고 조선사회의 기본 질서인 의를 어길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민보군은 자신들의 행동을 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의를 거슬러서 반역을 행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

---

30)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7쪽.

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민보군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설령 동의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일반 지역민들이 민보군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요컨대 민보군에게 동학농민군은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어지럽히면서 그 터전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의 주장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은 이러한 주장을 지역사회 내에서만 하지 않고, 조선정부 측에도 알림으로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창의 유생 김영철(金榮喆), 유학 유광희(柳光熙), 이석구(李錫九), 흥덕 유생 김상환(金商煥), 전 감찰 신종관(愼宗寬) 등이 흥덕현감에게 글을 올렸다.

삼가 알립니다. 저희들은 어려움에 처하여 의를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군자(君子)의 무리요, 이로움을 보고 탐심을 내며 자신의 명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소인(小人)의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아! 저들 동적(東賊)의 난은, 위로는 국가에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생령(生靈)들에게 원한을 쌓고 있습니다. 무릇 기개와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sup>31)</sup>

김영철 등은 “어려움에 처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군자의 무리”, “기개와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의를 실천하는 이들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이로움을

---

31)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9쪽.

보고 탐심을 내며 자신들의 명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소인의 무리”라고 하였다. 이는 의라는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거의에 동참하는 것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당성을 더욱 강고하게 주장하는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은 “동적의 난”, “위로는 국가에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생명들에게 원한을 쌓고” 있는 존재들로 표현하고 있다. 민보군과 동학농민군을 조선정부에 표현할 때에도 의리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동학은, 곧 동방의 성학을 모조리 말살하려는 사학(邪學)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설이 있는 연후에 맹자와 같은 아성이 이단의 설을 막고 오도를 존치시킬 도가 드러나는 것”<sup>32)</sup>이라고 한 것에서도 더욱 잘 드러난다.

민보군 측을 “동방의 성학”, “맹자와 같은 아성”으로, 동학농민군을 “사학(邪學)” “이단의 설”로 위치지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정부에 알릴 때에도 민보군이 “의”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sup>33)</sup>

그리고 민보군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한 조선사회의 방향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개개의 유생들이 충의로써 서로 목숨을 맡기니, 어디를 간들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인들 건너지 못하겠는가? 이제 이 창의(倡義)의 거사로 말미암아 국운(國運)이 다시 창성할 것이며, 사기(士氣)가 다시 떨칠 것을 짐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감히 그 사실을 민멸(泯滅)하게 할 수 없어 그 대강의 전후 사정을 서술하여 후일의 말을 세우려는 군자

32)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9쪽.

33) 「취의통문」에서 민보군의 각오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이 생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비록 맨주먹일지라도 하늘의 이치에 응하고 사람들의 도리에 따른다면 어찌 이기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이기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의와 불의에 달린 것이니, 의로운 것은 우리 의병이요, 불의한 것은 저들 동학이다.”(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7쪽.)

에게 참고자료로 삼게 하고자 한다.<sup>34)</sup>

위의 내용은 이규채가 작성한 「거의사실」의 마지막 부분이다. 민보군의 활동에 참여한 보수유림들에 대한 기대와 그 이후의 조선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유생”으로 표현된 보수유림들이 “충의”를 매개로 단합하였으므로, “어디를 간들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어려움인들” 극복하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보수유림층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민보군의 “창의의 거사”로 인해서 “국운이 다시 창성”하고 “사기”가 다시 떨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보수유림층이 조선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선의 국운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5)</sup>

이규채로 대표되는 고창 지역의 보수유림층은 의를 조선사회를 통치하는데 기본적인 질서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신분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는 보수유림세력이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혁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으나, 이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내지는 희망하였고, 자신들의 영향력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

34) 200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34쪽.

35) 이규채의 전망과 달리 보수유림층은 이후에도 조선정부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운이 다시 창성할 것이라는 이규채의 전망과 다르게 조선정부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활동을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규채에 의해서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겨준 것이다. 갑오개혁의 자율성, 타율성에 관한 문제는 별개로 고려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과정 혹은 그 이후에 형성된 고창 지역 보수유림층이 지향한 조선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민보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조선정부를 도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조선 사회에 대한 구상에서도 동학농민군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사상적인 배경의 차이는 보수세력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민보군의 행위가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와 고창을 비롯한 해당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사회의 구성원들 다수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였다. 고창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창 지역은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도 동학농민군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지역이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지 않게 동학농민혁명에 동의 내지는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창지역 민보군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기득권에 있는 민보군 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거병을 위해서는 조선정부와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자신들이 동학농민군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동의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민보군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상황을 억제해야만 하였다.

「거의록」과 「취의록」은 이를 위해서 민보군 측이 어떠한 논리를 내세웠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보군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한 바람직한 조선사회는 군자, 향대부 등으로 표현되는 유자들이 영원히 함께 하면서 신분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

하는 사회였다. 즉 중세봉건왕조의 통치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은 조선사회의 구성원들이 신분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조선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인 의(義)라고 이해하였다. 민보군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의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사학(邪學)이거나 난을 일으키는 역적,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난신적자였다. 이러한 행동의 정당화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혹은 지역사회사회로부터 터져나올지 모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대를 억제하기 위해 통문을 작성하였고, 조선정부에는 별도의 글을 올렸다.

민보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동학농민군보다 의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거의를 정당화하였다. 민보군의 거의 정당화를 위한 주장이 바로 이러한 의리론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득권에 속한 민보군 인사들이 은밀하게 통문을 돌리면서 ‘여론전’을 전개하며, 동학농민군과 의리를 둘러싼 경쟁을 해야만 했던 것은 당시 고창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민보군보다 동학농민군의 의리 혹은 주장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선사회를 구성하는 의에 대해서는 민보군과 동학농민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다. 국왕에 대한 충성 등이 그것이었다. 그렇지만 의가 현실의 세계로 나왔을 때, 그 의가 현실에 적용이 되었을 때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은 달랐다. 동학농민군이 추구한 의에 동조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창지역도 이러한 현실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고창지역의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의 패전이라는 시세를 이용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의의 내용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거나 반대여론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과정에서 전개된 의의 이론과 현실, 그 사이의 적용에 대한 교차점을 보여주는 것이 고창 지역 민보군의 의리론과 그 정당화 과정이었던 것이다.

투고일 : 2025. 10. 7. 심사완료일 : 2025. 10. 30. 게재확정일 : 2025. 11. 3.

## 참고문헌

### 〈자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a,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b, 「취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 〈단행본〉

김현주, 2023,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 근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박찬승, 2008,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신진희, 2016,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논문〉

김현주, 2020,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 담론』 제93호, 호서사학회, 101~136쪽.  
박맹수·김봉근·조성환, 2019, 「전라도 근대사 연구 현황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2호,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81~315쪽.  
박상진, 2020, 「동학농민혁명 시기 지평 민보군 연구」, 『강원사학』 제35호, 강원사학회, 49~78쪽.  
박정민, 2025, 「1894년 남원지역 동학 농민군과 민보군의 전투: 방아치·관음치 전투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59호, 육군군사연구소, 127~152쪽.  
성주현, 2013, 「동학농민혁명운동 이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 『승실사학』 제30호, 승실사학회, 145~171쪽.  
신영우, 2012,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제26호, 동학학회, 99~140쪽.

## 〈Abstract〉

# The Gochang Region Minbogun's Justification for the Uprising and Loyalty

- Focusing on the 『Geuirok』 and 『Chwirok』 -

Jung, Kyung-Min\*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Minbogun clashed with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Minbogun assisted the Joseon government in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Minbogun also operated in Gochang.

Even after their defeat at the Battle of Ugeumchi, Gochang remained a region where the Donghak Peasant Army held considerable sway. This demonstrates that many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agreed with, or even sympathized wit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Gochang Minbogun belonged to the privileged class of the local community. However, to rise up, the Minbogun needed the consent of the Joseon government and the local community to oppose the Donghak Peasant Army. “Geuirok” and “Chwirok” reveal the logic of the Minbogun's argument.

The Minbogun understood that members of Joseon society should act in accordance with their status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righteousness, a human duty and a fundamental principle necessary for maintaining Joseon society. The Minbogun rose up to uphold this righteousness.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a traitor who threatened

---

\* The Researcher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d undermined righteousness, a force that destroyed the lives of the people.

The Minbogun claiming to be more righteous than the Donghak Peasant Army, almost justified its actions. This very justification for the Minbogun was precisely this theory of loyalty. Ironically, however, the fact that the Minbogun, a group with vested interests, had to secretly distribute public relations messages and wage a “public opinion war” against the Donghak Peasant Army over loyalty demonstrated that the Gochang community at the time sympathized more with the Donghak Peasant Army's loyalty and arguments than with the Minbogun's.

**Key word :** “Geuirok”, “Chwiirok”, Donghak Peasant Army, Minbogun, Uprising(學義)



## 고창지역 영학당과 결세 저항운동\*

조재곤\*\*

### 〈목 차〉

머리말

I. 영학당 운동

II. 결세 저항운동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동학농민군 중 살아남은 일부 세력도 포함된 일군의 세력이 주도하여 고창을 비롯하여 흥덕·정읍·무장·부안·영광·장성·함평 등지를 무대로 일으킨 1898년 12월의 제1차 영학당 운동과 1899년 5월의 제2차 영학당 운동, 그리고 1905년 2월에 일어난 흥덕군 결세 저항운동을 연결하여 접근한 글이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10여 년간에 걸쳐 전개된 변혁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각각의 운동을 주도한

\* 이 논문은 2025년 9월 30일 고창군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전북사회가 주관한 학술대회(『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에서 발표한 원고(「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재판과 결과」)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사람들에 대한 재판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차 영학당 운동은 가혹한 세금 징수에 대한 반대와 토지경작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제2차 영학당 운동은 국방의 토지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결세 저항운동은 경제적 성장 과정에서 파산한 개인의 욕망과 복수,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질고라는 양면적 성격이 결합하여 민란으로 발전한 것이다.

주제어 : 동학농민군, 영학당, 이화삼, 채내삼, 지세

## 머리말

현재의 전라북도 고창군은 조선시대부터 1914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통폐합되기 전까지 고창군·무장군·흥덕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창은 정읍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 전봉준을 비롯한 많은 농민군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향후 투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무장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sup>1)</sup> 특히 흥덕군은 1888년 이래 명례궁의 장토가 설치되어 소유권과 지주 소작 문제 등으로 농민들과 첨예한 대립 관계를 유지하던 지역이었다.<sup>2)</sup>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지역은 한동안 경제적·사회적으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sup>3)</sup>

동학농민군 중 살아남은 일부 세력은 대한제국 초기인 1898년 12월과 18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흥덕·정읍·고창·무장·부안·영광·장성·함평 등 전라도 지역에서 영학당 운동으로 부활하였다.<sup>4)</sup> 첫 번째

---

1) 배항섭·김양식·조재곤·이병규, 2011,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공간.

2) 왕현중, 1991,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3) 정재철, 2002, 「동학농민전쟁 이후 흥덕현의 지역사정과 수습책」, 『史叢』 55.

는 이화삼을 중심으로 흥덕군민이 영학에 투탁하여 활동한 것이다. 이들은 세금 징수와 균전 문제, 향임과 이임 등 지방관직 임명 과정에서의 뇌물, 방곡(防穀)과 미곡 구매 과정에서 군수의 과실을 지적하고 있다.<sup>5)</sup> 이 같은 문제는 동 시기 삼남 지방에서 전개되던 활빈당 운동에서도 제기되었다.<sup>6)</sup> 제1차 영학당 운동이 흥덕군민이 주도하였는데 반해 제2차 영학당 운동은 흥덕 외에 고창과 무장 지역 출신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고창군 포군 순찰 김상흠은 “밖으로는 영학(英學)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東學)”<sup>7)</sup>이라며 영학당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한 김선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체포 직후 옥사함으로 인해 판결없이 종결된 경우가 많았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말기 국권이 식민지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흥덕군민들의 자세 저항운동은 지속되었다. 정부 측에서도 ‘흥덕군 민요’로 규정한 이 봉기는 유력 포구인 사포를 근거지로 정부의 수세 청부업과 농촌 고리대와 소작권 변경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지가 군 행정당국과 심한 갈등을 빚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인접지 목포항 개항과 더불어 이 지역에 대거 진출한 일본인들의 토지 점탈 문제와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었다.<sup>8)</sup> 사건은 1905년 흥덕 사포 도여각주인 채내삼 부자와 군민들이 합세하여 군청을 점거하고 군수를 폭

4) 鄭昌烈, 1982, 「韓末 變革運動의 政治·經濟的 性格」, 『韓國民族主義論』 I, 創作과 批評社; 金度亨, 1983, 「大韓帝國의 改革事業과 農民層動向」, 『韓國史研究』 41; 吳世昌, 1988, 「英學黨研究」, 『史學論叢』, 溪村閔內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姜吉遠, 1994, 「戊戌·己亥(1898~1899) 古阜等諸邑의 農民蜂起」, 『韓國史研究』 85; 이영호, 2004,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 운동의 성격」,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5)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6) 朴贊勝, 1984,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 35.

7)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匪類罪人供招記」, 光武 3년 7월 15일.

8) 이영호, 앞의 책, 369~370쪽; 민희수, 2024,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소명출판, 263쪽.

행하고 인장을 탈취한 일로 발전하였다.<sup>9)</sup> 홍덕군 이동면의 주민들은 결세 부족분 수백 냥을 재배정하여 분할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시달리던 상황에서 함께 관아 점거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전개된 이상 세 가지 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살피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각각의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I. 영학당 운동

### 1. 제1차 영학당과 홍덕

먼저 1898년 12월 제1차 영학당 운동을 살피기로 하자. 이 운동은 홍덕농민항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부 검사국과 사리국에서는 홍덕군 영학당과 관련하여 송민수·이이선·이복환·채기엽·박기수·정계술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법부대신 서리 신기선은 1899년 2월 17일 고등재판소 검사 함태영에게 훈령을 내렸다. 그 훈령에 홍덕군 난민 작요(亂民作擾)를 조사하기 위해 전남재판소 관하 장성군수 김성규를 명사관으로 정하여 사건의 전말을 조사토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군수 임용현은 직책이 지방의 수령이라면 마땅히 몸가짐이 청렴결백해야 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매우 놀랍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오직 마땅한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난민들의 수괴인 이화삼(李化三)의 경우는 원래 흔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로 몇대로 영학(英學)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서서 이웃과 친구들의 원망을 짊어지려고 하였습니

---

9)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全羅南道 觀察使 署理 光州郡守 權重殷→議政府贊政 內部大臣, 光武 9년 3월 26일, 奎. 26178.

다. 그러자 같이 죽기를 원하는 무리가 서로 결탁하여서 잠자는 백성들을 두드려 깨워서는 바로 관아로 들어가서 임금이 임명한 관리를 능멸하고 관리의 거처를 수색하여 관리를 발로 차고서 인장을 탈취하였으니 기강이 매우 심하게 어그러진 것입니다. 송민수의 경우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명된 것에 원한을 가져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이화삼을 따르는 것이 하나지만 돌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달아났으나 다른 도망친 여러 놈들과 함께 특별히 기찰 염탐하도록 단단히 타이르고 반드시 체포할 것입니다. 수서기 박우종의 경우는 변고가 밤중에 발생하여 일이 비록 정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행동거지를 절제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난민들과 왕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과 행적이 망측하고 도리가 어그러졌으니 합당한 처벌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sup>10)</sup> 이 운동을 주도한 이화삼은 일찍이 동학농민혁명 직후인 1895년 8월 탁지부 파감(派監)으로 고부군의 둔세(屯稅)와 조세 징수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탁지부와 궁내부의 수세 갈등을 겪은 바 있었다.<sup>11)</sup>

위의 보고에 앞서 1899년 1월 7일 장성군수 김성규가 작성하여 전라도 관찰사 민영철에게 보고한 『흥덕군난민취초사안(興德郡亂民取招事案)』은 사건의 전말과 판단까지 적혀 있다. 김성규는 이화삼을 ‘난민(亂民) 작두(作頭) · 장두(狀頭)’로, 이이선 등 영학당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수종(隨從)’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이화삼이 난민들에게 스스로 만민회(萬民會) 연설 규칙과 격식이 이와 같다 하고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만민(萬民) 다 들어봅소. 흥덕(興德) 원을 여기 두고 재판하는 게 가하냐? 월경(越境)을 시키고 우리까지 공사(公事)하는 게 가하냐. 양단간(兩端間)에 소견(所見)해서 말합소”라고 운운하였다 한다. 이화삼은 서울에서 이루어진 만민공동회 연설에 세 차례나 참석한 바 있었다. 제 1차 영학당 운동이 일어난 1898년 12월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

10) 法部 檢事局, 『起案』, 『訓令高等裁判所件(第二十號)』, 光武 3년 2월 17일.

11) 『宮內府去來文牒』, 『照會(第一百六十三號)』, 建陽 원년 6월 27일. 奎. 17882.

동이 가장 활발했던 기간으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론이 비등하였고 심지어 공화제 논의까지 언급될 정도로 과거와 민란의 ‘민회’와는 시대사적 조건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는 결국 대한제국 정권의 최대 위기로 인식되어 그 확산을 두려워한 고종이 군경을 동원하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체하는 결심을 수립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신문에서 송민수와 최주백은 이화삼은 스스로 ‘영학회장(英學會長)’을 칭하였는데 혹시 고부·부안 등지의 무리가 와서 약탈할까 염려되어 매일 밤 면정(面丁) 50~60명을 소집하여 말아 지킬 것을 지령하였다는 것이다. 이화삼의 친족이기도 한 이이선은 갑오년 호서 등지에서 동학 접주를 하다가 도피 후 되돌아와 스스로 영학당의 집사를 자처하면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민란을 일으키게 한 흥덕군수 임용현의 5건의 과실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한 일, 2. 고마답(雇馬畝)을 방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일, 3. 모경답(冒耕畝)을 방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일, 4. 뇌물받고 교임(校任)·훈임(訓任)·이임(吏任)을 교체한 일, 5. 세금으로 각지에서 미곡을 무역한 일이었다.

조사 결과 명사관 김성규는 영학당의 5가지 죄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1. 부모 같은 관리를 때리고 발로 찬 것. 2. 인신(印信)을 탈취한 것. 3. 세금을 가져다 쓴 것. 4. 겁박하여 군청의 화물(貨物)을 취한 것. 5. 서울의 ‘만민회’를 모방하여 이른바 ‘민회(民會)’를 개설하는 등 불법을 거리낌 없이 한 것.<sup>12)</sup> 김성규는 이들 각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제시하였다. 난민 작두 이화삼과 수종 이이선·이복환·정계술·박기수·채동엽은 모두 순교청에 얹히 가두고, 두민 변정호·허운 등은 보수(保授: 보석)하고, 면주인 수서기 박우종은 사령청에 가둔 후 수도성책(囚徒成冊)을 고쳐 바로 잡아 올려 보내고, 도망간 범인들은 해당 군의

12)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奎. 17282-v.9.

순교를 각별히 타일러 경계하여 기회를 엿보아 체포케 할 것을 기약하도록 하였다.

이화삼은 공술에서 위의 5가지 군 행정 실책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흥덕군 주민들이 송관오 집의 장례식에 모여 관청이 잘못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 “1. 세금 징수를 독촉할 때 돈을 지고 관청에 들어가는 자는 금전을 헤아려 볼기를 치고, 도서관청(都書員廳)에 고한 자는 볼기를 치고, 초상(初喪)에 상제(喪制)를 고한 자는 볼기를 치고, 나이가 많다고 고한 자도 볼기를 친다.
2. 고마답은 문권을 작성하여 각 작인(作人)에게 나누어주고 값을 바치는 것은 금전으로 한다.
3. 모경답과 척량답(尺量畝)은 수량을 헤아려 문권을 작성하고 값을 바치는 것은 금전으로 한다.
4. 교임·훈임·이임으로 뇌물을 바친 자는 수를 헤아려 교체한다.
5. 본 지역에서 방곡(防穀)하여 헐값으로 관에서 미곡을 사들이므로 우리들이 논의하여 마땅히 민간의 공론에 부쳐 되돌려놓을 것이다.”<sup>13)</sup>

이에 부연하여 이화삼은 모경답과 척량답은 두락과 가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나 제내답(堤內畝)은 수량을 헤아리는 것을 보았으나 세금은 어느 곳에서 거두어 갔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임·훈임·이임 채용 시 뇌물을 주고받아 교·훈임은 수백 냥 혹은 수십 냥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아 일찍부터 기록해 두었는데 체포될 때 인명과 액수 명부를 잃어버려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sup>14)</sup> 이임의 경우 외간의 전해지는 말만 들어 상세히 알 수

13)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14) 수서기 박우종도 당시 군 향교 장의와 양토재 장의는 각 100냥, 북면의 훈임은

는 없지만 각 면의 서원처(書員處)에 2천 냥을 내어야만 관에서 임용하였다는 것은 과연 소문과 같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방곡과 관련하여 그는 흥덕군 내 다섯 곳에서 쌀을 사들였으나 군수 임용현이 엄히 방곡을 실시하여 매석 당 시가 15냥의 쌀을 13냥 5전으로 가격을 정하여 헐가로 사들여 차액을 착복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명확히 조사하여 밝힐 것을 호소하였다.

제1차 영학당 활동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1899년 3월 18일 법부대신 의정부 찬정 유기환은 전남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도망간 송민수·이이선·이복환·채기엽·박기수·정계술 등을 엄밀히 엿탐 붙잡아서 모두 별도로 조사하여 경중을 나누어 엄히 징계 처벌하라”고 훈령하였고,<sup>15)</sup> 4월 6일 민영철은 그 같은 내용을 흥덕군에 비밀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16)</sup> 유기환은 6월 22일 민영철에게 재차 “흥덕군 피고 죄인 이화삼은 귀 재판소의 판결선고서에는 당초 징역 중신의 율으로 되어있으나 죄와 율명이 서로 합당하지 않으니 『대명률(大明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주소(奏訴)가 있다고 하면서 아문으로 곧바로 들어와 관리를 협박한 자는 변방 수비로 보내 군인으로 충당한다는 율로 바로 잡고, 정계술·이이선은 수종의 율로 2등을 감하였으나 수종의 율에는 2등을 감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이화삼의 본율에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3년으로 바로 잡고 아울러 사면의 은전을 받들어 감등하고, 이복환·박기수·채기엽은 위협에 속아넘어가 관인(官印)을 탈취하고 관리를 위협하는 데 간여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있다고 하겠는가? 이 세 놈은 즉시 풀어줄 것”<sup>17)</sup>이라고

70냥씩 책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15) 法部 檢事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十三號)」, 光武 3년 3월 18일.

16)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二十九號)」, 光武 3년 4월 6일.

17) 法部 司理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三十二號)」, 光武 3년 6월 22일.

훈령하여, 동일 내용으로 7월 25일 전남재판소 판사 민영철이 최종 판결하였다.<sup>18)</sup>

이화삼처럼 『대명률』 소송편 「월소조」를 적용받아 처벌된 경우는 1898년 사환미(社還米) 문제로 평안도 증산군에서 통문을 돌리고 민란을 일으킨 김용서,<sup>19)</sup> 같은 해 산송(山訟) 문제로 고등재판소에 호소하던 중 검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난동한 박성하,<sup>20)</sup> 1904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군수를 살해한 사건 관련자인 하주명 등이 있다.<sup>21)</sup>

## 2. 제2차 영학당과 고창·무장·흥덕

1899년 4월의 제2차 영학당 운동은 고부·정읍·흥덕을 시작으로 하였는데 4월 18일에는 고부, 19일에는 흥덕, 20일에는 무장에 들어가 군기 탈취와 이교의 집을 불태우고 문부를 탈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2일 오후에는 고창의 수성군과 접전 후 패배하였고 23일에는 광주와 전주 지방대의 병정들이 이 지역에 출병하였다. 전라남도 관찰사 민영철은 4월 26일 고창 수성군(守城軍)이 체포한 영학당 6명을 심문하였다. 손치범은 농민군 최고지도자 손화중의 5촌 조카였고, 김선명은 행군 집사로, 전막동 등은 영학당 지도자인 정읍의 최익서와 함께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중 전막동·전성숙과 김선명·김준옥은 무장 출신이거나 무장 또는 고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당시 작성된 ‘영광읍인(靈光邑人) 사서(私書)’에 의하면 비도의 괴수는 정익서(鄭翼西), 손화중의 아들, 전명숙의 아들, 흥낙관, ‘정읍 최가’라고 되어있다. 또 다른 자료에는 괴수는 ‘쑤녹두의 子, 孫化中의 子’로 기록되어 있는데,<sup>22)</sup> ‘정읍 최가’는 최익서(崔益西)를 지칭한 것이다. 손

18)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七十號)」, 光武 3년 7월 25일.

19) 『司法稟報』, 「報告書(第五十三號)」, 光武 2년 9월 3일.

20) 『司法稟報』, 「質稟書(第十五號)」, 光武 2년 11월 30일.

21) 『司法稟報』, 「質稟書(第四號)」, 光武 9년 4월 17일.

치범과 전막동·전성숙 등은 손화중과 전봉준(전명숙과 전녹두는 전봉준의 다른 이름이다)의 아들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호남공동대회설소(湖南共同大會設所)’라는 문구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sup>23)</sup> 『독립신문』 기사에 따르면 “머리에는 평양자를 쓰고 흰 수건과 노란 수건으로 머리를 싸으며 옷 등에는 도서를 찍었고 큰 기는 하나인데 보국안민(補國安民) 네 글자를 썼고 작은 기는 네 개요 영기는 세 개며 서양총과 조총이 백여 개라 하더라”<sup>24)</sup>라고 되어있다. 이 영학당 제2차 봉기도 앞선 제1차 봉기의 연장선상에서 ‘공동회소’의 깃발을 들고 활동한 점으로 보아 1898년 12월 강제 해체 이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여전히 이 지역 운동에 영향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국안민’의 깃발을 들어 동학농민군의 지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광대(才人) 출신 홍낙관은 고창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스스로 대성수접주(大成首接主)라 칭하였고 1894년 3월 고부 백산봉기에 다수의 천민부대를 이끌고 참여하였다.<sup>25)</sup> 그는 손화중 포의 가장 선봉이자 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로 무장봉기와 이후 집강소 활동에 참여하였다.<sup>26)</sup> 당시 손화중 부대 내에는 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홍낙관은 12월 9일 고창의 임리에서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진중에 수감되었다.<sup>27)</sup> 홍낙관은 최경선 등과 함께 함평을 거쳐 1895년 1월 4일 나주로 보내진 후 일본군 대대장에게 압송되었고 전봉준·손화중·김덕명 등과 함께 서

22) 경남 함안군 지곡면 보산리 정취마을 허원식 종가 소장 문서(소장자 허태홍).

23) 『司法稟報』, 「報告書」第1號, 全羅南道 高敞郡守 鄭崙永→議政府贊政 法部大臣, 光武 3년 6월 11일.

24) 『독립신문』, 광무 3년 6월 19일

25) 손태도, 2017,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홍낙관·홍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3.

26) 『牒報』 1권, 개국 504년 5월 7일,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慰撫使 李道宰→法部, 奎. 26300.

27) 『兩湖右先鋒日記』, 乙未 1월 12일.

울의 일본영사관으로 호송되었다.

홍낙관은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로 이송 후 심문을 받았다. 법무아문 대신 서광범이 주도한 1895년 3월 판결선고서에 의하면 체포 당시 그의 죄명은 고창지방의 ‘비도 거괴’로 농민군을 지휘하여 군기를 약탈하고 돈과 곡식을 겁탈하여 정부와 민간에 크게 소요하여 지방 안녕을 해했다는 것이었다.

“전라도 고창 거주. 농업 평민

피고 홍낙관(洪樂寬). 나이 46세

위에 기재된 홍낙관은 고창지방에서 비괴(匪魁)의 지휘에 따라 군기를 탈취하고 전곡을 빼앗았으며, 관정이나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켜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 재판소에 잡아 와서 특별히 심문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정을 함부로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였다. 그 행위가 『대전회통』 추단안(案)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종범”이라는 명문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홍낙관을 장형(杖刑) 100대와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sup>28)</sup>

그는 다행히 사형을 면하고 『대전회통』 추단조에 의거하여 장 100대를 맞고 3천리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후에는 1896년 10월 손병규·최익서 등 8인과 함께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고대산(高岱山) 아래 수춘점(水春店)에 구인점(九人接)을 설포(設包)할 것을 건의하고 활동하였다.<sup>29)</sup> 이후 동생 계관과 더불어 1899년 제2차 영학당 운동에도 ‘거괴’로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sup>30)</sup> 그러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28)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15號 判決宣告書原本 洪樂寬」, 개국 504년 3월.

29) 『金洛喆歷史』, 丙申 10월.

30) 『全羅南道高敞郡被就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並錄成冊』, 奎. 26137; 『全羅南道高敞郡

체포된 영학당원 중 김선명은 공초에서 “저는 태인군 고현내(古縣內)에 살며, 갑오 거괴 임경학의 성찰(省察)로 역시 금번에 행군 집사가 되어 각처를 따라다녔습니다. 장차 고창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는 최익서와 김여중은 괴수가 되고, 포사대장(砲士大將) 박재관은 양총(洋銃) 9자루, 조총(鳥銃) 300여 자루를 영도하여 이끌고 고창읍에 당도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달리 자복할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전막동은, “저는 무장 사점(沙店)에 거주하는데 그 무리가 무장에 난입할 때 총을 메고 함께 갔으며, 다음 날 고창전투 때 천보총(千步銃) 1자루를 제게 주는 고로 결국 이를 받고 접전하였고, 무장 이방에게 토색한 돈 300냥은 패주할 때 같은 무리 현재서가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준옥은, “저는 본군 산내면(山內面)에 거주하며, 무장 신대동(新大洞)의 성재명으로부터 도를 전하여 받았고, 동 무리는 거의 1,000명에 이르렀으나 이번 소요를 일으킬 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하였다. 전성숙은, “저는 무장 사점에 살며, 갑오 비괴(匪魁)의 수종으로 결국 귀화하였는데, 이번에 무장 행군 때에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 무리에 참여했다가 붙잡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고창과 무장에서 관군과 접전하고 관청의 재물을 탈취하였는데, 이전부터 동학 교리를 전하여 받거나 1894년 농민군 접주의 부하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해 6월 10일 관찰사 민영철은 온몸에 총상을 입은 김선명·전막동·김준옥은 4월 27일 밤에 고창 감옥에서 사망하였고, 손치범·임벽화·전성숙은 ‘옥에 갇힌 이후 서로 겁먹고 물과 밥을 먹지 않고’라 하여 식음을 전폐하다가 당일 밤 모두 사망한 것으로 범부대신에게 보고하였다. 민영철은 “김선명 등은 모두 갑오 때 잡히지 않은 비도로, 이들이 이렇게 생존함은 조정의 하늘 같은 큰 은혜 아닌 게 없으나, 몰

---

就捉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並錄成冊』, 奎. 26136.

래 스스로 미리 빈틈없이 준비하여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니, 그 심보를 헤아리면 마땅히 법으로 처형해야 하지만, 모두 죽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 이에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라고 부연하였다.<sup>31)</sup> 한 자료에 따르면 “체포한 자를 모두 진중(陣中)에서 문초하니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含口無言]”<sup>32)</sup>고 한다. 이들 모두 진술서를 남긴 점으로 보아 관찰사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가혹한 고문 후유증으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외에 김상흠과 김재호도 고창군에서 영학당 운동에 참여 후 체포되어 전남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관찰 고창군수 정윤영은 법부에 “난당 김상흠은 이른바 포군순찰(砲軍巡察)로 체포되었고 김재호는 이른바 대장기수(大將旗手)로 체포되어 음력 4월 25일에 전라남도 관찰부로 압송하여 보냈습니다”<sup>33)</sup>라고 보고하였다. 6월 24일 법부대신 서리 조병식은 전남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고창군수의 보고서를 베껴 보내면서 “고창군 보고에 따르면 난당 김상흠과 김재호가 범죄를 저지른 사정을 법률에 조사하여 속히 보고할 것”<sup>34)</sup>이라고 훈령하였다.

이에 민영철은 7월 15일 조병식에게 심문 결과 김상흠은 범망을 빠져나간 동학 무리로 다시 비류가 되어 3개 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사도(邪道)의 주문을 외우고 성찰 직을 맡는 등 여러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재호는 갑자기 비당(匪黨)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오년에 난리를 겪었을 때의 놀란 기억이 남아 있어 도망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기수로 강제로 충당되었고, 고창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31)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五十四號)」, 光武 4년 6월 16일.

32) 경남 함안군 지곡면 보산리 정취마을 허원식 종가 소장 문서.

33) 法部 檢事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三十四號)」, 光武 3년 7월 8일.

34) 『司法稟報』, 「本部訓令」, 光武 3년 6월 24일.

도망치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재호의 경우는 협박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으로 김상흠이 저지른 죄와는 차이가 있지만 죄의 경중을 옳로 헤아려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sup>35)</sup>

이 보고서에 첨부한 「공초기」에 따르면 먼저 김상흠은, 갑오년에 태인의 동학 접주 류응로의 포(包)에 투탁하여 성찰에 임명되었고 동학이 소탕될 때 산내면에 숨어 있다가 금년(1899년) 4월 19일에 영학당이 무리를 모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두머리 정사국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가서 그 동정을 살펴보니 밖으로는 영학(英學)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東學)이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영학당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20일에 고부군으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총 40여 자루, 화약 1짐[駄], 탄환 90여 개를 탈취하고, 21일 저녁 무렵에는 사방에서 모인 100여 명과 함께 흥덕군을 공격하여 군기고에 남아 있는 총기 10여 자루를 다시 탈취하였다. 22일에는 흥덕군 후포에서 200냥을 탈취하고 가는 길에 고창 봉암의 민가를 불태우고 그날 밤 무장군으로 들어가 군총 50여 자루, 화약 1짝, 환도 10여 자루와 민가에서 200여 냥을 탈취하였다. 그는 24일 고창군 수정(戴亭)에 모여 수성군과 접전하다 패하고 흩어지는 중 73세의 연로한 나이로 빨리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 압송되었다. 한편 김재호는 영학당 수백 명이 마을에 모여 위협하였는데, 이는 갑오년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워 겁먹고 도망가는 중에 그들에게 잡혀 강제로 기수에 충당되어 따라다니던 중 잡혀서 압송되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sup>36)</sup>

그러나 이틀 후 민영철은 조병식에게 김상흠의 옥사를 보고하였다. 즉, “감옥 순검 김창원이 보고하였는데, ‘본서에 수감되어 있는 비류 죄

35)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光武 3년 7월 15일.

36)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匪類罪人供招記」, 光武 3년 7월 15일.

인 김상흠이 본래 매우 늙었고 겸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 병에 걸려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못 먹다가, 이번 달 17일 밤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몸소 정시처(停屍處)가 있는 감옥으로 가서 상세히 살펴보니, 전신의 상하에 달리 목을 맨 상처는 없었고 병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하며 달리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37)라는 것이다. 관찰사는 별도의 검험 결과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시신은 별도로 매장하였다. 반면 범부대신 조병식은 김재호의 경우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것이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곤욕을 당한 것이 확실하니 즉시 풀어주라고 훈령하면서 이들의 사건은 종결되었다.38)

영학당으로 활동하면서 홍덕과 무장의 군기를 탈취하고 고창에서 수성군과 전투 후 피신하였다가 1899년 9월 광주지방대에 체포된 홍덕의 오재봉 등 5명도 추가로 전라남도 재판소의 심문을 받았다. 이들 중 홍덕군 이서면 중등 출신인 송알갑과 유도연은 '조금도 잡아들일 만한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박도서를 잡기 위해 체포 후 풀어주었다. 반면 오재봉과 양선태·김장일은 모두 '갑오년에 (범망에서) 빠져나간 무리'로 무리를 몰아 각 군에 난입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성읍을 함락시키려고 고창의 수성군과 싸운 후 도망하였지만 체포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공초를 통해 살필 수 있는 오재봉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덕군 일서면 백선동 출신으로 '동비(東匪) 여당(餘黨)'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894년 말 농민군 패전 이후 잠적하였다가 다시 1899년 음력 4월 6일 홍덕 삼태리 거주 이강성과 함께 태인 화호(禾湖)의 김여성의 집으로 가서 며칠간 머물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19일 홍덕관아를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였고 20일에는 '알피[卵山]' 시장의

37)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八號)」, 光武 3년 7월 17일.

38) 法部 司理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四十二號)」, 光武 3년 8월 4일. 그런데 법부에서는 김상흠이 옥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훈령에서 그를 사형으로 처결하라고 지시하였다.

로 들어갔다. 다음 날 21일에는 무장군으로 들어가 군기를 탈취하고 22일에는 고창군 수정에서 수성군과 전투에서 패전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가 며칠 후 순검과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고창관아에 수감되었다가 광주로 압송되었다.<sup>39)</sup>

고부군 부안면 우수거리 출신 양선태는 “지난 갑오년에 동도에 참가했다가, 다행히 크게 사면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입고 겨우 남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음력 4월경에 다시 비류에 가입하여 접주인 동리의 현재서를 따라 죽창을 잡고, 이번 4월 15일에 고부군을 공격해서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읍군 구암리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같은 달 19일에 흥덕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22일에 진죽거리에 이르러 오후에 바로 고창군으로 향했습니다. 황혼 무렵에 수성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형세가 감당할 수 없어 서로 도망갈 때 순검 및 순교들에게 잡혀서 지금 압송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부안면은 흥덕 경계에 있는 고부군의 비입지(飛入地, 월경지)로 현재 고창군 소속지로 되어있다.

한편 김장일은 “저는 고부군 알피시장에 살면서 술과 음식을 팔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음력 4월 20일 밤에 비류 백여 명이 무리 지어 와서는 술과 음식 및 갇신 등의 물건을 토색질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을 위협하여 그 무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저 역시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죽창을 들고 그 무리를 따라다녔습니다. 21일에 무장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해당 군에 머물렀습니다. 22일에 고창군으로 서둘러 가서 고창군의 수성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형세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로 도망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순교들에게 잡혀 압송되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부군 알피시[卵山市]는 당시는 고부와 흥덕 경계로 현 고창군 부안면 소속지이다.

---

39)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報告書(第八十號)」, 光武 3년 9월 9일.

그런데 이 영학당의 제2차 봉기에 대해서는 그 주장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향점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전 외부대신 김윤식의 일기 기록은 소략하지만 적지 않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899년) 6월 13일 호남 고부 등 여러 읍에 있는 백성들의 논이 궁장(宮庄)에 빼앗겨 서로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무리를 불러 모아 크게 난리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놀라고 근심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난달 흥덕·고부·무장 등지에서 민요(民擾)가 크게 일어났는데 영학(英學)이라 부르고 혹은 서학(西學)이라고 칭하며 무리 수백 명을 모아 옥의 죄수를 함부로 풀어주고 군기를 빼앗거나 흠치니 전주와 광주 두 곳의 지방대가 협공하였다. (중략) 또 고부 등지는 군전사 김창석이 백성들의 토지(民田)를 빼앗아 명례궁(明禮宮)에 불합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궁내부대신 이재순에게 호소하였지만 듣지 않고 억지로 그들의 토지를 빼앗아 그 결과 이와 같은 소요에 이르게 되었다.”<sup>40)</sup>

흥덕·고부·무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영학당 제2차 봉기의 지향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으로 군전사 김창석이 백성들의 토지를 억지로 빼앗아 조선 왕실의 사금고를 상징하는 궁방인 명례궁(明禮宮)에 부속시킴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사(前史)인 동학농민군 봉기의 경제적 주요인의 하나인 군전사(均田使)의 작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영학당 운동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례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영학당 운동의 실패는 그 후사(後史)로서 러일전쟁 이후 흥덕군민의 결세 저항운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제2차 영학당 운동 참여자로 체포된 이들 중 재판 판결 이전 옥중에

40) 金允植, 『續陰晴史』上, 光武 3년 6월.

서 사망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자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원 사망으로 이 사건은 판결 없이 종결되었다. 고창지역 인사로서는 오재봉·양선태·김장일 등 3명만 법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899년 9월 법부대신 권재형은 오재봉·양선태·김장일은 모두 『대전회통』 「추단조(推斷條)」 “군복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에 관계된 율”을 적용할 뜻으로 상주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아 전남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이들을 교수형에 처한 후 상황을 보고토록 하였다.<sup>41)</sup>

그런데 김장일은 옥에서 병사하였고, 오재봉과 양선태에 대해서는 종신형 이상은 지방재판소에서 스스로 선고하는 전례가 없었기에 전남재판소에서는 법부대신에게 지령해달라는 질품서를 1900년 5월 1일에 제출하였다.<sup>42)</sup> 이에 5월 18일 법부대신 권재형은 『형율명례(刑律名例)』 제15조<sup>43)</sup> 개정 후 법부에서 발한 훈령이 한둘이 아니므로 두 범인을 율에 따라 선고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혹시라도 위반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령하였다.<sup>44)</sup> 그 결과 전남재판소 판사 조종필은 법부대신에게 6월 16일 전 판사 민영철이 판결한 선고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9월 12일 제출하였다. 판결선고서에 기재된 이들의 활동 내용은 9월 9일 전라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의 보고 내용과 동일하다.<sup>45)</sup>

이에 대해 법부대신 권재형은 9월 25일 이들을 단단히 옥에 가두고 상주를 기다려 훈령 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sup>46)</sup> 이 안건에 대해 1901년 5월 18일 법부 대신 서리 협판 이재곤이 전남재판소 판사 윤웅

41)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報告書(第八十號)」, 光武 3년 9월 9일.

42)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質稟書(第四十三號)」, 光武 4년 5월 1일.

43) “第15條: 國事犯을 役刑에 處할 시는 반드시 上奏를 經함이 可함”.

44)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三十三號)」, 光武 4년 5월 18일.

45)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趙鍾弼 報告書(第五十九號)」, 光武 4년 9월 12일.

46)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四號)」, 光武 4년 9월 25일.

렬에게 이달 17일 고종 황제로부터 재가를 받았으니 형 집행 후 보고토록 훈령하였다.<sup>47)</sup>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형(絞刑)이 집행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관보』에 실린 최종 죄명은, “전라남도 재판소 심리 비류죄인(匪類罪人) 오재봉과 양선태는 모두 갑오(甲午) 동비(東匪)로 범망에서 빠져있다가 기해년(1899) 4월 무리를 이끌고 흥덕·고부·고창·무장 등 군의 군기를 탈취하고 더불어 고창군 수성군과 접전한 죄는 『대전회통』 「추단조」 “군복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48)</sup>

그런데 『대전회통』은 『대명률』의 중세 중국법을 원용한 것이고 앞선 동학농민군들도 『대전회통』 「추단조」를 적용하여 처형하였다. 고창 출신 전봉준·홍낙관 외에 동학농민군으로 『대전회통』 추단조를 적용받은 인사는 손화중·최경선·성두한·김덕명 등이 있다. 이후 1898년 춘천군 ‘비도 죄인’ 황강이도 이 조항으로 교형을 선고받았고,<sup>49)</sup> 1899년에 체포된 천안군 동학농민군 참여자 박만귀와 정정기도 동일 조항으로 교형으로 처형되었다.<sup>50)</sup> 1901년 제2차 제주민란 주도자 오대현도 이 조항으로 처형되었다.<sup>51)</sup> 반면 최제우와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 교단 지도부와 교도는 『대명률』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과 중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과거와는 형벌 적용에도 차이가 있어 장형이 태형으

47)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十七號)」, 光武 5년 5월 18일.

48) 『官報』, 光武 5년 6월 1일.

49) 『官報』, 光武 2년 8월 19일.

50) 『官報』, 光武 3년 1월 14일.

51) 『高宗實錄』, 光武 5년 10월 9일.

로, 유배형이 금고형(징역형), 참형과 총살형이 교수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금고형과 유배형이 뒤섞여 실시되는 등 일부 난맥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 II. 결세 저항운동

1905년 2월 흥덕군민 채내삼(蔡乃三)과 그의 아들 동근(東根)·동호(東浩) 및 가내 식솔과 군민들이 관아에서 소란을 일으켜 군수를 폭행하고 인장을 빼앗아 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연원은 1903년 12월 채내삼이 이경호로부터 3만 6천여 냥을 빼앗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함경도 단천 출신 북어상 이경호가 소장을 올려 흥덕의 채내삼에게 봉표전(捧票錢) 3만 6천여 냥을 찾아서 되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감영은 “채내삼의 행위는 도적질과 같은 것이므로 잡아서 대질 조사하여 곤장 후 가두어 엄히 감독하고 수량을 준하여 되돌려 주어 먼 곳의 사람이 낭패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sup>52)</sup> 그 결과 채내삼은 체포되어 1904년 10월에 이르기까지 11개월 동안 목포항 감리서에 수감되었다.

채내삼은 1896년부터 흥덕 사포(沙浦)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순창인 윤도병이 선여각(船旅閣)의 권리를 얻은 이래 그가 거주하는 사랑을 여각으로 빌렸다. 사포는 당시 흥덕군의 가장 유력한 포구의 하나로 상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해창(海倉)이 존재할 정도로 상품유통이 원활한 곳이었다.<sup>53)</sup> 조선 후기 이래 사포·우포(牛浦)·후포(後浦)·석호(石湖) 등 흥덕군 각 포구의 수세는 명례궁 소속으로 도여각주인(都旅閣主人)을 두

52) 『各司謄錄』, 全羅道篇 4, 「各郡狀題」 1, 光武 7년 12월 25일.

53) 日本 陸軍 參謀本部 編, 「興德縣」, 『朝鮮地誌略(卷八)』, 全羅道之部, 明治 21년 11월, 130쪽.

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1890년의 경우를 보면 이 4개 포구에서 매년 당오전 5천 냥을 5월에 3천 냥, 11월에 2천 냥씩 각각 명례궁에 분할 상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54)</sup> 동학농민혁명의 전사인 고부농민항쟁의 한 요인으로 최영년은 1894년 정월 11일 읍민 수백 명이 명례궁 보에 대한 세금 징수로 연달아 소장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55)</sup> ‘왕실(王室)의 사고(私庫)’로 평가받던 명례궁의 보세(湫稅)는 같은 해 10월 영천민란의 원인이기도 하였다.<sup>56)</sup>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도 명례궁에서 각종 징수금을 부과하는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관례가 있어 누구나 돈만 내면 특허증을 얻어 이를 소지한 자는 하천이나 도로에 관소(關所)를 설치하고 통과 화물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57)</sup>

그러나 이후 선상(船商)들로부터 많은 횡령을 한 윤도병이 도주하였고, 그러던 중 뜻밖에 1900년 이경호가 윤도병에게 받을 것이 있다 칭하고 영읍에 여러 가지로 무고하여 채내삼을 잡아 가두었다.<sup>58)</sup> 이에 여러 번 재판으로 사안이 공정하게 타결되는 듯하더니, 1902년 채내삼이 장사차 서울에 상납전 2,795냥과 무명(白木) 20필을 짐말에 싣고 정읍 땅을 지나던 중 이경호가 줄지에 수십 명의 무리를 불러 모아 때리고

54) 『節目』(明禮宮), 庚寅 二月 日, 奎. 18288-19.

55) 崔永年, 『東徒問辨』, 「古阜起擾辨」.

56) 『永川按覈啓草』, 開國 503년 10월 4일; 『啓草存案』, 「永川按覈使李重夏狀啓」, 갑오 10월 13일.

5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內政改革을 위한 對韓政略에 관한 보고」,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外務大臣 子爵 陸奧宗光, 1894년 11월 24일.

58) 사포의 여각주인권(旅閣主人權)은 원래 명례궁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1896년 7월 각항 잡세 혁파의 조직 이후에도 탁지부 주관하에서 이전처럼 수세권을 보장받았다(『宮內府去來文牒』 「照會(第二百十八號)」, 建陽 원년 11월 5일). 사포 여각주인 수세권은 1896년 11월 7일 이후 궁내부 소관으로 이전되었다(『宮內府去來文牒』 「照會」, 建陽 원년 11월 7일). 그사이 윤도병을 대신하여 채내삼이 사포의 새로운 여각주인이 되어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빼앗아 갔다. 이에 채내삼이 정읍군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군수는 이경호의 의뢰만 받아들여 화표(和標)를 작성해 주었고 이경호가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뜻밖에 1904년 이경호가 무고하여 법부 훈령으로 채내삼을 광주관찰부에 수감하고 목포항 감리서로 이감하였다. 며칠 후 감리가 일본인 우즈기 키소우(宇津木競)와 함께 안동(眼洞; 입회) 순교(巡校) 수십 명을 채내삼의 집에 파견하여 가구와 전토문권(田土文券)을 몰수해 갔다.<sup>59)</sup>

한편 무안감리 한영원은 우즈기 키소우와 관련하여 무안향 일본 영사의 조회에 근거하여 1904년 8월 채내삼과 그의 첫째 아들 채동근, 우즈기·이경호를 대질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연 채내삼 부자의 표증(標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개항장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무지와 사행심 등을 이용하여 고리대 및 사기·횡취(橫取)·약탈·강점 등의 수법으로 토지를 침탈하여 큰 문제가 되었다. 전라도의 경우 부랑배들이 외국인과 결탁하여 외채(外債)라고 속이고 가짜 표증을 만들어 돈을 받아내는 행위가 각 군에 횡행하자 무안감리 김성규가 이를 경계하는 훈령을 하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어 감리로 부임한 한영원의 경우 김성규와는 달리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sup>60)</sup> 9월 7일 일본 영사의 조회 후 다시 대질 재판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한영원은 채동근이 횡설수설하면서 심하게 반항하였고 반면 우즈기의 강청 압박도 날로 심했다고 보고하였다. 법부도 이를 받아들여 10월 3일 채동근의 소유 전답을 매각하여 우즈기의 부채를 되돌려 지급하라고 지령하였다. 그 결과 일본 영사와 법부 지령에 따라 흥덕군에 훈치하여 우즈기와 이경호가 채내삼 집에 가서 전답 문기와 서적

59) 이때 몰수한 물건은 채내삼 삼부자의 토지 문권, 전답 문권 5석락, 놋그릇(鑪器), 백미와 대·소맥, 콩 4석, 철물 기계, 의복, 서책 72권, 은가락지 4건 등이었다.

『務安報牒』, 外部大臣 李夏榮→務安監理 韓永源, 光武 8년 9월 17일. 奎. 17864.

60) 민회수, 2024,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소명출판, 263, 292~293쪽.

수십 권을 가져갔다.<sup>61)</sup> 우츠키 키소우는 오사가 평민 출신 상인으로 목포 거류자로 확인되며 1900년 4월 당시 군산항 각국 조계지 내에 640㎡, 공매 가치 155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sup>62)</sup> 그는 1903년 12월에는 목포 부두 노동자 파업 사건 수습을 위한 일본인 거류민 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sup>63)</sup>

이 기간 이경호를 무안향 일본영사관에서 잡아 왔고 무안감리 한영원이 이를 조사하였다. 이경호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897년 10월 쯤에 일본 상인 우츠키(宇津木; 宇津木競 우츠키 키소우)에게 10,720량을 빌려와서 북어(北魚)와 당목(唐木) 등을 무역하기 위하여 배에 싣고 흥덕 사포에 정박하면서 도여각주인 채내삼에게 팔려고 맡겨 두었고 백미 55석을 사두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채내삼이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금전과 쌀을 모두 빼앗았고 7년이 지나도록 부와 군에서 재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배상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이경호는 법부에 정소(呈訴)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 관찰부에서 채내삼의 아들 동근을 순검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법부로 데려가려고 무안향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경호는 우츠키에게 붙잡혔고 채동근은 경무서에 갇히게 되었다. 이경호는 채동근에게 47,102량을 추심하는 것 외에는 일본인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속히 추심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무안향 감리는 이경호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채내삼과 채동근 부자 표증에 나와 있고 채동근이 물건을 훔쳐 판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그 금전은 이경호의 이름으로 우츠키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경무서에서

61) 『務安報牒』, 務安監理 韓永源→外部大臣 李(夏榮), 光武 8년 10월 29일.

62) 『沃溝港報牒』, 沃溝監理署理 監理署主事 金致鍊→議政府贊政 外務大臣, 光武 4년 4월 6일.

63)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近代史資料集成』(八卷), 「韓國木浦居留地內ニ勞働スル韓人ニ對スル居留地警察權關係雜纂」(自明治三十六年十一月至明治三十七年四月), 「(14)手續書[木浦罷業事件 收拾을 위한 日本人 居留民委員의 節次 申請書]」, 明治 36년 12월 2일.

두고 채동근은 무안향 경무서에 잡아 가두어 우즈기의 빚을 처리하라고 하였다. 우즈기도 흥덕군에 와서 순검 1인을 청구하여 파견하여 함께 가게 하였으며 흥덕군으로 되돌아올 때는 전라남도 관찰부의 순검 1인을 청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화에 따라 순검을 파견하여 채내삼 집에 함께 갔는데 이를 갚을 수 없다고 저항하자 담보로 전답문권을 가져갔던 것이다.

이후 무안감리는 이교를 보내 채동근 부자 소유의 전답 추수를 조사하고 수확하여 우즈기에게 보내라고 흥덕군에 훈령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전답 문기를 흥덕군 양안(量案)과 대조하여 분명히 한 후 민론(民論)에 따라 시가에 준해 모두 혈값으로라도 팔아 우즈기에게 갚게 한 후 그 사정을 보고할 뜻으로 법부 훈령과 일본 영사의 조화를 베껴서 보내고 이에 따라 시행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우즈기의 차인(差人; 심부름꾼)이 먼저 도조(賭租)를 정하고 걷으려고 하자 채동근·채동호 형제가 작당하여 차인을 구타하고 쫓아내서 징수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우즈기는 채씨 집안에서 차인과 화해하고자 하였고 연말에 빚을 탕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05년 3월 9일 밤 채내삼과 채동근·채동호의 삼부자가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고함을 지르며 흥덕군 동현에 돌입하여 관아에 있던 사람들을 구타하고 인장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였다. 채씨 삼부자는 군수를 잡아 의관을 부수고 앞뒤로 끌며 이방청으로 쫓아버렸다. 채내삼은 “관이 있으나 일본인의 기세를 막아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사사로이 협잡을 하여 내가 오랫동안 본향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 또 작년 초 순검과 일본인이 와서 도조를 걷을 때 3살짜리 어린아이가 흥역에 걸렸다가 바람을 쏘여 죽게 되었는데 일본인의 방자한 행동을 막지도 못하였다. 둘째 아들 동호가 도리어 답권(答券)을 주어 이미 판자와 섞여 들어가니 이렇게 죽으니 저래 죽으니 매일반이다”라고 소리치며 칼을 빼어 들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때 관속들이 일제히 합세하여 대항하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치고 목포와 광주 순검, 흥덕

군 관리가 채내삼의 집에 돌입하여 그를 체포하였다.<sup>64)</sup>

이영호는 이를 ‘1904년 채내삼의 흥덕저항’으로 규정하면서 채내삼이 흥덕 사포 도여각주인으로 있던 중 일본 상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몰락하고 목포항에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른 후 동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관가를 습격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일본 상인의 제국주의 경제적 침략 과정에서 중간상인의 처지에 있던 채내삼이 채무 문제로 몰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up>65)</sup> 필자도 이 견해에 공감하나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면 일본 상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현실, 토지 소유관계를 둘러싼 지역 사정과 이해관계까지 포함한 다양한 측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내삼의 경우 1898년 12월 제1차 영학당 운동 과정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화삼은 “심지어 각처에 뇌물을 바치는 일은 사포 채내삼의 사채(私債) 근 1만 냥으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허다한 뇌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히 알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sup>66)</sup> 즉, 흥덕의 주요 포구인 사포를 근거지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채내삼은 1만 냥 정도의 사채를 운용할 정도로 농촌 고리대를 하는 재력가로서 영학당 관련자로 보기 어렵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화삼도 다섯 가지 민폐 중 하나로 거론한 지방 공무원 채용 시 뇌물 수수에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채내삼을 지적한 것이다.

채내삼은 일찍이 동학농민군이나 영학당, 조세 저항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흥덕군 당국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었고

---

64)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全羅南道 觀察使 署理 光州郡守 權重殷→議政府贊政 內部大臣, 光武 9년 3월 26일, 奎. 26178.

65) 이영호, 2004,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 운동의 성격」,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369~370쪽.

66)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그것이 결국 군청 난입과 인장 탈취 사건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그는 1895년 1월 30일 홍덕군 이동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면 상현(上玄)의 노병일이 채내삼이 ‘조가(租價)를 횡침(橫侵)한 일’로 호소문을 올린 일이 있었다. 이에 군수는 “사채(私債)는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전에 단단히 타이른 바 있는데, 어찌 이같이 침탈하는가? 채민(蔡民; 채내삼)을 엄히 조사차 데리고 와서 대질할 것이다”<sup>67)</sup>라는 처결을 내렸다.

같은 해 2월 19일에는 상현 사는 조종은이 장계를 올려 “채내삼이 마름[畝音]을 칭하고 논 임자[畝主]의 표(標)가 없는 논을 빼앗아 경작하였습니다”라며 호소하였다. 이에 군수는 “남묘(南畝: 남쪽 밭, 즉 농사에 적합하고 풍요로운 밭을 비유하는 말)에서 이같이 가난한 백성의 경작권을 빼앗으면 어디에 기댈 것이며 또한 임자 있는 논이라는 믿을 만한 자취가 있음에도 어찌 이같이 남에게 미루는가? 가서 채내삼에게 알려 주고 마음놓고 밭을 들여놓을 일이다”<sup>68)</sup>라고 처결하였다. 그러나 군수의 처분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2월 21일 조종은은 군수에게 “채내삼이 관의 처분을 준수하지 않고 시작(時作; 소작)을 빼앗았습니다”라는 장계를 다시 올렸다. 이에 군수는 “오로지 비기(肥己)를 일삼고 감히 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같이 패악한 습성은 결코 예사롭게 조치할 수 없는 일이므로 마땅히 잡아들여 엄히 징계할 것이다”<sup>69)</sup>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지 그로부터 20여 일 후인 3월 11일 조종은은 세 번째 장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채내삼과 고씨 백성[高民]이 농사에 임해서 작권(作權)을 빼앗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군수는 전에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다시 호소를 하나면서 만약 다시 고씨와 채씨가 완강히 저항하고 거절하면 마땅

67) 『民狀置簿冊』, 乙未 정월 30일, 奎古, 5125-63.

68) 『民狀置簿冊』, 乙未 2월 19일.

69) 『民狀置簿冊』, 乙未 2월 21일.

히 엄히 징벌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sup>70)</sup> 즉, 채내삼은 흥덕군 이동면 상현 지역에서 여러 차례 사재를 통한 주민침탈은 물론 장부상 주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남의 논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주민들의 소작권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지방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인사였던 것이다.

채내삼은 우즈기와 이경호가 11개월 동안 자신을 목포에 가두어두고 모든 재산을 탕진토록 하였기 때문에 ‘자질(子姪)과 고노(雇奴) 및 시작(時作) 등 수십 명을 모아 작변’하였으며 인신은 동호에게 맡겨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보아 그는 고용인을 둔 대상인이자 농토를 소유하고 소작인에게 경작권을 제공하던 지주의 범주에 속하는 계급으로 판단된다. ‘고노’ ‘시작’ 등은 채내삼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동민들로 이들이 인장을 탈취하여 채내삼에게 전달한 것이다. 채동근과 채동호는 연로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함께 일을 도모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음력 2월 11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고창군수 이기석을 사관(查官)으로 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흥덕군 향장 진상규는 이동면 계동에 사는 채내삼 삼부자가 관가에 억울함을 보복한다고 칭하고 부근 동민 수십 명을 인솔하고 관방과 관아 안채에 난입하여 창호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면서 칼을 빼어 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아전·관노와 사령 및 읍민들에게 각별히 체포를 지시하자 모인 사람들이 도주하였고 작두(作頭)인 채내삼만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요로 군수가 인신을 탈취당한 일을 정운성 등 흥덕군 유림이 내부에 전보하기도 하였는데 향촌 양반 지배조직 개입의 일단을 알 수 있다.<sup>71)</sup> 또한 목포와 전주에서 순검과 진위대 병사가 진압을 위해 이 지

70) 『民狀置簿冊』, 乙未 3월 11일.

71) “興德民擾:興德郡 鄉儒 等이 昨日 內部에 電報 ㅎ되 本郡에 民擾가 起 ㅎ야 郡守의 印章을 見失하얏스니 定查官 查得 ㅎ라 하얏더라.”(『皇城新聞』, 光武 9년 3월 14일); “印則自在:興德郡儒生 等 鄭雲成이 內部에 電報 ㅎ되 本郡民擾에 印章見失云은 亂民 蔡來三이 以私嫌으로 作黨 ㅎ야 凌辱郡守 ㅎ기로 卽地捉囚 ㅎ고 印章은 勿失이라 하

역까지 출동하기도 하였다. 목포 순검이 흥덕에 파견된 이유는 이곳이 1897년 개항한 이후 경무관과 순검이 상주하고 있었고 일본 상인 우츠기 키소우의 민원과 관련한 무안항 일본 영사의 조회가 있었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채내삼을 조사하니, “저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부근 동민을 부추겨 스스로 작두가 되었습니다”라면서 인장은 잡히자마자 돌려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장자 동근과 차자 동호는 차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희 세 부자는 모두 본 군 이동면에 살면서 본 면의 색장(色掌) 소임을 하면서 면내의 공세(公稅)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에서 출장을 나갈 때 이미 세 명의 보증인을 세워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증인이 없이 사람을 골라 뽑아 빼돌린 것이 기백 냥이 되어 민간에게 나누어 징수하였습니다. 세납으로 징수한 것 중에서 먼저 채워 수봉(充捧)하였기 때문에 민정(民情)이 매우 분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자들이 올 2월 초 4일 밤에 부근 동민을 이끌고 내외 동헌에 난입하여 관원을 쫓아내고 작청(作廳)에서 중민들이 인장을 탈취하였습니다.”

“저희 세 부자는 올 2월 초 4일 밤에 기노(起鬧)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면의 색장 소임은 이전부터 보증을 골라 뽑아 각항의 공전을 징수하였는데 설령 빼돌린 일이 있더라도 면내의 일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보증을 뽑지 않아 공전을 빼돌린 것이 수백 냥에 이르기 이를 면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결세(結稅)로 거두어들이던 중 먼저 집계하니 민원이 낭자하였습니다.”<sup>72)</sup>

갑오개혁 이후 1894년 9월 지세 수취를 위해 ‘결호전봉납장정(結戶

---

얏더라.”(『皇城新聞』, 光武 9년 3월 24일).

72) 『報告書』 第十三號(內部), 光武 9년 3월 26일.

錢捧納章程)’을 마련하고 담당자로 향회의 향원을 선정하고 군수와 이서층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향회에 지세 수취의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그러나 1895년 9월 군수가 지세 수취권을 다시 장악하고 세무주사를 두어 수취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각군세무장정(各郡稅務章程)’이 마련되면서 지세 수취권은 이후 각 군에 다시 환원되었다.<sup>73)</sup> 홍덕군의 경우 그간 색장(色掌)을 별도로 두어 공전 수납의 임무를 대리케 하여 면단위로 납세하는 방식으로 일차적인 책임을 그에게 물었고 세 명의 보증인을 두어 상납에 대한 연대책임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채내삼 삼부자는 모두 홍덕군 이동면의 색장 직임을 맡아 면의 조세 징수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1904년부터 수세 방식을 달리하여 보증인 관행을 없애고 수령이 직접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관에서 수백 냥의 공전을 횡령하였고 군수가 그 부족분을 이동면에 다시 배정하여 분할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주민들의 납세 부담도 더욱 가중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향임이자 색장의 임무를 맡아 납세를 추궁받던 채씨 삼부자가 군청에 난입하자 이 기회를 틈타 과중한 결세 부담으로 고통에 빠져있던 주민들의 원한이 폭발하여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전라남도 관찰사 서리 광주군수 권중은은 내부대신에게 일본 상인 우츠기에게 진 빚은 처음부터 홍덕군수가 자단(自斷)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채내삼 부자의 체포는 법부 훈령과 일본 영사의 조회에 의거한 무안향 감리의 여러 차례 훈령에 따른 것이며 이들이 또다시 변란을 일으킬지 모르기에 담양군과 무장군에 옮겨 가두어두고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건의하였다.<sup>74)</sup> 권중은은 ‘기노 작두(起鬧作頭) 채내삼(蔡乃三)’ 등으로 규정하여 주모자인 세 부자만 처벌하고 동참한 홍덕군 주민들의 군청 난입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사건을

73) 이영호, 2001,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99~111쪽.

74)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光武 9년 3월 26일.

보고받은 내부대신 임시서리 학부대신 이재극은 4월 10일 전라남도 관찰부에 조사토록 전보했고 고창군수 이기석을 조사관으로 정해 사건전말을 보고했다. 흥덕군 난민 채내삼·채동근·채동호 부자를 울에 따라 처벌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sup>75)</sup> 법부대신은 4월 13일 전라남도 재판소에 ‘흥덕군 민요’를 엄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재판 처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sup>76)</sup> 요컨대 이 사건은 신흥 부르주아로 성장 과정에서 파산한 개인의 욕망과 복수,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질고라는 양면적 성격이 결합하여 민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채내삼 부자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5년 4월 29일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적용받은 사례였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7월 질품서 제16호에서, “흥덕군에서 민요(民擾)를 일으킨 죄인 채내삼은 『형법대전』 제280조 ‘고소한다고 말하고 군중을 모아 관할 관아를 압박한 경우는 징역 15년이다’<sup>77)</sup>라는 울문과, 제5편 「율례(律例)」 아래 제12장 제2절 ‘관아의 도장 혹은 문서 및 각 문의 열쇠를 훔친 경우’의 울문과, 『형법대전』 제129조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는 그 무거운 쪽을 따라서 처단하고,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죄에 따라 처단함’이라는 울문에 따라야 하지만, 잠시 도장을 빼앗은 것은 훔친 것

75) 法部 刑事局, 『照牒』 第十號, 內部大臣 臨時署理 學部大臣 李載克→法部大臣 李址鎔, 光武 9년 4월 10일. 奎. 17277-10.

76) 法部 法務局, 『訓指起案』 第四號, 法部大臣 陸軍副將 勳一等 李→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光武 9년 4월 13일. 奎. 17277-5; “飭辦擾魁: 昨日 法部에서 內部照會를 因하야 全南觀察府에 訓令하되 興德郡 民擾 狀頭 蔡乃三 蔡東根 蔡東浩 等이 打破官舍하고 毆曳官長하야 裂破衣冠하고 拔劒擬刺하며 奪取印章하야 罪를 依律處辦하라 하얏더라.”(『皇城新聞』, 光武 9년 4월 18일).

77) “告訴하다 稱하고 聚衆하야 本管官司를 挾制하야 者는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는 一等을 減하고, 因하야 人을 傷하거나 官物을 毀破하야 者는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하야 者는 絞에 處하야 刑이라. 但 官吏의 貪虐하야 因하야 起鬧하야 者는 本條에 依하야 各히 一等을 減하야 刑이라.” 『刑法大全』 第4編 律例上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第1節 訴訟違犯律 第280條 「聚衆官司挾制」.

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니, 본 율문에서 참작하여 1등급을 감해서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하였다. 채동호는 그의 아버지가 주창하자 수종하였으니 마땅히 따른 자의 율문에 따라야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율문에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므로, 『형법대전』 제280조 ‘고소한다고 말하고 군중을 모아 관할 관아를 압박한 경우는 징역 15년’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한편 채동근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애당초 다투어 간하였고, 추후 따라서 갔으나 악행을 도운 증거가 없으니, 정황을 생각하고 법을 헤아리면 참고하여 용서할 점이 있으니 『형법대전』 제678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경우는 태 40이고, 사리가 중한 경우는 태 80에 처함’이라는 율문에 의하여 태 80에 처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여러 사람은 율문을 적용하여 처벌할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석방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질품한다”라고 법부에 보고하였다.

법부도 전라남도 재판소의 판정이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들을 각각 적용한 율문에 따라 처리하되, 채내삼은 징역 종신에 처하고 채동호는 징역 15년으로 모두 형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서 올리고, 채동근은 태형을 시행하고 석방하라, 삼부자 외에 다른 사람은 ‘죄를 헤아려 형벌을 정할 만한 증거와 근거가 없으므로’ 모두 훈계 방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였다.<sup>78)</sup> 법부는 이 사건을 ‘흥덕군 민요’로 규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조직적인 지세 납부 저항운동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채씨 삼부자에게만 죄를 물으면서 파장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축소 종결하려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재판소 질품서에서 채내삼에 대한 율문을 헤아리는 글 중 ‘1등급을 감하여 태 100, 징역 종신’이라고 하였는데, 새로

78) 法部 司理局, 『起案』, 「興德郡에서 民擾를 일으킨 죄인 蔡乃三 등의 처리에 대해 지시하는 指令 제20호의 起案」, 法部大臣 李根澤→全羅南道裁判所 判事 朱錫冕, 光武 9년 7월 24일.

반포된 『형법대전』에 원래 태형을 덧붙이는 규정이 없고 율령을 끌어와 적용하되 글자를 따서 쓰는 것만 하고 글자를 더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정해진 법에 게재되어 있거늘 율문의 문자를 헤아리는 데 얼마나 신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 매우 소홀했으니, 마땅히 경고해야 하겠지만 우선 보류할 것이고 이후에는 곱절로 더욱 주의하여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러 질책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첨부하였다. 무릇 율령을 끌어와 적용할 때 편·장·절을 모두 쓸 필요 없이 다만 조항만 쓰라는 일이었다. 그해 9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위의 법부 사리국 기안을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 내용으로 판결하였다.<sup>79)</sup> 1905년 황해도 곡산군에서 일본인 철도 역부를 습격하여 살해한 사건에 참여한 최자범·이경원 등도 채내삼이 적용받은 『형법대전』 제280조의 주범과 종범에 관한 율로 처벌되었다.<sup>80)</sup> 이후 채내삼은 “나이 70세 이상 석방, 채내삼 ‘민요죄(民擾罪)’ 징역 종신 나이 75세”<sup>81)</sup>로 1906년 3월에, 채등호는 “1907년 3월 ‘민요수종죄(民擾隨從罪)’ 감일등 10년”<sup>82)</sup>으로 감형된 이후 9월에 각기 석방되었다.<sup>83)</sup>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은 이전 법과는 달리 근대 일본법률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만,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민요죄’ ‘민요수종죄’ 등 근거 법률 없이 처벌되는 경우도 혼재하였다.

79) 『司法稟報』, 「報告書 第二十三號」,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朱錫冕→法部大臣 陸軍 副將 勳一等 李根澤, 光武 9년 9월 2일.

80) 『司法稟報』, 「質稟書(第十二號)」, 光武 9년 9월 6일.

81) 『官報』, 光武 10년 6월 27일.

82) 『官報』, 光武 11년 3월 19일.

83) 『官報』, 光武 11년 9월 18일.

## 맺음말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10여 년에 걸친 고창·흥덕·무장 지역 변혁운동의 연속화 과정과 그 내용을 살폈다. 고창지역은 곡창지대로 조선 후기 이래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 관계가 가장 첨예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시기인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1895년 음 2월 9일의 1차 심문에서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 전사인 1894년 1월 고부농민항쟁 시에는 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를 환추(還推)하고 관가에서 보(洑)를 쌓은 것을 헐어 부수었다고 주장하였다.<sup>84)</sup> 이틀 후 2차 심문에서는 이 항쟁은 “전라 한 도의 탐학을 제거하고 내직으로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행위를 하는 권신을 모조리 쫓아내면 팔도가 자연 일체로 될 터”<sup>85)</sup>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3월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에서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한 폐정개혁안 중 이 지역과 관계가 있는 경제 현안은,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국결(國結)을 늘이지 말 것, 보부상(裸負商)의 폐단을 금지할 것, 도내의 환전(還錢)은 전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浦口)에서 잠상(潛商)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동포전(洞布錢)은 호(戶)마다 봄과 가을에 2냥으로 정할 것,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官爵)을 팔며 국권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수령이 된 자가 해당 경내에서 장사를 치르거나 전답을 사지 못하게 할 것, 전세(田稅)는 예전대로 할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줄일 것, 포구어염세(浦口魚鹽稅)를 혁파할 것, 보세(洑稅)와 궁답(宮畜)은 시행하지 말 것”<sup>86)</sup> 등이었다.

84) 『全琿準供招』, 「東徒罪人 全琿準 初招 問目」, 개국 504년 2월 9일.

85) 『全琿準供招』, 「2차 심문과 진술」, 개국 504년 2월 11일.

86)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37號 判決宣告書原本 全琿準」, 개국

근대 이행기 고창지역의 농민운동은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국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단속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난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지방관의 탐학 외에도 궁방의 토지 소유, 정부의 토지세 징수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기본적인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인 ‘동비 여당’이 이 지역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에 제1, 2차 영학당 운동으로 부활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1, 2차 영학당 운동은 모두 만민공동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지역 출신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주장하였던 경제적 지향은 1898년 제1차 영학당 운동 시 가혹한 세금 징수와 관리 임용 시의 뇌물, 방곡을 빙자한 군수의 매점매석을 지적하고 토지경작권의 투명성 확보를 제기한 것이다. 1899년 제2차 영학당 운동에서는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궁방인 명례궁의 토지 수탈에 대한 저항으로 다시 점화되었다. 고착화된 지방관과 궁방의 수탈은 저항운동의 원인이었지만 농민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군대를 동원한 가혹한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파는 세기를 달리하여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앞선 여러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인 모순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명례궁에 대한 경제적 예측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1905년 결세 저항운동으로 표출되었다. 결세(結稅)는 농토의 면적 단위로 거두는 토지세(Land Tax)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결세 외에 더 부과되는 결세에 대한 부담이 동민들이 관아 점거 투쟁에 참여한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 원래 소작인은 토지 소유주에게 도조(賭租)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 상례였고 규정상 결세 납부의 의무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에게 전가되어 관에서 첩징(疊徵)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채씨 일가와

---

504년 3월 29일.

같은 지역 유력층은 물론 농민들에게도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채내삼 부자는 조세 징수에 대한 책임으로, 지역민들은 지방관의 공전 횡령과 공동납세 및 과중한 결세 부담으로 인한 목은 민원이 결합하여 군 단위 납부 저항 투쟁 차원으로 발전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러일전쟁 이후 준 식민지 상황에서 지방행정력 약화라는 대한제국 정부의 위기 및 명례궁을 비롯한 궁방전의 수세권에 대한 저항 등 이 시기 일련의 항세 항조운동도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투고일 : 2025. 10. 4. 심사완료일 : 2025. 10. 30. 게재확정일 : 2025. 11. 10.

## 참고문헌

### 〈자료〉

경남 함안군 지곡면 보산리 정취마을 허원식 종가 소장 문서(소장자 허태홍).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近代史資料集成』(八卷), 「韓國木浦居留地內ニ勞働スル韓人ニ對スル居留地警察權關係雜纂」(自明治三十六年十一月至明治三十七年四月).

金允植, 『續陰晴史』.

法部 檢事局, 『起案』.

法部 法務局, 『訓指起案』.

法部 司理局, 『起案』.

法部 刑事局, 『照牒』 第十號.

日本陸軍參謀本部編, 「興德縣」 『朝鮮地誌略』(卷八); 全羅道之部, 明治 21년 11월.

崔永年, 『東徒問辨』, 「古阜起擾辨」.

『各司謄錄』.

『啓草存案』.

『高宗實錄』.

『官報』.

『宮內府去來文牒』.

『독립신문』.

『務安報牒』.

『民狀置簿冊』.

『報告書』 第十三號(內部), 全羅南道 觀察使 署理 光州郡守 權重殷→議政府贊政 內部大臣, 광무 9년 3월 26일.

『司法稟報』.

『兩湖右先鋒日記』.

『永川按賑啓草』.

『沃溝港報牒』.

『全羅南道高敞郡就捉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竝錄成冊』, 奎. 26136.

『全羅南道高敞郡被就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竝錄成冊』, 奎. 26137.

『節目』(明禮宮), 庚寅 二月 日.

『駐韓日本公使館記錄』.

『牒報』.

『刑法大全』.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15號 判決宣告書原本 洪樂寬」, 개국 504년 3월.

『皇城新聞』.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광무 3년 6월 22일.

### 〈단행본〉

민회수, 2024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소명출판.

배항섭·김양식·조재곤·이병규, 2011,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공간.

이영호, 2001,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영호, 2004,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 〈연구논문〉

姜吉遠, 1994, 「戊戌·己亥(1898~1899) 古阜等諸邑의 農民蜂起」, 『韓國史研究』 제85호, 한국사연구회, 77~103쪽.

金度亨, 1983, 「大韓帝國의 改革事業과 農民層動向」, 『韓國史研究』 제41호, 한국사연구회, 99~134쪽.

朴贊勝, 1984,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 제35집.

손태도, 2017,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흥낙관·흥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5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29~305쪽.

吳世昌, 1988, 「英學黨研究」, 『史學論叢』,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왕현중, 1991,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 연구』 (1), 역사비평사.

정재철, 2002, 「동학농민전쟁 이후 흥덕현의 지역사정과 수습책」, 『史叢』 제55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29~168쪽.

鄭昌烈, 1982, 「韓末 變革運動의 政治·經濟的 性格」, 『韓國民族主義論』 I, 創作과 批評社.

## 〈Abstract〉

# The Younghakdang and the Land Tax Resistance Movement in the Gochang Region

Cho, Jae-Gon\*

This paper connects the First Yeonghakdang Movement of December 1898, the Second Yeonghakdang Movement of May 1899, and the Heungdeok County Land Tax Resistance Movement of February 1905, led by a group of forces, including some survivo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Gochang, Heungdeok, Jeongeup, Mujang, Buan, Yeonggwang, Jangseong, and Hampyeong. This movement was staged in these area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that unfolded over the past decade follow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t also examines the government's response, the trials of the leaders of each movement, and their outcomes. The first Yeonghakdang Movement opposed harsh taxation and sought transparency in land ownership, while the second Yeonghakdang Movement resisted the royal land expropriation. The Heungdeok County land tax resistance movement evolved into a civil uprising, stemming from a combination of personal desire, revenge, and the economic hardships of local residents.

**Key word** : Donghak Peasant Army, Yeonghakdang, Lee Hwa-sam, Chae Nae-sam, Land Tax

---

\* Sogang Global Korea Initiative, Sogang Univ. Research Professor

##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신진희\*

### 〈목 차〉

머리말

I. 『갑오일기』의 저자를 찾아서

II.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III.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찾고, 경상도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핀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부분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이다.

둘째, 지례접주 정접주는 선산접주 김접주의 휘하였다.

셋째,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례 수접자 정접주, 선산 수접자 김접주는 물론 강제술(姜弟述), 김재덕(金在德), 김성봉(金成奉), 이

\* 국립경국대학교 강사

홍이(李洪伊), 신채봉(申彩鳳), 장흥성(張興成), 선의포(善義包) 접주 김만호(金萬戶), 나보은(羅報恩) 등이다.

넷째, 지례 동학농민군은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8월에 관아를 점령했다.

다섯째, 2차 봉기 당시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를 위해 준비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갑오일기(甲午日記)』, 지례, 김성모(金聖模), 정접주, 김접주, 강제술, 김재덕, 김성봉, 이흥이, 신채봉, 장흥성, 김만호, 나보은

## 머리말

김천은 조선 후기 김산군, 개령현, 지례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김산은 전라도 무주와 충청도 황간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해 있다. 개령은 북으로 상주, 동으로 선산, 남으로 성주와 접하고 있고, 지례는 전라도 무주와 접하고 있으며, 동으로 성주·고령, 남으로 함천·거창이 위치하고 있다.



青邱八城圖 일부

김천의 동학농민군 연구는 『세장년록(世藏年錄)』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sup>1)</sup> 2017년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등 최근 자료까지 아울러 연구한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학회, 2017)이 발간되었다.<sup>2)</sup> 이 연구들 가운데 조규태의 연구는 『세장년록(世藏年錄)』과 『동요일기(東擾日記)』, 『별계(別啓)』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김산·지례·개령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sup>3)</sup>

『갑오일기(甲午日記)』는 2023년 『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호에 영인본이 실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았다. 저자 주변인물에 대한 단서들만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밝히는 것도 적지 않은 일 중 하나일 듯하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는 지례에서 거주하고 있던 인물로, 1894년 4월, 6월은 간소하게 기록하고 7월부터 동학농민군의 상황과 피난 인물 등을 서술하는 등 1895년 3월까지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썼다. 이후 단발령이 내려지고 노응규가 의병을 일으킨 이야기가 적혀 있고, 1896년 2월 김산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기찬 관련 사실을 적고 있다.

- 
- 1) 신영우, 1991, 「1894년 영남 김산(金山)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신영우, 1990, 「사례연구를 통해 본 영남지역의 동학농민전쟁-김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간과경험』 2,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 2) 경상도 북부지역의 동학농민군과 김산·지례(이이화), 경상북도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사의 전개과정(채길순), ‘동학농민혁명기’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조규태), 1894년 경상 감사 조병호의 동학농민군 진압 기록과 김천(신영우), 김산 소모영의 설치와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이병규), 김천과 <내수도문>, 그리고 동학의 배려적 양성주의(안외순), 동학의 코드와 김천 지역 현대문화 자산(지현배), 김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문화 콘텐츠 방안(채길순), 인간 유한성 극복의 단초로서의 동학사상(김영철), 수운과 체용적 사유의 모험(안호영) 등 10개 주제로 김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조망하였다.
  - 3) 조규태, 2016,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학보』 41, 동학학회 ; 조규태, 2017, 「‘동학농민혁명기’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007)』, 모시는 사람들.

『갑오일기(甲午日記)』는 기존에 인용되었던 자료들과 달리 지례현의 동학농민군 상황을 이전의 자료들보다 훨씬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동태(動態)를 파악하던 저자의 상황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늦게 적게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던 다른 자료를 교차검토 하면서 함께 보아야 한다.

『세장년록(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은 김산군 조마남면에 거주하던 화순최씨의 가승일기인데, 그 가운데 1894년 당시 김산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산지역 인물들이 동학농민군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입도(入道)를 강요당하는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성산여씨에게 일어났던 일은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성산여씨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이다.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는 여중룡(呂中龍, 1856~1909)이 1894년과 1895년에 쓴 일기로 여영소 등 일가가 지례로 피신한 이후 여중룡이 김산과 지례를 왔다갔다 하면서 곡식을 대주거나 가산을 관리하는 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2)에 『갑오병신일기(甲午丙申日記)』로 국역과 영인본이 실려있다.

김산소모사로 활동한 조시영(曹始永, 1843~1912)이 남긴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 2015)은 1894년 11월 21일부터 1895년 1월 22일까지 약 2개월의 관변측 기록도 있다. 상주소모영의 소모사였던 정의묵(鄭宜默)이 쓴 『(상주)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9, 2011)에서는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상황이 일부만 드러났지만,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은 조시영이 김산소모사로 활약하면서 교환했던 것이 적혀 있어 김산을 중심으로 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 관련 관변의 대응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별계(別啓)』(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0, 2018)는 1894년 11월 4일부터 1895년 5월 21일까지 경상 감영에서 정부에 보낸 별계와 별보(別報)를 모은 164면

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이외에도 김산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다. 한말의병대장이었던 이기찬(李起燦, 1853~1908)의 『지산유고(止山遺稿)』 속 「제문」과 「가장(家狀)」에 관련 내용이 조금씩 적혀 있기도 하다.<sup>4)</sup> 『갑오일기(甲午日記)』 뒷 부분에 적힌 의병 언급 부분과 『지산유고(止山遺稿)』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김산의진이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홍심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만 살피겠다.

또 참고해야 하는 자료는 『동요일기(東擾日記)』이다. 『동요일기(東擾日記)』(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2008)는 1894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주지역에서 발생한 농민운동의 양상을 도한기(都漢基, 1836~1902)가 적은 일기이다. 8월 20일부터 지례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활동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위의 자료를 활용하고 참고하여 쓰는 이 글은 먼저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추적하고, 다음으로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핀다. 여기서는 『갑오일기(甲午日記)』 등에서 밝혀지는 지례 출신 동학농민군 혹은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도 확인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망(眺望)한다. 마지막으로 2차 봉기 이후 일전(一戰)을 준비했던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김산·지례·개령 속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아닌, 지례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4)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22, 『국역 지산유고(止山遺稿)』(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 10).

## I.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찾아서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언급되는 지명들은 방산(芳山), 임계(林溪), 임천(林泉), 안간(安間), 복호동(伏虎洞), 무릉(武陵), 마산(馬山) 등이다. 방산은 지례현 하북면(下北面) 방산리,<sup>5)</sup> 임계는 지례현 상북면(上北面) 임계리,<sup>6)</sup> 임천은 지례현 상북면 임천리,<sup>7)</sup> 안간은 지례현 하서면(下西面) 안간리,<sup>8)</sup> 복호는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sup>9)</sup> 무릉은 지례현 상북면 무릉리,<sup>10)</sup> 마산은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sup>11)</sup> 등으로 확인된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가 살았던 곳이 바로 지례현이었던 것이다. 또 상북면, 하북면에 집중된 마을 이름으로 유추해 볼 때 김산과 접경한 북면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5) 방산리는 하북면 15개 마을 중 하나이다(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7쪽).
  - 6) 임계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7쪽).
  - 7) 임천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7쪽).
  - 8) 안간리는 하서면 21개 마을 중 하나이다(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7쪽).
  - 9) 복호동은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7쪽).
  - 10) 무릉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7쪽).
  - 11) 마산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7쪽).



知禮郡, 『知禮郡邑誌』, 光武3년(1899)

이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1899년 지례군에서 제작한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의 책머리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려 있는 ‘지례군지도(知禮郡之地圖)’이다.<sup>12)</sup> 지도에 표시된 부분이 북쪽임을 감안해서 본다면 오늘날 지도처럼 이해할 수 있다. 표시된 곳이 김산과 경계가 접한 곳으로,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거주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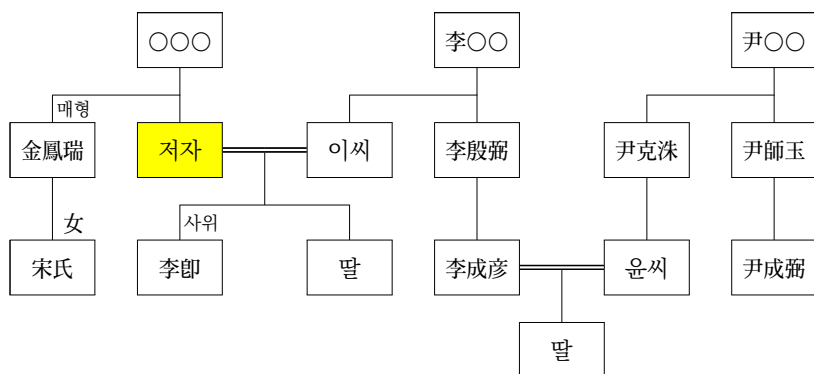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일기 속에 기록하지 않았으나,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었다. 7월 14일 상지(上枝)에 사는 처남(妻娚) 이은필(李殷弼)이 며느리와 손녀, 가마꾼과 노비 등을 데리고 왔다.<sup>13)</sup> 처조카의 이름은 이성언(李成彦)이다.<sup>14)</sup> 이은필은 윤사옥(尹師玉)과 친한데, 윤사옥의 동생 윤극수(尹克洙)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다.<sup>15)</sup> 또 평성(坪城)에 사는 매형 김봉

12) 知禮郡, 光武3년(1899), 『知禮郡邑誌』.

1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4일자.

1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17일자.

서(金鳳瑞)가 딸의 혼사를 공성(公城)의 송씨(宋氏) 집안과 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있다.<sup>16)</sup> 이를 가계도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생각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많았다. 먼저 처남인 이은필은 상지(上枝)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고, 동학농민군을 피해 아들 이성언(李成彦)과 며느리 윤씨, 손녀딸 등을 대동하고 지레로 피신한 사람이다. 상지(上枝)는 칠곡군 상지면(上枝面)을 지칭한다.<sup>17)</sup> 상지면에는 신동(新洞)이 있는데 광주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경주시립도서관 족보자료관과 인제대학교 디지털족보도서관에서 각 집안의 족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에서 1800년대에 태어나 윤씨(尹氏)와 혼인한 이름을 모두 확인하였다. 광주이씨 20세로 자(字)가 성언(聲彦)인李大榮, 1869~?)이 칠원윤씨(漆原尹氏) 윤지학(尹志學)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적힌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일기 속에 윤극수(尹克洙)라는 이름은 윤지학(尹志學)으로 적혀 있었다. 아마 극수(克洙)는 그의 자(字)일 가능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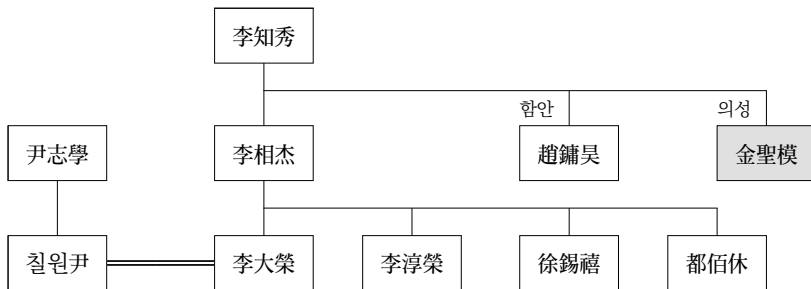
1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6일자.

1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7일자.

17)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595쪽.

큰 듯하다.

이대영의 아버지는 광주이씨 19세로 자(字)가 은필(殷弼)이고 호(號)가 이계(伊溪)인 이상걸(李相杰, 1850~1925)이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기록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게 된 것이다. 이상걸에게는 아들이 둘, 딸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대영(李大榮)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순영(李淳榮)이었다. 이대영은 1869년생으로 1894년 당시 25세였고, 윤씨부인과 혼인하여 딸이 있었다. 11월에는 아들도 낳은 것으로 확인된다.<sup>18)</sup> 둘째 아들인 이순영은 1884년생으로 1894년 당시 10세였기에 형인 이대영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딸 중 첫째 딸이 달성서씨 서석희(徐錫禧)와 혼인하고, 둘째 딸이 성주도씨 도백휴(都佰休)와 혼인하였다.<sup>19)</sup> 이를 가계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이씨 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768쪽 참조.

『갑오일기(甲午日記)』에 나오는 이은필의 본명인 이상걸의 매제(妹弟)는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함안조씨 조용호(趙鏞昊)이고, 조상규(趙相奎)의 아들이다. 다른 한 사람은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로, 김대엽(金大燁)의 아들이다. 조용호와 김성모 중 어느 사람이 『갑오일기(甲午日記)』

1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9일자.

19) 廣州李氏漆谷派世譜編纂委員會, 1986,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768쪽.

記』의 저자인지 찾아야 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는 이은필을 형(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상걸의 손아래 누이와 혼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저자는 아들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딸과 관련된 단서들이 있었다. 고정(古亭)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 이군(李君)이 명기하고 있다.<sup>20)</sup>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즉(李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위의 이름 혹은 자(字)나 호(號)가 아닐까 추정된다. 7월 18일 사돈이 와서 딸의 얼굴을 보고 갔다고 하면서 이즉(李卽) 내외를 부탁하고 갔다고 적혀 있는 점으로 보아 이즉(李卽)이 고정의 사위 이군(李君)과 동일인으로 짐작된다.

또 저자에게는 평성(坪城)에 거주하는 김봉서(金鳳瑞)라는 매형이 있었다.<sup>21)</sup> 다시 함안조씨 족보와 의성김씨 족보에서 김봉서라는 매형이 있고, 이씨를 사위로 둔 인물을 찾아야 했다. 단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복호동에 살고 있는 종제(從弟), 종제(從弟) 명문(鳴聞), 재종제(再從弟) 인술(仁述)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함안조씨는 규(奎) - 용(鏞) 자로 향렬자가 이어지고, 의성김씨는 대동보에서 락(洛) - 모(模) 자로 향렬자가 이어진다. 따라서 김대엽(金大燁)의 족보명은 다를 가능성이 크지만, 김성모(金聖模)의 이름이 확인된다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족보를 뒤지면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족보를 뒤졌는데, 관련된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을 찾아서 함안조씨와 의성김씨 중 어느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는 주민을 만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지례현 상북면 복호동은 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從弟)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가서 주민을 만나 보니, 우선 함안조씨는 이 일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의성김씨는 작내

2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3일자.

2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10월 17일자.

리에 많이 살고 있다고 했다. 즉, 의성김씨가 세거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를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조사를 가서 작내리에서 우연히 그곳 의성김씨 종손을 만나,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란재(觀瀾齋)는 김여권(金汝權, 1557~ 1640)을 일컫는다. 관란재 김여권은 임진왜란 때 지례향교에 불이 나자, 뛰어들어 대성전에 모셔져 있던 오성(五聖)의 위패(位牌)와 동방 제현(諸賢)의 위판을 가지고 나온 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한다.<sup>22)</sup> 『갑오일기(甲午日記)』에는 10월 15일 관란 선조의 묘사가 있는 날이라고 적혀 있어,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가 김성모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에서는 엽(燁) - 모(模) 자로 항렬자가 이어졌다. 하지만 김대엽(金大燁)·김성모(金聖模) 부자의 이름은 물론 광주이씨와 혼인한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딸과 사위만 언급된 부분으로 보아, 뒤에 만들어진 족보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듯하다. 의성김씨 종손도 이전에 발간된 족보를 찾아보았으나 김대엽-김성모 부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아쉽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는 과제로 남겨야 할 듯하다.

## II.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 1. 지례 동학농민군

지례현 상북면(上北面)의 12개 마을 중 복호리(伏虎里)과 와룡리(臥龍里)

---

22) 뉴스퀘스트 (<https://www.newsquest.co.kr>), 2021년 6월 17일. (2025년 9월 2일 검색)

는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으로 김천군(金泉郡) 석현면(石峴面) 용호리(龍虎里)가 되었다.<sup>23)</sup> 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를 말한다. 이 가운데 북호리는 1890년 11월, 해월 최시형이 「내칙(內則)」·「내수도문(內修道文)」을 짓고 발표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 1990년 대한천도교 여성회에서 「내칙(內則)」·「내수도문(內修道文)」 관련 기념비를 세웠고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천도교북호동 수도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1890년부터 동학이 전파되어 있었던 곳이고, 부녀자들의 동학입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역이었다. 1894년 9월 2일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지례현 상북면 북호리와 와룡리 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동학에 입도하였다는 소식을 접한다.<sup>24)</sup> 아마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쉽게 입도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지례 동학농민군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 지도자를 찾아보자. 가장 많이 알려진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에 김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는 죽전(竹田)의 남정훈(南廷薰), 진목(眞木, 참나무골)의 편보언(片輔彦)·편백현(片白現) 등이었으며, 죽정(竹汀)의 강주연(康柱然),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 [감호정(鑑湖亭) 고자(庫子)]), 강평(江坪)의 도사(都事) 강영(姜永=姜基善), 봉계(鳳溪)의 조순재(曹舜在), 공자동(孔子洞)의 선달(先達) 장기원(張箕遠), 신하(新下)의 배군헌(裵君憲), 장암(壯岩)의 권학서(權學書) 등이 접주로 활동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25)</sup> 『별계(別啓)』 11월 11일자에는 김성심(金性心)도 김천의 접주라는 기록이 있다.<sup>26)</sup> 김천은 김산군 김천면을 지칭한다.

김성심(金性心)은 김천의 접주라고 했으니 제외하고,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바로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이다. 그는 감호정(鑑湖亭) 고자(庫子)라고 한다. 고자(庫子)는 물품 출납을 담당했던 사람(하급관리)을 일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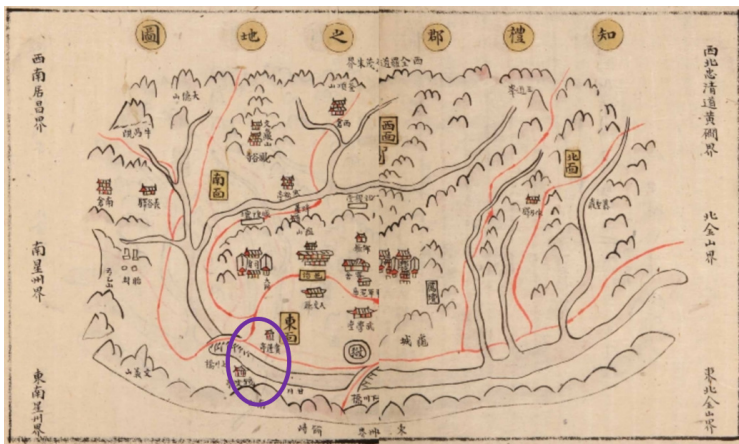
23) 越知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東京: 兵林館印刷所, 530쪽.

2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25)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

26) 「甲午十一月十一日封 啓」, 『別啓』.

며, 감호정(鑑湖亭)은 1690년 현감 조인상(趙麟祥, 1642~1697)이 지례현 하현면(下縣面) 상부리(上部里)에 건립하였다가 1755년 홍수로 유실된 것을 1760년 현감 이창원(李昌遠)이 재건하였다고 한다.<sup>27)</sup> 1899년 제작된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를 보면 감호정(鑑湖亭)이 “현 동쪽 1리에 있다(在縣東一里)”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김정문은 김산군(金山郡) 과내면(果內面) 기동(耆洞) 출신이었으나,<sup>28)</sup> 감호정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접주들보다 더 지례현 동학농민군과 밀접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知禮郡, 『知禮郡邑誌』, 光武3年(1899)

동그라미 속에 두 개의 정자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호정(鑑湖亭)으로 추정된다. 확대하여 살펴보니 글자 확인이 어려웠다.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 누정(樓亭) 편을 살펴보면, 동쪽에 감호정(鑑湖亭), 서쪽에 한

27) 「김천의 누정(樓亭)과 누정문학(樓亭文學) ⑤」, 『김천신문』 2024년 12월 12일, 지명은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5쪽으로 보완하였다.

28)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2쪽. 과내면에 상기동, 증기동, 하기동이 있다.

송정(寒松亭), 북쪽에 방초정(芳草亭), 남쪽에 옹취정(擁翠亭)이 위치한  
다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sup>29)</sup>

김정문과 같은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아니라, 지례에서 활동하던 동학  
농민군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1895년 1월 지례현감 이재하(李宰夏)  
가 지례현 남면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 4명을 조정에 보고하였  
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이 확인된다.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  
홍이(李洪伊)·신채봉(申彩鳳)이 그들이다.<sup>30)</sup>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 등은 1894년 8월에  
동학농민군 무리를 이끌고 마을에 들어와서 지례관아에 일부 들어가기  
도 하였고, 촌리(村里)에서 재물을 확보하였고 또 성주(星州)·금산(錦  
山)·황간(黃杆)·영동(永同)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할 때 참여하였다. 그  
들은 지례현감 이재하의 심문을 받고 1895년 1월 5일에 모두 총살되었  
다. 나머지 한 명인 신채봉(申彩鳳)은 강제로 동학농민군에 들어갔다고  
판단되어 지례현감이 풀어주었다고 한다.<sup>31)</sup>

김정문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나머  
지 4명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이름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번호	이름	참여내용	참여지역	생물 연대
1	김정문 (金定文)	김정문은 접주로서 1894년 8, 9월 경상도 김 산·지례(감호정 관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 여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경상도 선산을 공격함	경상도 김산·지례· 선산	미상

29) 知禮郡, 光武3년(1899), 『知禮郡邑誌』.

30)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

31)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

번호	이름	참여내용	참여지역	생물 연대
2	강제술 (姜弟述)	김정문 접의 일원으로, “접사(接師)”로 적혀 있다. 주로 김산지역에서 활동하였다.(여중룡, 「갑오병신일기」) 김정문이 지례와 관련이 있고 선산 공격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강제술도 같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상도 김산	미상
3	김재덕 (金在德)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 충청도 금산·황간·영동	미상
4	김성봉 (金成奉)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 충청도 금산·황간·영동	미상
5	이홍이 (李洪伊)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 충청도 금산·황간·영동	미상
6	신채봉 (申彩鳳)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위협에 의해 입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풀어주었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 충청도 금산·황간·영동	미상
7	김접주 (金接主)	상산김씨. 선산의 수접자(首接者)로서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에서 거주했다. 선산에서 김산으로 와서 휘하 동학농민군을 정비하여 성주를 점령에 나섰던 인물이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김산·성주	미상
8	정접주 (鄭接主)	김접주(金接主) 휘하의 인물로 지례의 수접자(首接者)로 알려진 인물이다. 동학농민군의 행패가 심할 때 특별한 지시를 내려 휘하를 안정시켰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지례·성주	미상
9	장흥성 (張興成)	1894년 9월 12일, 지례에서 총과 말 3필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10	김만호 (金萬戶)	선의포(善義包) 접주이다. 1894년 9월 28일 지례에서 활동하였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지례	미상

번호	이름	참여내용	참여지역	생물 연대
11	나보은 (羅報恩)	지례 상북면 마산리 주민으로 마을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했을 때 함께 입도했다. 10월 말 동학농민군 통문이 돌아 다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11월 초 체포되어 곤장을 맞고 방면되었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12	최형오 (崔亨五) 아들	지례현 상북면 임평리에 거주하던 최형오의 아들로, 동학농민군 접주로 알려진 인물이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지례 동학농민군의 상황이 적혀 있는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확인 가능한 동학농민군은 선산의 수접자(首接者)였다는 김접주(金接主), 지례의 수접자(首接者)인 정접주(鄭接主)였다. 지금까지 선산과 지례의 접주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일기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선산 수접자 김접주는 상산김씨(商山金氏)로,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현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1894년 9월 지례로 들어와서 지례현 하현면 부평리에 사는 과부 문씨의 효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포상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음식물을 보냈다고 한다.<sup>32)</sup>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는 선산 인물 가운데 김봉동(金鳳東, 1862~1947)이 있다. 그는 보은취회와 선산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던 인물인데, 일선김씨이다. 따라서 상산김씨라고 하는 선산 김접주와는 무관하다.

지례의 수접자인 정접주(鄭接主)는 황덕(黃德) 출신자로, 선산 김접주의 휘하이고, 동학농민군이 지례에서 “작폐”했을 때 여러 차례 특별한 지시를 내려 접(接) 휘하의 동학농민군을 안정시켰던 인물이기도 하다.<sup>33)</sup>

『세장년록(世藏年錄)』에 근거하여 김산 부근에서 살필 수 있었던 접은 충청포(忠淸包), 상공포(尙公包), 선산포(善山包), 영동포(永同包) 등이

3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6일자.

3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6일자.

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 기존에 알려졌던 포 외에 선의포(善義包)가 등장한다. 1894년 9월 26일 선의포는 신기(新基)에 주둔하고 있었다. 최시형의 기포령(09.18)이 전해지자 이동을 위해 물자를 모으던 시기였다.<sup>34)</sup> 그 접주는 김만호(金萬戶)였다.<sup>35)</sup>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포는 김산(金山) 궁장포(弓莊包)이다.<sup>36)</sup> 궁장(弓莊)은 김산군 과외면 궁장동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sup>37)</sup> 그곳을 근거지로 삼는 포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1894년 9월 12일자 『갑오일기』에 장흥성(張興成)이라는 인물이 적혀 있다. 동학농민군이 성주를 갔다가 역촌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흥성을 보내 충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시켜서 온 점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던 인물 같지는 않다. 하지만 충을 받지 못한 장흥성은 다른 동학농민군 1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결국 충을 획득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월촌에 들러 말 세 필까지 끌고 갔다고 한다. 동학농민군 후방지원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듯하다.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에 거주하던 정여배(鄭汝培)도 있다. 그는 1894년 마산리 동민들과 함께 동학에 입도한 인물이다. 동학농민군 활동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저녁마다 동학 주문을 외우던 마산리 주민들 중 한 사람이다. 정여배는 동민들과 함께 동학에 입도한 것은 맞지만, 동학농민군으로서 성주·지례관아 등으로 가서 활동을 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아, 표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 주민으로 동학에 입도하고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이력이 명확한 인물은 나보은(羅報恩)이다. 그는 10월 말 동학농민

---

3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3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8일자.

3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일자.

37)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2쪽.

군 사이에 통문이 돌아, 동참했고 11월 초 체포되어 곤장을 맞고 방면되었다.<sup>38)</sup> 다만 이후 확인되는 흔적이 없다.

## 2.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들이 모였던 곳은 복호동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복호동이라 다른 곳의 상황보다 빠르게 인지했던 것 같다. 복호동은 1894년 당시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890년 11월, 해월 최시형이 「내칙(內則)」·「내수도문(內修道文)」을 짓고 발표한 곳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8월 6일자에는 복호동에 동학농민군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 말을 타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척사창의(斥邪倡義)’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공자동으로 들어갔다. 공자동은 장기원(張箕遠)이 접주로 있던 곳이다.<sup>39)</sup> 장기원(張箕遠)의 출신지인 공자동(孔子洞)은 김산군 대항면(代項面) 소속 24개 마을 중 하나다.<sup>40)</sup>

이 일기로만 보면 지례현 상북면 복호동 동학농민군이 김산군 대항면 공자동 접주인 장기원과 만난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를 보면, 지례현감(知禮縣監) 이재하(李宰夏)가 동학농민군을 “비류(匪類)”라 하여 금지하고자 몇 사람을 결박하고 형틀에 채워 가두자 동학농민군들이 사방에서 모여 지례동헌을 쳐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sup>41)</sup> 즉 지례 복호동 동학농민군과 김산 공자동 동학

3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4일자.

39)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

40)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4쪽. 공자동(孔子洞)은 대항면(代項面) 대성동(大聖洞)이 되었다(越知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동경: 兵林館印刷所, 531쪽).

41)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

농민군이 연합하여 지례관아를 점거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책실(冊室) 담당 진사(進士)를 구타했고 지례현감 이재하도 구타하여 이마에 상처를 입혔으며, 내아까지 범하였다고 한다.<sup>42)</sup>

지례현감 이재하의 이마 부상 관련해서는 『세장년록(世藏年錄)』 8월 6일자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둘러싸고 때려 거의 머리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같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장년록(世藏年錄)』보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 뒤늦게 기재된 점으로 보아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적으면서 아녀자들이 머물렀던 “내아를 범했다”는 부풀려진 이야기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례현과 가까운 김산군에서는 편보언(片輔彦)이 도집강(都執綱)이라 칭하고 김천시장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있었다.<sup>43)</sup> 8월 6일 진행된 동학농민군의 지례관아 점거는 주민의 동학 입도에 큰 영향을 끼쳐 동학에 입도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마을 전체가 동학에 입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 주민들이었다. 마산동민들은 저녁 식사 후 일제히 동학 주문을 외우는데, 그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고 한다.<sup>44)</sup> “상하의 명분이 없어지고 기강이 사라지는”<sup>45)</sup>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를 실천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0일에서 22일 사이, 도집강(都執綱) 편보언(片輔彦)은 김천시장에 있던 도소를 지례로 옮겼다.<sup>46)</sup> 8월 6일 지례동헌이 동학농민군에게 점거되기 전에도 지례현감 이재하는 동학농민군을 잡아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였다. 지례동헌이 동학농민군에게 점거되고 본인도 부상을 입으면

---

4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43)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

4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2일자.

4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6일자.

4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서도 계속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였다. 그래서 도집강 편보언이 도소를 지레로 옮기고 지레관아를 다시 점령하고자 한 것이다.

8월 22일 저녁, 황간·김산·지레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지레관아를 점령하였다. 23일자 일기에 “전날 저녁”이라고 적은 점에서 보아 22일 저녁에 동학농민군이 지레관아를 점령한 것이다. 지레로 도소를 옮긴 후 황간·김산·지레 동학농민군과 함께 지레관아를 점령하였다. 지레관아(知禮縣衙)는 지레현 하현면 교동에 있었으며, 현재 지레면 행정복지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지레관아의 관예(官隸)들은 모두 도망가고, 좌수(座首) 및 이방, 호방, 수형리(首刑吏)가 관청을 지키고 있었고, 좌수와 호장은 모두 결박되어 곤욕을 당했다고 한다.<sup>47)</sup> 처음 읍내에 들어온 동학농민군은 200명이었으나 나중에는 사방에서 몰려들어 1,000명이나 되었다. 김산 동학농민군 도집강 편보언이 장기원 접과 김정문접의 동학농민군을 동원한 것으로 생각되고, 뒤에 선산수접 주 집접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선산·황간 등 동학농민군도 가세한 것이다.

지레관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다음날인 23일에 세 부대로 나뉘어 성주(星州), 김천(金泉), 직지사(直持寺)로 향했다. 8월 25일 성주관아 점령과 관련된 동학농민군들 중 일부가 지레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천과 직지사로 향했던 동학농민군은 김산 동학농민군들 중 일부가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천은 김산군 김천면이고, 직지사는 김산군 대항면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원접, 남정훈접 등의 근거지가 있는 대항면에 속해 있는 사찰이다. 따라서 김산 동학농민군 중 일부가 성주로 향하지 않고 자신들의 근거지로 되돌아간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지레관아를 점령할 때, 미리 도주했던 지레현의 관예

---

4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官隸)들도 동학에 입도하였다.<sup>48)</sup> 이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온 동학농민군들이 지례현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sup>49)</sup>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어느 쪽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곳곳의 동학농민군들이 들어와 있던 곳이 지례현이었다.

8월 22일 지례관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23일부터 일부는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가고 일부는 성주를 향하였다. 이들이 성주관아를 점령한 것은 25일이었다. 이날 저녁 관속과 읍내 사는 나무꾼과 머슴들이 동학농민군 18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다.<sup>50)</sup> 이 18명 중에서 성주읍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지례 방면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김산 방면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이 있었다.<sup>51)</sup> 지례현에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들이 들어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6일 지례관아 점거 후 마을 전체가 동학에 입도했던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에 이어 22일 지례관아 점령 후 상북면 복호동과 외룡동도 모두 동학에 입도하였다.<sup>52)</sup> 이들도 관예(官隸)들이 동학에 입도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들이 “작폐(作弊)”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53)</sup>

성주읍에서 동학농민군 23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지례에 전해진 것은 9월 1일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주와 선산 동학농민군은 김천 동학농민군과 연합하여 다시 성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작폐”를 행했다고 한다.<sup>54)</sup> 지례현 하현면 고념리에 있던 동학농민

---

4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4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50) 『동요일기(東擾日記)』 1894년 8월 25일자.

51) 『동요일기(東擾日記)』 1894년 8월 26일자.

5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5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5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3일자.

군도 지례현의 무기고를 다시 탈취하여 성주로 향했다.<sup>55)</sup> 동학농민군이 성주읍내를 둘러싸고 돌입하였고, 방화로 동헌(東軒), 객사(客舍), 향교(鄕校), 관황묘(關皇廟)만 남았다. 이 소식은 9월 8일 전해졌다.<sup>56)</sup> 성주읍을 공략했던 동학농민군은 이후 뿔뿔이 흩어져 각 접의 근거지로 돌아갔다.

### 3. 김산 동학농민군과 지례 동학농민군의 관련성

동학 입도는 연비연원관계에 기초하는 인적네트워크이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접이 다를 수 있고 타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들어왔을 경우 인적·물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지례현 관예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와 상북면 복호동·와룡동민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가 바로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이 지례현민을 “작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sup>57)</sup> 무주 동학농민군 30여 명이 “작폐”를 저지르고 방산점에 묵고 있는데, 근방에서 약탈을 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이와 관련이 있다.<sup>58)</sup>

또 다른 사례는 의견이 다른 경우이다. 황덕의 정접주가 성주의 장접주가 관할하는 부분을 간여하면서 대립한 일이다.<sup>59)</sup> 황덕(黃德)의 정접주(鄭主)는 지례의 수접자 정접주이고, 성주의 장접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성주에서 동학농민군 좌익장을 맡았던 장여진(張汝振)이 아닐까

5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4일자.

5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8일자.

5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 9월 2일자.

5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9일자. 23일에는 무주 동학농민군 30명을 지례에서 쫓아낸 일을 적고 있다.

5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8일자.

집작해 본다. 이 사건으로 근거지에 머물던 동학농민군이 지례읍내에 모이게 되었는데, 모두 8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중 200명은 성주로 가서 지례의 수접자인 정접주를 데려오고, 나머지 600명은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을 막아내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sup>60)</sup> 19일에 이들은 말을 타고 성주로 향했다.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의 “작폐”에 대해서는 경계하던 지례현민들은 공자동에 근거한 동학농민군 등 김산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대우를 하였다. 공자동 동학농민군에게는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하였다. 9월 14일 두 명의 공자동 동학농민군이 묵고 밥을 먹었으며, 21일 공자동 동학농민군들이 돼지를 잡아먹고 읍내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흠어졌다 모였다는 반복했다.

이를 통해서 도집강(都執綱) 편보언(片輔彦) 휘하의 죽정(竹汀)의 강주연(康柱然),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 강평(江坪)의 도사(都事) 강영(姜永=姜基善), 봉계(鳳溪)의 조순재(曹舜在), 공자동(孔子洞)의 선달(先達) 장기원(張箕遠), 신하(新下)의 배군헌(裴君憲), 장암(壯岩)의 권학서(權學書) 등은 지례 동학농민군과 밀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례의 수접자 정접주와 그의 연원인 선산의 수접자 김접주도 편보언과 밀접했을 가능성이 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III.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

#### 1. 2차 봉기 준비

상황이 바뀌었다. 6월부터 대구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 100여 인 중

---

6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8일자.

일부가 대구 병사 200명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잡으러 출발했다는 소식은 이미 9월 8일에 전달되었다. 27일에는 지례현과 가까운 성주에 일본군이 읍리(邑吏)들과 함께 약목(인동군 약목면)과 부상(개령군 남면 부상동)을 거쳐 김천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 무렵인 9월 18일 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렸다. 지례 동학농민군들도 26일부터 일제히 2차 봉기(무장봉기) 한다는 소식을 접하기 시작하였다. 지례와 가까운 충청도 영동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26일이었다.

선의포(善義包)에서는 다른 접이 말을 끌고 갈까 봐 미리 말을 가져가려고 했다.<sup>61)</sup> 상주 화령에서 기포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다가 하면, “작폐”에 당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모습과 빨리 “집곡”하여 물자를 보충하고자 하는 동학농민군의 모습이 각지에서 벌어졌다.

공자동 동학농민군 100여 명이 곡식을 가지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다가 하면, 선의포(善義包)도 유사(有司)를 파견해 부자집의 도조를 징집하러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선의포(善義包)의 일부 동학농민군은 사람을 볼모로 돈 15냥을 받아내기도 했다.<sup>62)</sup> 동학도가 아닌 사람들의 재물까지 빼앗는 폐해가 생기기 시작하자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자신은 물론, 죽인들을 피신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sup>63)</sup>

동학농민군의 물자 모집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춘천 동학농민군은 기포성차 봉기하고 부자들의 도조를 징집했고, 영동포(永同包)는 이용직 판서네의 돈을 빼앗고 소를 잡아먹었다고 한다.<sup>64)</sup>

## 2. 선산 읍성 공략

10월 1일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일본군이 선산읍에 들어와

6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6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7일자.

6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9일자.

6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일자.

“왜변(倭變)”을 일으킨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65)</sup> 선산(善山) 수접주(首接主) 김접주(金接主)가 선산에 있었고, 김산(金山) 궁장포(弓莊包) 동학농민군과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이 선산부에 있었다. 일본인 몇 명이 사방을 둘러싸고 총을 쏘아 대접주와 수접주(首接主)가 모두 사망하고 동학농민군도 많이 죽었다.<sup>66)</sup> 선산의 대접주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수접주였던 김접주가 이때 사망한 것으로 짐작된다.

2차 봉기 이후 김산에서 가장 먼저 기포한 인물은 김정문이었다. 2차 봉기의 일환으로 김정문은 선산읍성 점령에 선두로 나섰다. 9월 25일 즈음 큰 어려움 없이 읍성을 점거하였지만 선산 향리의 연락을 받은 해평 일본군이 선산으로 들어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총에 맞아 죽은 자가 몇 백 명이고, 성을 넘다가 떨어져 죽은 자가 태반이었는데, 김정문 집 중 죽은 자는 15명이라고 한다.<sup>67)</sup> 『나암수록(羅巖隨錄)』 9월 28일자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인 10~30명 내외가 와서 동학농민군을 총을 쏘아 죽이고 해산시켰다.”는 내용이다.<sup>68)</sup>

2차 봉기의 일환으로 선산 수접자 김접주와 김산 궁장포, 김정문 집이 선산읍성을 공략했다. 지례 동학농민군과 김산 동학농민군, 특히 도집강 편보언과의 관련성, 그리고 편보언의 휘하였던 김정문 집의 참가, 선산 수접자 김접주가 선산 읍성 공략 전부터 지례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지례 동학농민군 역시 여기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 3. 대구 남영병과 외국군대의 동학농민군 체포

일본군이 경상도관찰사의 요청으로 동학농민군을 체포한다는 소식이

6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일자.

6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일자.

67)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9월 25일자. “金定文先頭起布...”

68) 『나암수록(羅巖隨錄)』, 「甲午九月」.

지례현에도 전해졌다.<sup>69)</sup> 이에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동학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수 같은 왜놈에게 체포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한탄스럽다”고 쓰고 있다. 일기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인이 김천에 들어와 동학농민군들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김산군 공자동, 벌덕리를 거쳐 지례현 와룡, 복호동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지례현에서 주민들이 모두 동학에 입도했던 상북면 복호리와 와룡리는 모두 산에 오르거나 달아나 숨을 수밖에 없었다.<sup>70)</sup>

지례 동학농민군과 밀접했던 접 중 하나였던 공자동의 접주 장기원(張箕遠)도 뒷산으로 도망했다.<sup>71)</sup>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장기원을 “선달 장좌문(張佐文)”이라고 썼는데, 아마 장기원의 자호(字號)가 아닐까 싶다.<sup>72)</sup> 대구 남영병이 공자동에 들어가자 모든 마을 사람이 도피하고 장기원의 가족도 피신하였다. 이에 병사들이 집에 불을 질러 이웃집 7채에 불이 붙었다.<sup>73)</sup> 강영(姜永=姜基善)도 하루 전에 총살되었다.<sup>74)</sup>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강영(姜永)을 기동(耆洞)의 도사(都事) 강영원(姜永遠)이라고 적고 있다.<sup>75)</sup>

10월 8일 청군 200여 명이 공자동과 벌덕리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살고 있는 마을 앞을 지나간 일이 적혀 있다.<sup>76)</sup> 10월 9일, 대구영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성주로 가면서 20명의

6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4일자.

7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6일자.

7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6일자.

7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3)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10월 7일자. “七日兵丁入孔子洞一村逃避張接主箕遠學室逃躲因火其家連燒其隣七家此非魚殃耶” ;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4)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10월 6일자.

7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병사를 남겨두었다. 남은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체포하기 위함이었다.<sup>77)</sup> 이후에도 외국군대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11일 일본인 수십여 명이 김천시장에 들어와 감천을 건너 개령군으로 간 이야기도 적혀 있다.<sup>78)</sup>

이후 지례현에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돌았다. 보은에서 넘어온 통문에는 10월 15일에 장안에 모여 상주와 선산을 설욕한다는 내용이었고, 임평·임계의 통문에는 13일 저녁 마산리 뒤에서 모여서 장안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으로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밝혀져 임평·임계의 접주를 체포했다.<sup>79)</sup> 그러나 통문에 적힌 대로 남아있던 동학농민군들이 마산리 뒤에서 봉기했고, 여기에 호응한 다른 마을의 동학농민군이 움직였다.<sup>80)</sup>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도는 이야기, 동학농민군 체포 소식과 함께 지례읍 군교들이 출동해서 북적였다는 기록도 함께 적혀 있다. 동학농민군이 관군, 외국군대에 맞서 계속 싸우거나 대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동학농민군의 통문은 다른 지역에도 돌았던 모양이다. 보은·장안의 동학농민군이 기포하여 청산·영동 일대에 가득하다는 소식을 통문을 통해 접한 이들이 있었다. 마산리에 거주하고 있던 나보은(羅報恩)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그쪽으로 향했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나보은의 변심을 “가증스럽다”고 하면서, 그의 체포 소식도 적고 있다.<sup>81)</sup> 이 사례에서는 동학농민군 사이에서 통문이 돌면서 각지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던 점과 동학농민군의 동원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1일 지례현 상북면 임평리 최형오(崔亨五)의 가산을 몰수했다.

---

7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9일자.

7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1일자.

7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3일자.

8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4일자.

8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5일자, 11월 4일자.

최형오의 아들이 접주였기 때문이었다.<sup>82)</sup> 이외에도 사통(私通)을 돌려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기도 하였고, 인동(현 구미) 사림의 “동학을 금하고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자”는 통문(通文)이 돌기도 하였다.<sup>83)</sup>

이후에도 동학농민군이 금산에 모였다는 등, 무주에 모였다는 등 소식이 지례로 전해졌다.<sup>84)</sup> 무주에서 붙잡힌 동학농민군 2명이 지례로 보내졌는데, 도통수가 포수꾼을 차출해 그들을 총살한 일도 있었다.<sup>85)</sup> 27일 공자동 동학농민군 7명을 체포한 소식과 2명 총살, 5명 곤장형도 적혀 있다.<sup>86)</sup> 이 일은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낙점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11일 이후의 일이었다.<sup>87)</sup>

일본군 소식도 계속 적혀 있다. 일본인 200여 명이 김산에서 지례로 들어왔다가 전라도로 간 이야기,<sup>88)</sup> 일본인 27명이 의복과 탄약을 훔쳐진 200명이나 되는 집꾼들을 데리고 전라도로 가는 이야기,<sup>89)</sup> 일본인 몇 명이 김산에 있다가 갑자기 지례를 거쳐 전라도로 가는 이야기,<sup>90)</sup> 일본인 9명이 집꾼 몇 명을 데리고 지례에서 묵은 뒤 무주로 향한 이야기<sup>91)</sup> 등이다.

---

8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1일자.

8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1일·24일자.

8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일·9일·14일자.

8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16일자.

8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7·28·29일자.

8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11일자.

8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4일자.

8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30일자.

9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2월 1일자.

9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2월 6일자.

## 맺음말

본문에서는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찾고,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의 내용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이다. 『광주이씨칠곡파세보』에서 이은필·이성언 부자를 찾아냈고 이은필의 매제였던 함안조씨 조용호(趙鏞昊)와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를 확인했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가 살았던 지례현 상북면 복호동(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을 찾아갔다. 그 일대에 함안조씨는 거주하지 않고 의성김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자를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로 특정할 수 있었다.

둘째, 지례 수접자 정접주는 선산 수접자 김접주의 휘하였다. 또 김접주 또한 김산 동학농민군 편보언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지례 동학농민군이 김산 동학농민군과 밀접한 것은 이전부터 추정되어 왔었는데, 『갑오일기(甲午日記)』를 통해 보완되었다. 무엇보다 선산 수접자 김접주의 휘가 지례 수접자 정접주였다는 사실은 김산뿐 아니라 선산과도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례 수접자 정접주, 선산 수접자 김접주는 물론 강제술(姜弟述), 김재덕(金在德), 김성봉(金成奉), 이홍이(李洪伊), 신채봉(申彩鳳), 장흥성(張興成), 선의포(善義包) 접주 김만호(金萬戶), 나보은(羅報恩)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 새롭게 밝혀진 접은 선의포와 김산의 궁장포(弓莊包)이다. 김천의 접주인 김성심(金性心)이라는 인물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넷째, 지례 동학농민군은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8월에 관아를 점령했다. 처음에는 지례현감 이재하가 동학농민군을 잡아 징벌한 일로

시위의 성격이었다가 나중에는 점령하여 무기 등을 탈취하였다.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장기원포와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지례의 특성상 여러 지역 동학농민군이 모였던 곳이라서,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지례현민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다섯째, 2차 봉기 당시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를 위해 준비했던 상황에 대해 경상도에서는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는 이 시기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 기포 준비과정에서 지례현민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를 일부 들여다 볼 수 있었다. 2차 봉기 이후 지례 동학농민군이 참여한 것은 김정문접이 선두에 나섰던 선산읍성 공략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인 김성모에 관련된 추가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갑오일기(甲午日記)』와 기존 자료들에서 이름만 남아 있는 동학농민군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쉽지만 이 또한 후속 과제로 남긴다.

투고일 : 2025. 10. 9. 심사완료일 : 2025. 10. 29. 게재확정일 : 2025. 11. 3.
---

## 참고문헌

### 〈1차 사료〉

- 『갑오일기(甲午日記)』, 『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호, 2023.  
『세장년록(世藏年錄)』,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  
『나암수록(羅巖隨錄)』,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  
『동요일기(東擾日記)』,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2008.  
知禮郡, 『知禮郡邑誌』, 光武3년(1899).  
『別啓』,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0, 2018.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 『갑오병신일기(甲午丙申日記)』(『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2.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 2015.  
『(상주)소모사실(召募事實)』,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9, 2011.  
『지산유고(止山遺稿)』,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22.

### 〈단행본〉

-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越知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동경: 兵林館印刷所.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  
廣州李氏漆谷派世譜編纂委員會, 1986,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동학학회, 2017,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007)』, 모시는 사람들.

### 〈연구논문〉

- 조규태, 2016,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학보』 제41권, 동학학회, 7~39쪽.  
신영우, 1991, 「1894년 영남 김산(金山)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제73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63~218쪽.  
신영우, 1990, 「사례연구를 통해 본 영남지역의 동학농민전쟁-김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간과경험』 제2권,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39~153쪽.  
신영우, 2006,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제10권 제2호, 동학학회, 7~47쪽.

## 〈DB〉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https://www.e-donghak.or.kr/archive/>)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인제대학교 족보도서관(<https://genealogy.inje.ac.kr/>)

경주시립도서관 족보자료관(<http://jokbo.gyeongju.go.kr/>)

## 〈신문〉

『김천신문』

## 〈Abstract〉

#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Jirye Seen through the 『Diary of 1894(甲午日記)』

Shin, Jin-Hui\*

This study sought the author of 『Diary of 1894(甲午日記)』 and examined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Jirye, Gyeongsang-do Province. If we organize only the newly revealed parts, we can organize them into the following several things.

First, the author of 『Diary of 1894(甲午日記)』 is Kim Seong-mo of the Uiseong Kim family.

Second, the Jirye-jubju Jeong-jubju was led by the Seonsan-jubju, Kim-jubju.

Third, new information about the Donghak Peasant Army active in Jirye has been discovered. This includes figures such as Jirye-jubju Jeong-jubju, the Seonsan-jubju Kim-jubju along with Kang Je-sul, Kim Jae-deok, Kim Seong-bong, Lee Hong-i, Shin Chae-bong, Jang Heung-seong, the Seonuipo-jubju Kim Man-ho, Na Bo-eun, among others.

Fifth, we can gain insight into the preparations the Donghak Peasant Army made for an armed uprising during the Second Uprising.

**Key word :** 『Diary of 1894(甲午日記)』, Jirye, Kim Seong-mo, Jeong-jubju, Kim-jubju, Kang Je-sul, Kim Jae-deok, Kim Seong-bong, Lee Hong-i, Shin Chae-bong, Jang Heung-seong, Kim Man-ho, Na Bo-eun

---

\*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내용 검토와 사료적 가치 분석

최진욱\*

### 〈목 차〉

머리말

I.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II.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에 학계에 알려진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사료적 가치를 분석한 것이다.

『이풍암공신행록』은 이병춘(李炳春)이라는 인물이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기 자신의 체험, 신앙, 역사적 실천 등을 내면적 서사와 더불어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이병춘의 개인적 성장 과정과 동학에의 입도(入道), 동학농민혁명에의 참여, 갑오 이후 도피 생활 중 해월 최시형과의 만남, 최시형이 처형된 후 의암 손병희와의 만남, 갑진개화운동 과정에서의 역할, 천도교로 전환할 당시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춘은 동학의 최상층 지도자는 아니지만 교단의 내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비중을 가진 인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참혹한 도피 생활을 거쳐 갑진개화운동, 천도교로의 전환, 3·1운동의 계획과 참여, 임시정부 지원에 이르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 인물은 많지 않다. 이병춘의 생애가 우리 근대사의 격랑을 따라 함께 움직였던 만큼 그가 남긴 『이풍암공신행록』은 근대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이풍암공신행록』의 내용을 6개 단락으로 나누어 소재목을 붙여 요약하였고, 제2장에서는 사료적 가치에 대해 (1) 다른 사료에 없는 내용, (2) 여타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3) 인물사적 서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제어 :** 이병춘, 『이풍암공신행록』, 동학농민혁명, 해월 최시형, 의암 손병희, 갑진개화운동, 천도교, 한국근대사

## 머리말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은 이병춘(李炳春)이라는 인물이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기 자신의 체험, 신앙, 역사적 실천 등을 내면적 서사와 더불어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이병춘의 개인적 성장과정, 동학 입도(入道)의 경위와 종교적 수행, 동학농민혁명에서 겪은 수난, 갑오 이후 도피 생활 중 해월 최시형과의 만남, 최시형이 처형된 후 의암 손병희와의 만남, 갑진개화운동 과정에서 실행한 역할, 동학이 천도교로 전환되던 당시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병춘은 1864년에 전라북도 임실군 상동면(上東面) 왕방리(旺方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字)는 명운(明運)이고 본(本)은 전주(全州)이며, 이경화(李敬華)의 손자이고 이우홍(李宇洪)의 넷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천안전씨(天安全氏)이다.<sup>1)</sup>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살다가 1933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생애 후반기에는 서울 소격동에서 오랫동안

동안 거주하였다.<sup>2)</sup> 1888년 그의 나이 25세 때 동학에 입도하여 강화(降話)를 체험하였고<sup>3)</sup>, 1891년 8월 최시형이 태인에 내려왔을 때 처음 배알(拜謁)하고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천인상합(天人相合)의 시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sup>4)</sup>. 이후 최시형, 손병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단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병춘은 동학의 최상층 지도자는 아니지만 교단의 내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비중을 가진 인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참혹한 도피 생활을 거쳐 갑진개화운동, 천도교로의 전환, 3·1운동의 계획과 참여, 임시정부 지원에 이르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 간 인물은 많지 않다.<sup>5)</sup> 이병춘의 생애가 우리 근대사의 격랑을 따라 함께 움직였던 만큼 그가 남긴 『이풍암공신행록』은 근대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풍암공신행록』은 이병춘이 50세 무렵에 구술한 내용을 김재홍(金在弘)이라는 그의 문하생이 찬술(撰述)한 것이다. 표지에 ‘포덕(布德) 52년(1911) 정월’이라 쓰고 기록이 끝나는 지점에 ‘포덕 56년 을묘년(乙

1) 『李豐菴公實行錄』, “李炳春의字는明運이요本는全州人이니諱敬華之孫이요諱宇洪之第四子也라씨는天安全氏니天性이端莊貞一호고慈仁恭儉호야有懿德이라寓居于任實郡上東面旺方里합시夢에五鳳山이聳出호야自落于囊中而華蟲이飛抱於懷中이런니遂感而生焉호니布德五年甲子二月二日申時也라”.

2)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46쪽.

3) 『李豐菴公實行錄』, “戊子年二月十日은卽先考之忌辰也라……是日에直往任實玉田面鳥項里호야問其道之裡許호디初則諱之어늘以實情으로講之호디以弓乙歌知止歌二篇으로示之어늘潛心玩味호니乃無極之道也라更請立志信教之道호디不得已호야許之어늘錢文六十六兩三錢를出호야使人으로送于葛覃市호야買祭需而歸호니卽二月十二日也라는夜에沐浴齋戒호고致誠入教于年이二十一歲也라內有降話之道호고外有接靈之氣也라”.

4) 『李豐菴公實行錄』, “辛卯八月十日에海月先生主계서以巡接次로行次于泰仁郡洞谷이어시늘拜謁호고問道之真理호디敎以守心正氣와天人相合之際어시늘銘珮而歸호다”.

5) 이병춘이 3·1운동에 참가하는 구체적인 양상이나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을 참고.

卯年, 1915)’이라고 적은 것을 볼 때, 1911년에 작업을 시작하여 1915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여진다<sup>6)</sup>. 이 자료는 이병춘의 손자이며 현재 천도교 전주교구장을 맡고 있는 이길호 씨가 2024년에 동학농민혁명재단에 제공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sup>7)</sup> 2025년 현재 번역과 교감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번역본 도서가 출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병춘 관련 연구는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을경이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주로 3·1운동의 활동 내역에 집중하고 독립운동 관련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이병춘의 전 생애를 시야에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특히 3·1운동 이전 시기 활동에 대해 추정적으로 서술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sup>8)</sup> 이병춘이라는 인물을 부차적으로 다룬 여타의 논문에서도 자료 부족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고충이 엿보인다.<sup>9)</sup> 이제 『이품암공실행록』이 세상에 나오므로써, 이병춘 개인사의 정밀한 복원과 함께 한국 근대사를 보다 심도있게 조망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자료의 구성과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이 자료가 갖는 사료적 가치를 간단히 짚어보려 한다.

6) 『李滄菴公實行錄』, “布德五十六年乙卯十月日에門下侍生金在弘謹拜撰”. 이 자료를 찬술한 ‘김재홍’이 어떤 인물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문하시생(門下侍生)’이 천도교에서도 쓰이는 용어인지, 찬술을 완성하는 데에 4년이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7) 그 영인본이 이병규의 해제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연구』 3에 실려 있다.

8)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참조.

9) 성주현, 2014,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 조규태, 2014, 「동학농민운동 이후 납원 출신 동학인과 천도교인의 활동」, 『동학학보』 33.

## I.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이 장에서는 『이풍암공신행록』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서지 사항을 보면 총 120면, 1책의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된 필사본이다. 각 면마다 10행의 계선(界線)이 그어져 있고 각 행마다 22~24자가 씌여져 있으며 주(註)는 쌍행(雙行)이다. 표제(標題)는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인데, 앞줄에 ‘포덕52년 신해 정월일(布德五十二年辛亥正月日)’이라고 적혀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표제와 동일하며, 권수제 앞쪽에 이병춘이 교단으로부터 받았던 각종 직첩(職帖)의 명칭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28,000여 자이며 한자만 놓고 볼 때 19,000여 자에 달한다. 본문 뒤에 부록으로 약 1,250여 자 분량의 ‘신정사례(新定四禮)’라는 의례 규정을 덧붙였다.

『이풍암공신행록』의 본문은 단락 구분 없이 날짜가 바뀔 때마다 줄을 바뀌가며 서술하였으며, 연도가 바뀔 경우 상단 난외에 간지를 표기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소제목을 붙이고,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 1. 동학농민혁명 이전의 생애

어머니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들려주던 말에 따르면, 이병춘의 집안은 공주 유성시 동악동(東岳洞)에서 그의 조부 때까지 대대로 살았다.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던 조부가 문질(門疾)로 별세한 후 하루 만에 연이어 아들 두 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병춘의 조모는 나머지 자식들을 데리고 홍산군(鴻山郡), 순창군(淳昌郡) 등을 전전하였다. 조모가 세상을 떠난 후 이병춘의 부모는 임실군(任實郡) 상동면(上東面) 효자촌(孝子村) 앞의 새터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이병춘 형제를 낳았다. 그후 장수군(長水郡) 서면(西面) 동고지(東古地)로 가서 살던 중 부친과 백부, 숙부가

연이어 별세하였고 형들마저 요절하였다.<sup>10)</sup> 그리하여 이병춘은 겨우 다섯 살 때부터 곤궁하고 고통스러운 여건을 헤쳐 나가야 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 처했던 유년 시절부터 20대 중반 입도(入道)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이병춘은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이 시기 그가 실천한 효행을 보면 마치 역사 속에 전설을 남겼던 모든 효자들이 이병춘이라는 한 사람으로 환생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모친이 중병에 걸렸는데 의원으로부터 “장어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어린 이병춘이 한겨울의 얼음 위를 헤매다가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며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얼음 구멍에서 뛰어났다. 그 물고기를 가져다 모친의 병을 치료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행을 왕상(王祥)의 고사에 견주며 칭찬하였다.<sup>11)</sup> 열네 살 때는 중형(仲兄)의 요절에 충격을 받은 모친이 위독해지자, 마을 뒤쪽의 영험한 샘물가에 청수를 떠 놓고 백번 절하며 모친의 회복을 빌었다. 수십일 만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약 없이도 나을 것”이라 일렀는데<sup>12)</sup>, 죽을 고비를 넘기며 구해온 들깨로 미음을 만들어 드리자 모친이 소생하였다. 손가락의 피를 내어 위독한 모친의 입에 흘려 넣음으로써 위급함을 벗어나게 한 일도 있었다<sup>13)</sup>. 이 외에도 맹종(孟宗)

10) 『李豐菴公實行錄』, “其後一日에母親이召而語之曰汝之祖父가世居于公州楡城市內○院洞後東岳洞[或云栢亭子村]而有子五人이라가不幸以門疾로祖父主下世後에一日之內에連喪二子故로祖母慶州金氏가不日發行 ㄱ야盡棄家産 ㄱ고率三子而居于鴻山郡楸山里런니其後에又移于淳昌郡阿東面等地[失其村名]라가祖母金氏棄世後에又移于任實郡上東面孝子村前新基 ㄱ니此地는古人이云可活萬人之地也라故로遂定居焉 ㄱ야生汝之兄弟矣런니又其後移于長水郡西面東古地倉村이라가家門이不幸 ㄱ야汝之父親이棄世後에伯父與季父繼而終歲 ㄱ고又移本郡天川面博室里 ㄱ야定新基成造而奠居이라가汝之仲兄이早夭而又逢大荒之年 ㄱ야生涯는自然蕩盡 ㄱ니不可不還于東高地舊居之處 ㄱ니此所謂浮萍身世也라 ㄱ시고恨嘆不已 ㄱ시더라”.

11) 『李豐菴公實行錄』, “呼天大哭 ㄱ니有一長魚가自氷孔出來어늘……炙而進之 ㄱ니自後로病勢가漸漸有效而村中長老之人이皆曰汝之孝心은眞王祥之儔也라”.

12) 『李豐菴公實行錄』, “與弟로同往泉傍 ㄱ야奉水祝天할시非夢間에有一偉鶴髮老人이來謂曰汝之親患이 勿藥自效矣리니勿憂焉 ㄱ라”.

의 죽순, 육적(陸績)의 회귤(懷橘) 등에 비견되는 일화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 지극한 효성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에 동임(洞任)들이 동네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이병춘의 효행을 본받도록 교시하는 한편 진수성찬으로 포상하였다<sup>14)</sup>.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져 나가자 군수가 그를 불러 정성껏 모친을 봉양하는 그 효행을 표창하였다. 군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으로 크게 될 그릇”이라 하며 진수성찬과 부채를 상으로 내리고 고을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삼게 하였다<sup>15)</sup>.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성장 기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보여준다.

동학 입도 전의 생애를 기록한 이 부분은 위와 같은 효행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루할 정도로 매우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이병춘이 그만큼 효(孝)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동학교단에서 오랫동안 중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의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유교와 동학의 이념이 단절이나 비약 없이 연속상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sup>16)</sup>

13) 『李澧菴公實行錄』, “布德二十八年丁亥正月一日夜에母親宿患이更發 〇〇百般救藥治之호되一無效差런니至初六日夜호야遽至隕命故로驚惶中에以刀로裂左手無名指호야注血于母親口中호되無效어늘又以椎로擊破右手無名指호야注血于口中호니數食頃에回甦호스完全如前日晏然之時런니”.

14) 『李澧菴公實行錄』, “面內長老가齊會호고請之어늘遂往拜跪호되父老가進果實與珍羞호야大卓而授之曰此雖薄略이느彰汝孝誠也니受而食之호라”.

15) 『李澧菴公實行錄』, “七月七日에本郡守[失其姓名]가行次于本里陸座首家호야使人請來어늘即往拜見호되本倅曰汝은事親至誠이라호니吾聞而欽羨호야欲彰汝之孝호야以教百姓이라호고以手로撫首而贊之不已런니又以珍羞茶果로賞之호고又出袖中扇子一柄호야賜之어늘”.

16) 유교와 동학의 이념을 단절과 비약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19세기 민중들은 치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전유하여 지배층을 공격함으로써 지배 질서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배항섭, 2017,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 배항섭, 2018, 「동학에서 보이는 '전통'과 새로운 사유」, 『민족

이병춘이 동학에 입도한 시기는 1888년, 그의 나이 25세 때이다. 이 무렵 인척으로부터 동학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병춘은 임실군 옥전면(玉田面) 조항리(鳥項里)로 가서 입교하였다<sup>17)</sup>. 이후 길지(吉地)나 명당(明堂)을 찾아다니던 습성을 버리고 수련과 포덕(布德)에 힘쓰며 병을 고쳐 수천 명을 포교하였다<sup>18)</sup>. 또한 자기의 논보다 남의 논에 먼저 물을 대주거나 길가는 나그네들에게 손수 제작한 신발을 제공하는 등 음덕을 쌓기도 하고<sup>19)</sup>, 3년간 불화식(不火食)·불와침(不臥枕)·불언어(不言語)의 실천을 통해 구도(求道)하였다<sup>20)</sup>.

1891년 태인에 내려온 해월 최시형(海月崔時亨)을 처음으로 배알하였는데, 이때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천인상합(天人相合)의 가르침을 받았다<sup>21)</sup>. 1892년에는 집안에 재소(齋所)를 설치하고 49일·100일 기도를 이어가며 마음을 다잡았고, 팔공산·오봉산·선각산·성수산 등지에서 장기간 기도하며 광제창생(廣濟蒼生)과 포덕천하(布德天下)를 다짐했다. 그해 12월에 대정(大正)으로 임명되었다<sup>22)</sup>.

문화논총』 70. 참조

- 17) 『李滢菴公實行錄』, “戊子年二月十日은……是日에直往任實玉田面鳥項里 ㄱ야問其道之裡許 ㄱ디初則諱之어늘以實情으로請之 ㄱ디以弓乙歌知止歌二篇으로示之어늘潛心玩味 ㄱ디니乃無極之道也라更請立志信教之道 ㄱ디不得已 ㄱ야許之어늘錢文六十六兩三錢[十三圓二十六錢也]를出 ㄱ야使人으로送于葛覃市 ㄱ야買祭需而歸 ㄱ디니即二月十二日也라는夜에沐浴齋戒 ㄱ고致誠入教于年이二十一歲也라內有降話之道 ㄱ고外有接靈之氣也라”.
- 18) 『李滢菴公實行錄』, “歸家後에不意於尋吉地與明堂之事 ㄱ고專以修煉性으로爲實工이라且以布德主意로遍行列邑할식以仙符로治病則百無不中 ㄱ디니三四朔內에布教가至於二十餘邑 ㄱ고人口가至數千餘人이라”.
- 19) 『李滢菴公實行錄』, “晝則折草 ㄱ야 暗施于窮不能勤農者之畝 ㄱ며 旱則灌漑于他人之畝而不灌於自己之畝 ㄱ며 夜則細履 ㄱ야 給其行路跣足者 ㄱ디니”.
- 20) 『李滢菴公實行錄』, “入于後園別堂 ㄱ야晝夜祝天告師할식三年를不火食 ㄱ며三年을不臥枕 ㄱ며三年을不言語 ㄱ고煉修求道라가”.
- 21) 『李滢菴公實行錄』, “辛卯八月十日에海月先生主계서以巡接次로行次于泰仁郡洞谷이어시늘拜謁 ㄱ고問道之眞理 ㄱ디敎以守心正氣와天人相合之際어시늘銘珮而歸 ㄱ다”
- 22) 『李滢菴公實行錄』, “又其後에祈禱于近處名山淨潔之處 ㄱ디시長水郡八公山上峯에三七日을過 ㄱ고其後에本郡五峯山上峯할식清水器에氷二枚가聳出六七寸 ㄱ디니全忠實이來見

1893년 2월 10일 대신사(大神師)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전국의 동학 교도들이 일제히 상경하여 상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보은집회와 원평집회가 열리자 국왕은 백성 보호를 약속하며 해산을 명했다. 귀갓길에 최시형은 이병춘을 불러 말하기를 ‘다음해, 즉 1894년에 커다란 분란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23)</sup>. 이후 이병춘은 석문동과 집안 별당에서 49일·칠칠일 치성을 올리며 도통(道通)을 결심했다. 기도 끝에 비몽사몽간에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였는데, 어떤 노인에게서 “선악의 보응과 청렴”의 교훈을, 대신사에게서 봉황새와 ‘인(仁)’자를 받으며 평생의 부신으로 삼았다<sup>24)</sup>. 이 체험은 그의 포덕과 이후 행적의 정신적 근거가 되었다.

## 2. 혁명에의 참여와 도피

이 시기의 기록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발생했던 학살·토벌 현장, 그리고 기적적 생환 후 교단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1894년 고부에서 전봉준 등이 봉기했을 때, 이병춘은 삼남 도인들의 명부를 정리하라는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입의록(立義錄)’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도소에, 1부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sup>25)</sup>. 이때 ‘접사(接

---

之稱贊不已 〇 더라又其後에登鎭安郡先覺山土窟할시羅栢春李永夏로同行 〇 야三七日 祚禱을行 〇 고任實郡聖壽山에與金良三으로七七日を致誠 〇 야以廣濟蒼生布德天下之意로刻於枕頭 〇 고始終이如一이런니其年十二月에又承大正之任帖 〇 니即先生主親命之教也러라”.

23) 『李滢菴公實行錄』, “歸家之時에海月先生主께서親下辟咷之詔曰明年에必有紛亂之兆矣 리니汝須深刻 〇 야慎之可也이라”.

24) 『李滢菴公實行錄』, “翌日夜에大神師께서抱二鳳而來 〇 야授之曰放于場中 〇 라 〇 시거늘如其詔放之 〇 디須與間에數萬鳳雛가盈于場中이라大神師親執余手而書仁字曰解此字之義 〇 야以爲平生之符 〇 라”.

25) 『李滢菴公實行錄』, “三南道人之名簿을修整 〇 야名曰立義錄이라 〇 니從其昨년에海月先生主分付內에徐包法包之說故로更修之二卷 〇 야一卷은上于法所 〇 고一卷은踏法師主

司)’ 임명장을 받았다.

4월 초 최성명, 강일희와 함께 보은 최시형의 집으로 가던 중 진산에서 토벌군에게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2번의 피살 위기를 겪었다. 당시 금산군의 보부상들이 동학도 4명을 살해하자 이에 분노한 동학도들이 보부상들의 집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금산, 용담의 군졸 수만 명이 농민군과 접전을 벌이기 위해 진산을 쪽으로 행군하던 중 이병춘 일행을 길에서 마주쳤던 것이다<sup>26)</sup>.

토벌군에게 함께 붙잡힌 일행은 모두 처형되었으나, 이병춘은 두 번에 걸친 사형 집행 과정에서 갑자기 화승이 꺼져버리거나 몽둥이가 부러지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등 기이한 사건이 연속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기이한 현상에 두려움을 느낀 토벌군들은 이병춘의 부상 정도로 보아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숲속에 버려 두었다. 길을 수도 없었던 이병춘은 어린애처럼 기어서 고향 쪽으로 향했고, 길가의 노인들과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생존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임실 본가로 귀환했으나, 보부상들에게 구타를 당해 누워 있던 동생 이병룡이 형제 상봉 직후에 사망하였다. 동생의 죽음에 이병춘은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으나, 결국 심신을 가다듬고 창도(昌道)의 앞날을 보리라 다짐하였다.

7월에 ‘접주’, 10월에 ‘차접주(次接主)’ 임명장을 받았다. 10월 13일에 최시형이 순접(巡接)차 남행했을 때, 선생을 열흘 동안 남원에서 모시다가 처소를 임실로 옮겼다<sup>27)</sup>. 이때 손병희가 내려와서 최시형과 만

---

圖章호야還置於吾家之意也라”.

26) 『李澧菴公實行錄』, “店主人이……答曰數日前에錦山郡負商이殺無罪道人四名故로昨日에本邑道人數千名이會集호야燒負商人之家호고來于珍山邑호야留焉호니錦山龍潭兩邑軍卒數萬人이接戰次로設軍器호고逐來호니”.

27) 『李澧菴公實行錄』, “十月十三日에海月先生主계서巡接次로南下호심을聞호고至南原郡內眞田坊五山里權陽壽家호야侍海月先生而留一夜호고翌日에侍先生호고至草場里權氏齋室호야留連十日홀시……二十三日에奉先生主分付호야定私處于任實郡玉田面鳥項

났고, 11월 28일에 이들은 수만 명을 거느리고 무주(茂朱) 등지로 향하였다<sup>28)</sup>.

최시형이 떠난 후 다음해(1895) 1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이병춘은 산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혹독한 도피 생활을 이어나갔다. 민포(民包)가 이병춘의 집에 들이닥쳐서, “이병춘을 잡으면 최시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의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봉산(五鳳山)으로, 하동면 구곡리 뒷산으로, 효자촌 안산 등으로 옮겨다니며 솔잎과 나무 껍질 등으로 연명하였다. 민포는 1,000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병춘이 숨어있는 산을 에워싸고 불을 지르며 수색망을 좁혀오기를 반복했으나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

석달 만에 귀가하였으나, “지목(指目)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전충실(全忠實)의 충고를 받아들여 3월 9일에 다시 도피하였다. 이때 김윤식의 안내로 진안군 학천봉(學天峯)으로 들어가 단을 설치하고 청수를 떠놓고 치성을 올리는 일과를 삼칠일 동안 지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호(大虎)가 나타나 이병춘을 밤새도록 지켜 준다는지<sup>29)</sup>, 백발의 노인들이 나타나 앞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들 명부(名簿)를 작성해주는 등의 신비로운 체험을 겪기도 하였다<sup>30)</sup>.

### 3. 해월 최시형을 찾아서

최시형의 소식을 몰라 애태우던 이병춘은 학천봉 치성 후 맹세하기

---

里梁明善家<sup>호</sup>고”.

28) 『李澧菴公實行錄』, “即日의梁明善家에서義菴先生이倍海月先生<sup>호</sup>시고行駕至九阜<sup>호</sup>率京城道人數萬<sup>호</sup>고即向茂朱等地<sup>호</sup>야去<sup>호</sup>시다”.

29) 『李澧菴公實行錄』, “第七日夜에又奉清水<sup>호</sup>고坐如泥塑人이런니松肪이漸微어늘更欲挑火라가顧視<sup>호</sup>니有一大虎<sup>호</sup>야蹲坐於左側이라”.

30) 『李澧菴公實行錄』, “第二七日夜에跪坐於清水壇下런니忽然白首二老人이來<sup>호</sup>야……以細字로滿幅書之<sup>호</sup>야呼而授之曰此는 名簿也니汝當急急教訓<sup>호</sup>라”.

를, “해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길을 떠났다(1895년 5월 3일). 그러나 지목(指目)이 매우 심한 탓에 최시형이 처소를 자주 옮겼으므로, 그를 찾는 것은 극히 지난한 작업이었다. 수소문하며 강원도 인제군(麟蹄郡)까지 갔다가 다시 충주, 보은을 거쳐 상주에 이르렀다.

상주 청계사(淸溪寺)라는 절에서 유숙하던 중 꿈 속에 나타난 최시형이 “가까운 곳에 있을 터이니 며칠 후에 만나자”라고 말하였다<sup>31)</sup>. 드디어 8월 8일에 이팔홍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최시형을 만났는데<sup>32)</sup>, “어젯밤 꿈에 너를 보았기에 지금 한참 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네가 왔구나”라고 하며 기뻐하였다<sup>33)</sup>.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다”는 말씀을 비롯하여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또한 “머잖아 수만 호(戶)에 포덕(布德)할 것이니 자주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따라, 이후 매월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이에 대해 찬술자는, “갑오년의 난리를 거친 뒤 호남의 도인(道人)들이 길을 잃고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할 즈음에 오직 이병춘만이 성력(誠力)으로 선생님을 찾아 연원(淵源)의 길을 열었으니 우리 도(道)의 확장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sup>34)</sup>라고 평가하였다.

10월 19일 이후에는 은치(隱峙)에 있는 최인선(崔仁善)의 집에서, 경

31) 『李滢菴公實行錄』, “至尙州淸溪寺 ㄱ야留宿一夜런니非夢間에海月先生이來어늘喜而問候 ㄱ니旋即發行이어시늘拜問曰向於何處所잇가答曰方向近處 ㄱ니數日後에相逢 ㄱ즈 ㄱ시고遂行 ㄱ시니”.

32) 『李滢菴公實行錄』, “次次訪之 ㄱ야察其形便이런니適有後面俠傍에男子之音聲 ㄱ야聞於外어늘不問主人 ㄱ고直入開門 ㄱ니海月先生이在坐라見而喜之 ㄱ야進而拜謁 ㄱ니此家是李八鴻家요時은八月三日이리라”.

33) 『李滢菴公實行錄』, “又曰吾昨夜夢中에見汝故로方今說夢而待汝런니汝適來 ㄱ니喜何可量乎아 ㄱ시고”.

34) 『李滢菴公實行錄』, “甲午年經亂之後湖南道人이失路 ㄱ야莫知所向之際에獨李炳春이以誠力으로訪師 ㄱ야開淵源之路 ㄱ니吾道之擴張이自此而始矣리라”.

기도 음죽(陰竹) 수통리(水通里)에 있는 손병희의 집에서, 몇 달 후에는 법소(法所)에서 최시형을 만나 보았다. 법소에서 배알할 때, “전라도의 일은 모두 너에게 맡길 터이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피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나중에 또 배알할 때는 “의암(義菴), 송암(松菴), 구암(龜菴)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천하의 어떤 사람들도 이들을 꺾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장(主張)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35)</sup>” 는 말도 하였다.

이 만남 후로 지목이 심해져서 최시형은 매년 두세 차례씩 옮겨 다녔다. 1898년 4월 4일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sup>36)</sup> 행사를 위해 원주 원소동(元素洞)에서 최시형을 만났으나, “이제부터 내가 천하를 유람하려 한다. 이번 기념(記念)은 혼자서 거행할 생각이니 너희들은 각자 모모(某某) 근처에 가서 예식(禮式)을 거행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이것이 최시형을 마지막으로 봉면하여 받은 분부였다.

며칠 후 옥천에 도착했을 때 최시형의 피체 소식을 들었고, 충남 노성군(魯城郡) 초포(草浦)에 이르러서 최시형이 6월 2일에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전해주던 김여중(金汝仲)이 “그 영감의 소식은 고사하고 동학하는 사람들을 필경 모조리 죽일 것이니 즉시 도망가시오.<sup>37)</sup>”라고 말하던 태도나, 동행 중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약간의 희망도 없으므로 돌아가는 게 좋겠소.<sup>38)</sup>”라며 떠나던 모습에서 당시 동학도들의 갈등과 절망을 짐작할 만하다.

35) 『李澧菴公實行錄』, “又曰義菴松菴龜菴三人이合心則天下之人이屈之不得이요撓之不得이리니汝等三人中에又有一主張이라야乃可也라”.

36)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 동학이나 천도교 신자들에게 ‘4월 5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포덕 1년, 즉 1860년 4월 5일에 교조 최제우가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無極大道)인 천도(天道)를 받은 날이라 하여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로 정하고 기념한다.

37) 『李澧菴公實行錄』, “汝仲曰關令監之安否는故舍호고東學之人은畢竟盡殺호리니勿問而卽逃去호라”.

38) 『李澧菴公實行錄』, “翌日에許善이謂李日吾曰今則更無餘望이니不如回程이니若空然歸去면如此指目을難以避身호리니若干所持之錢으로爲行商之樣이無妨호니”.

#### 4. 의암 손병희를 찾아서

동학을 비판하며 떠나간 사람들과 작별하고서 이병춘은 이제 의암 손병희(義菴孫秉熙)를 찾으러 나선다. 그리하여 마음 속으로 맹세하기를, “의암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였다. 초포춘을 출발하여 노성을 대천(大川)을 건너고, 경천(敬天) 지역을 거쳐 금강을 건너 뒤, 금의읍(金義邑)에 이르러 안성(安城)을 향해 가다가 다시 영남(嶺南) 지방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방방곡곡을 걷고 또 걷다가 두 갈래 길이 보이면, 마음 속으로 “원컨대 의암 선생을 만나게 해 주소서.” 하고서 심신(心神)이 향하는 길로 나아갔다.

몇 달 만에 강원도 춘천군(春川郡)에 이르렀다가 다시 지평(砥平) 대왕리(大旺里)로 향하였다. 궁벽진 산골짜기에 두세 가구가 촌락을 이루고 있길래 집집마다 사람마다 모두 뒤져보고 물어보리라 다짐하였다. 그렇게 무작정 들어간 집에서 정암(靜菴)과 의암을 만나게 되었다. 의암이 기뻐하며 “어떻게 도(道)의 이치를 알아서 나를 찾느라 수고하였느냐?”고 물었다<sup>39)</sup>.

이병춘이 대답하기를, “대신사(大神師)께서는 자신을 천황씨(天皇氏)에 비유하셨습니다. 만약 대신사가 천황씨라면 해월 신사께서 지황씨(地皇氏)인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 두 신사님들은 하늘과 땅이요, …… 의암 선생님이 인황씨(人皇氏)라고 생각합니다.”<sup>40)</sup> 하고 일어나 절하고 꿇어앉았다. 이 말을 들은 의암은 ‘천지인(天地人)’을 언급한 문자를 꺼내어 이병춘에게 주면서 유포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최시형의 사망 후 지목이 크게 일어날 것이니 절대 집에 있지 말고 3개월 동안 피해 있으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39) 『李澧菴公實行錄』, “先生曰海月神師賓天之後에何以知道之理而訪我를如此其勞苦耶아”.

40) 『李澧菴公實行錄』, “答曰大神師는以天皇氏로自比하 시니若大神師之爲天皇氏하 시면海月神師之爲地皇氏는自然之理也라……兩神師爲天地요……小子之意는以義菴先生으로爲人皇氏也라”.

다시 만날 날을 1898년 11월 26일로 정하고서, 고향 쪽으로 내려온 이병춘은 각처의 두목들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순창 선암사(仙菴寺)로 도피해 있었는데, 그때 절에 있던 사람들 중 50~60 명이 모두 입도하였다. 약속된 날짜에 다시 지평으로 갔으나, 정암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없었다. 어디로 향할지 막막하던 중에 누군가 전해준 노정기(路程記)대로 가다가 수원 동자포(童子浦)를 건너 대강진(大江津)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바람과 폭풍우를 무릅쓰고 가려는데, 갑자기 일어난 대풍(大風)이 이병춘을 휘감아다가 안전한 곳으로 내려다 놓았다. 그 직후 엄청난 규모의 해일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강변의 집들은 모두 휩쓸려 사라졌다. 며칠 만에 도착한 당진 묘동도(妙洞島)에 의암은 송암과 함께 있었다.

당진 묘동도에 머무는 동안 의암이 말하기를, “해월 신사께서 빈천(賓天)하신 후 가장 먼저 나를 찾은 사람은 이병춘이다. 그 다음으로 춘암 박인호(春菴朴寅浩)가 사람을 시켜 나를 찾았다. 이 사람들은 ‘신인(信人)’이라고 할 만하다. 나는 이제 외국에 나가 유람할 것이고 조선의 일은 모두 박인호, 이병춘 두 사람에게 맡기니, 너희 두 사람이 상의하여 일을 보도록 하라.”<sup>41)</sup> 하였다. 1898년 12월 21일에 의암과 함께 길을 떠나 덕산(德山)을 지나 공주 내정리(內亭里) 조보경의 집에 있던 박인호를 찾았으나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하였다. 그곳에서 의암과 헤어졌는데, 이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자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1899년 6월 2일에 해월 신사의 소상(小祥)에 참여하고, 12월 12일 대사(大師) 어머니의 상사(喪事) 때 손병희와 함께 염습(殮襲)하여 장사를 지냈다. 1900년 6월 20일 무렵 손병희의 집에서 구암, 송암, 인암

41) 『李豐菴公實行錄』, “先生曰海月神師賓天之後砥平郡吾之潛踪隱居時戊戌七月日에訪我者是最先에李炳春이以躬訪來고其次는朴寅浩春菴이亦使人訪之고니可謂信人也로다然이느吾當遊覽於外國고리니朝鮮之事는全付於朴寅浩李炳春고노니汝等兩人相議看事고라”.

등이 모여 손병희를 주장으로 추대하고 도중규칙(道中規則)을 정하였다<sup>42)</sup>. 1900년 7월에 풍기군(豊基郡) 의암 덕에서 설법예식(說法禮式)을 행했는데, 가장 먼저 예식을 거행한 사람은 김연국이었고, 그 다음 차례는 박인호 등, 또 그 다음 차례는 이병춘 등이었다<sup>43)</sup>.

1901년에 의암이 일본에서 서신을 보내 말씀하시기를, “전라도 교인(敎人)들은 모두 인암(仁菴) 홍병기(洪秉箕)를 따르라.” 하시기에 분부를 받들어 행하였다<sup>44)</sup>.

## 5. 갑진개화운동과 그 이후

1904년 5월에 의암이 자신의 동생을 보내 개명발달(開明發達)을 강조하며 단발(斷髮)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서신을 통해, 8월 말에 진보회(進步會)로 이름을 바꾸고 단발을 단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병춘은 충청도와 전라도 교인들을 익산 황등리에 모이도록 하여 갑진개화운동을 지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산군수 박학래, 전라도 관찰사 이승우 등 관변 측에서 진보회를 탄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서울에서는 진보회 수천 명과 정부측 군인들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1905년 10월, 일본으로 오라는 손병희의 지시에 따라 이병춘, 구창근 등 5명이 도일하여 약 1개월 동안 일본의 명승처를 유람하였다. 손병희는 12월 그믐에 귀국하였는데, 부산항에 수만 명의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다. 또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정거장 곳곳마다 환영 인파가 도

42) 『李滢菴公實行錄』, “庚子年六月念間에又往先生宅 ㅎ니……龜菴松菴이皆曰吾兩人이今日同盟 ㅎ니此後에豈有違約之理乎아若違約이면不免天罰 ㅎ리니勿憂焉 ㅎ소서 ㅎ고遂定道中規則 ㅎ다”.

43) 『李滢菴公實行錄』, “庚子七月에又往嶺南豊基郡義菴先生宅 ㅎ아行說法禮式할시最先에使龜菴으로行之 ㅎ고其次는朴寅浩李鍾勳洪秉箕요又其次는金汝仲嚴柱信李炳春李萬植吳永昌洪箕祚朴德七이行之後에禮端을燒之런니”.

44) 『李滢菴公實行錄』, “辛丑年에先生이在外國 ㅎ시스送書信曰全羅道敎人은皆相從於仁菴洪秉箕 ㅎ라 ㅎ섯거늘奉分付而行之 ㅎ다”.

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한다. 이병춘은 이에 대해 “우리러 사모하는 정성이 이때처럼 융성한 때가 없었다.”<sup>45)</sup>라고 표현하고 있다.

1906년 1월에 손병희가 서울 다동(茶洞)에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이병춘이 생민동(生民洞)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곁에서 모시게 되었다. 그 후 의암은 ‘교(敎)’와 ‘회(會)’를 분리하여 “천도교(天道敎)”라 하고 중앙총부(中央總部)를 다동에 설립하였다. 이때 이병춘은 공선원(共宣員)과 겸도집(兼都執)의 임명장을 받았다.

1908년 4월 손병희가 순접하기 위해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등과 윤선(輪船)을 타고 와서 군산항에 도착했을 때, 이병춘이 교인 수천여 명을 데리고 군산항으로 가서 전주교구(全州敎區)로 배행하여 왔다. 당시 환영 나온 교인들의 거마(車馬)가 도로에 가득 차서 80~90 리에 걸쳤다고 한다.

1914년 4월 2일 오후 5시 25분에 손병희가 천명(天命)을 받들어 반포하고 그것을 베껴서 치성인(致誠人) 72인에게 주었다.<sup>46)</sup>

## 6. 부록 : 새로 정한 4가지 예식(禮式)

이 내용은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제목에 ‘신정사례(新定四禮)’라 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관혼상제(冠婚喪祭) 관련 의례 규정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기록된 내용에는 혼례식의 거행 순서와 결혼

---

45) 『李滢菴公實行錄』, “自釜山으로至京城히處處停車場에歡迎敎人이巔于道路하니其仰慕之誠이無如此時之盛也리라”.

46)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에 의하면, 1914년 4월 2일 손병희(孫秉熙)가 이른바 72인의 두목들을 직접 불러 한 자리에 앉혀놓고서 소위 공동전수심법식(共同傳授心法式)을 거행하였다. 그때 전해준 법문(法文)은 “汝必天爲天者 豈無靈性哉 靈必靈爲靈者 天在何方 汝在何方 求則此也 思則此也 常存不二乎”이다. 손병희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양 신사(神師)의 심법은 단전밀부(單傳密符, 한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것)로 내려왔으나 나는 이제 3백만 교도에게 공동심법을 전수하노니 그대들은 각자 돌아가 또 각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하였다.

서천문(結婚誓天文) 양식, 상례의 각종 규정과 절차, 제례에 관한 규정 등만 있고 관례(冠禮)에 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3가지 의례식 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소요 물품이나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혼례식의 경우 탁자에 올려 놓는 청수(淸水),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로 주고 받는 예물 외에는 어떠한 물품도 제시하지 않았다. 상례에서 상복 입는 기간을 부모상은 105일, 나머지는 49일로 하였으며, 수의(壽衣)는 생전의 의복과 동일하게 하였고, 상여의 화려함 정도는 형편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였다. 제례는 당일 오전 7시에 제사를 지내고 1시간 만에 탁자를 치우도록 하였다. 혼례식과 마찬가지로 예탁(禮卓) 위에 여타 음식물은 없고 청수만 올려놓도록 하였다.

## II.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현재 동학 관련 사료는 매우 방대한 분량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혁명 이후 도피 과정의 참상, 갑진개화운동, 천도교로의 전환 등을 모두 겪은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 전체를 기록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성격의 자료로서 오지영의 『동학사』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활용해온 만큼 내용상의 오류, 과장, 부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뒤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절실하던 차에 이번에 공개된 『이풍암공신행록』은 사계의 연구에 요긴하게 쓰일 자료가 될 것이다.

### 1. 다른 사료에 없는 내용

1893년 충청도에서 보은집회가 열리던 시기에 전라도에서는 원평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보은집회는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원평집회는 이 시기 동학 운동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듯하다. 즉 원평집회는 최제우의 신원을 목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된 보은집회를 척왜양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적 집회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sup>47)</sup> 이 같은 관점에서 원평집회에 참여하여 농민군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이후의 운동을 주도해 나간 중심에 전봉준이 위치해 있었다는 내용이 많은 개설서에 자연스럽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전봉준이 원평집회에 참여했음을 직접 증명하는 사료는 그동안 확인된 바가 없다. 당시 전라도의 관찰사나 군수 등 지방관의 보고에 “전라도 동학도 수천 명이 원평에 집결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전봉준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는다. 동학교단 측의 기록을 비롯한 여타 자료에도 전봉준의 참여 여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개설서는 ‘동학교단이 주도한 보은 집회와 대칭적으로 전라도에서는 전봉준이 원평 집회를 주도했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전봉준이 다음 해 고부민란에서 지도자로 떠오른 사실을 소급 적용하여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sup>48)</sup>

전봉준의 원평집회 참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사료상의 결락을 메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풍암공신행록』은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

“4월에 다시 충청도 보은군 장내(帳內)에 회집하여 처음으로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였다. 그때 고부군의 전봉준도 전라도 금구군 원평(院坪)에 회집하였는데 내용자가 거의 수만 명에 이르렀고 법령(法令)이 엄정

47) 이현희, 2004,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 - 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 『동학학보』 8, 42~44쪽.

48) 원평집회 참가자로 확인되는 김봉집(金鳳集)이라는 이름을 전봉준의 가명으로 보고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趙景達, 1982,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 126쪽; 鄭昌烈, 1985, 「古阜民亂의 研究」(上), 『韓國史研究』 48·49, 123쪽 참조.

(嚴正)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단체를 이루었다.”<sup>49)</sup>

사실 이 사료가 없다 하더라도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서술은 전후 맥락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종합 추정의 결론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한편 이 사료는 지금까지 김재홍의 『영상일기(嶺上日記)』, 최영년의 『동도문변(東徒問辯)』 등을 토대로 추정했던 원평집회의 회집 인원수를 확인해주기도 한다.

둘째, 갑오년 후반기 최시형의 동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시간적, 공간적 사실들을 세밀하게 복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9월 18일에 휘하 지도자들에게 기포령을 하달했던 최시형이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0월 중순 경 전라도로 내려온 최시형은 임실에 은신해 있다가, 우금치 전투 패배 후 임실까지 내려온 손병희와 함께 11월 말에 다시 북상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최시형이 남쪽으로 내려와 임실군 갈담의 어느 동학교도의 집에 머물렀다는 정도로 서술하거나,<sup>50)</sup> “10월 13일 경 최시형이 임실군의 이병춘 집에서 9일 동안 유숙했다”고 하였다.<sup>51)</sup> 이러한 연구들은 아래의 사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13일에 신사가 호남으로 가실 때 임실군 이병춘(李炳春) 집에서 9일을 유숙하시다가 다시 같은 군 오■리(烏■里) 조석휴(趙錫休) 집에 도착하여 계속 머무르시더니 하루는 신사가 말하기를 “내가 다른 기미를 보았

---

49) 『李滄菴公實錄』, “四月에更會于忠淸道報恩郡帳內<sup>하</sup>야始設倡義所<sup>하</sup>니其時에古阜郡全瑋準은亦會于全羅道金溝郡院坪이라來應者殆近數萬人이요法令이嚴正<sup>하</sup>고一心成團矣런니”.

50) 朴孟洙, 1996, 『崔時亨研究: 主要活動과 思想을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44쪽.

51)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49쪽.

나니 도인을 돌려서 갈담시에 와서 보라” 하시다. 이때에 손병희가 과연 당도하거늘 맞이하여 돌아가 신사가 있는 곳에 찾아뵙게 되니 때는 11월 19일이라.<sup>52)</sup>

위 사료는 ‘최시형이 10월 13일에 호남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것 외에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매우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항리(鳥項里)”라는 지명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는 등 사료로서의 한계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풍암공신행록』에는 최시형의 남순(南巡) 일자와 장소 그리고 동행인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0월 13일에 해월 선생님께서 순접(巡接)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원군 내진전방(內眞田坊) 오산리(五山里) 권양수(權陽壽)의 집으로 가서 해월 선생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유숙하였다. 다음날 선생님을 모시고 초장리(草場里)에 있는 권씨네 재실(齋室)로 가서 열흘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때 경기도 도인 김연국(金演局), 강차주(姜次主), 조동한(趙東漢), 김우보(金宇甫), 김우현(金宇賢) 등 8명이 선생님의 가마를 배종하고 왔었다. 그러므로 임실군 상동서면(上東西面) 조치리(朝峙里)에 8명의 숙소를 정했는데 선생님의 처소와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소와 돼지를 잡아 올리고, 또 ‘차접주(次接主)’ 임명장을 받았다.<sup>53)</sup>

이 기록에 따르면, 최시형은 1894년 10월 13일 김연국, 강차주, 조동한, 김우보, 김우현 등 8명의 호위를 받으며 남원으로 내려왔다. 이 병춘은 이 소식을 듣고서 ‘남원군 내진전방(內眞田坊) 오산리(五山里)’로

52) 『천도교서』, 第二編 海月神師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53) 『李豐菴公實行錄』, “十月十三日에海月先生主계서巡接次로南下하심을聞고至南原郡內眞田坊五山里權陽壽家하야侍海月先生而留一夜하고翌日에侍先生하고至草場里權氏齋室하야留連十日하되京畿道人에金演局과姜次主와 趙東漢과金宇甫와金宇賢等八人이陪師駕而來라故로定宿所于任實郡上東西面朝峙里하니與師主處所로一嶺之間에라屠牛殺猪하야以奉之하고又承次接主任帖焉하다”.

달려가 열흘 동안 최시형을 배종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오산리’라는 마을은 당시에는 남원군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결과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로 변경되었다. 그 오산리에 속해 있는 ‘오메마을’은 임진왜란 직후 권씨라는 인물이 입향한 이래 그 자손들이 뿌리를 내려 안동권씨 집성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 ‘오산리 오메마을’을 방문하면 최시형이 내려왔을 때 숙식을 제공했던 ‘권양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최시형이 열흘 동안 머물렀다는 ‘권씨네 재실’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료들이 연구자들의 작업을 거쳐 풍부한 역사 서술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남원에서 열흘을 보낸 뒤 최시형은 임실 쪽으로 사처(私處)를 옮겼다. 아래 사료에는 최시형이 남원에서 임실로 이동하는 날짜와 경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3일에 선생님의 분부를 받들어 사처를 임실군 옥전면(玉田面) 조항리(鳥項里) 양명선(梁明善)의 집에 정하고 배행(陪行)하였다. …… 권씨네 제각(祭閣)에서 출발하여 오수(鰲樹) 상남악리(上南岳里)에 이르러 점심을 올린 후 다시 길을 떠나 임실군 이인면(里仁面) 독점리(篤漸里) 양경보(楊敬甫)네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였다. 다음날 조항리(鳥項里)에 이르렀는데 산이 깊고 마을이 외진 곳이라 은둔해 있기 좋은 지역이었다. 그 마을의 조석휴(趙錫休)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도(道)를 믿는 사람인지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식사를 마련하여 대접하였다.<sup>54)</sup>

10월 23일에 이병춘은 최시형을 모시고 권씨네 제각에서 출발하여 오수에서 점심을 먹고 현재의 임실을 부근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리

---

54) 『李豐菴公實行錄』, “二十三日에奉先生主分付 〳야定私處于任實郡玉田面鳥項里梁明善家 〳고陪行할시 …… 權氏祭閣에發行 〳야至鰲樹上南岳里 〳야午飯을進 〳신後에又行至任實郡里仁面篤漸里楊敬甫家 〳스一夜을留宿 〳시고翌日에至鳥項里 〳시니山深洞僻 〳야可以嘉遯之地也요該里趙錫休는亦信道純實之人也라朝夕支供을以誠進奉矣런니”.

고 다음날 ‘임실군 옥전면(玉田面) 조항리(鳥項里)’에 이르러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머물렀다. ‘조항리’라는 마을은 현재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 속해 있으며, 우리말로 ‘새목치’라고 불리운다.

『천도교임실교사』에 따르면 1873년 3월에 최시형이 새목치 아래 새목터마을에서 장수 도인(長水道人) 김신종(金信鍾)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최제우가 1861년 11월에 남원 은적암에서 포교한 것을 제외하면 전라도에서 동학이 가장 먼저 포교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sup>55)</sup> 그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최시형이 와서 머무른 것이 아닌지 심층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이곳에서 최시형과 손병희가 다시 만나서 복상하는 장면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11월 18일에 선생님께서 이병춘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면동이 트기 전에 갈담(葛潭) 시장에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탐지하도록 해라. 조금 전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무수히 보였다.”라고 하였다. 그 분부를 받들어 마을 사람 중 임영택(林永澤), 엄성삼(嚴成三)을 갈담 시장에 보냈는데, 그 당시 날씨가 큰 눈이 내려서 유삼(油衫)을 입고 갔다. 시장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두 사람을 보고 무수히 울러대자 두 사람은 놀라 겁을 먹고 사실대로 고하였다. 말을 타고 있던 대장 하나가 옆에 있다가 재차 그 진위를 묻더니 분부하여 말하기를, “군인들을 모두 구고면(九臯面) 등지로 보내어 그곳에서 유숙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탐지하러 갔던 두 사람과 더불어 동행하여 조항리에 이르렀다. 그 사람은 바로 의암 손병희 선생이었다. 해월 선생이 그를 보고 매우

---

55) 이러한 주장은 ‘천도교임실교사’ 이외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서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지영의 『동학사』를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 일대에 동학 교단 차원의 본격적 포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1884년 10월로 보기도 한다(성주현, 2014,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19, 참조).

기뻐하였다. 그날 양명선(梁明善)네 집에서 의암 선생이 해월 선생을 배종하고서 가마로 구고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경성(京城)의 도인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곧바로 무주(茂朱) 등지로 향하였다.<sup>56)</sup>

11월 18일에 이병춘은 바깥 소식을 탐지하기 위해 갈담 시장에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심부름꾼들은 시장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을 만나 오히려 그들에게 심문을 당한 뒤 그 대장에게 이끌려 조항리로 돌아왔다. 심부름꾼들을 앞세우고 온 그 대장은 바로 우금치 전투 패배 후 임실군 갈담까지 내려온 손병희였다. 심부름꾼들과 함께 조항리로 들어온 손병희는 최시형을 배종하고서 구고면 등지에 주둔시켜 놓았던 수만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무주를 거쳐 북상하였다.<sup>57)</sup> 이병춘의 기록에 11월 '28일에 최시형을 배송'했다고 하였다. 이날은 원평전투가 치러진 날로부터 사흘 뒤이며, 전봉준이 마지막으로 싸웠던 태인전투 다음날이었다.

위 사료에 따르면, 최시형은 남원 오산리에 내려온 10월 13일부터 손병희와 함께 북상한 11월 28일까지 약 달포 동안 남원, 임실 지역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의 거주지, 관련 인물, 동선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된 『이풍암공실행록』을 토대로 정확한 고증을 거쳐 관련 연구를 심

56) 『李豐菴公實行錄』, “十一月十八日朝에先生主命李炳春曰曉頭에送人于葛潭市場호야探知消息호라俄者에暫睡린니黑服人이無數見之라호시거늘奉分付호야送村中人林永澤嚴成三호야往葛潭市호니時에天이大雨雪이라着油衫而去린니數萬名軍人이見兩人호고頷頑無數호되兩人이惶恟호야以直言告之호니傍有乘馬大將一員이更問其眞僞호고遂分付曰軍人은皆送之于九臯面等地호야留宿焉호라호고與探知者兩人으로同行호야至鳥項里호니乃義菴孫先生也라海月先生이見而喜之호시고即日의梁明善家에서義菴先生이倍海月先生호시고行駕至九臯호야率京城道人數萬호고即向茂朱等地호야去호시다”.

57)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당시 최시형을 만난 손병희는 겨우 1,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던 중 곳곳에서 관병과 민포 등을 만나 여러 차례 위험을 겪다가 결국 충청도 황간, 영동 등지에서 군을 해산하였다고 한다.(오지영, 2024, 『동학사』, 김태웅 역해, 아가넷, 404쪽).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움직였던 노정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답사 코스를 만들어 일반인들의 체험 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이병춘 개인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병춘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그가 3·1운동을 계획하고 참여하여 징역 3년을 언도받았고 출옥 후에도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송금하다가 발각되어 다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는 사실이다. 3·1운동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방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서술이 적지 않다.<sup>58)</sup>

이에 비해 『이풍암공신행록』에는 이병춘의 성장 과정부터 동학농민혁명, 갑진개화운동, 천도교 초기의 활동 등 3·1운동 이전의 행적과 활동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일차적으로 이병춘의 생애 전반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병춘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큰 흐름을 비껴가지 않았던 인물이기에도 그의 생애사는 곧 한국근대사를 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른바 3암의 갈등 과정에 이병춘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이병춘 개인사를 복원하는 문제 뿐 아니라 최시형 사후 동학교단의 주도권의 향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섬세하게 접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료들이 보인다.

구암의 집에 가서 유숙할 때 꿈을 꾸었는데,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고 땅을 유지하던 줄이 끊어졌으며 바닷물이 비등하였고 폭풍이 몰아치더니 큰 홍수가 일어나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집어삼켜 인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모두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즈음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작란(作亂)을 일으키니 몇 식경 만에 천지가 환하

---

58)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참조.

게 밝아지고 비바람이 멈추었는데,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다에서 떠올라 육지로 올라왔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서 보았더니 거북이의 등에 해와 달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거북이 배 가운데에 5대양 6대주가 완연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홀연히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날은 대신사(大神師)께서 수도(受道)하신 날이다. 오전 4시에 예식을 거행하고 꿈 속의 일들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묵묵히 듣고 있었다. 오직 구암(龜菴)만이 말하기를, “이것은 뭔가 커다란 기미(機微)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였다.<sup>59)</sup>

『이품암공신행록』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정말로 당사자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직설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꿈을 빗자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꿈에 관한 서술의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꾸며낸 이야기이든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위의 꿈 이야기는 최시형의 조난 직전 무렵 이병춘이 구암 김연국을 지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시형 사후에는 이병춘의 입장에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 아래 사료는 이병춘이 최시형 사후 손병희와 상봉했던 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월 신사께서 빈천(賓天)하신 후에 어떻게 도(道)의 이치를 알아서 이같이 수고하고 애를 쓰며 나를 찾았느냐?” 하셨다. 이병춘이 대답하기를, “대신사(大神師)께서는 자신을 천황씨(天皇氏)

59) 『李滄菴公實行錄』, “至龜菴家호야宿焉할시得一夢호니天柱崩地維折호고海水沸騰호며風而暴之런니大水懷襄호야人民이不知所向호야皆至於垂死之際에又有一大虎가作亂이런니數食頃에天地明朗호고風雨止息而有一大龜호야自海浮出而登于陸岸이어늘與衆人으로往視之호니龜之背上에日月호야洞徹明朗호고腹中有五洋六州호야完然書之러라忽然覺之호니此日은大神師受道日也라上午四時에行禮式호고說夢中之事호니人皆默默호되獨龜菴이曰此是大機也라호더라”.

에 비유하셨습니다. 만약 대신사가 천황씨라면 해월 신사께서 지황씨(地皇氏)인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천지는 만물을 화생(化生)하여 우로(雨露) 속에서 길러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주인이 되어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신사님들은 하늘과 땅이요, 우리 도(道)의 주인은 선생님이 아니라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의암 선생님이 인황씨(人皇氏)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일어나 절하고 꿇어앉았다. 의암 선생께서 바로 그 ‘천지인(天地人)’을 언급한 문자를 꺼내어 이병춘에게 주시면서 말하기를, “요즘 내가 기록한 글이다.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꼭 나눠줘서 유포시킬 뜻이 있었는데, 지금 이병춘이 먼저 와서 말하니 이는 한울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하셨다.<sup>60)</sup>

‘어떻게 도(道)의 이치를 알아서’ 찾아왔느냐는 물음은, 최시형의 도통을 계승할 인물로 김연국, 손천민 등도 있는데 하필 손병희 자신을 찾았느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병춘은 ‘천지인(天地人)’의 논리를 내세워 대답하고 있다. 생전에 스스로를 천황씨에 비유했던 최제우가 하늘이라면 그를 계승한 최시형은 지황씨가 되는 것이요, 다음 계승자는 인황씨라는 것이다.<sup>61)</sup>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병춘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손병희가 인황씨’라 생각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손병희는 자신이 그러한 천지인(天地人)과 관련하여 기록한 것이 있다며 이병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60) 『李滄菴公實行錄』, “先生曰海月神師賓天之後에何以知道之理而訪我를如此其勞苦耶아  
호 시거늘答曰大神師是以天皇氏로自比 호 시니若大神師之爲天皇氏 호 시면海月神師之  
爲地皇氏는自然之理也라天地는化生萬物 호 야雨露中長養而使人으로爲萬物之主人 호  
야任意用之케 호 느니兩神師爲天地요吾道之主人은非先生而誰也오小子之意는以義菴  
先生으로爲人皇氏也라 호 고遂起而拜跪 호 디先生이遂出其天地人所言之文子 호 야授之  
曰近日吾所記之書也若有言此等之人이면必以殷布爲意런니今李炳春이先來言之 호 니  
此則天主之所指示也라”.

61) 최제우가 스스로를 천황씨(天皇氏)에 비유했다는 것은, 『도원기서(道源記書)』에 보이는 “先生方爲下箸時顧左右曰世上謂我天皇氏云云”을 근거로 하는 말인 듯하다. 윤석산 역주, 2000, 『초기 동학의 역사 道源記書』, 신서원, 83쪽)

위 사료들을 통해 이병춘이 1898년 전후 도통 전수 과정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손병희가 주도권을 장악한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로 나아갈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여타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이풍암공실록』에는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지면이 허락하는 선에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연락이 끊겼던 최시형을 상봉하는 상황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상세한 정보들이 있다.

갑오년의 풍상을 겪은 후 동학교도들은 참살을 당하거나 지목을 피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혹독한 조건을 견뎌내야 했다. 최시형 역시 지목을 피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동학교도들과의 연락이 끊어져 있었다. 이때 이병춘이 성력(誠力)으로 최시형을 만남으로써 전라도 지역의 교도들이 동학교단과 연결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래에 제시하는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를 분석하였다.

이새 湖南道人 李炳春이 先生의 去處를 몰나 日久月深으로 걱정이 되어 엇지하면 先生을 한번 만나볼고 하는 마음이 懇切하엿섯다. 하루는 李炳春이 길을 써나 先生을 차지러 나섯다. 그러나 압길이 茫然하야 다만 발길 가는 대로 지팡이 가르치는 대로 쫓차 나갈 뿐이엿섯다. 어느날은 慶尙道 尙州 淸溪寺라는 곳에 이르러 잠을 자드니 그날 밤 꿈에 先生을 만나 先生 계신 곳을 무려 아럿다. 꿈을 깨여 生覺한 즉 가장 異常한지라. 그잇튼날 그 附近 山幕을 차저가다가 마침 조고마한 움집을 만나 門을 열고 主人을 차지니 이곳 先生 계신 곳이라. 李炳春은 깃버 先生게 보인대. 先生曰 그대 엇지 이곳에 이르나뇨. 내 어제밤 꿈에 그대를 보왔드니 今日에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은 참 神奇한 일이라도 하더라. 이날로부터

南方道人の 師門相從하는 길이 열니었다.<sup>62)</sup>

이병춘이 최시형의 안위를 걱정하다가 무작정 찾으러 나섰는데, 꿈속에서 만난 선생이 거처를 알려주어 상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사료는 오지영이 사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풍암공신행록』에는 꿈 이야기를 비롯하여 두 사람이 상봉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날짜와 장소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상주(尙州) 청계사(淸溪寺)에 이르러 하룻밤을 유숙하였다. 그날 밤 비몽사몽간에 해월 선생님이 오셨길래 안부를 여쭙었는데 바로 다시 떠나셨다.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가까운 곳으로 가니 며칠 후에 만나자.” 하시고 드디어 떠나셨다. …… 꿈에서 깨어난 후 근처 산중에 두어 집만 있는 촌락이라도 하나하나 찾아가 볼 것이라고 맹세했기에 곧바로 7 마장쯤 들어갔더니 네다섯 집이 산을 의지하여 모여 있었다. 사람을 불러 하룻밤을 청했으나, 그 사람이 이병춘의 행색이 이상한 것을 보더니 손님을 재울 방이 없다고 하였다. 차례차례 다른 집을 방문하여 그 형편들을 살피던 중에 마침 어느 집 뒤쪽 골방에서 남자들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들어가 문을 열었더니 해월 선생님이 앉아 계셨다. 선생님을 보자 기뻐하며 달려가 배알하였다. 그 집은 이팔홍(李八鴻)이라는 사람의 집이었고, 때는 8월 8일이었다. 해월 선생도 그날 왔다고 하셨다. 악수를 한 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고하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산속을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밤 꿈 속에서 너를 보았다. 그래서 방금 꿈 이야기를 하고 너를 기다렸더니 마침 네가 왔으니 이 기쁨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하셨다.<sup>63)</sup>

62) 오지영, 『동학사(초고본)』 4, 〈海月先生被捉〉 (동학농민혁명재단 사료아카이브).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보면 ‘1895년 후반에 이병춘이 최시형을 만났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거나<sup>64)</sup>, ‘만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896년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sup>65)</sup>. 하지만 이제는 『이풍암공신행록』으로 보완함으로써 미흡했던 사실의 복원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병춘이 최시형을 만난 시기는 정확하게 1895년 8월 8일이며, 장소는 상주 청계사 부근의 이팔홍이라는 인물의 집이었음을 이 자료가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손병희와 김연국의 갈등, 제3대 교주의 도통 전수에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최시형은 생전에 구암, 의암, 송암 등 3인에게 합심동력(合心同力)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제자들은 끝내 분열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풍암공신행록』은 기존의 사료들을 보완해 줄 다수의 사실들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소개하여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1899년 6월 2일 해월의 소상(小祥)에 김연국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해 12월에 대사(大師) 모친의 상사(喪事)에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손병희는 이병춘을 데리고 염습을 하여 장례를 치렀다. 1900년 6월 20일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손병희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63) 『李豐菴公實行錄』, “至尙州淸溪寺 〇야留宿一夜 〇런니非夢間에海月先生이來어늘喜而問候 〇니旋即發行이어시늘拜問曰向於何處所잇가答曰方向近處 〇니數日後에相逢 〇 〇 〇시고遂行 〇시니 …… 自夢覺之後로近處山中에雖二三家村落이라도箇箇往尋次로誓心 〇고直向入七馬場 〇니有四五人家가依山而在어늘 訪人請一宿 〇 〇其人이見其行色之異 〇고曰無客室이라 〇거늘次次訪之 〇야察其形便이런니適有後面俠傍에男子之音聲 〇야聞於外어늘不問主人 〇고直入開門 〇니海月先生이在坐라見而喜之 〇야進而拜謁 〇니此家は李八鴻家요時은八月三日이라先生도今日에來하얏다하시며先生이握手而言曰汝之無故는吾已知之언이와如此山谷에何以尋來耶아又曰吾昨夜夢中에見汝故로方今說夢而待汝런니汝適來 〇니喜何可量乎아”.

64) 성주현, 2014,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141쪽.

65) 조규태, 2014, 「동학농민운동 이후 남원 출신 동학인과 천도교인의 활동」, 『동학학보』 33, 105~107쪽.

김연국을 비난하였다. 이때 김연국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희는, “구암, 의암, 송암 등 3인이 합심하되 한 사람이 주장을 맡아야 한다.”라고 했던 해월의 교시를 상기시키며 주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연국과 손천민이, “의암이 해월 선생의 전발(傳鉢)을 받았으니 의암으로 하여금 주장을 삼으면 다른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 하여 드디어 도중규칙(道中規則)을 정하였다는 것이다.<sup>66)</sup>

1900년 7월에는 풍기군(豐基郡) 손병희의 집에서 설법예식(說法禮式)을 행하였다. 이때 손병희는 김연국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예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그 다음 차례는 박인호, 이종훈, 홍병기였고, 또 그 다음 차례는 김여중, 엄주신, 이병춘, 이만식, 오영창, 홍기조, 박덕칠 등이었다고 한다.<sup>67)</sup>

오지영의 『동학사』나 『천도교창건사』의 기록은 의암이 1897년 경 구암·의암·송암 삼두체제의 주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구암 측의 교서인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釋史)』와 송암에 대해 우호적으로 서술한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에는 1900년 3월 6일(음)에 손병희가 설법식을 행하고 스스로 대도주(大道主)에 올라 대두령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다고 쓰여 있다.<sup>68)</sup> 이러한 자료들에 더

66) 『李滢菴公實行錄』, “庚子年六月念間에 又往先生宅 訶니 龜菴松菴仁菴諸丈이 皆來어늘 先生이 對龜菴言曰 俗談에 云三年不弔則皆阻面이라 訶니 在他頭目이라 도尙不然이 어든 況龜菴乎 아 海月神師仙化後에 三年을 不弔 訶니 心에 安乎 아 於禮에 當乎 아 因大責之 訶니 龜菴이 默默無言이라 又曰 丁酉十二月에 海月神師召我等三人而 詔之曰 汝等이 合心看事호되 其中에 有一主張이라야 乃可也 라 訶 셋시니…… 今日會席에 擴定其主張이 如何오 訶 신되 龜菴松菴이 乃言曰 義菴이 受海月先生之傳鉢 訶니 使義菴으로爲 主張焉 曷無二辭 訶리라…… 吾兩人이 今日同盟 訶니 此後에 豈有違約之理乎 아 若違約이면 不免天罰 訶리니 勿憂焉 訶 소셔 訶고 遂定道中規則 訶다”.

67) 『李滢菴公實行錄』, “庚子七月에 又往嶺南豐基郡義菴先生宅 訶야 行說法禮式할시 最先에 使龜菴으로行之 訶고 其次는 朴寅浩李鍾勳洪秉箕요 又其次는 金汝仲嚴柱信李炳春李萬植吳永昌洪箕祚朴德七이行之 後에 禮端을 燒之런니”.

68) 조규태, 2015, 『『동학사』의 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과 분화에 대한 서술』, 『동학학보』 37, 참조.

하여 『이풍암공신행록』을 세밀히 분석한다면 최시형 사후 이른바 3암이 갈등하게 된 원인, 시기, 결과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른바 갑진개화운동이 호남, 호서 지역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최시형 사후 동학의 주도권을 장악한 손병희는 1904년 문명개화를 지향하며 구체적 실천 항목으로 흑의 착용과 단발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한 연구는, ‘12월 4일 경에 이병춘이 구창근 등과 함께 익산 황등시장에서 개최하였다’는 정도로 간략히 서술하였다.<sup>69)</sup> 그러나 『이풍암공신행록』에는 갑진개화운동이 시작된 배경, 과정, 시기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체류 중인 손병희가 1904년 5월 자신의 동생을 보내어 향후 문명개화로의 노선을 정했음을 알렸고, 이에 따라 이병춘, 박인호 등 교단의 주요 인물들은 서울에서 회합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sup>70)</sup> 손병희는 다시 서신을 통해 ‘8월 그믐에 교인(敎人)들이 일제히 모여 진보회(進步會)로 이름을 바꾸고 한결같은 모양으로 단발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충청도와 전라도의 교인들은 이병춘이 지휘하여 주관하라’고 지시했다.<sup>71)</sup> 이에 이병춘은 즉각 익산의 황등리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서, 장남선(張南善)을 임시회장으로 선정하고 개회취지(開會趣旨)를 설명한 뒤 회원들이 각자 자의(自意)에 따라 단발하게 하였다. 이들은 9월

69) 성주현, 2014,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143~144쪽.

70) 『李滄菴公實行錄』, “布德四十五年甲辰五月에先生이親送其弟氏而秘密通奇曰今日之運은不如開明發達이니開明이莫善乎斷髮이라 ㅎ 시거늘又往京城 ㅎ 야與朴寅浩李鍾勳洪秉箕廉昌植吳永昌金知煉等十餘人으로相議曰今以開明主旨로目的을定則必以削髮로爲主意 ㅎ 리니不如同往從容處 ㅎ 야相約이可也라”.

71) 『李滄菴公實行錄』, “上書于先生主前이런니回答에云호되今年八月晦日에十三部敎人이一齊會集 ㅎ 야以進步會로爲名 ㅎ 고一樣斷髮之敎가有 ㅎ 고又曰全羅道忠淸道之敎人는使李炳春으로指揮主之라 ㅎ 섰거늘”.

5일에 은진군 강경포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단발한 회원이 15,000 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sup>72)</sup>

갑진개화운동은 동학의 주류가 문명개화 노선으로의 방향 전환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직접적인 정치 투쟁을 통해 동학의 합법화와 함께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 민회 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sup>73)</sup>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70년대부터 전국적 전개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의 전개 양상을 고찰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sup>74)</sup> 『이풍암공신행록』의 경우 호남, 호서 지역뿐 아니라 더불어 전국적 차원의 갑진개화운동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갑진개화운동에 대해 관변 측에서 자행했던 탄압의 실상과 그에 대한 진보회 측의 해결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갑진개화운동은 단기간에 수많은 도인들의 호응을 얻어냈고, 강경포 경찰서장처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관리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다.<sup>75)</sup> 그러나 여산 군수 박학래, 전라도 관찰사 이승우 등이 병정들을 동원하여 도인들을 구타, 체포하는 등 적지 않은 탄압이 자행되었다.<sup>76)</sup> 전자는 이병춘 등이 내부대신에게 항의하여 해결하였고, 후자는 인암 홍병

---

72) 『李澧菴公實行錄』, “數日畱于黃登里라가九月五일에發程호야至江景浦호니斷髮會員이至一萬五千餘人이라”.

73) 김정인, 2004,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7, 참조.

74) 성지운, 2025, 「충청남도 논산 지역 동학의 사상적 계승과 연속성에 관한 연구-동학농민혁명과 갑진개화혁신운동-」, 『역사와 교육』 40, 69~72쪽.

75) 『李澧菴公實行錄』, “李炳春金鳳得李祥宇三人이訪警察署호야說明其事實호니署長이無數致賀호더라”.

76) 『李澧菴公實行錄』, “九月七일에至論山浦호야演說後에定處所而宿焉이런니翌日에礪山郡守朴鶴來가率砲軍四五十名호고至會所호야左衝右突호니砲聲이震動天地라突入各館호야一邊奪取財物호고一邊捕縛道人……十月에江景浦會員數萬人이入于全州府호야視務런니府中吏屬輩鄭昌權이符同其時郡守權直相과觀察使李勝宇와參領白啓信호야作亂而謀害會員할시以杖以石으로無數亂打호고兵丁이與巡查로以兵器威脅”.

기, 이용구 등과 함께 일본 헌병의 힘을 빌어 해결하였다. 1904년 11월에는 새 대결문 앞에서 진보회 수천 명과 정부측 군인들이 격렬하게 충돌하여 회원 중에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sup>77)</sup> 이 문제는 영국인 목사의 도움을 받는 한편 교단 대표들을 파견하여 정부 측과 협상함으로써 해결하였고, 이후 진보회가 차차 융성해졌다고 한다.<sup>78)</sup>

갑진개화운동에 대해 처음에는 관망하고 있던 정부는 동학이 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결국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대해 동학 측에서도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당시 관변 측의 탄압과 동학도들의 저항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이품암공신행록』은 갑진개화운동의 양상을 보다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자료가 될 것이다.

### 3. 인물사적 서사를 제공하는 내용

『이품암공신행록』에는 이병춘의 성장 과정, 동학 입도 후의 신비 체험, 농민혁명 시기의 고난, 혁명 실패 후 도피 생활, 갑진개화운동 과정에 맞서야 했던 관의 탄압 등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다채로운 일화들이 매우 많이 서술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2차봉기 후 남원, 임실에 머물던 최시형이 떠나고 나서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산속에서 솔잎과

77) 『李澧菴公實行錄』, “其年十一月에上京視務런니政府之人이募軍於漢江等地居民有力者數千人 ㅎ야在京內進步會員를一時盡滅之意로爲計어늘會員等이皆驚動 ㅎ야晝夜로呼哭於鐘路上曰政府之人이欲殺我等而 二千萬人口를亦盡殺焉이라 ㅎ니一日에政府之人이使軍人으로討滅京城事務所로爲言故로會員이一齊來集者數千人이라直向新大關門外 ㅎ니四方軍兵이一時蜂起 ㅎ야登于民屋上 ㅎ야以尾石으로投而擊之 ㅎ니會員之死者傷者가不可勝數라”.

78) 『李澧菴公實行錄』, “英國牧師가來而救之故로幸而得免其死 ㅎ其間困狀을何可盡言耶아其後에會員等이又送總代數十人于政府 ㅎ야質問之 ㅎ니不得已 ㅎ야政府之人이許之曰盡從進步會員之所請이라 ㅎ던니其後에皆爲實施故로會員이皆安心 ㅎ야進步會가次次隆盛焉이라라”.

나무껍질로 연명했던 이병춘은 지목이 잠시 가라앉자 고향 집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8일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 중 혹시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이병춘을 보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맹수를 보는 듯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 이웃에 사는 전충실(全忠實) 씨가 와서 말하기를, “지목이 아직까지도 말끔하게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으니, 행상(行商)의 모습으로 바닷가 포구(浦口) 등을 유람하다 돌아오는 게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돈 10냥을 주길래 받았다. 아내와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아무런 까닭 없이 떠나면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이병춘이 또 동학 때문에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 부부가 크게 싸운 뒤 떠나면 의심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오?” 하였다. 아내가, “웁습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거짓으로 화가 난 듯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때리고 깨지지 않을 만한 살림 도구를 내던지기도 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그러자 이웃의 부인네들이 와서 싸움을 말렸다. 이병춘은 행장을 꾸리면서 말하기를, “내 동생은 보부상들의 난리에 죽었고 집안 살림은 민포 놈들에게 다 빼앗겼으니 부부가 서로 화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나가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였다. 그날 즉시 출발하니, 바로 을미년(乙未年, 1895) 3월 9일이다.<sup>79)</sup>

79) 『李滢菴公實行錄』, “二十八日에始歸家호니一村之人이或有來見者라도畏之를返如猛獸也라……隣居全忠實氏가來言曰指日尙今快未全消호니不如以商賈次로往于海濱浦口호야遊覽而歸가無妨이라호고以錢十兩으로授之어늘受之호고與妻相約曰吾欲入山이노若無故而去則村人이必也又爲東學去矣라호리니不如夫妻相關後出走則無疑호리니何如오妻曰諾다호거늘遂大聲伴怒호야與處相拍호며或擲以不破之器호야如狂人之樣호니比隣婦人이來호야固止之어늘遂理行裝호고爲言曰吾弟는已死於負商之亂호고家産는盡奪於民包之輩호니夫婦相和合而安心이當然이거늘今乃不安吾心호니不如出走라호고即日發行호니乙未年三月初九日也라”.

동학과 관련된 당대인들의 심리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양상 등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동안 구조 중심의 역사 서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행위자 부재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 속 일화들은 그 자체로 일반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이므로, 각급 학교의 교육자료나 박물관 등의 전시 자료로서 가치가 적지 않아 보인다.

## 맺음말

여느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이병춘의 생애는 동학에 입도하기 전과 입도한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도하기 전 그는 효(孝)란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태어난 듯한 삶을 살았고, 입도 후에는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찬 삶을 살았다. 동학에 입도한 후 한울님, 천사(天師)님이나 해월, 의암 등을 향해 표출된 종교적 열정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유비(類比)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과정의 효행과 입도 후의 종교적 열정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원칙은 ‘성력(誠力)’이라 할 수 있다.

이병춘의 성장 과정은 역사 속의 어느 효자에게도 뒤지지 않는 효의 실천 과정이었다.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어서 형제들을 잃은 뒤 가세가 몰락한 악조건에서 그는 한결같이 어머니를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얼어붙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구해오는가 하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 마을에서 들깨를 얻어오기도 하고, 손가락의 피를 흘려 죽어가는 어머니를 소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성력의 토대가 되었다.

1891년 이병춘은 최시형으로부터 수심정기(守心正氣), 천인상합(天

人相合)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 마음을 수련(修練)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여러 차례 산에 올라 치성(致誠)을 올리면서 광제창생(廣濟蒼生) 및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의지를 베갯머리에 새겨두고 시종일관하였다. 그러한 성력(誠力)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이병춘은 살아남았다. 또한 도피 생활 중 이던 최시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최시형 사후에 가장 먼저 손병희를 찾아낸 것도 창도(昌道)의 날을 확신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진개화운동 과정에서 관변 측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항할 때도 그의 성력(誠力)은 잦아들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이병춘은 성력으로 일기관지하며 동학운동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이풍암공신행록』은 1880년대 동학의 확산, 1890년대 동학농민혁명과 도피 생활, 동학의 재건, 1900년대 갑진개화운동 및 천도교로 전환 등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병춘이 동학교단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실천했던 활동상을 담고 있으므로, 당시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 주력과 최시형의 동학교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사료적 가치를 ‘다른 사료에 없는 내용, 여타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인물사적 서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봉준의 원평집회 참여’ 관련 사료의 예시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료들을 이용하여 그동안 추정적 서술에 그쳤던 사실(史實)들을 확정적으로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갑진개화운동’ 관련 사료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타 사료와 교차 검증을 통해 근대사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이병춘이 경험한 종교상의 신비체험이나 당시의 상황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해주는 일화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각급 학교의 교육 자료나 박물관 등의 전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풍암공신행록』에 담긴 생생한 내용들을 보다 많이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다 보니, 제1장에서 핵심만 요령 있게 정리해 내지 못한 채  
장황한 나열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제2장에서는 과문한 필자의 관견으  
로 인해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감이  
적지 않다. 향후 내공 깊은 동학 및 천도교 연구자들이 유용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건져 올리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 2025. 10. 13. 심사완료일 : 2025. 10. 29. 게재확정일 : 2025. 11. 3.

## 참고문헌

### <자료>

- 『동학사(초고본)』 (동학농민혁명재단 사료아카이브).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 (『동학농민혁명연구』 제3호 所收 필사본).  
『천도교서』 (동학농민혁명재단 사료아카이브).

### <단행본>

- 오지영, 2024, 『동학사-새 세상을 꿈꾼 민중을 기록하다』, 김태웅 역해, 아카넷.  
윤석산 역주, 2000, 『초기 동학의 역사 道源記書』, 신서원.  
이이화, 1994,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이이화, 2020,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1~3, 교유서가.

### <논문>

- 고병철, 2007, 「천도교 의례의 변용과 특성: 시일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 연구』 제2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05~130쪽.  
김정인, 2004,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제7권, 동학학회, 63~93쪽.  
朴孟洙, 1996, 「崔時亨研究: 主要活動과 思想을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배항섭, 2017,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제236집, 역사학회, 1~39쪽.  
배항섭, 2018, 「동학에서 보이는 '전통'과 새로운 사유-유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70호, 민족문화연구소, 45~72쪽.  
성주현, 2014,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제19호, 역사와 교육학회, 131~166쪽.  
성주현, 2019, 「동학·천도교와 손병희의 이상과 현실」, 『시민인문학』 제37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3~139쪽.  
성지운, 2025, 「충청남도 논산 지역 동학의 사상적 계승과 연속성에 관한 연구-동학농민혁명과 갑진개화혁신운동-」, 『역사와 교육』 제40호, 역사와교육학회, 69~99쪽.  
이현희, 2004,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동학학보』 제8권, 동학학회, 7~60쪽.  
임태홍, 2020, 「동학교단에서 종교체협의 의미-신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 국철학논집』 제64권, 한국철학사연구회, 185~216쪽.
- 전주시사편찬위원회 편, 1986, 『全州市史』.
-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제53권, 동학학회, 243~267쪽.
- 鄭昌烈, 1985, 「古阜民亂의 研究」(上), 『韓國史研究』 제48·49호, 한국사연구회, 117~144쪽.
- 조규태, 2014, 「동학농민운동 이후 남원 출신 동학인과 천도교인의 활동」, 『동학학보』 제33권, 동학학회, 97~136쪽.
- 조규태, 2015, 「『동학사』의 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과 분화에 대한 서술」, 『동학학보』 제37권, 동학학회, 327~360쪽.
- 趙景達, 1982,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19권.
- 한국역사연구회, 1991~2003, 『1894년 농민전쟁 연구』 1~5, 역사비평사.

## 〈기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www.1894.or.kr](http://www.1894.or.kr))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tents and Historiographical Value of *Yi Pung-am-gong Silhaengnok* (李豐菴公實行錄)

Choe, Jin-Wook\*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tents of *Yi Pung-am-gong Silhaengnok* (李豐菴公實行錄), a recently discovered historical record, and examines its value as a historical source. The *Silhaengnok* was written by Yi Byeong-chun (李炳春), who documented his experiences, faith, and historical practice during and around the tim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a deeply personal narrative form. The text includes Yi's personal growth, his initiation into Donghak, participation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is period in hiding after 1894, encounters with Choe Si-hyeong (Haewol) and later Son Byeong-hui (Uiam), his role in the 1894-95 Reform Movement (Gapjin Gaehwa Movement), and his activities during the transition to Cheondogyo.

Although Yi Byeong-chun was not among the highest-ranking leaders of Donghak, he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within the movement. Few figures of similar standing participated continuously across such a wide range of historical events—from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the Reform Movement and the conversion to Cheondogyo, to the planning and participation in the March 1st Movement and support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cause Yi's life unfolded amid the

---

\* Asiatic Research Ins. Korea University, Research Fellow

turbulence of Korea's modern transformation, *Yi Pung-am-gong Silhaengnok* serves as a valuable source that reflects the continuity of modern Korean history.

Chapter 1 of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tents of *Yi Pung-am-gong Silhaengnok* in six sections with subheadings, while Chapter 2 analyzes its historiographical value in three aspects: (1) contents not found in other sources, (2) contents that supplement existing materials, and (3) contents that provide a biographical narrative of the author.

**Key word :** Yi Byeong-chun, Yi Pung-am gong silhaengnok, Donghak Peasant Revolution, Choe Si-hyeong (Haewol), Son Byeong-hui (Uiam), Cheondogyo, Gabo Reform Movement, Modern Korean History

---

▣ 일반논문 ▣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기억들  
고석규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지수걸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원도연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접주 허선의 가계검토  
나하나

---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기억들

고석규\*

### 〈목 차〉

머리말

I.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原型)

II. 성리학의 의리론과 ‘혁명’ 논리

III.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의리론

IV. 현대사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기억’ 다투기

맺음말

### 〈국문초록〉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건립 추이를 보면, 지난 한 세기를 지나면서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전에는 반농민군 기념물 일색이던 것이 해방 후에는 그런 기념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1960년대~1980년대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기념물과 이에 저항하며 성장해 온 민주화운동계열의 기념물들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

1894년 당시 ‘같은’ 의리를 내세우면서도 서로 싸웠던 동학농민군과 반농민군

\* 국립목포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간의 대립이 현대사에서는 민주세력과 군사정권 간에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 기념하면서 연장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게 된 원류를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 간 차이에서 찾아보고, 이를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의리론에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1960년대~1980년대의 현대사에서 ‘민족’이란 기억을 둘러싼 대립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대한 의견을 추가하였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성리학적 의리론이 수기와 치인, 수성과 창업이란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보수·안정’과 ‘개혁’지향의 두 유형으로 정리하여 이 두 유형이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原型)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때 전자의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삼강오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도 근왕적 거의에 머물렀지만, 후자의 입장이라면 맹자의 혁명론의 영향으로 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의리론을 살펴보았다. 농민군이나 반농민군 모두 임금에 대한 충절, 즉 의리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 대적했다. 농민군은 성리학적 의리론에 기반하여 인정(仁政)의 회복을 위한 제폭구민·보국안민을 주장하였다. 이는 반관적 봉기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창업’이란 관점에 서면 그 최종 목표가 근왕적 거의를 넘어 ‘새로운 조선의 독립국’ 건설 즉 혁명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척왜양창의를 목표로 한 반외세 운동에서도 “임금이 치욕을 당하여 신하가 죽어야 하는 자리라면 충절과 의리는 하나”라며 성리학적 의리를 말하고 있다.

한편 반농민군은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동학과 농민군의 봉기를 ‘정사(正邪)’와 ‘선악’의 논리를 내세워 배척하였다. “관음과 대치한다면 대의로써 논하여 보면 결코 신하의 도리는 아니다”라 하여 농민군의 의리는 가짜 의리이며,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반농민군의 행위가 진짜 의거임을 주장하였다.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의리론은 성리학이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갈래이지만, ‘수기와 치인’, ‘수성과 창업’의 차이 같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1960~80년대 ‘민족’이란 깃발을 둘러싼 뺏기 싸움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하였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처럼 20세기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어떤 이념보다도 초월적 위치에 있었다. 민족주의 전통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배’든 ‘저항’이든 대립하는 두 세력이 똑같이 ‘민족’이란 깃발을 들었다. 그러나 역시 그 내포는 많이 달랐다. 이는 이른바 한국적 민족주의와 민중적 민족주의의 차이로 나타났다. 1960~80년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 박정희가 세운 갑오동학혁명기념탑(1963년)과 동학혁명군위령탑(1973년), 그리고 전두환이 추진한 동학혁명유적지 정비사업 등이 한편에서 추진되었고, 이에 저항하면서 민주화운동 진영에 의한 기억 활동이 다른 한편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2004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2019년) 등이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왜곡이나 축소의 시도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상전벽해라 할 만큼 달라졌다.

한편, 1894년 이후 각종 운동을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경우, 2차 봉기를 구국운동이란 점에서 을미의병과 연결시켜 서훈을 요청하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4·3사건 관련 법률과 같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에 준하는 별도의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는 제언으로 글을 맺었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민족주의, 성리학적 의리론, 기념물, 명예회복

## 머리말

전남 장흥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세운 「갑오동란수성장졸순절비」(1899년)·「영회당」(1928년)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1992년)이 읍내 남산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서로 대립하는 이 두 종류의 기념물은 장흥 수성군의 후손들과 농민군의 후손들 간에 긴 세월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역 신문의 연재물인 “전라도 역사이야기” 중 「장흥부사 박헌양(朴憲陽)의 장렬한 죽음과 영회당(永懷堂)」<sup>1)</sup>이란 기사를 보면, 지금은 “양측 모두가 충(忠)과 의(義) 지키려 했던 시대의 희생자/원한 벗어버리고 서로의 아픔과 한(恨) 보듬어줘야” 한다고 하여 양측 모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1) 『남도일보』, 2019.01.06.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즉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탐관오리가 나뻐지, 국록을 먹는 관리가 목숨을 바쳐 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지난 100년 세월 동안 동학농민군을 역도라 몰아붙이고, 그 죽음을 폄훼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듯이, 수성군들 역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장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수성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폄훼하거나 반시대적 인물로 평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외세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던 변혁시대의 희생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립을 넘어 화해를 말하고 있다. 그것도 수성군의 열세를 인정하면서 ….. 이는 한 세기를 지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왼쪽)과 「영회당(永懷堂)」(오른쪽)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은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대규모 격전이었던 장흥 석대들 전투를 기념하여 1992년에 건립하였다. 한편 이 전투에서 전사한 장흥부사 박현양 등 수성군 장졸 96명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 「영회당」과 「갑오동학란수성장졸순절비」와 비각이 기념탑 뒤편 남산의 반대편 산록에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는 여타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건립의 추이에도 그런 사연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 추이를 보면, 사건 직후와 해방 전까지는

‘반농민군’ 기념물 일색이었다. 유림·보부상·전몰장병 후손들이 주체가 되어 관군의 충절과 유교적 지식인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기념물들이 전부였다. 반면에 해방 후에는 거꾸로 이들이 주도한 기념물은 정말 신기하게 단 하나도 없다. 이를 두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중세적인 군왕사상이나 유교적 충의론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한다.<sup>2)</sup>

해방 후 첫 기념물은 1954년 11월 25일, 천안 전씨 문중에서 전봉준 고택 근처에 세운 전봉준 단비[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公瑋準之壇]였다. 단비 이름은 김상기 박사가 지었다.<sup>3)</sup>

해방 후에 특기할 만한 변화는 국가권력에 의한 기념물들이었다. 그 때문에 5·16과 12·12 군사쿠데타 세력들이 세운 파행적 기념물들과 이에 저항하며 성장해 온 민주화운동계열이 세운 기념물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었다. 1894년 당시 ‘같은’ 의리를 내세우면서도 서로 싸웠던 동학농민군과 반농민군 간의 대립이 현대사에도 민주세력과 군사정권 간에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 기념하면서 연장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게 된 원류를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에서 찾아보았고, 이를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의리론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1960년대~1980년대의 현대사에서 ‘민족’이란 기억을 둘러싼 대립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참여자 명예회복과 관련한 서훈에 대한 의견을 추가하였다.

2) 기념물 건립의 추이에 대해서는 박명규, 1997.06.,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통권 51에 상세하다.

3) 이 단비 기념물뿐만 아니라 각종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이병규, 2015.06.,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 『역사연구』 28 참조.

## I.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原型)

성리학은 가장 보수적이고 체제 유지적인 사상이다. 중국에서도 성리학은 관학이나 개인의 수양학으로는 계속 살아남았지만, 혁명적 이념으로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선은 그 ‘혁명’이 실현된 나라였다. 조선의 건국 주도 세력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이른바 역성혁명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조선은 일국과 세계사의 관점에서 모두 독특한 나라이다”라고 한다.<sup>4)</sup>

그리고 더 나아가 성리학으로 기획된 국가를 세웠다. 학자지배, 즉 성리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사대부(사+대부 : 정치하는 학자)의 지배가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조선이었다. 세계에서 그 유래가 드물게 선비, 유자(儒者)들의 문치주의가 지속되었으며, 그러한 체제로 500년 왕조를 지켰다.

그 토대는 ‘왕조의 설계자’로 불리는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세웠다. 정도전의 저술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1394, 태조 3)과 『경제문감(經濟文鑑)』(1395, 태조 4), 그리고 『경제문감별집(經濟文鑑別集)』(1397, 태조 6) 등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실천 목록을 그려낸 ‘왕조의 설계도’였다고 한다.<sup>5)</sup>

여기서 설계도의 구체적 모습까지 소개할 여유는 없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설계도의 목표는 ‘왕권의 강화’를 제도적 차원에서 관철시키고, 이를 통해서 권세가의 발호를 억제하고 대간[간관·언관]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의 활성화를 달성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군신공치]를 통한

---

4) 辛正根, 2023.12., 「鄭道傳의 ‘立法’에 의한 ‘牽制와 均衡’의 정치사상」, 『大東文化研究』 124.

5) 송재혁, 2016.11., 「정도전의 군주론 『경제문감별집』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2(2) ; 2020.08/, 「정도전(鄭道傳)의 국가론-『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원(元) 제국의 유산-」, 『한국사상사학』 65, 159쪽 ; 2024.02., 「정도전 저작의 군신공치론적 구조: 『진서산독서기』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공자학』 52, 162쪽.

위민(爲民)과 지치(至治)를 실현하는 ‘재상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이는 재상 중심의 ‘왕도정치’였고, 신권 우위의 국가였다.<sup>6)</sup>

성리학으로 기획된 신왕조 탄생의 결과, 성리학은 모든 정치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그 누구도 성리학의 인식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에서 성리학은 습속으로서의 문화(habit of mind), 조선의 아비투스<sup>7)</sup>를 형성했다. 이렇게 주자일존주의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문화지형을 만들었다.

신왕조 개창을 전후한 시기에 성리학은 ①구체제의 온존을 위한 이론(보수적 정치인식)이 되기도 했고, ②혁신세력에 의해 체제변혁의 이론(역성혁명을 이루려는 개혁지향적 정치인식)이 되기도 했다. 또 한편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후에는 ③성리학적 질서의 제도화를 위한 이론(안정지향적 정치인식)이 되었다.<sup>8)</sup> 이중 ①과 ③은 ‘창업’ 전과 후의 인식으로 시점은 다르지만 지향은 같다. 따라서 ①과 ③은 ‘보수·안정’ 지향으로 묶어지고, ②는 ‘개혁’ 지향으로 달랐다. 따라서 성리학의 경향은 각각 ‘보수·안정’과 ‘개혁’ 지향의 두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두 유형이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原型)을 이룬다.

같은 성리학이면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중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주자의 성리학에서 ‘수기’와 ‘치인’은 자연스럽게 연속되어

---

6) 박흥규·방상근, 2008.02., 「정도전(鄭道傳)의 "재상주의론" 재검토」, 『대한정치학회보』 15(3), 22쪽. 조항덕, 2012.05.,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개혁사상(改革思想)」, 『동양철학연구』 70, 3쪽.

7) 김호, 2024.06., 「『비교사의 모험』, 유학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만들었는가?-와타나베 히로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을 읽고」, 『歷史學報』 262, 248쪽.

8) 이를 전형적으로 이색의 도덕지향적 정치인식, 정도전의 개혁지향적 정치인식, 권근의 안정지향적 정치인식으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최연식, 1997.12., 「麗末鮮初의 政治認識과 體制改革의 方向設定-李穡, 鄭道傳, 權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7 참조.

있다. 그렇더라도 수기와 치인 중에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치인식은 확연히 달랐다. 이때 수기를 강조할 경우에는 도덕적 실천과 보편질서에서의 순응을 강조하는 보수적 정치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치인을 강조할 경우에는 현실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정치사회에 대한 적극적 개혁을 지향하는 혁신적 정치인식이 주조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sup>9)</sup>

정도전은 치인론에 서서 수시변통(隨時變通)의 논리로 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즉 창업(創業)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였다. 성리학을 체제개혁의 이념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수기론적 정치인식은 안정지향적인 수성(守成)의 논리로 수렴되었다. 권근(權近, 1352~1409)의 말을 들어보자.

“왕자(王者)가 거의하여 창업할 때에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상을 주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죄를 주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업이 이미 안정되어 수성할 때에는 반드시 절의(節義)를 다한 전대(前代)의 신하에게 상을 주어야 하니, 죽은 자에게는 [벼슬을] 추증하고 살아 있는 자는 등용하여 표창을 두터이 하여 후세 신하들의 절의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금의 통의(通義)입니다.”<sup>10)</sup>

즉 권근은 창업과 수성의 ‘때’를 구분하고, 그 ‘때’에 따라 각각의 ‘의리’가 다름을 말하고 있다. 절의의 표창 기준이 창업 때와 수성 때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수성 때에는 “절의를 다한 전대의 신하”에게도 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①과 ③은 서로 통한다.

여말선초 유자(儒者)들은 정치적 목적과 체제 변동에 대한 전망의 차

9) 최연식, 같은 논문, 112쪽.

10) 『陽村集』 卷31, 「壽昌宮災上書」, “王者舉義創業之時 人之附我者賞之 不附者罪之 固其宜也 及大業既定 守成之時 則必賞盡節前代之臣 亡者追贈 存者徵用 優加旌賞 以勵後世人臣之節 此古今之通義也”. 최연식, 같은 글, 134쪽.

이에 따라 성리학의 각기 다른 측면들, 즉 수기와 치인을 각각 강조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정치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인식들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경쟁하였다. 수기적 입장은 수성과 통하고, 치인적 입장은 창업과 통한다. 성리학이라는 같은 뿌리이지만, 거기서 나온 갈래들은 이렇게 서로 달랐다. 성리학 틀 내의 인식 차, 즉 ‘수기와 치인’, ‘창업과 수성’, 이런 인식의 차이가 시간을 뛰어넘어 동학농민혁명 당시 두 가지의 의리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은 아닐까?

## II. 성리학의 의리론과 ‘혁명’ 논리

### 1. 성리학의 의리론

의리(義理)라는 표현은 『예기(禮記)』 제10 「예기(禮器)」편에 나오는, “선왕이 예를 세운 것에는 근본이 있고 표현방식이 있었다. 충신(忠信)은 예의 근본이고, 의리(義理)는 예의 표현 방식이다[忠信 禮之本也 義理 禮之文也]”에 보인다. 송대 유학자들은 ‘의리’라는 개념에 특히 주목하였다. 도학(道學)을 내세우는 유학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도학이 성리학이었다. 어떤 유학보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나 근거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관심을 가졌다. 성리학 자체가 ‘성명의리지학(性命義理之學)’이다. 그만큼 의리가 중요하였다. 의리와 그 표출인 충절이 이전의 유학에서보다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유교사회는 ‘의리 사회’였다.<sup>11)</sup>

조선의 도학자들은 공자가 말한 “군주가 신하를 부릴 때는 예에 따라야 하고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는 충(忠)해야 합니다[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라는 말에서 군신간의 의리 관념을 찾았다.<sup>12)</sup> 충은 “임금을 섬김

11) 임종진, 2015.12., 「동양적 의리론의 함의」, 『사회사상과 문화』 18(4), 223쪽.

에 있어 절의(節義)를 다하는 것”이었다. 다만, 국왕이라 할지라도 주자학적 의리에 합치하는 한에서만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나아가 권근은

“군주를 섬기는 충과 아버지를 섬기는 효는 신하나 자식 된 자의 큰 절개이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선후 장단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효경(孝經)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효로 섬기기 때문에 군주에게 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sup>13)</sup>

라 하여 군신관계를 부자관계에서 가져와, 부자 관계가 효행(孝行)을 근본으로 하듯이 군신관계는 충성(忠誠)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다. 충신을 말하기 전에 모든 행위의 근본인 효를 소학적 실천을 통해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sup>14)</sup> 이렇듯 충절과 인륜은 한몸이었고 그것들은 의리로부터 나왔다.

충절 즉 절의를 인륜과 연관 짓는 것은 나세찬(羅世縑, 1498~1551)의 「숭절의론(崇節義論)」에 잘 보인다.

“대저 사람이 사람이 되는 이유는 인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륜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다섯 가지 뒤흔침이 천하의 인심(人心)에서 밝지 않은 이유는 절의의 가르침이 천하의 인심에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의는 사람의 윤리를 부지하고 사람의 기강을 세우는 것으로서, 천하로 하여금 뒤흔쳐서 위난(危亂)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만, 천하가 혹여 위난에 이른 이후에 절의라는 이름이 비로소 천하에 드러나기도 합니다.”<sup>15)</sup>

12) 『論語』, 「八佾」.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13) 『陽村集』 卷25, 「辭免起復火山君箋」. “事君之忠, 事親之孝, 臣子大節, 不可偏廢而有先後長短之異. 故孝經曰 事親孝, 故忠可移於君.”

14) 김경호, 2024.11.22., 「파란과 역설: 조선시대 호남의 충절 논의-1515년 박상과 김경의 구언 상소와 관련하여」, 『2024 호남사학회 동계학술대회 ‘호남정신과 호남의병’ 자료집』

나세찬은 이 글로 정시(庭試)의 초시(初試)에서 장원을 하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의리론의 모범답안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두 차례의 장원급제로 문명(文名)을 떨쳤다.

여기서 그는 절의를 인륜과 연관 지어 논리를 전개하였다. 즉 절의의 가르침이 천하의 인심에 밝을 때, 인륜도 밝을 것이라고 하였다. 절의가 윤리 즉 인륜을 지탱하고 기강을 세우므로, 그것은 세상이 혼란한 지경이 되지 않게 만드는 예방의 효용이 있다고 하였다.<sup>16)</sup>

그런 조선의 의리론에서 맨 윗자리에는 군주=군사(君師)가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군주를 정점으로 하지 않는 정치체제는 없었다. 권한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총재 역시 군주의 밑에서 자신의 직임을 담당하는 신하일 뿐이었다. 따라서 인륜에 기반한 의리론에서는 결코 왕을 부정하지 못했다.

거기에 덧붙여 군주를 군사(君師)·선사(先師)의 위치에 둔다는 것은 정령권(政令權)을 가진 정치적 수장임과 동시에 교화와 사문(斯文)을 주관하는 유종(儒宗)의 지위도 겸하는 존재임을 뜻하였다. 이렇게 정령과 교화를 군주 한 몸에 구현하는 일은 공사윤리의 최고 범주인 충과 효를 일체화하는 것과 표리관계를 이루었다.<sup>17)</sup> 영조도 정조도, 그리고 고종도 ‘군사(君師)’를 자처했다.<sup>18)</sup>

개화 세력이 끝까지 극복하지 못한 장애물은 근왕주의 세력의 공격이나 외국의 간섭이 아니라 민의 심성에 깊이 각인된 국왕에 대한 전근

---

15) 羅世纘, 『松齋遺稿』 「崇節義論」 “夫人之所以爲人者, 以其有人倫也, 人倫有五, 五者之常, 所以不明於天下之人心者, 由節義之教不明於天下之人心也. 節義者, 所以扶人倫立人紀, 而使天下常不至於危亂. 天下或至於危亂, 然後節義之名, 始著於天下.”

16) 강민구, 2023.12., 「조선 節義論의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97, 15쪽.

17) 김준석, 1999.03.30., 「18세기 탕평론의 전개와 왕권」,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조선시대사학회, 국학자료원, 281쪽.

18) 김종학, 2017.12., 「국=가와 국/가-왕권을 둘러싼 정치투쟁과 대한제국-」, 『개념과 소통』 20, 11쪽.

대적 충성심과 왕권에 대한 동경(憧憬)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sup>19)</sup> 이처럼 충의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도 근왕적 ‘거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 유가(儒家)의 ‘혁명’ 논리

그렇다고 끝내 거기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이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 유가(儒家)의 ‘혁명’ 논리였다.

동학농민혁명에 ‘혁명’이란 말이 붙은 데는 그들의 지향이 단지 ‘근왕적 거의’에만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걸 가능케 해주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점에 대해 살펴보자.

“왕정(王政)이 폐하면 백성이 곤궁해지고, 백성이 곤궁해지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거둬들이는 것이 번잡해지고, 거둬들이는 것이 번잡해지면 인심(人心)이 이반하고, 인심이 이반하면 천명(天命)이 떠난다.”<sup>20)</sup>

이는 다산 정약용의 말이다. 인심, 바로 민심이 이반하면 천명은 떠난다는 것이다. 천명과 민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혁명의 명분을 찾는다.<sup>21)</sup>

정도전의 글에도 나온다. 즉

“인군의 지위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하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은 지극히 많다.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

---

19) 김종학, 같은 논문, 36쪽.

20) 『여유당전서』 「문집」 권10, 「原政」, “王政廢而百姓困, 百姓困而國貧, 國貧而賦斂煩, 賦斂煩而人心離, 人心離而天命去.”

21) 김태희, 2017,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 181, 79쪽.

하면, 아마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기게 되리라. 하민(下民)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는 것이다.”<sup>22)</sup>

『순자』에는 “군주란 배이고 백성이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그 물은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sup>23)</sup>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魯)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자기는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부인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위험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가르쳐달라고 하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듣건대,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은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군주께서 이를 통해 위험하다 생각하신다면 위험하다는 감정이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up>24)</sup>라 하는 기록에서 연원했다고도 한다.

조선에서는 숙종이 1675년(동 1)에 ‘어제주수도설(御製舟水圖說)’을 써서 대신(大臣)에게 내보이며 말하기를, “군주는 배와 같고 신하는 물과 같다. 물이 고요한 연후에 배가 안정되고 신하가 현명한 연후에 군주가 편안하다. 경(卿) 등은 마땅히 이 도(圖)의 뜻을 본받아 보필(輔弼)의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sup>25)</sup>라 하였다. 『경종어제주수설(景宗御製舟水說)』도 전해진다.

또 정조는 남한산성 행행(行幸) 길에 광나루에 이르러 용주(龍舟)를 타고는 하교하기를, “임금은 이 배와 같고 백성은 저 물과 같은 것이다. 내가 지금 배를 타고 백성을 대하니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든다. 옛날에

22) 『三峯集』 권13, 『朝鮮經國典』 상, 「正寶位」.

23) 『순자집해』(2) 王制篇 第九9-41 “君者는 舟也요 庶人者는 水也라 水則載舟하고 水則覆舟”

24) 『순자집해』(7) 哀公篇 第三十一.

25) 『숙종실록』 65권, 숙종 대왕 묘지문[誌文] “王於初, 元作《舟水圖說》, 出示大臣曰: ‘君猶舟, 臣猶水也. 水靜然後舟安, 臣賢然後君安’. 卿等宜體此圖之意, 以盡輔弼之道. 取比精切, 辭理暢達”

성조께서 주수도(舟水圖)를 그리시고 사신(詞臣)을 불러 명(銘)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역시 그러한 뜻에서였을 것이다”라 하였다.<sup>26)</sup>

주(舟)는 모두 군주를 가리키지만, 수(水)가 숙종에게는 신하였고, 정조에게는 민, 백성이었다. 왕이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에서 한 말로 비유 대상은 달라도 의미상 차이는 없다.

혁명론은 맹자의 ‘탕무방벌론(湯武放伐論)’이 대표적이다. 방(放)은 쫓아낸다는 뜻이고 벌(伐)은 벤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방벌은 악덕한 군주를 쫓아내 죽인다는 뜻이다. 포악한 군주를 ‘정벌’함으로써 천명을 구현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탕무방벌은 ‘반란’이지만 ‘혁명’이 된다.

이는 맹자의 「양혜왕」 편에 실려 있다.

“제선왕이 물었다. “탕(湯)이 결(桀)을 방(放)하였고, 무왕(武王)이 주(紂)를 벌(伐)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전해오는 문헌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가 자신이 군주를 시해해도 괜찮은 겁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을 해치는 자를 도적이라 부르고, 도의를 해치는 자를 잔악하다고 말합니다. 잔악하고 도적질하는 이런 사람을 한낱 필부[一夫]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낱 필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시군(弑君)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sup>27)</sup>

인의를 해치는 자는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으니 군주가 될 수 없다. 그런 자가 주이니 주를 죽이는 것은 ‘시군’이 아니라고 하여, 인의를 해치는 악덕한 군주는 죽여도 좋다는 뜻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맹자의 이 말은 ‘혁명’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맹자는 결과 주가 천하를 잃은 이유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임을 첫손에 꼽고 있다. “민(民)이 가장 소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그

---

26) 『정조실록』 1권, 정조 대왕 행장(行狀) “至廣津, 御龍舟, 敎曰: 君猶舟也, 民猶水也。予今御舟臨民, 益切兢惕。昔聖祖作舟水圖, 命詞臣撰銘, 此意也”

27) 『맹자집주』 「梁惠王章句」 하.

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 민의 신뢰를 얻어서 그렇게 천자가 된다”<sup>28)</sup> 고 하였다. 맹자의 「이루(離婁)」 상편을 보자.

“결과 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민(民)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민을 잃은 것은 그들의 심(心)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데 도가 있는데, 그 민을 얻으면 이는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 백성들을 얻는데 도가 있는데, 그들의 심을 얻으면 이는 그 민을 얻는 것이다. 그들의 심을 얻는데 도가 있는데, 바라는 바를 모아서 그들에게 주고, 싫어하는 바를 그들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sup>29)</sup>

라고 하였다. 이것이 유가의 민본사상이 된다.

맹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임금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 간(諫)하고, 반복해서 간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의 자리를 바꿉니다”<sup>30)</sup> 라 하여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벼슬을 그만두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임금의 자리를 바꾸라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혁명을 말하고 있다.

1870년 4월 지경연사 심승택(沈承澤, 1811~ ?)이 “외간의 어린아이들은 15세가 되기 전에 『맹자』를 모두 읽는데, 고종은 강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마치지 못했다”며 분발을 촉구한 데에서<sup>31)</sup> 알 수 있듯이 『맹자』는 조선의 성리학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이었다. 그런 점에서 맹자의 방벌론은 널리 공유되고 있던 상식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었지만 맹자의 관점에 서면 ‘혁명’이 된다.

---

28) 『맹자집주』 「盡心章句」 하.

29) 『맹자집주』 「離婁章句」 상.

30) 『맹자집주』 「萬章章句」 하.

31)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4월 23일.

### Ⅲ.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의리론

이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나타난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의리론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핵심은 농민군이나 반농민군 모두 임금에 대한 충절, 즉 의리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뉘어 대적했다는 점이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순으로 살펴보자.<sup>32)</sup>

#### 1. 농민군의 의리론 ① : 인정(仁政)의 회복을 위한 제폭구민·보국안민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戊辰起包) 포고문<sup>33)</sup>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의 관계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곧으며,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행한 다음에야 가정과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 하여 강상윤리인 군신·부자 관계의 충효에 기반한 성리학적 의리론을 전제한 다음,

“오늘날 신하 된 자는 보국(輔國)은 생각지 아니하고, 녹봉과 벼슬자리만을 도둑질하며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첨하는 말을 일삼아 충성스럽게

---

32) 이 부분에 대한 서술에는 김현주, 2020.01.,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 담론』 93)이 크게 도움 되었다. 홍동현 또한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선점함으로써 인해 자신들의 봉기를 ‘義’의 실천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홍동현, 2013, 「1894년 ‘동도’의 농민전쟁 참여와 그 성격」,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190쪽 참조.

33) 『隨錄』, 무장현에서 동학인포고문을 베껴 올린다 [茂長縣謄上東學人布告文]

간하는 선비를 일컬어 ‘요언(妖言)’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일컬어 ‘비도(匪徒)’라고 한다. 안으로는 보국의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침략하는 관리가 많아져, 백성들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더 변해갔다. … 공경 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처한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살찌우고 집안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을 꾀하고 있다. … 수령과 방백의 탐학함이 참으로 그러하니 어찌 백성이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다치게 되면 곧 나라는 망한다. …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 녹봉과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옳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유민(遺民)이지만, … 국가가 위험에 처하여 망하게 된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국이 마음을 같이 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 보국안민으로써 죽고 살기를 맹세하였으니”

라고 하여 “공경 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신하들의 탐학으로 인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다치게 하여 국가가 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민본이념이 붕괴되고 인정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되살려 ‘보국안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태평세월을 함께 빌고 모두 임금의 덕화를 기린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그들의 목표가 인정이 행해지는 유교적 이상사회의 회복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34)</sup>

같은 해 4월 17일 창의소 명의로 전주에 보낸 통문에서도, “이번 우리들의 의는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서민을 편안케 하여 부자의 천륜과 군신의 대의를 완전히 밝히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 “위로는 국태공을 모시어 부자의 윤리와 군신의 도리를 온전하게 하고, 아래

34) 배항섭, 2017.03.01., 「동학농민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쟁점 한국사-근대편』, 창비, 34쪽.

로는 백성을 안정시켜 종묘사직을 온전히 보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 하였다.<sup>35)</sup>

이처럼 동학농민군은 ‘군신지의(君臣之義)’를 실천하기 위해 의로운  
거사를 도모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동학농민군은 타락한 기존의  
신하 대신 그들이 ‘군신지의’의 실천 주체가 되어, 위로는 종사를 보전  
하고 아래로는 서민을 편안하게 하고자, 제폭구민·보국안민을 위해 의  
로운 것만을 들었다고 하여 봉기 명분을 삼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통문이나 격문은 그 외에도 많다. 모두 반봉건, 그  
중에서도 반관(反官)적 봉기의 명분을 내세운 것들이다. 반관이란 국왕  
의 덕정체제(德政體制)를 대행하는 수령이 덕정에 위배되는 통치를 하  
였을 때, 그 수령을 부정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렇다고 국왕권을 부정하  
는 것은 아니었다. 1889년(고종 26) 정선(旌善) 민란에서 “우리 임금의  
명을 받드는 수령이 아니다[非吾君之命吏]”<sup>36)</sup>라는 식으로 수령의 교체  
를 요구하는 경우가 ‘반관운동’의 대표적인 예이다.<sup>37)</sup>

강진의 경우, 강진 병영의 병사 서병무가 장흥 동학교도들이 도소를  
차리고 활동하고 있을 때 이를 꾸짖는 포고문을 만들어 보냈다. 이에  
농민군이 답하기를 “우리는 의기(義氣)에서 일어났으며 탐오한 관리들  
을 징려(懲勵)하고자 한다”<sup>38)</sup>라 하여 탐오한 관리를 징려하고자 한다는  
데 방점을 두며 이러한 반관적 봉기는 ‘불의’가 아닌 ‘의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정의 대상은 “공경 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이었다. 그 정

35) 『梧下記聞』, 「首筆」, 甲午 四月十九日, 4월 19일 함평에서 초토사 홍계훈에게 보낸  
통문

36) 『韓國地方史資料叢書』 17, 「慈仁縣日錄」 464쪽. “諸民輩皆云 今無印符 非吾君之命  
吏”; 金洋植, 1990, 「高宗朝(1876~1893) 民亂研究」,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史  
學論叢』, 693쪽.

37) 정창열, 1984, 「조선후기 농민봉기의 정치의식」, 『韓國人의 生活意識과 民衆藝術』,  
59쪽.

38) 『日史』 갑오년 6월 22일. 박찬승, 1995.11., 「1894년 호남 남부지방의 농민전  
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역사비평사, 357쪽 참조.

점에 있는 군주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충절 지향의 성리학적 의리론 내에서는 국왕을 부정하거나 지배체제 그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기존 체제의 유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맹자의 혁명론이나 주수설은 창업적 의리론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바뀔 수도 있었다. 근왕적 거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문이라고는 하지만 김개남이 남원에 나라를 세우려 했다거나, 전봉준이 “민심을 잘 아는 몇 사람의 명망가를 선출하여 임금을 보좌함으로써 안민의 정치를 이룩하고자 했다”라는 진술에서 맹자의 탕무방벌에 명분을 둔 혁명까지도 가능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sup>39)</sup>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그 동력이 양반의 압제와 관리의 탐학에 격동되어 나온 것인즉 평민의 혁명이었다. … 외인의 간섭이 없게 하면서 다시 유능한 자가 그들 사이에 나왔다면 그 파괴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조선의 독립국(一新鮮之獨立國)’을 세우는 것도 비로소 불가함이 아니었다. 강포한 이웃들이 이를 틈 타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독립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마침내 그들로 인해 무너지고 마니 이 어찌 우리 백성들이 일으킨 혁명의 본뜻이겠는가?”<sup>40)</sup>

“하나의 새로운 조선의 독립국(一新鮮之獨立國)을 세우는 것”, 박은식의 이 말에는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점에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의리론은 “혁명을 지향하는 치인적, 또는 창업적 의리론”으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고비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39) 『도쿄아사히신문』 1895년 3월 6일자 「동학 수령과 합의정치」 등 참조.

40) 朴殷植, 1920,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編 緒言 「第3章 甲午東學黨之大風雲」, 7쪽.

## 2. 농민군의 의리론 ② : 반외세 - 척왜양창의

1893년 2월 10일 동학창의유생(東學倡義儒生) 이름으로 보은관아에 다음과 같은 통고문을 보냈다.

“일이 생겨 재앙과 어지러운 때에 살면서 충성과 효도를 다하다가 죽는 것은 바로 신하와 자식으로서 어려우면서도 쉬우며 쉽고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죽기를 즐겁게 여기는 사람은 충성과 효도의 절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지금 왜(倭)와 서양이라는 적이 마음속에 들어와 큰 혼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나라의 도읍지를 살펴보면 마침내 오랑캐들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 적희들 수만 명은 함께 죽기를 맹세하여 왜와 서양을 제거하고 격파하여 큰 은혜에 보답하는 의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각하께서는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충의정신이 있는 선비와 관리를 모집하여 함께 국가의 소원을 돕도록 하십시오.”<sup>41)</sup>

척왜양을 목표로 한 ‘창의’임을 내세우는데, 여전히 충성과 효도 같은 강상윤리에 기반한 성리학적 의리를 말하고 있다.

이에 보은군수가 동학인들이 주둔한 진영에 가서 “이번 이 도회소(都會所)를 창의(倡義)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고 하여 해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창의한 것은 결코 다른 이유는 없고, 오로지 왜와 서양을 배척하기 위한 의리이니, 비록 순영(巡營)의 칙령과 주관(主官, 보은수령)의 설득이 있어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학은 처음부터 사술(邪術)이 아니며, 설령 사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금의 치욕을 당하여 신하가 죽어야 하는 자리라면 충절과 의리는 하나이니, 각지의 유생들이 같은 마

---

41) 『聚語』, 보은 관아에 통고 [報恩官衙 通告], 「1893년(癸巳) 3월 11일 동학인이 삼문 밖에 방문을 세움」

음과 뜻으로 죽기를 맹세하고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sup>42)</sup>

라고 대답하였다. ‘척왜양창의’를 내세웠고, “임금이 치욕을 당하여 신하가 죽어야 하는 자리라면 충절과 의리는 하나”라는 말로 그것이 의기를 말했다.

1893년 3월 26일 장내리에서 양호도어사(兩湖都御使) 어윤중(魚允中)에게 보낸 글에서도

“삼가 생각하건대 저희들은 선대 왕조부터 교화되고 길러진 백성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허물없는 창생이 도를 닦아 삼강오륜을 분명하게 알았고, 마음속에는 중화와 오랑캐를 분별하였기에 왜와 서양이 짐승과 같다는 것은 비록 작은 어린아이라도 더불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 그러한즉, 창의를 주창하여 왜와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기에 한편으로는 잡아 가두고 한편으로는 제거하려고 하십니까? … 또한 왜와 서양이 우리 임금을 협박함이 끝이 없는데도 조정에서는 한 사람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 임금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의리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세상의 일은 끝이 없고 의리를 보기는 어려운데, 단지 강하고 약한 형세로는 공격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천하의 오랜 세월에 누가 생명을 버리고 의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비록 시골의 미천한 자들이지만, 어찌 왜와 서양이 강한 도적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 왕조에서 유학을 숭상하는 교화를 입었으므로 모두 말하기를 “왜와 서양을 공격하다가 죽는다면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현명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국가가 축하해야 할 일이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라 하여 ‘척왜양’을 위한 ‘창의’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데김[題辭]이 이채롭다. 즉

---

42) 『聚語』, 3월 22일 탐지하여 23일 보고함 [二十二日探知 二十三日發報]

“너희 무리가 모인 뜻이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있다고 하였는데, 온 나라가 함께 할 의리이건만 어찌 스스로 하나의 깃발을 따로 세우는가?”<sup>43)</sup>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 온 나라가 함께 할 의리”라는 데서 양측의 의리론이 만난다. 관군과 농민군은 ‘척왜양’에서는 의리를 같이 하였다.

1894년 3월 말경 백산에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하고 선포한 4대 명의(名義)에서도 “왜놈을 몰아내고[양인과 왜인을 내쫓아]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逐滅倭夷[洋倭] 澄清聖道)”라 하여 반외세까지 포함한 혁명적 구호를 담고 있다.<sup>44)</sup>

또 5월 21일자 순창군수 이성렬(李聖烈)이 혜당[惠堂 閔泳駿]에게 보낸 서한에도

“대체로 저들은 부적과 참서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일당을 만들고, 왜병과 양인을 배척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수령들이 탐학을 한다고 허물을 잡고 있으니 이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연고가 아닙니다.”

라 하여 농민군은 1차 봉기에서도 줄곧 ‘척왜양’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이렇게 농민군이 내세운 ‘척왜양’에서도 그 목표는 ‘근왕’이었다. 7월 17일 전봉준이 무주집강소에 보낸 통문에도

“방금 외적이 대궐을 침범하였으며, 임금께서 옥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

43) 『聚語』, 보고문의 초고 문건 [文狀草件], 동학인의 글 [東學人文]

44) 『大韓季年史』「甲午年夏四月」;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一.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ノ件 一」 (1) 全羅監司書目大概, (1) 全羅監司書目大概 참조.

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一.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一」 「(13) 5월 18일 全羅道 全州에서 歸京한 者의 直話 / 5월 21일자 별지 淳昌倅 李聖烈이 혜당에게 보낸 서한」 참조.

마땅히 죽을 각오로 일제히 나아가라. … 1894년 7월 17일 영하(營下)에서. 좌우도소(桴) 도서(圖署)를 새겼음. 좌우도(左右道) 도집강(都執綱)”<sup>46)</sup>

라 하였다. 이 통문에도 일본군이 대궐을 침범하여 군주가 욕을 당했다는 ‘근왕의식’ 즉 ‘유교적 의리론’이 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10월 15일 공주창의소(公州倡義所) 의병장 이유상(李裕尙)이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올린 글을 보면,

“일본군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임진년[1592년, 임진왜란] 이래 누군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 만약 외로운 고군(孤軍)을 저항하는 대군이라고 하고 의병(義兵)을 비도(匪徒)라고 한다면, 청인(淸人)을 축출하고 일병(日兵)을 맞이하는 것은 어떠한 의리에 해당시키겠습니까? … 만약 의병과 서로 다투다면 그 연사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며 또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sup>47)</sup>

라 하여 스스로를 ‘공주창의소 의병장’이라 칭하여 의병임을 자임하였다. 의병을 비도(匪徒)라 하는 데 항의하였고, “청인(淸人)을 축출하고 일병(日兵)을 맞이하는 것은 어떠한 의리에 해당시키겠습니까?”라 하여 특히 척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말 의병들은 반일 의병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임진 의병부터 이어지는 호남지방의 역사 전통과 연결시키면서 당위성을 내세웠는데, 이 글을 보면, 동학농민군의 의거 논리가 한말 의병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10월 16일 전봉준은 양호(兩湖) 창의영수(倡義領袖)란 이름으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글을 올렸다.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다.

---

46) 『隨錄』 「茂朱 執綱所」(7월 17일)

47)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公州倡義所義兵將李裕尙上書」

“나라에 근심거리가 있는 이때에 겉으로는 꾸미고 안으로는 미혹시키는 자들을 어찌 감히 하늘의 태양 아래에서 한순간이라도 목숨이 붙어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구들이 트집을 잡아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임금을 협박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을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임진년[1592년, 임진왜란]의 병화 때, 능침을 파괴하고 대궐과 종묘를 불태우고 임금을 옥보이고 백성들을 죽인 것은 신민들이 함께 분노하며 천고에 잊을 수 없는 한입니다. 초야에 사는 필부와 어리석은 동자들도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대로 벼슬을 살며 나라에 공을 세운 합하께서는 평민이나 필부보다 그 감정이 배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정 대신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하려는 생각에 위로는 임금을 위협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동쪽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남쪽의 백성들에게 원한을 샀으며 친병(親兵)을 함부로 움직여서 선왕(先王)의 적자(赤子)를 해치고자 하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의도이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sup>48)</sup>

동쪽의 오랑캐[일본]와 결탁한 조정 대신들을 비판하면서 ‘척왜’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도 임진 의병을 거론하고 있으며 “의를 위해 달려가는 시생이 삼가 절하고 올림”이라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농민군의 봉기를 농민군은 모두 ‘거의’라는 명분으로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 전봉준이 경군과 영병에게 보낸 고시문에 도 그런 뜻이 잘 담겨 있다.

“금년(1894년) 10월에 간악한 개화당(開化黨)이 왜국(倭國)과 결탁하여 밤을 틈타 서울로 들어와서,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國權)을 제멋대로 농단하였다. 더구나 방백(方伯)과 수령이 모두 개화당 소속으로 백성을 보살피지 않고 즐겁게 살육(殺戮)을 자행하며 생명을 도탄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 동도(東徒)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당을 제압하

48)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全瑋準上書』.

며 조정을 태평하게 하고 사직을 보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의병이 이르는 곳마다 관군과 군교(軍校)가 의리(義理)를 생각하지 않고 나와서 접전을 하여 승패(勝敗)는 나지 않고 인명만 상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사실 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닌데, 이처럼 골육상전(骨肉相戰)을 벌이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는가? 또 공주(公州)와 한발[대전]의 일로 논하더라도, 이것이 비록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는 하나 일이 참혹하고 후회막급이다. 방금 대군[일본군]이 서울로 들어닥쳐 사방이 흉흉한데 편벽되게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이는 골육상전이라 할 만하다. 한편 생각건대, 조선 사람끼리는 도(道)는 다르지만 왜를 배척하고 중국을 배척하는 의리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두어 자 글로 의혹을 풀어 알게 하노니,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귀의(歸義)하여 서로 의논하여 함께 왜와 중국을 배척하여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합하여 큰 일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오년 11월 12일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sup>49)</sup>

조선 사람끼리 싸우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합하”자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였다. 아쉽게도 끝내 이를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제의 국권 침탈에 민족의 힘을 모아 항거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만은 분명했다.

### 3. 반농민군의 의리론 : 위정척사(衛正斥邪)와 신하의 의리

#### 1) 위정척사 : 바름과 그림의 대결로 인식

『금성정의록』은 전라도 나주의 유생 이병수(李炳壽, 1855~1941)가 나주와 장흥 일대의 동학농민혁명 사실에 대해 정리한 기록이다. 여기에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토평비명 병서」(討平碑銘 并序)가

---

49)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告示 京軍與營兵以教示民」.

수룩되어 있다. 그 글에서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시의 일에 대해 바른 사람은 한편으로는 나주를 마치 길을 잃은 배가 북두칠성을 보듯이 믿었고, 그런 사람은 한편으로는 나주를 마치 등을 찌르고 눈을 찌르듯이 꺼렸다. 바름[正]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림[邪]에 대한 꺼림이 저와 같았다. 나주의 목민관은 곧 민종렬(閔種烈) 공으로 유학을 공부하였고 나주에 이르러서는 향약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백성들로 하여금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바름을 세우고 그릇됨을 증식시킬 줄 알게 하였으니 의(義)와 충(忠)과 효(孝)를 하는 유속(遺俗)이 고을 인사들을 진작시키고 격려시키는 데서 바꾸었다.”<sup>50)</sup>

동학과 반동학을 그림과 바름으로 나누었고, 바름의 근거로 유학, 향약을 통해 의, 충, 효를 진작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형적인 위정척사론이다. 그리하여 나주 수성군에 대해서는“ ‘의기(義氣)’가 성에 가득 차고 ‘의성(義聲)’이 사람에게 전파되어” 나주 인사들도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갑오 4월경으로 추정되는 「언문선유문」에서는 동학군의 거병을 명분 없는 거병으로 규정하고 법에 의해 마땅히 죽어야 한다며 물리쳤다. 그 문구가 잔인하기 짝이 없다. 선유는커녕 반발만 더할 듯하다.

“너희 무리가 참서(讖書)를 주장하고 요괴(妖怪)를 선동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윗사람을 업신여기며 무기를 훔치고 관아의 곡식을 빼앗으며 고을을 공격하고 수령도 해치니 반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임금께서 매우 진노하시어 크게 군사를 출동시키셨으니 우리는 위령(威令)을 믿고 용맹을 가다듬어 너희의 소굴을 소탕하고 너희 무리들을 도륙하여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 슬프구나! 너희들은 이제 모두 죽을 것이다. 어이할꼬! …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

50) 『금성정의록』, 토평비명 병서[討平碑銘 并序].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sup>51)</sup>

대교김씨가(大橋金氏家) 중의 한 사람[성명 미상]이 피난 생활에서 남긴 기록인 『피난록(避亂錄)』을 보면,

“어떤 한 이단(異端)의 학설이 수년 전부터 도처에서 성행하여 이른바 동학이라고 불렸다. … 이들은 비단 패류라고 지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화적이고 나라의 역적이다. 대개 동학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학이 무슨 학이며, 또 동도(東道)라고 칭하는데 그 도가 무슨 도인가. … 학(學)은 사학(邪學)의 학(學) 자이며, 도(道)는 도적(盜賊)의 도(盜)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적절한 비유이다.”

동학의 “학(學)은 사학(邪學)의 학(學) 자이며, 도(道)는 도적(盜賊)의 도(盜) 자”라고 하여 우선 동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유교지식인들은 지역이나 학파의 차이를 떠나 동학에 비판적이었다. 동학을 사학(邪學), 사설(邪說), 이단, 요도(妖道)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학교도에 대해서도 동비 또는 적도(敵徒), 비도(匪徒), 사도(邪徒), 반적(叛賊), 화적 등 도적이거나 반역을 꾀하는 불순한 무리로 파악하고 있었다.<sup>52)</sup> 동학과 연결된 농민군의 활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부정하였다. 이처럼 동학과 농민군의 봉기를 ‘정사(正邪)’와 ‘선악’ 개념으로 대처하는 방식은 집권 관료들과 많은 양반들이 모두 같았다.<sup>53)</sup>

8월 21일에 예천의 보수집강소에서 안동부도총소(安東府都摠所)에 보낸 통문을 보면, “(동학의) 그 학(學)이 비록 무슨 학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법을 경멸하고, 양민들을 침학하는 등 갖은 폐단을 자행”한다고 언급하면서 동학의 학(學)과 도(道)를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sup>54)</sup> “도

51)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謄文宣諭榜文』, 날짜 미상.

52) 김상기, 2014.12., 「유교지식인의 동학 인식과 대응」, 『역사연구』 27, 87쪽.

53) 김현주, 앞 논문, 115쪽.

54) 『甲午斥邪錄』 「(八月)二十一日乙丑」.

(道)와 도(盜)는 본래 구별이 된다. 도(道)는 존경할 만하고 도(盜)는 죽여도 된다”라 하여 반동학군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면서 “하늘이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고 이충(彝衷), 양심과 충효의 모든 덕목을 내리셨으니 이것을 사도(斯道), 유학이라고 합니다”라 하여 유학이 사도(斯道) 즉 ‘선(善)’임을 절대화하고 있다.

당시의 국면을 ‘정사(正邪)’의 대립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의거는 특별히 ‘정의’였다. 앞서 본 『금성정의록』에도 ‘정의’란 표현을 썼으며, 광양·순천의 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하동의 민병들은 자신들에게 ‘정의진(正義陣)’이란 이름을 붙였다.<sup>55)</sup> 이처럼 그들에게 동학은 사학(邪學)이었고, 반면에 유학은 ‘사도(斯道)’ 즉 ‘군자의 길’이었다. 농민군은 도적일 뿐이었고, 반농민군은 ‘정의’였던 것이다.

농민군이 외치는 ‘척왜’도 “본래 거짓으로 의탁한 것[斥倭之名 本是假托]”이라 하여 부정하였다. 공주 유생 이단석(李丹石)의 기록을 보면,

“모두 왜적(倭賊)을 몰아내는 것으로 명분을 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화적(火賊)처럼 자행하고 협박해 빼앗고 전곡(錢穀)을 강제로 탈취하고 사적인 원한을 풀고 다른 사람의 분묘를 파헤쳤다. … 천하 만고에 천한 도적 떼였는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 병란보다도 심하였다.”<sup>56)</sup>

라 하였고, 이어서 “왜국을 배척한다는 명분이 본래 거짓으로 의탁한 것[假托]이기에 물어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여 왜적을 몰아내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것조차 가짜라고 부정한다.

5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19) 甲午十二月二十二日河東領率軍官告目. 박찬승, 앞 논문, 381쪽.

56) 『時聞記』 「甲午」.

## 2) 대의(大義) = 신하의 도리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은 경상북도 예천의 유학 반재원(潘在元, 1854~1921)이 예천군 ‘보수’집강소의 설치 배경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활동상을 일기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그의 가치관은 주자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는 주자학적인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농민군의 봉기를 “원한(怨恨)에서 시작해서 패역(悖逆)으로 마친”<sup>57)</sup> 것이라 보고 이를 적극 배척하였다.

『갑오척사록』에는 8월 29일에 선무사가 예천군에 당도하여 전시(宣示)한 효유문(曉諭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보면,

“너희들이 만약 줄곧 관읍(官邑)과 대치한다면 대의(大義)로써 논하여 보면 결코 신하의 도리는 아니다. 너희들 역시 이성(彝性)을 갖추고 있으니 틀림없이 의리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먼저 명령을 전하니,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낱알이 반환하고 즉시 해산하여 돌아가서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여 우리 성상께서 윤교(綸敎)를 내리신 극진한 뜻에 부응하라.”<sup>58)</sup>

라 하였다. 여기서 보이듯이 “관읍과 대치한다면 대의로써 논하여 보면 결코 신하의 도리는 아니다”라 하여 농민군의 의리는 의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반농민군의 시각에서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의리이기 때문에 “관읍과 대치하는” 농민군의 행위는 의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그들의 반동학 행위는 의거였다. 『거의록(學義錄)』이란 제목의 책까지 있다. 이 책은 흥덕현감 윤석(尹錫)

---

57) 『甲午斥邪錄』 「體泉郡斥邪錄序」 “始以怨讟而起終以悖逆而亂(처음에는 원망에서 발단하였으나, 종국에는 패역(悖逆)을 행하며 난리를 일으켰다)”.

58) 『甲午斥邪錄』, 「(八月)二十九日癸酉」.

의 협조 아래 홍덕의 유생 강영중(姜泳重), 박윤희(朴胤和)와 고창의 유생 강우중(姜宇重) 등이 1894년 9월 수성군을 조직하여 활동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이듬해 4월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이 입인(立人)의 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곧 인(仁)과 의(義)이다. 의는 군신 사이보다 그 덕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 무릇 국가가 환난에 처하였을 때, 그 신하된 자로서, 자신의 몸을 바쳐 분발하려는 자는 오직 의를 본받으려는 마음만을 가질 뿐, 사생과 화복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덕을 가져야 성인이 이르신 입신의 도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sup>59)</sup>

‘신하의 도리’가 곧 입인의 도였다.

예천의 반동학 집강소에서는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예천의 공도 조금의 보탬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의병이라고 불렀다. 7월 28일에는 집강기(執綱旗)를 제작하면서 그 깃발에 ‘부의 집강령(扶義執綱令)’이라고 썼는데<sup>60)</sup> 이것도 같은 맥락의 행위였다.<sup>61)</sup>

이는 나주도 마찬가지였다. 갑오년에 “그 의를 밝히고 항거하여 지키면서 대략 섬멸한 곳으로는 호서에는 홍주가 있고 호남에는 나주가 있었다”라고 할 만큼 나주는 호남에서 동학군이 유일하게 점거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래서 나주가 없었다면 호남이 없었고, 민공[민종렬]이 없었다면 나주가 없었다[無羅州無湖南 無閔公無羅州]고까지 말한다.<sup>62)</sup>

반농민군의 시각에서 보면, 농민군의 봉기는 의거(義擧)가 아닌 패거(悖擧)일 뿐이었다. 11월 3일에는 대원군의 효유문이 내려졌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믿었던’ 대원군마저도

59) 『學義錄』 「흥덕고창창의서(興德高敞倡義序)」.

60) 『甲午斥邪錄』 「體泉郡斥邪錄序」二十八日壬寅造執綱旗紅旂青脚黃字大書扶義執綱令.

61) 김헌주, 앞 논문 참조.

62) 『금성정의록』, 토평비명 병서[討平碑銘 并序].

“너희들은 생각해 보라. 이것이 과연 의거(義擧)인가 패거(悖擧)인가? ... 조정에서 이미 삼도(三道)에 사자를 파견하여 후덕한 뜻을 널리 알렸는데도 너희들은 끝내 듣지 않았으니 이는 조정과 맞서겠다는 것이다.”<sup>63)</sup>

라 하여 농민군의 봉기를 끝내 ‘패거’로 규정하면서 “너희들이 즉시 깨달아서 무기를 버리고 밭으로 돌아”갈 것으로 효유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의거가 아닌 패거로 규정하는 것은 양반유생층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특히 위정척사파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공동의 적(敵)인 일본을 눈앞에 놓고도 서로 힘을 합할 수가 없었다.

## IV. 현대사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기억’ 다투기

### 1. 1960~80년대 ‘민족’ 깃발 빼앗기<sup>64)</sup>

그렇다면 진정한 의리란 어떤 것일까? 작은 절개를 지키는 것보다 ‘백성의 진정한 이익’, 곧 ‘공리(公利)’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의리를 따르는 길이다.<sup>65)</sup> 정의나 의리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라는 지향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왕이나 지배계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이 진정 국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유방본 이데올로기의 본원이다. 따라서 의리의 지향이 어디를 향한 것이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동학농민군과 반농민군은 모두 그들의 행위를 ‘의거’라 하였다. 서로

---

63) 『甲午斥邪錄』, 「(十一月)初三日乙亥」.

64)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고석규, 2002.06., 「제3부 한국 문화의 정체성」, 『문화정체성(正體性)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참조.

65) 임종진, 앞 논문, 230쪽.

입장은 달랐지만, 그 의거의 토대는 ‘성리학’으로 같았다. 성리학이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갈래들이었다. 뿌리=패러다임이란 같은 인식틀 내에 있었다. 다른 의미를 담아도 같은 용어로, 같은 틀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의거’라는 표현은 같았지만, 양자의 의리가 내포하는 지향은 ‘수기와 치인’, ‘창업과 수성’의 차이 같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sup>66)</sup> 이는 마치 1960~80년대 ‘민족’이란 깃발을 둘러싼 뺏기 싸움에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하다.

현대사에서도 지배와 저항의 대립은 이어졌다. 그런데 지배든 저항이든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민족’ 지상주의였다. 내용상의 스펙트럼은 다양했지만, 어느 경우든 민족을 떼어 놓고는 존재할 수 없었다. 마치 조선시대의 성리학처럼 … 주지하다시피 ‘민족주의’가 어떤 이념보다도 초월적 위치에 있었던 데 20세기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있다.

민족이란 말의 지위는 1960·70년대로 들어오면서 더욱 높아진다. 특히 4·19 혁명 이후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 내지 민족문화 인식이 계승되면서 증폭되었다. 이처럼 민족주의 전통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배’든 ‘저항’이든 대립 세력이 똑같이 ‘민족’이란 깃발을 들었다. 그러나 역시 그 내포는 많이 달랐다.

## 1) 지배문화=한국적 민족주의

유신체제가 들어선 1970년대 초 이후에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극성을 부렸다. 국가주의는 ‘민족’을 불러내는 담론의 틀이 되었고, 국가는 ‘민족’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역사를 ‘민족적’=‘국가적’이란 기준에서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전통문화 속에서 만나는 ‘국가주의’, ‘충’의 관념을 과다할 정도로 취하였다. 문화재

---

66) 김양식, 2020.1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방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 동학농민혁명 학술총서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編, 158쪽에 서는 계급관과 현실인식에 따른 양자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정책도 ①국난 극복의 역사적 유산, ②민족사상을 정립시킨 선현유적 등에 집중되었다. ‘동학혁명’ 관련 유적도 그중 하나였다. 이런 일련의 “선택적 역사재구성”의 과정은 10월 유신 이후 “한국적 민족주의”의 표방과 함께 가속화되었다.

이런 경향은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선근 등의 주도로 역사에 토대를 둔 한국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하였다. 1980년대 5공화국의 문화정책도 기본적인 맥락은 여전히 같았다. 정권 유지를 위한 명분 확보 차원의 정책이었다.

## 2) 저항문화=민중문화운동(민중적 민족주의)

이에 대한 저항 영역에는 민중사학을 표방하는 한국사 연구자들이 있었다. 역사의 스펙트럼도 마찬가지로 넓었다.

저항문화의 영역은 민중문화운동이 차지하였다. 서구 상업문화에 대비되는 ‘민족성’ 짙은 문화를 강조하였고, 지배계급의 문화에 대비되는 ‘민중성’ 강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관 주도의 문예정책들로 인해 한국의 전통문화는 박제화되어 박물관에 격리, 감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생생한 생명력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 또 상업화, 서구화가 문화의 계급성을 부추겼고, 그나마 대접받고 있는 전통문화라 해 봐야 양반문화일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이해에서 나오는 문화운동권이 외래문화에 대항하는 민족문화를, 그리고 지배층의 문화에 대비되는 민중문화를 한국문화의 본령으로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더 나아가 ‘민중=민족’이 되었다. 민족문화의 원형을 민중문화 속에서 찾고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는 민중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민중적 민족주의’ 입장을 취하게 했다.

이렇듯 같은 민족주의도 지배와 저항의 입장에 따라 ‘한국적 민족주의’와 ‘민중적 민족주의’로 나뉘어졌다. 다만 어느 경우든 민족주의를 앞세웠다는 데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두 진영 간에 그 ‘민족’이란 것

발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1960~80년대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도 그대로 나타났다.

## 2.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또 다른 ‘의거’ 깃발 빼앗기

1960~80년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에서도 ‘의거’라는 깃발을 앞세운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역시 지배문화와 민중문화의 차이, 그만큼 달랐다.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그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설적이게도, ‘동학혁명’에 주목하였다. 농민군의 첫 승전지인 정읍 황토현에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이는 해방 후 정부 차원에서 기념하는 첫 행위였다.

1963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황토현 언덕에서 2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이 열렸다.

기념탑 제막식에 참석한 박정희의 치사(致辭)에 동학혁명의 정치적 활용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한 것은 당시의 부패에 있다. 내 자신이 2년 전의 5·16 당시 한강교를 넘어설 당시의 심정과 쏜(봉준) 장군의 심정은 동일했을 것이다. 현재와 부패했던 5·16 당시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동학혁명은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민권을 주장한 민주주의 교시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계속 이어받자. 선량한 백성이기에 이러한 폭정을 참지 못하고 일어선 동학혁명의 교훈을 살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 봉사를 해야 하며 국가는 물론 정치도 국민 위주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sup>67)</sup>

“내 자신이 2년 전의 5·16 당시 한강교를 넘어설 당시의 심정과 쏜

---

67) 『전북일보』 1963년 10월 5일.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이진영, 2001.09.,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연구』 9, 10, 80쪽 참조.

(봉준) 장군의 심정은 동일했을 것이다”라 하여 폭정을 참지 못하고 일어난 ‘동학혁명’과 ‘5·16 혁명’을 동일시하고 있다. ‘동학혁명’을 “민권을 주장한 민주주의의 교시”라고 규정함으로써 ‘5·16 혁명’ 역시 쿠데타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라고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군사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을 감행하면서도 ‘동학혁명’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이들은 이듬해인 1973년 11월 11일 농민군의 패전지인 공주 우금치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하였다. 천도교 산하 동학혁명군위령탑건립위원회의 이름으로 세운 이 탑의 제자(題字)는 박정희가 썼고, 전면의 비문은 이선근이 작성했다. 충남 공주시 금학동 소재 우금치 전적지 내에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 그러나 님들이 가신 지 80년, 5·16 革命 이래의 신생조국이 새삼 동학혁명군의 순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빛나는 十月維新의 한뼘을 보내게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피어린 이 언덕에 잠든 그 님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이 탑을 세우노니 오가는 千萬代의 후손들이여! 그 위대한 혁명정신을 영원무궁토록 이어받아 힘차게 宣揚하라.”

라는 부분이 있다. 앞서 본 ‘동학혁명기념탑’이 5·16을 동학혁명에 견주었다면, 위령탑에서는 10월 유신에 견주고 있을 뿐, 그 정치적 목적과 의도는 똑같았다.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에 대한 추모보다는 유신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963년 동학혁명기념탑 건립 당시의 상황을 되풀이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족을 찾고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던 행위들은 한국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민족’의 깃발을 차지하려던 의도와 똑같았다. 이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알다시피 전두환 등은 “(1979년)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1980년)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런 신군부 세력들도 박정희 정권과 똑같은 의도

를 갖고, '81년과 '85년 두 차례에 걸쳐 '동학혁명유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81년 2월 전두환은 지방순회시 정읍에서 "(전봉준은) 나와는 종씨(宗氏)고 집안 선조 ..." 운운하며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지시하였다.<sup>68)</sup>

한편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추진된 기념문화제가 있었다. '80년 5월 계엄 하에서 정읍의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제13회 기념 문화제에 초청된 김대중은 국민연합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10만 여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 축사를 했는데, 박정희나 신군부의 입장과는 너무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동학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혁명이다. 동학은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된다. 3·1 정신과 4·19정신은 동학의 정신 속에서 흘러온 것이다. 전봉준 장군의 동학정신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근대화의 원천으로 민주주의와 근대화를 지켜볼 것이다. 동학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봉건 앞잡이에 짓밟힌 조상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온 국민이 민주정부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 동학혁명은 처음부터 폭력이 아니고 극심한 학정으로 백성들이 원성을 입금에 상소하고 호소했으나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봉기한 것으로서 동학은 당초부터 폭력이 아니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질서와 안정을 지켜가며 평화적으로 민주대업을 달성하자.”<sup>69)</sup>

그는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은 5·16 쿠데타나 10월 유신이 아니라 3·1 운동과 4·19 혁명이라고 정의한 뒤, 현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그 현재적 의미를 역설하였다. 그의 이런 인식은 과거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한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한 신군부의 집권 행보에도

---

68) 이진영, 앞 논문, 86쪽.

69) 『전북일보』 1980년 5월 11일. 이진영, 같은 논문, 85쪽 참조.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신군부는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맺어갔다. 또 1994년 100주년이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3월 5일 공포되었다. 기념재단의 설립(2010년), 기념일 제정(2019년), 그리고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2023년) 등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왜곡이나 축소의 시도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상전벽해라 할 만큼 달라졌다.

##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서훈 문제에 대하여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면서 맺음말에 대하고자 한다.

서훈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민족’ 깃발을 둘러싸고 정권과 민중의 빼앗기 싸움이 진행 중일 때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기준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럴 때 만들어진 서훈 규정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때까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독립유공자 서훈 시도는 1957년 독립기념사업위원회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때의 심사 기준 시점은 “을사보호조약이 있을 때로부터”였다. 이후 제3공화국 출범 이후 1963년 12월 14일 상훈법이 제정되고 1964년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이 개정되면서 법제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때 개정된 심사 기준에서는 일제의 국권 침탈의 기준 시점을 1895년(을미의병)으로 잡았다.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심사 기준이 논의되던 시기는 5·16 이후 한국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깃발이 한창일 때였다. 따라서 당연히 의병은 주목되었겠지만, 그때까지 연구도 거의 없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의병과는 달리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아예 논의 대상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진 심사 기준이 그대로 고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과 비슷한 시기(1895~1896년)에 활동한 의병 참여자에게는 서훈하면서 바로 그 전 해에 ‘척왜양’의 기치를 내걸며 ‘먼저’, 그리고 ‘훨씬 활발하게’, 또 ‘희생도 컸던’ 동학농민군을 국가에서 서훈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입장은 달랐지만, 둘 다 의리에 기반한 구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농민군 참여자들은 여전히 서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sup>70)</sup>

서훈 기준이 정해지던 1964년경에 비하면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해졌고, 그에 따라 해석도 크게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기억·기념의 공간에서 부딪히며, 2차 봉기의 비서훈과 을미의병의 서훈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1895년 을미의병에 기댄 서훈 논의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대상 요건을 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모두 기본적으로 “일제의 국권 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분들이 대상이다.

관건은 국권 침탈의 기점인데, 을사보호조약(1905년)과 경술합병 선언 반대의 때가 기본적인 기점이다. 그 반대의 주체들은 의병이었다. 따라서 기점 시기보다 앞서지만, 의병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을사의 시점을

---

70) 서훈 관련해서는 박용규, 2021.01.,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인간과 자연사; 유바다, 2024.08.13.,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의 성립 과정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고찰」,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양식, 2020.1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방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編 등 발제와 토론문 참조.

넘어 을미의병(1895년)으로까지 그 기준점이 소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갑오·을미년의 사건들은 일제의 국권 침탈 시도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구국운동이었다. 그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즉 국권은 침탈되지 않았다.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갑오·을미년의 운동을 ‘구국운동’이라 하면 맞지만, 나라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을사늑약과의 사이에 10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한제국의 탄생이 있었다. 엄연히 나라가 존재했다. 따라서 갑오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참여자들의 공적은 물론 중요하지만, 다만 그것이 독립운동은 아니었다.

반면에 을사늑약 이후에는 식민지로 바로 이어졌다.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변수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을사 이후에 일어난 일제에 대한 저항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학농민혁명은 을미의병과 함께,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그 앞 시기에 해당하는 ‘구국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겠다. 또 굳이 국권 침탈의 기점을 1895년까지 올려야 할까? 빼앗기지도 않은 국권을 굳이 빼앗겼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 식민지로의 귀결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2차 봉기를 구국운동이란 관점에서 을미의병과 연결시켜 서훈을 요청하기보다는 - 을미의병도 서훈 대상에서 분리시켜야 할 테지만 - 동학농민혁명은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4·3사건 관련 법률과 같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에 준하는 별도의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투고일 : 2025. 9. 25. 심사완료일 : 2025. 10. 29. 게재확정일 : 2025. 11. 10.

## 참고문헌

- 강민구, 2023.12., 「조선 節義論의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제97호, 동방한문학회, 7~66쪽.
- 고석규, 2002.06., 「제3부 한국 문화의 정체성」, 『문화정체성(正體性)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경호, 2024.11.22., 「파란과 역설: 조선시대 호남의 충절 논의-1515년 박상과 김정의 구언 상소와 관련하여」, 『2024 호남사학회 동계학술대회 ‘호남정신과 호남의병’ 자료집』.
- 김상기, 2014.12., 「유교지식인의 동학 인식과 대응」, 『역사연구』 제27호, 역사학연구소, 85~100쪽.
- 김양식, 2020.1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방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 동학농민혁명 학술총서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編.
- 김종학, 2017.12., 「국 = 가와 국/가-왕권을 둘러싼 정치투쟁과 대한제국-」, 『개념과 소통』 제20권, 한림과학원, 5~45쪽.
- 김준석, 1999.03.30., 「18세기 탕평론의 전개와 왕권」,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조선시대사학회, 국학자료원.
- 김태희, 2017,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 제181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1~97쪽.
- 김현주, 2020.01.,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 담론』 제93집, 호서사학회, 101~136쪽.
- 김호, 2024.06., 「'비교사의 모험', 유학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만들었는가?-와타나베 히로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을 읽고」, 『歷史學報』 제262집, 역사학회, 223~264쪽.
- 박명규, 1997.06.,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제51권, 한국사회사학회, 41~76쪽.
- 박용규, 2021.01.,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인간과 자연사.
- 박홍규·방상근, 2008.02., 「정도전(鄭道傳)의 "재상주의론" 재검토」,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대한정치학회, 43~66쪽.
- 배항섭, 2017.03.01., 「동학농민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쟁점 한국사-근대편』, 창비.
- 송재혁, 2016.11., 「정도전의 군주론 『경제문감별집』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제22집 제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75~98쪽.
- \_\_\_\_\_, 2020.08., 「정도전(鄭道傳)의 국가론-『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원(元) 제국의 유산-」, 『한국사상사학』 제65권, 한국사상사학회, 157~191쪽.

- \_\_\_\_\_, 2024.02., 「정도전 저작의 군신공치론적 구조: 『진서산독서기』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공자학』 제52권, 한국공자학회, 145~174쪽.
- 辛正根, 2023.12., 「鄭道傳의 ‘立法’에 의한 ‘牽制와 均衡’의 정치사상」, 『大東文化研究』 제12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7~65쪽.
- 유바다, 2024.08.13.,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의 성립 과정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고찰」,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이병규, 2015.06.,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 『역사연구』 제28권, 역사학연구소, 53~65쪽.
- 이진영, 2001.09.,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연구』 제9,10집, 한국동학학회, 73~99쪽.
- 임종진, 2015.12., 「동양적 의리론의 함의」, 『사회사상과 문화』 제18권 제4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21~247쪽.
- 정창열, 1984, 「조선후기 농민봉기의 정치의식」, 『韓國人의 生活意識과 民衆藝術』,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조항덕, 2012.05.,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개혁사상(改革思想)」, 『동양철학연구』 제70권, 동양철학연구회, 1~30쪽.
- 최연식, 1997.12., 「麗末鮮初의 政治認識과 體制改革의 方向設定-李穡, 鄭道傳, 權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7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11~142쪽.
- 홍동현, 2013, 「1894년 ‘동도’의 농민전쟁 참여와 그 성격」,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 〈Abstract〉

# Memori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Different Ways

Ko, Seokkyu\*

The trend of monuments erected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ymbolically demonstrates how much the perception of the revolution has changed over the past century. Before liberation, monuments to anti-peasant forces were prevalent, but after liberation, such monuments disappeared. Conversely, in the 1960s ~ 1980s, monuments to state power contrasted sharply with those of the pro-democracy movement, which had grown in resistance.

The conflict between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the anti-peasant army, who fought alongside each other despite their shared righteousness [의리], has been extended in modern history, with democratic forces and military regimes remembering and commemorating the same event in different ways.

In this article, I explore the origins of this "different ways of remembering the same event" in the differences between two archetypes of Neo-Confucian political perception, linking these differences to the theories of righteousness between the peasant army and the anti-peasant army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 then examine how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memory of "nation" in modern history from the 1960s to the 1980s. Finally, I

---

\* Honorary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at Mokpo National University

Added my opinions on the award of honors to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Joseon, a Neo-Confucian state like no other in the world, the Neo-Confucian theory of righteousness[의리론] manifes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s on self-cultivation[수기] and governing the people[치인], and founding and consolidation of a dynasty[수성과 창업]. It was organized into two types: "conservative and stable" and "reformative" orientation. These two types were viewed as forming the two archetypes of Neo-Confucian political awareness. At this time, since the Neo-Confucian theory of righteousness basically did not go beyond the scope of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even when a rebellion broke out, it remained in the pro-royalist mode. However, it was viewed that the political awareness oriented toward reform could go beyond this due to the influence of Mencius's revolutionary theory.

From this perspective, we examined the theories of righteousness between the peasant and anti-peasant armies. Despite emphasizing loyalty, that is righteousness to the king, both the peasant and anti-peasant armies fought against each other. Grounded in Neo-Confucian theory of righteousness, the peasant army advocated for the restoration of benevolent governance by eliminating violent attacks and protecting the nation and its people. This had the nature of anti-official uprising. However, going a step further, the theory of founding a dynasty argued that its ultimate goal could go beyond pro-royalism and even advance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dependent Joseon nation," that is, revolution. Furthermore, even in the anti-foreign power movement aimed at expulsion of Japanese invaders, the movement emphasized Neo-Confucianism, stating, "If the king is humiliated and a subject must die, loyalty and righteousness are one and the same."

Meanwhile, the anti-peasant army, advocating for 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위정척사], rejected the Donghak and peasant uprisings through the logic of "righteousness and wrong" and

"good and evil." They argued, "If we confron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en, when discussed in terms of righteousness, it is by no means the duty of a subject." They asserted that the peasant army's righteousness was a false righteousness, and that the anti-peasant army's actions, fulfilling the "duty of a subject," represented the true righteous uprising.

While the theories of righteousness in both the peasant army and the anti-peasant army stemmed from the same root of Neo-Confucianism, they differed distinctly,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self-cultivation and governing the people", and "founding and consolidation of a dynasty". This distinction mirrored the differences evident in the struggles over the banner of "nation" in the 1960s and 1980s.

Like Neo-Confucianism in the Joseon Dynasty, nationalism in 20th-century Korea held a transcendent position over any other ideology. Because the nationalist tradition was so strong, both opposing forces, whether for "rule" or "resistance," held the banner of "nation." However, their connot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is distinction manifested itself in the distinction between so-called Korean nationalism and popular nationalism. This distinction was also evident in the mem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1960s and 1980s. On the one hand, there were the Gabo Donghak Revolution Memorial Tower(갑오동학혁명기념탑, 1963) and the Donghak Revolutionary Army Memorial Tower(동학혁명군위령탑, 1973), both erected by Park Chung-hee, and the Donghak Revolution Historical Site Restoration Project promoted by Chun Doo-hwan. On the other hand, resistance to these efforts led to commemorative activities by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resulted in the design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2004)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memorative day (2019). Accordingly, attempts to distort or minimiz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an no longer gain traction.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s now

shifted dramatically.

Meanwhile, I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various movements after 1894 into "national salvation movements" and "independence movements." Based on this premise, I concluded my article by suggesting that, when it comes to restoring the honor of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ather than linking the second uprising to the Eulmi Righteous Army as a national salvation movement and requesting decorations, it would be wiser to revise special laws, similar to those related to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eju April 3rd Incident, to ensure separate treatment comparable to that given to independence activists.

**Key word :**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Nationalism, Neo-Confucian theory of righteousness, Monument, The Restoration of Honor



##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지수결\*

### 〈목 차〉

머리말

I. 선행연구의 주요 쟁점과 결론

II. 남접/호남/전투 중심 사건사 서술의 한계와 문제점

맺음말

### 〈국문 초록〉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가 출간된 이후 4편의 서평이 발표되었는데, 모든 서평자들은 한결같이 ‘어셈블리’ 개념과 관련한 비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동학 어셈블리’는 단순한 사건 명칭이 아니라, ‘농민전쟁(혁명)’의 대체(대안) 개념이므로 이런 관심과 비판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4편의 서평 모두, 공주 점거투쟁 자체와 관련한 논의는 지나치게 소략하다. 선행 연구의 부제를 그대로 달아 다시 이 글을 쓴 이유는 차이를 넘어서는 우정어린 ‘말 걸기’를 통해 보다 풍성한 ‘말 잔치’를 벌여 보기 위해서이다.

공주 점거 투쟁의 목표는 구병입경(驅兵入京)이 아니라 공주 점거 그 자체였으며,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그 방법도 물리력을 총동원한 공성전이 아니라 대규모의 군중 집회와 무장 시위를 통해 경군과 영병의 내용, 이교와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당시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남북접 동학군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재현해 보면, 공주 점거 투쟁의 의도는, 투쟁 주체들이 상서(上書)와 고시(告示)를 통해 밝힌 차로론(借路論) 그대로, 호서도회(湖西都會)를 소집하여 항일연대를 형성한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점거 농성과 정치담판을 벌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접/호남/전투라는 코드를 배타적으로 고집하는 경우 왜곡된 역사상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은 광주민중항쟁 이후 이른바 ‘5월(역사)투쟁’ 시기,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역사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영웅적인 투쟁(戰鬪), 숭고한 희생(戰死)’을 강조하는 민중사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이 글에서는 ‘넘어서기’라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논쟁의 폭을 더욱 넓힌다는 취지에서, 논의의 범위와 대상을 공주 점거 투쟁만이 아니라 동학 어셈블리(1892-1904) 전체로 확대하였다.

**주제어** : 동학 어셈블리,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 공주 점거 투쟁

## 머리말

2024년 9월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역사비평사)가 출간된 이후 과분하게도 4편의 서평<sup>1)</sup>이 나왔는데, 모두가 ‘어셈블리’와 관련한 비판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했다. 선행연구에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안토니오 네그리

- 
- 1) 도면희, 2024, 「(서평) 혁명적 농민운동론으로부터 ‘A/O 투쟁론’으로-지수걸 저,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역사비평사.」, 『역사와 책임』 15, 388~394쪽; 권기하, 2025, 「(서평) 어셈블리’는 ‘농민전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지수걸의 위 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역사와 현실』 135; 유바다, 2025, 「(서평)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동학농민혁명연구』 5; 김현주, 2025, 「(서평) 어셈블리라는 렌즈로 본 동학군의 ‘1894년 의거」, 『역사비평』 151.

와 마이클 하트의 『어셈블리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에 대한 제언』<sup>2)</sup>를 두루 인용하였으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자 미리 밝혀둘 점은 ‘동학 어셈블리’ 개념은 네그리의 제국/다중론과 큰 상관이 없는, 즉 필자 나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본 사건 명칭이자 역사서술 개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후속연구<sup>3)</sup>에서도 동학 어셈블리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사건사 서술(분석)의 범위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주지하듯이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을 배타적으로 적용하려 할 경우, 사건사 서술의 범위와 대상은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위 법률의 [제2조(정의) 1항]는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茂長 起包 —필자)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삼례 재기포 —필자)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한국역사연구회의 『1894년 농민전쟁 연구(전5권)』는 물론이고 정창렬(『갑오농민전쟁연구』)과 조정달(『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의 저작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동학

---

2)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20, 『어셈블리-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에 대한 제언』, 이승준·정유진 옮김, 알렙) 짧게 서평들에 답한다면, 선행연구에서 『어셈블리』를 자주 인용한 것은 제국/다중론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그리가 ‘다중(multitude)의 어셈블리’를 매개로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대안)를 상상했듯이, 필자는 ‘동학 어셈블리’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 특히 ‘K-어셈블리(한국의 도회·의거 문화 혹은 전통)’의 미래를 상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후속연구에서도 필자는 K-어셈블리의 원형과 기원으로 동학 어셈블리를 주목했다.

3)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후속연구의 가제는 『동학 어셈블리(1892-1904)-19세기 후반 도회·의거 문화의 지속과 변용』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언제 출간될 수 있을지 기억하기 어려우나, 후속연구는 선행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일종의 분책이자 시론 형식의 보론이다.

어셈블리(1892-1904)는 단일한(monolithic)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다 사건(eventful)이므로, 사건(들)의 배경과 전개양상, 성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누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sup>4)</sup>

특별법상의 규정에 맞는 사실, 또는 특정 현상이나 사건만을 중심으로 사건사를 구성하는 경우, 농민전쟁(혁명)이라는 용어나 개념도 나름대로 일리 있고, 쓸모도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학 어셈블리의 전체 성격과 의미를 논할 때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은 지나치게 좁고 배타적이다. 왜냐하면 남접집단이 호남지역에서 주도한 농민전쟁은, 사건사의 전체 흐름을 좌우한 대표적인 사건이기는 하나, 달리 보면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주체들이 벌인 개별 사건(물론 서로 얽히고설킨)일 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후속연구에서 동학 어셈블리의 다사건적인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공주·삼례 도회가 시작되는 1892년 10월경부터 1904년 갑진민회운동이 전개되는 시기까지로 사건사의 분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 사건과 사건의 연쇄(누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이다. 편의상 미리 후속연구의 핵심 주장을 소개하면, 첫째, 동학(동학군)이 오랜 은도(隱道: 伏流) 시기를 거쳐 역사의 전면에 등장(顯道: 化現)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동학 어셈블리(특히 무장 포고) 때가 아니라 이른바 ‘교조신원운동’<sup>5)</sup> 때부터였

4) 多事件이란 eventful, 즉 ‘사건들로 충만한’의 어색한 번역어이다. 다사건 분석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사건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구조사적인 관점보다는 인과성이나 경로의존성을 가진 다수의 사건들, 특히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누적)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달리 말하면 구조가 사건을 만드는 측면보다는 사건의 연쇄와 누적의 결국은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는 사건사 접근 방법이다. 채오병·전희진, 2016, 「인과성, 구조, 사건」, 『(사회학총서 10) 사회사/ 역사사회학』, 다산출판사, 146~147쪽.

5)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교조신원운동’이란 천도교 교단 측의 호명일 뿐이다. 공주·삼례 도회 시기의 통문에도 ‘我師(우리 선생) 伸冤’이라는 말은 보이나 ‘교조’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보은도회 목표도 당연히 ‘敎祖 伸冤’이 아니라

다는 것, 둘째, 1894년 동학 어셈블리는 포접 단위로 각자기포(各自起包)한 동학군의 assembly/occupy(A/O) 투쟁, 또는 회립자생(會立自生) 자경보위(自境保衛) 투쟁이었다는 것, 셋째, 1894년 이후 영학회(英學會: 1898)와 진보회(1904)의 어셈블리 투쟁은 동학 여당(餘黨·殘黨·漏網之匪)의 활동이 아니라 동학군(당)과는 성격과 의미가 또 다른, 동학 공동체<sup>6)</sup>의 보국안민 투쟁이라는 것 등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주 활용한 ▲ 각자기포란 “중앙지도부, 즉 북접교단이나 남접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일률적인 기포가 아니라 각 포접의 사정과 결정에 따른 각 포접 단위의 기포(會立)라는 뜻”, ▲ 회립자생이란 “포접 단위로 스스로 모이고 모아 각자각자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 ▲ 자경보위란 “경사직 향이나 구병입경보다는 각자 자기 구역, 자기 포접의 보위와 안전을 먼저 도모해야 한다는 뜻”이다.<sup>7)</sup>

농민전쟁론자들은 교단사 자료에 의거하여 ‘교조신원운동’을 ‘농민전쟁의 전단계(前段階)’로 간주하나, 동학군이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각 포접 단위로 모이기/모으기 투쟁을 본격화한 것은 공주·삼례 도회에

---

『侍天教宗釋史』(爲師訟冤)의 언급처럼, 各包教徒가 屈斯齊集(도회)하여, “一以爲衛道尊師之方, 一以爲輔國安民之策”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보은도회는 위도존사와 보국안민의 중지를 실천하기 위한 동학 기포이자 도회·의거, 즉 동학 어셈블리 그 자체였다.

- 6) ‘동학 공동체’란 1861년 6월 최제우가 布德을 시작한 이후부터 1905년 12월 천도교가 창립될 때까지 동학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를 지칭하기 위해 편의적(임시적)으로 지어낸 말이다. 1894년 어셈블리 때까지 동학 공동체를 범칭할 때 흔히 道中, 그리고 그 구성원을 지칭할 때 門徒, 道儒, 道徒, 道衆, 道人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으나, 1894년 어셈블리 이후 특히 이른바 英學會, 進步會(일진회), 天道教(侍天教) 등이 출현하면서 모든 호칭이 일변했다(學→教=종교화).
- 7) 위 용어들은 『조석헌 역사』(갑오 9월)에 보이는, 法所 訓示文(“八路의 吾教徒가 無罪間 此世의 서는 生活이 難保라. 若此不已면 各處頭領은 一一이 皆殺出境을 當할테오니 到文即時에 速速起包하와 處處 自己大首包에 會立自生하라”), 그리고 이에 따른 내포 동학군의 동향(여미평 도회와 홍주성 점거투쟁)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만들어낸 일종의 造語이자 略語이다.

뒤이은 보은도회 무렵부터였다. 보은도회 시기 동학 도소 뿐만 아니라 지역 명칭 + 의자(義者) 형식의 ‘각포 명칭’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영화회(1898)와 진보회(1904)의 민회 활동을 농민군(변혁) 세력의 변혁 역량이 소실(전향·소멸)되는 과정으로 간주한 것<sup>8)</sup>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역사 이해이다.

농민전쟁론에 기초해 보면, 내전이나 혁명의 실패(패배) 요인은 모든 주객관적 조건(역량)이 미성숙하고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서는 경우, 1894년 이후 ‘동학 여당(餘黨)’의 모든 활동은 당연히 변혁 세력·역량의 소멸·소진 과정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사건적인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다사건적 시간성을 의식하며) 동학 어셈블리의 전체 흐름을 사건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개별 사건들의 성격과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 1893년 봄 보은도회 주체들이 자신들의 도회를 서양의 민회(議會=上下議院)와 유사한 것이라 주장했다는 사실 ▲ 1894년 8월경 이준용을 앞세운 쿠데타 주도 세력이 동학 지도부(특히 북접교단의 실세들)를 만나 각국 공관을 끌어들이어 상하원 설립 투쟁을 전개해 보자고 설득했다는 사실 ▲ 전봉준이 심문 과정에서 명사(柱石)들이 주도하는 ‘합의법(합의법)에 의거한 정치’를 언급했다는 사실 ▲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관민)공동회 투쟁이 한창일 때 1차 봉기의 중심 무대였던 고부, 무장, 흥덕 등지에서 영화회가 조직되어 흥덕민회(1898년 12월)와 호남공동대회(1899년 5월)를 개최했다는 사실, 그리고 ▲ 1904년 손병희와 이용구가 설립·주도한 진보회가 윤시병 등 독립협회 여당과 함께(통합 일진회 구성) ‘민회(京中民會=京師大都會)’를 매개로 의회 및 정당 설립 운동을 추진했다는 사실

---

8) 이영호는 북접교단 세력의 갑진민회운동이나 통합일진회 활동을 ‘변혁운동의 소진’, ‘변혁적 동학 여당의 소진’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1903~1904년에 이르면 동학 여당이 주도하던 변혁운동은 거의 소진되었다. 그 공백을 북접 동학 교단이 주도하는 민회운동이 차지하게 된다”(이영호, 2020, 『전북·충남의 진보회』,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푸른역사, 184쪽)

등은 아무런 인과성이나 경로의존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사건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사건사 정리와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다사건적 시간성, 즉 사건의 연쇄와 누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거론한 5가지 사실들은 왕국의 해체와 민국(민주공화제)의 성립, 또는 보국안민의 주체인 민중, 혹은 근대적인 의미의 인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출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9)</sup>

이처럼 사건사 서술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십수 년에 걸쳐 고조와 퇴조를 반복한 동학 공동체의 여러 활동(전체 혹은 개별 사건)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라는 난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용어 수준의 문제라면 간단한 ‘용어 정의’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터이나, 이를 농민전쟁의 대체 개념으로 활용하려 할 때는 개념 자체의 외연과 내포를 확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용성이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부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지면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의 제목이기도 한 동학 어셈블리(1892-1904)란 1892년 이른바 ‘교조신원운동’ 때부터 1904년 갑진민회운동 때까지 고조와 퇴조를 반복한 동학 공동체의 모든 모이기/모으기 투쟁, 즉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개별 사건을 총칭하는 호명이자 역사 서술 개념이다. 후속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터이나, 농민전쟁이라는 개념 대신 동학 어셈블리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앞세운 또다른 이유는 동학군이 애용한 포접,<sup>10)</sup> 설포·기포,<sup>11)</sup> 그리고 19세

9) 위에서 거론한 5개의 개별 사건들은, 이른바 ‘동학 여당의 을미의병 참여론’이나 ‘의적화론’ 등이 농민전쟁론(무장투쟁론, 혹은 변혁주체론)에서 파생된 역사조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후술하겠으나 동학 공동체는 보국안민의 종지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앞세운 무장투쟁(의병)보다는 시종일관 대의명분(聖道·聖訓)을 앞세운 모이고 모아 점거하고 담판하는(assembly/occupy) 투쟁, 또는 도회·민회 활동이나 정당·의회 설립운동 등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보였다.

10) 布德도 그리하나 包接이라는 명칭도 어셈블리, 즉 모이고/ 모은다는 뜻을 포함하고

기 후반 도회·의거 문화의 산물인 도회·도(회)소(민회소)<sup>12)</sup> 등의 용어가 모두 무장투쟁보다는 모이기/모으기 투쟁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학 어셈블리란 동학 기포나 도회 뿐만 아니라 1904년 진보회와 독립협회 여당이 연대하여 주도한 정당 및 의회 설립운동까지 포괄하는 사건 명칭이자 역사서술 개념인데, 낯선 용어와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말걸기·말잡기의 도발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망외의 성과였다. 하지만 지면관계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모두 후속연구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넘어서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남접 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는 데 치중해 보려 한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분량의 저작을 통해 ‘넘어서기’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제목으로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글

---

있다. 包와 接은 최치원의 風流思想(道)에 보이는 包含三教 接化群生の 첫 글자를 딴 동학 공동체 고유의 조직 명칭으로 會通과 相生, 즉 ‘不顧天命 各自爲心’, ‘내 옳고 네 그르지’하며, “시비분분·일일시시하는 사람”(『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들을 하나로 싸안고 품는다(包含),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변하게 한다(接化)는 뜻이다. 최치원과 최제우·최시형은 모두 경주 사람이자 경주 최씨였다.(후속연구 참조)

- 11) 기존 연구들 가운데는 관변이나 유생층 자료의 용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起包를 起兵, 즉 무장봉기(투쟁)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東匪論(무장 폭도·폭동론) 또는 농민전쟁(혁명)론의 後果이다. 예를 들면, 『갑오약력』은 기포라는 말 뒤에 ‘東徒之起兵謂之起包’라는 각주까지 친절하게 부기했으나, 오히려 일본어 신문들은 기포를 ‘당류를 모으는 행위’(起包とは彼等の黨類を集むるを云ふ)라 정확히 규정했다. 동학 어셈블리 과정의 모든 기포는 會立自生하여 自境保衛하는 것, 즉 모이고/모아, 스스로/함께 살길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전봉준은 재판과정에서 “네가 전라도 東學魁首냐”라고 힐문하자, “民衆이 都聚(招集人衆: 모이고/모아)”하여 스스로 “倡義로 起包”하였고, 자신은 ‘衆民(會衆)의 추대(추천)’에 의해 主謀가 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全瑋準初招問目〉)
- 12)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자주 열린 도회(都會)도 집회(대회)와 도회지(도시)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는 하나, 어셈블리와는 달리 의회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도(회)소(민회소)는 의회처럼 대의 혹은 의결기관의 성격보다는 구실아치(有司)들의 실무기구적인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 필자의 생각일런지는 모르겠으나, 선행연구는 단순히 공주 점거투쟁에 대한 사례연구가 아니다.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혁명)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다. 예를 들면 공주성 점거투쟁(A/O 투쟁)과 관련한 필자의 주장은 당연히 1차 봉기<sup>13)</sup> 시기 전주성 점거투쟁을 설명할 때도 유효하다는 뜻이다. 선행 연구에서 필자는 우금티 싸움을 본격적인 공성전이 아니라 일종의 ‘무장시위’라 규정했는데, 황도현 싸움도 내전이나 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라기 보다는 동학군의 무장시위, 특히 ‘행진(parade)’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이며, ‘방어적’인 충돌사건이라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선행연구가 출간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필자의 여러 주장들과 관련한 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필자의 선행연구와 동시에 정선원의 저작(『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 연구』)이 출간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필자의 ‘말 걸기’와 관련한 연구자들의 무반응(응답)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이다.<sup>14)</sup> 자기 표절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넘어서기’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다시 꺼내 든 이유는 간단하다. 연구자들 모두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협동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연구와 기념사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말 잔치(말 잡기 투쟁)’를 벌여보자는 뜻이다. 서평자들의 비판에 일일이 답하는 것이 예의일 터이나, 지면관계상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 글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문제제기 차원에서 선행연구의 요지를 간단히 정리한 뒤(1장),

13)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자들은 1894년(동학) 농민전쟁을 교조신원운동(특히 삼례·금구 취회) → 사발통문 모의 → 고부 봉기(이상 前段階) → 1차 농민전쟁 시기(무장기포~전주화약) → 집강소 통치 시기(전주화약) → 2차 농민전쟁(삼례 재기포) 등으로 시기구분하나,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2차 봉기는 삼례 재기포(9월 10일경)가 아니라 갑오변란(6월 21일경) 때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4) 도면회는 『역사와 책임』에 필자와 정선원의 저작을 연이어 서평했으나, 지면 관계 때문에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는 소략하다. 도면회, 2025, 「답사와 구전을 통한 동학농민군의 공주 전투 재구성-정선원, 2025,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 전투 연구』, 모시는사람들, 2024」, 『역사와 책임』, 16 참조.

뒤이어 시론 수준이기는 하나 논의의 범위를 동학 어셈블리(1892-1904) 전체로 넓혀 남접/호남/전투라는 코드를 중시하는 경우 사건사 정리에 어떤 문제와 한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2장). 특히 2장에서는, ‘넘어서기’라는 이 글의 제목에 걸맞게, 선행연구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보은도회와 1차·2차 봉기는 물론이고 1894년 이후, 영학회와 진보회의 민회 활동 등도 시론 수준에서나마 간단히 그 성격과 의미를 언급했다. 맺음말에서는 후속연구의 과제이기는 하나 네 개의 서평에 답한다는 취지에서, ‘넘어서기’의 한 방법으로 동학 어셈블리론을 제기한 이유와 목적, 동학 어셈블리 개념의 외연과 내포 등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하게나마 밝혀 두고자 했다.

## I. 선행 연구의 주요 쟁점과 결론

### 1. 공주 점거투쟁의 배경

엥겔스류의 농민전쟁론처럼 구조사적인 접근방법을 중시하는 연구들은 특정 사건의 배경을 다룰 때 사회성격론이나 변혁론,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계급모순 등을 중시한다. 그동안 농민전쟁의 배경을 다룬 연구 성과는 더러 있었으나, 공주 점거투쟁이나 2차 봉기의 사건사적인 배경을 따로 정리한 연구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은 특별법상의 규정처럼 동학 농민혁명을 동일한 배경(조건) 가운데, 동일 주체가, 동일한 목표 아래 전개한 단일(monolithic) 사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공주 점거투쟁의 사건사적 배경을 밝히려면 구조사적인 배경 이외에, 여러 사건들의 연쇄와 중첩(누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사건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주 점거 투쟁의 배경은 2차 봉기의 배경과도 다르다. 예를 들면 2차 봉기의 사건사적 배경을 정리할 때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犯闕)과 친재(親裁) 중지 ▲ 대원군을 섭정으로 한 친일내각(갑오정권) 수립과 갑오개혁 ▲ 정부 병참선을 보호·유지 위한 일본군(수비대)의 예방적·선제적 차원의 군사작전 ▲ 갑오변란과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은 조야 유생과 동학군 사이의 항일연대론 확산 ▲ 대원군 밀지계획<sup>15)</sup>과 조가(고종) 밀교 소문 등 일련의 사건들이 가진 의미를 두루 주목해야 하나, 공주 점거 투쟁의 배경을 다룰 때는 앞서 언급한 사건들 이외에도, ▲ 대본영 휘하의 병참선 수비대와는 별개로 일본공사관(井上馨 全權公使)의 직접적인 지휘하에서 동학군 탄압 활동을 벌인 후비보병 독립 19대대(대일본제국 정토군)의 동향 ▲ 이노우에 공사의 쿠데타 사건 개입과 정치공작, 그리고 ▲ 남북접 연대의 성사와 공동 투쟁 합의과정 ▲ 양호(兩湖)의 요충이자 대도회지(大都會地)인 공주(충청감영 소재지)의 지정학적 특성 ▲ 공주의 동학 교세와 동학군(민회소) 및 유회군(유회소)의 항일연대 활동 등을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물론 공주 점거투쟁을 구병입경을 위한 중간전투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 공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사건의 기본 성격을 A/O 투쟁이라 규정하는 경우, 공주의 지정학적 특성, 특히 공주 지역 동학군과 유회군의 동향을 살피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공주 점거 투쟁의 중심 무대인 공주는 1890년대 초반 최시형의 주요 은거지(정안면 싯뜰=薪坪) 가운데 하나였을 뿐 아니라 호남 포덕의 전진기지였다. 따라서 전주(삼례)와 공주 사이에 입지한 포접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인적 교류가 활발한 편이었다. 공주·삼례 도회 시기부터 남접·북접(서포·법포)이 서로 대립했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더러 있으나, 1892년 10월과 11월에 개최된 공주·삼례 도회는 등

15) 이준용을 앞세운 대원군 세력(운변인)의 쿠데타 모의사건(주모자 朴準陽: 박제순의 종질, 絞首 처형)은, 대원군 밀지설(밀약설)과는 별개로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할 별도의 연구주제이다.(후속연구 참조)

소의 대상(충청감영·전라감영)만 달랐을 뿐 동일한 집단이 동일한 목표와 방법에 기초하여 전개한 하나의 사건이었다.<sup>16)</sup> 당시 공주와 전주(삼례) 사이의 포접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 1891년 5,6월경 공주 섯뜰 출신의 윤상오가 남계천과 함께 호남 좌·우도의 편의장(도접주)을 역임하며 최시형의 호남 포덕을 도왔다는 점 ▲ 이를 전후한 시기 김개남, 손화중, 김낙철 등 호남의 도유(접주)들이 최시형을 래알(來謁)하기 위해 부단히 공주 섯뜰을 드나들었다는 점 ▲ 공주 섯뜰 출신의 이화삼이 1898년경 고부·흥덕지역까지 진출하여 최익서(최일서) 등 손화중포의 지도급 인물들과 함께 영학회 활동을 주도했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남과 호서라는 지역간 경계는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나, 삼례에서 논산을 거쳐 공주에 이르는 길은 하루 백리길(40km)을 걷는다 치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광역)시장권도 동일했다.

이외에도 1차 봉기 때와는 달리 조야 유생들 사이에서 항일 의려론이 대두됨과 동시에, 이른바 대원군 밀지(또는 朝家 密敎) 소문이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따르면, 쿠데타 모의 세력은 여러 명의 밀사를 삼남에 파견하여 호서의 서장 옥·임기준, 호남의 전봉준·김개남 집단은 물론이고 이종훈·이용구 등을 매개로 손병희 집단(북접교단)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후술 참조). 손병희 휘하에서 호서 편의장으로 활동한 이용구가 만인소청의

---

16) 이이화 등 일부 연구자들은, “남접집단(서포=기포, 『오하기문』)이 북접교단(범포=좌포)과는 별개로, 1893년 2월 10일 경 삼례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가진 뒤 ‘東學 倡義會所’ 명의로 척왜양과 보국안민을 강조하는 ‘上書’와 ‘通文’을 전라감사와 호남 53개 군현 전체에 발송했다(제2차 삼례취회)”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보은도회 시기의 금구·밀양 취회 등과 마찬가지로 보은도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성격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이 같은 움직임(각 포접 단위의 각자기포)은 삼례뿐 아니라 당시 공주 인근 지역(신도안, 회덕 등지)에서도 활발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 참조.

소두를 자청했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당시 애국적 사민(충의지사)들의 공통적인 기대와 희망(公論)은 청국군의 지원 가운데 동학군을 끌어들이어 항일 의력을 조직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일본군과 갑오정권(개화간당)을 몰아냄과 동시에 보국안민을 위한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주(호서)지역의 안교선(아산대접주)·홍재길(괴산 집강망)·임기준(전의 집강망; 문청대접주 임정준?) 집단은 공주 점거투쟁이 벌어지기 한참 전인 8월 1일 궁원도회(민회소)와 건평유회(유회소)를 동시에 개최한 뒤, 그 다음날 만여 명에 가까운 동학군을 이끌고 공주 부내로 진입하여 충청감영에 ‘민장(民狀)과 유소(儒疏)를 합사(合辭)한’ 의송을 올렸는데, 이런 사실도 항일의려 형성론의 존재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주 점거 투쟁 시기 전봉준과 연대한 공주창의장 이유상(본명 이유형: 전주 이씨, 궁궐 호위 무관 출신, 前都事)은 부여 성첩평 민씨가(閔氏家: 민준호)가 화포영장(火砲領將)으로 영입한 인물인데, 충청감영의 비장인 이영해(將臣 李鳳儀의 종질) 등과 함께 건평유회를 주도했다. 하지만 임기준 집단은 삼례 재기포 하루 전날인 9월 9일 충청감사 박제순과 안민약조(安民約條)를 체결한 뒤 자진 해산했다.

평양전투(8월 17일)에서 일본이 대승하고, 일본 정계의 원로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전권공사로 파견되면서, 상황은 또다시 급변했다. 8월 24일경 석병귀전(釋兵歸田)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원군 효유문이 발표되고,<sup>17)</sup> 이와 동시에 선무사나 밀사들을 통해 “갑오정권의 요청으로 별도의 일본군 정토대가 파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접이든 북접이든, 호남이든 호서든 동학군의 위기의식은 점점 더 깊고 커

17) 대원군 효유문과 관련한 일본공사관 측의 언급이 8월 27일자 보고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효유문은 8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효유문이 선무사 등을 통해 삼남 각지에 배포되는 것은 9월 들어서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왕현중, 「1894년 8월 말 동학농민군 인식과 탄압방침」, 앞의 『민중을 바로 보는 방법』, 255~260쪽 참조.

졌다. 이런 가운데 전봉준 등 남접집단은 대원군 세력의 쿠데타 계획에 따라 9월 10월 경 삼례에서 재기포를 단행했으나, 그 직후 일본공사관 측의 개입으로 계획 자체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리고 공주의 임기준 집단이 자진해산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뒤, 복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접집단이 공주를 향해 복상을 시작한 것은 삼례 재기포 때가 아니라 그 한 달여 뒤인 10월 12일 무렵이었으며, 그 목적도 구병입경이 아니라 공주 점거 그 자체였다. 공주 점거투쟁의 사건사적인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면, 당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즉 남북접 동학군 모두에게 그것이 최선책이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2. 공주 점거투쟁의 전개양상

1차 봉기 시기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학군의 기포가 단행되었다. 물론 법현(북접도중주, 법도주, 丈席) 최시형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 즉 현기(玄機)가 노출되지 않았거나 시운이나 시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앞세우며 기포를 만류하였다. 하지만 청일전쟁 발발 이후 경부 병참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관군의 공세적 탄압이 본격화하자 북접교단도 결국 각 포 동학군의 의론(義論=立義·舉義·倡義論)에 밀려 그간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청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과 관군의 직접적인 탄압은 호남이 아니라 경부·경의 병참선 인근에 입지한 영남·호서, 기호·해서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본영의 지침은 병참선의 보호(유지)를 위해 예방적·선제적 차원에서 동학군을 섬멸하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북접교단은 9월 18일 전국 각지의 포점에 ‘기포령(起包令)’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포령을 전봉준 등 남접집단과 연대하여 구병입경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당시 각 포점에 전달된 초유문의 핵

심 내용은, 함께 모여 ‘동부종국지급란(同赴宗國之急難)’하라는 것이지 ‘동부 남접(전봉준군)’하라는 것이 아니었다.<sup>18)</sup> 기포령 당시 북접교단은 또다시 국왕직소(叫闢)를 감행하고자 했으나, 여러 모로 무리라는 판단이 서자, 9월 그믐 무렵 이를 폐기하고, 또 다른 대응책의 하나로 남접 집단(호남 동학군)과 연대한 가운데 공주를 전격적으로 점거하는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추론이기는 하나, 손병희 휘하의 이용구가 종로 만인소청의 소두를 자청했다는 사실, 양호 선무사 정경원이 북접교단과의 연계하에서 호서 지역의 유력한 대접주를 중심으로 이른바 집강망(執綱望)을 구성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북접교단도 쿠데타 모의 세력과 여러 형태와 방법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본공사관 측의 개입으로 쿠데타 계획이 파탄 상태에 이르자(8월 24일경 용무방침 결정과 대원군 효유문 발표), 남접집단은 삼례 재기포 직후 북상 계획을 중단했다. 박동진, 박세강 등을 매개로 쿠데타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공주지역의 임기준 집단은 9월 9일 충청감사 박제순과 안민약조(安民約條)를 체결한 뒤 자진해산했다. 당시 대원군과 이재면은 쿠데타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김홍집·김윤식과 교감하는 가운데 충청감사 박제순을 앞세워 9월 17일 박동진과 박세강을 금강 가에서 전격 처형했다(『금영래찰』 참조).

기존 연구들은 공주 점거투쟁의 전개양상을 서술할 때, 남접집단의 삼례 재기포와 공주 점거투쟁의 연관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하지만 남

18) 기존 연구들은 『천도교창건사』 등을 근거로, 기포령을 전봉준 등 남접집단(호남 동학군)과 ‘同赴’하라는 뜻이라 단정했으나, 이는 오해이다. 초유문의 핵심은, ‘各包 教頭’는 청산에 모여 국왕직소 등을 통해 ‘快伸先師之宿冤하고, 同赴宗國之急難’하라는 것이었다.(『시천교종역사』, 「갑오교액」) 전라감사 김학진이나 대원군 밀사들이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들을 만나 釋兵歸田을 설득할 때도 늘 ‘同赴國難하자’는 점을 강조하였다.(梧下記聞 > 二筆 > 是月望間 準準開南等 大會于南原; 梧下記聞 > 三筆 > 甲午九月)

북접 동학군의 공주 원정이 시작된 것은 삼례 재기포 때도, 기포령 때도 아니었다.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에 기초해 보면, 남북접 지도부 사이에 공주 점거투쟁이 합의된 것은 남북접 연대(調和)가 성사된 9월 그믐(晦間) 무렵(혹은 그 이후)이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삼례 재기포는 대원군 밀지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었고, 기포령도 일본군 수비대와 관군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경부 병참선 인근의 동학군을 의식한 자구책이었기 때문이다. 북접교단은 9월 18일 기포령(초유문)을 통해 국왕직소(呌闕) 계획을 각 포점에 하달하였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사정이 여의치 않자 9월 말경 훈시문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각자기포하여 회립자생 자경보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북접 지도부가 합의한 공주 점거투쟁의 목적과 방법은 무엇이였을까?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전봉준의 최후진술과 공주 점거투쟁의 전개양상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투쟁 목표는 경사직향이 아니라 공주 점거였고, 점거 이후에는 당시의 정치(도회·의거) 문화나 관행대로 호서도회(양호대도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애국적 사민(士民)들의 항일의려를 토대로 하여 정치 담판이나 협상(청문·힐문)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10월 15일과 16일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전봉준과 이유상의 상서(上書), 그리고 공주 점거 투쟁 시기 동도창의 소, 혹은 양호창의영수 명의로 작성된 두 개의 고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초의 설계에 따르면 양측 지도부는, ‘전일(前日)의 약속’(「균암장 임동호씨 약력」)대로 서로 통지(密通)를 주고받으며, 금강 남북 방면에서 기각지세(掎角之勢)를 형성한 뒤 경군과 영병의 내응, 그리고 이교와 시민의 호응을 유도하여 공주 점거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접집단이 호남지역에서 벌인 1차 봉기와는 달리, 공주 점거투쟁에는 ▲ 전봉준이 이끌고 북상한 전주·삼례 인근의 호남 동학군, 그리고 ▲ 기포령을 전후한 시기부터 포접별로 각자기포한 연후 회립자생 자경

보위 투쟁을 벌이다 관군(우선봉장 이두황군)에게 쫓긴 기호와 호중지역 동학군, 특히 ▲ 손병희의 영향하에 있었던 이용구·이종훈 등의 황산도소 집단 ▲ 보은·옥천·영동·문의·회덕·유성 등지에서 모여든 호서 동학군 ▲ 그리고 상주·문경·김천·예천 등 영남 북부지역에서 올라온 동학군이 대거 참여하였다.<sup>19)</sup> 전봉준이 이끌던 호남지역의 원정군과는 달리, 김개남포·손화중포 등은 공주 1차 접전 무렵에는 자신의 근거지에서 자경보위 투쟁을 전개하며 후방 수비와 보급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주 점거투쟁 무렵에도 호남 남부(남원, 순천, 광양, 광주, 장흥, 무안 등지)에서는 남접집단의 북상과는 별개로 각자기포한 동학군들이 해당 지역 대접주의 지도 아래 자경보위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공주 점거투쟁 시기 남북접 동학군의 동향을 개관하면, 두차례의 공주 접전(효포, 우금티 싸움)은 호서도회(양호대도회) 개최 또는 농성전이나 정치담판(請問, 詰問)을 벌이기 위한 점거전이이지, 직접적인 공성전이나 기병부경을 위한 중간 전투가 아니었다. 물론 오지영의 『동학사』나, 권병덕의 「갑오동학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남북접 동학군은 공주 점거투쟁 시기에도 구병입경과 기병부경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접 동학군의 기대와 희망일 뿐이지 당시의 조건과 정세, 혹은 동학군의 무장 수준이나 군사 역량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니었다. 요컨대 당시 동학군 지도부나 쿠데타 주도 세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듯이, 경사직향하여 경사대도회(京師大都會)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였다.

전봉준이 이끄는 호남 동학군은 10월 12일경 삼례를 출발하여 북상을 시작했다. 논산포에 일종의 교두보를 확보한 호남 동학군은 인증승

19) 개괄적으로 보면, 당시 가장 많은 동학군이 동원된 지역은 ▲ 호남 북부(전주를 포함하여 태인, 삼례, 익산, 함열, 여산 등 호남가도 인근) 지역 ▲ 8월 말 9월 초 무렵 2명의 執綱望이 지명(추천?)되었던 문의, 회덕, 회인, 보은, 청산, 옥천, 영동, 황간 지역 그리고 ▲ 점거투쟁의 중심 무대인 공주와 가까운 논산, 연산, 부여, 정산, 연기 등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人衆勝天)의 정치문화대로 인근 포접의 동학군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招募) 애를 썼는데, 가장 큰 성과는 공주와 그 인근 지역의 동학군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비록 임기준 집단은 9월 9일경 충청감사와 안민약조를 체결한 뒤 자진해산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주 인근의 모든 포접(道儒·道人)이 배도귀화한 것은 아니었다. 공주창의장 이유상과 양호창 의영수 전봉준은 10월 15일·16일 경 충청감사 앞으로, 함께 연대하여 국난을 극복하자(同赴國難)는 취지의 상서(上書)를 올린뒤 금강 남북 방면에서 공주 점거투쟁을 시도하였다. 전봉준의 진술에 따르면, 호남 동학군은 북상을 시작할 때 4천, 이후 공주 1차 접전을 시작할 때는 대략 1만여 명 규모였다고 한다.

1894년 8월경부터 충주의 황산도소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힌 손병희·이용구 등의 북접계 지도자들은 기포령 직후가 아니라 10월 초순쯤부터 보은 법소로 모여들었고, 11일쯤에는 청산(옥천) 방면으로 진출하여 치성식을 거행하는 등 공주 원정을 위한 준비 활동을 시작하였다. 북접 원정군은 10월 14일쯤(12일? 표영삼 『동학 이야기』) 호서의 대접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성식을 거행한 뒤, 10월 16일경부터 옥천·영동·문의·회덕 등지를 거치며 세를 불러 나갔다. 북접계 동학군이 ‘전일의 약속’대로 금강 북안(공주 장기면= 현재 세종시 대교리)에 도착한 것은 10월 23일쯤이었으나, 도착과 동시에 관군(홍운섭군)의 공격을 받은 뒤, 다시 금강을 건너 계룡산과 노성·이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통령 손병희가 이끈 북접 동학군 본대(선봉, 중군, 후군)는 일본군과 관군의 추격과 방해, 특히 10월 24일 대교 싸움, 10월 26일 지명장싸움 등으로 말미암아 공주 1차 접전(이인·대교·효포 접전: 10월 23~25일) 이후에야 연산 등지를 거쳐 노성·이인 방면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호창의영수 전봉준과 북접군 통령 손병희가 언제 어디에서 회동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보면 10월말(10월 28일 대신사 탄신일?), 즉 교단사 자료에 보이는 ‘전봉준의 참회’ 운운하는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된 설계에 따라 10여만<sup>20)</sup>의 남북접 동학군이 금강 남북 방면에서 전개한 1차 접전(이인·대교·효포싸움)은 공주 점거투쟁의 절정이었다. 당시 남북접 동학군은 애초의 계획대로, 공주를 사방팔방 에워싸 위세를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이나 관군 측 자료, 그리고 참여자들의 회고 자료 등을 종합 해보면, 남접계 동학군은 호남가도를 따라 이인·경천 방면에서, 그리고 북접계 동학군은 대교 방면에서 행진 시위를 벌이고자 했는데, 양측의 합류 지점은 호남대로의 요충인 장기대나루(將旗津)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금강 북안지역은, 관군과 일본군의 영향 아래 있었으므로 북접계 동학군의 활동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9월 들어 기호(용인·안성·수원)와 호중(청주·진전·괴산), 호서(천안·목천) 등지에서도 동학군의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공주 점거투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두황·성하영·홍운섭군과 일본군 수비대의 활약으로 그 위세가 크게 약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남접계 동학군은 합의대로 10월 25일 이인·경천에서 효포 방면으로 시위 행진을 시작했다.

효포싸움은 공성전이라기 보다는 남북접 동학군이 호남대로상에서 벌인 일종의 무장시위였다. 당시 남북접 동학군은, “호서도회에 참여하고자 하니 길을 빌려달라(借路)”<sup>21)</sup>는 명분을 내걸고 흥개를 씌운 큰 가마를 앞세워 행진 시위를 벌였으나, 일본군과 관군은 이에 집단발포로 대응했다. 당시의 관변 사료나 회고 자료에 따르면, 효포싸움 전날부터 온 산과 들판에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밤에는 온통 붉은색(햇불), 낮에는 흰색(흰옷)이었다고 한다. 효포싸움 당시 관군의

20) 당시 북접교단 측은 60만, 호남동학군은 100만을 칭했다. 하지만 공주 점거투쟁과 직접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남북접 원정군(남북접 지도부 지휘, 4-5만), 그리고 공주 인근 호서지역 포접의 동학군(각자기포하여 간접 참여, 5-6만)은 대략 10여만 내외로 추정된다.

21) 차로론, 즉 “법현이 소집한 호서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복상하는 것이니 길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이유상 상서>(法軒湖西都會之文 將以向北矣)와 <시경군영병>(日昨爭進借路而已)에 보인다.

집단발포와 추격전이 시작되자 남북접 동학군은 경천·이인을 거쳐 곧바로 논산·노성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막연한 가정이기는 하나 만약 당시 북접계 동학군이 금강 이북의 수원·안성·천안·홍주·청주 등을 점거하고 계획대로 남북접 동학군(원정군)이 공주 점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표방대로 여세를 몰아 구병입경을 시도했을까? 하지만 당시 남북접 지도부는 그럴 의도도 없었고, 또 그럴만한 정세도 아니었다.

공주 1차 접전에 실패한 이후 논산·노성 방면에 재결집한 남북접 동학군은 김개남포와 손화중포의 북상을 요청함과 동시에 호서의 동학군을 노성·이인·경천 방면에 집결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손화중포는 자정보위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김개남포도 10월 22일경부터 고산 금산을 거쳐 청주 방면으로 북상을 시작했으나, 규모도 크지 않고 전격적인 ‘진군’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논산·노성 등지에 운집한 남북접 동학군은 공주 1차 접전에 패배한 이후 추위와 오랜 노숙 생활로 말미암아 기세도 떨어지고 대오도 급격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군(대대 본부와 中路軍)과 우선봉진(이두항부대)은 토끼몰이식 진압 작전의 일환으로 남북접 동학군을 노성 방면에 고립시킨 뒤, 일거에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교단사 자료에 보이는 ‘전봉준의 참회’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에피소드라 여겨진다. 당시의 상황은 그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이었다.<sup>22)</sup> 하지만 전봉준이 본의 아니게 국가·국민·사문의 죄인이 되었음을 많은 도유(접주)

22) 전봉준은 일본공사관에서 취조를 당할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의병(=정토군)을 파견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느냐”, “일본 편에 서서 독립국이 되는 것이 좋으나, 아니면 청국 편에 서서 속국이 되는 것이 좋느냐” 등의 질문을 받자,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일본이 의병을 내어 우리나라를 도와 주었던 것의 情誼를 알지 못해 일본군에 대항한 것은 실로 유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東學黨大巨魁と其口供』,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 하지만 이는 앞서 인용한 전봉준의 참회를 교묘하게 비틀어 왜곡한 기사라 여겨진다.

들 앞에서 자책(참회)하며 끝까지 동심협력할 것을 호소하자, 남북접 동학군은 함께 공주로 직향하는 만사일생지계(萬死一生之計)를 실천했다.

11월 9일 남북접 동학군은 아침부터 한나절 동안 우금티를 주공격 방향으로 하여 여러 차례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 우금티 마루를 지켰던 일본군(서로군)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사선(死線: 탄착점) 안쪽까지 진입한 동학군은 2백여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근 야산과 들판에서 총포를 쏘고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올리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공산초비기』 등 관변자료에 의거해 보면, 효포싸움은 물론이고 우금티싸움도 인해전술식의 공성전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모두 대의명분을 앞세운 일종의 무장시위였다. 우금티 싸움 때도 많은 동학군이 공주로 모여들었으나, 그 규모나 위세는 효포싸움만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금티싸움 때 남북접 동학군은 속설처럼 인해전술(人海戰術)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무력 시위나 고시 발표 등을 통해 경군·영병, 이교·시민의 내용과 호응을 유도하고자 애를 썼다. 하지만 이는 기대와 희망일 뿐이었다. 호서와 호남 각지에서 유회군과 민보군의 반동학군 활동이 점차 거세지면서, 동학군의 고립은 점점더 심화되었다. 우금티 싸움 이후 11월 11일경까지 일부 지역(계룡산, 노성산성 방면)에 동학군이 잔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봉준·손병희 등이 이끌던 주력 부대는 11월 12일 창의소 명의로 <시경군영병(示京軍營兵)>이라는 짤막한 고시를 발표한 뒤, 곧바로 논산을 거쳐 호남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김개남포는 10월 22일경부터 금산 등을 거쳐 청주 방면으로 북상을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행진, 또는 다양한 초모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개남포는 성동격서 차원에서, 11월 13일 새벽 청주 인근에서 활동하던 동학군, 또는 우금티 싸움 이후 공주 방면에서 후퇴한 동학군과 함께 청주성 점거투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김개남포는 청주성 전투 이후 곧바로 논산 방면

으로 퇴각한뒤, 전봉준이 이끄는 호남동학군과 함께 전주방면으로 후퇴했다.

11월 14일, 15일경에 연산과 논산(소토산, 황화대)에서 벌어진 싸움은 퇴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지연전이었다. 당시 호남동학군은 소토산과 황화대 등지에 깃발을 꽂고 총포를 쏘며 기세를 과시했을 뿐 결사항전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호남 동학군은 추격군을 따돌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호남 방면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호중, 그리고 기호와 영남 등지에 몰려온 북접계 동학군이었다. 청주성과 연산싸움에서 연이어 패배한 이후 상당수의 북접계 동학군은 귀향을 포기하고 호남 동학군을 따라가는 호남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귀향길은 이미 일본군(중로군)과 관군, 유회군과 민보군 등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호남 퇴각 이후 남북접 동학군은 곧바로 전주에 재입성했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토끼몰이식 추격전이 시작되자 농성전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곧바로 전주를 물러났다. 전봉준 등 남접 지도부는 금구·태인 등지에서 몇 차례 자경보위를 위한 방어전을 펼쳤으나 모두 실패하자 11월 27일쯤 태인싸움을 끝으로 ‘자진 해산’을 공개 선언했다.

농민전쟁론에 의거해 보면 자진 해산은 패배 즉 항복을 의미한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는 내전이나 혁명과 달리 결사항전, 또는 상대방의 절멸을 목표로 한 투쟁이 아니므로 자신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관철되었거나, 많은 희생이 불가피하다 판단되는 경우, 집회·시위 군중 스스로가 자진 해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기세가 오르면 모이고, 기세가 떨어지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선봉이나 결사대(별동대, 호위대)로 활약한 포군이든 일반 동학군이든 남북접 동학군은 모두 강제동원(징집)된 병사가 아니라 자진해서 어셈블리에 참여한 집회시위 군중이었으므로, 계속 참여할 것인가 대오를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각자의 선택일 뿐이었다. 당시 법헌 최시형이 통령 손병희에게 내렸다는, 가급적 ‘집에만큼은

데려다주도록 하라’는 유시(敬通)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오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던 동학군을 낚선 타향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산하는 경우, 뿔뿔이 흩어져 도적이 되거나 객사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남북접 동학군에 대한 일본군과 관군, 유회군과 민보군의 집단학살이 본격화한 것은 동학군 지도부가 해산을 공식화한 이후였다.

한국사 교과서든 개설서든 남접/호남/전투 중심의 사건사 정리가 일반적이거나, 1894년 어셈블리 과정에서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며 각자기 또한 동학군은 북접교단이나 남접집단의 지시나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회립자생 자정보위하는 활동을 중시하였다. 당시 각자기 또한 동학군이 해당 지역의 감영급 도회지를 점거하고자 한 것도 더 큰 규모의 도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동학군을 모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점거 농성과 정치 담판을 더욱 힘 있게 벌여 나가기 위해서였다. 이는 을미의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을미년 홍주와 회덕의병이 갑오년의 동학군처럼 공주 점거를 시도한 것도 당연히 점거 농성과 정치 담판을 위해서였다.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터이나, 갑오년과 을미년 동학군과 의병의 읍치 → 감영 → 경사로 이어지는 점거투쟁은 19세기 후반 도회·의거 문화의 산물(귀결)이었다.

## II. 남접/호남/전투 중심 사건사 서술의 한계와 문제점

선행연구의 핵심 주장은 부제(副題) 그대로,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을 배타적으로 고집하는 경우 공주 점거투쟁의 실상은 물론이고 ‘동학 농민전쟁(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에 대한 이해와 상상의 폭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1892년 10월쯤부터 본격화

된, 이른바 교조신원운동 이래 십수 년에 걸쳐 고조와 퇴조를 반복한 동학 어셈블리(1892-1904)의 성격과 의미 등을 구명하고자 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아래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남접/호남/전쟁(전투)이라는 코드를 중시하는 경우, 사건사 정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한 계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서술은 진행 중인 후속연구의 요약이므로 일종의 시론이다.

## 1. 남접 중심 사건사 서술의 문제점

1894년 동학 어셈블리를 농민전쟁 즉 내전과 혁명에 준하는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우, 전체 운동을 지도하는 중앙지도부와 더불어 통일적인 강령(변혁사상, 권력구상)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는 이를 위해 동학군의 포고문·통문·방문, 등소·원정 등을 주목하거나, 전봉준의 공초(신문조서)와 판결문 등을 활용하여 남접 지도부의 개혁사상(방안, 구상)을 구명(추출)하고자 노력했으나,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남접 지도부의 중심인물들이 모두 동학(대)접주였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들이 그 나름의 개혁 사상이나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게다가 이들이 기포 과정에서 표방한 대의명분(〈무장포고〉, 〈사개명의〉)도 동학의 종지인, “수심정기하여 보국안민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차 봉기 시기 백산도회를 통해 호남 단위의 대도소·창의소(大將所·濟衆義所)가 구성되었는데, 대장은 전봉준, 총관령은 손화중·김개남, 총참모는 김덕명·오시영, 영솔장은 최경선, 비서는 송희옥과 정백현이었다. 오지영의 『동학사(간행본)』는 1차 봉기를 주도한 인물로 대장 전봉준, 기타 장령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오하영 등 16명, 그리고 34개 군현의 ‘군장’으로 160여 명의 접주들을 손꼽았는데,<sup>23)</sup> 1차 봉기

23) 이런 사실은 오지영의 『동학사(간행본)』에서만 확인된다. 「동학난과 고부 함락」,

때조차도 모든 호남 동학군이 남접집단의 지도와 통제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차 봉기 시기 호남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대접주 휘하에서 포접을 단위로 기포한 뒤 이른바 회립자생, 자경보위 투쟁을 전개하였다. 요컨대, 2차 봉기의 전체 흐름을 좌우한 것은 남(북)접 지도부의 지도와 통제가 아니라, 각자기포한 동학군이 각지에서 벌인 회립자생·자경보위 투쟁, 즉 자발적·자율적인 A/O(assembly/occupy) 투쟁이었다. 오지영은 무장 기포 때와 마찬가지로 삼례 재기포 때도 전봉준이 대장, 손화중과 김덕명이 총지휘<sup>24)</sup>가 되어 호남 53개 주의 동학군을 모두 지휘통솔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당시 호남지역에서조차도 각자기포한 동학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앙지도부는 없었다. 공주 점거투쟁 시기 전봉준은 총대장이 아니라 ‘양호창의영수(회맹주)’를 칭했을 뿐이다.

오지영은 삼례 재기포 때와는 별개로 남북접 연대(〈南北調和〉)가 성립된 9월 그믐 이후의 기포 상황을 따로 정리했는데, 호남지역의 경우 전봉준이나 남접 지도부가 이끄는 동학군과는 별개로, 함열(김방서 오지영), 익산, 옥구, 임피, 부안(김낙삼, 김낙철), 만경, 여산, 고산, 무주, 임실(이병춘), 전주(서영도, 허내원) 등지에서 북접계 포접(대접주)들이 회립자생 자경보위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공사관 측의 기록에 따르면, 10월 중순경 호남의 ‘오대포(五大包)’는 전주·삼례의 전봉준포, 태인의 손화중포, 용안의 정성원포, 남원의 김개남포, 여산의 윤

---

김태웅 역해, 『동학사』, 316~326쪽. 초고본에는 “白山에 留屯하고 衆望에 依하여 全瑋準이 大將이 되었고, 大將旗幅에는 保國安民 四字를 大書로 特書하였었다”는 간단한 언급만 보인다.

- 24) “孫和中 金德明 等이 總指揮가 되고, 全瑋準이 大將이 되며, 全羅一道의 大軍을 總히 領率하고, 全州城에 雄據하니, 此時 義風은 다시 大振하여 霜雪갓흔 威儀는 湖南五十三州 江山을 흔들고 남은 바람이 震動하여 左便으로 嶺南一帶와 後面으로 湖西一方에 波及이 되었었다.”(『동학사(초고본)』, 〈再度學義〉) ‘총지휘’ 가운데 김개남을 거론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오지영은 당시 김개남을, 남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하나의 세력(대접주)으로만 언급했다.

규병포 등이었다고 한다.<sup>25)</sup>

『동학사』에 따르면 공주 점거투쟁 시기 통령 손병희는 법헌 최시형을 대신하여 북접계 동학군을 총괄 지휘하였다. 하지만, 북접계 동학군의 경우도 통령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공주 점거투쟁에 직접 참여한 포접을 제외하면, 내포(예산·서산)나 세성산(천안·목천) 지역, 기호(수원·안성)와 영남(예천·상주) 지역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상당 지역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법헌의 훈시에 따라 회립자생 자경보위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주 점거투쟁 시기 동도(양호)창의소가 만들어졌고, 창의영수나 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 지도자도 존재했다. 그러나 동도창의소는 대본영이 아니라 의진, 그리고 영수는 의진의 회맹주, 통령은 법헌(장석, 선생주) 최시형을 대신하여 60만 동학군(道中)을 통솔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지도자였을 뿐 내전이나 혁명의 중앙지도부는 아니었다. 전봉준과 연대한 공주창의장 이유상(=李裕馨; 건평 접주)도 공주 1차 접전 시기 전봉준포와는 별개로 자기 휘하의 포군을 이끌고 부여(건평)와 이인 방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공주 점거투쟁 시기 각 포접 단위의 동학군은 서로 구역을 나누어 통지(密通)를 주고받으며 공동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이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중앙지도부는 없었다. 오지영은 『동학사(초고본)』에서 전봉준포는 공주 길로, 김개남포는 청주 길로, 송태섭포는 충청 우도편 길로 나누어 복상을 시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른바 논산 ‘대본영’이 이들 모두를 통할하는 전쟁 지휘부는 아니었다. 『동학사(초고본)』에 보이는, 전봉준이 이유상·김원식, 그리고 손병희와 동심의맹했다는 대목도 의진(의려)을 형성했다는 뜻이지, 전봉준의 수하가 되었다거나 예하 부대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공주 점거투쟁 시기 남접이든 북접이든 포접 조직과 별개로 각기 포

---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 (45) [東學黨偵探에 따른 편의제공과 東學黨關係 探問調査] > 2) [東學黨 關係 探問調査]

군(호위대, 무장대)’을 거느린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특정한 대접주 휘하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무장대(별동대)였지, 중앙지도부의 통솔하에서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던 ‘선봉대’는 아니었다. 호남 원정군은 물론이고 북접계 동학군도 포군의 장수(主將者=火砲領將)가 이끄는 선진(前陣)과 일반 접주가 이끄는 후진으로 이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중절목(軍中節目)>에 보이는, 주장자가 지휘하는 “선진은 사기(事機)를 말해주고, 후진은 이를 통지하고, 장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게 할 것”, 그리고 “(각 접주들이 지휘하는) 후진의 도인은 함매(銜枚)하며, 전진의 지시를 기다릴 것” 등은 이를 시사하는 증거들이다. 일본군의 <동학당 정토약기>나 <전투상보>는 회덕 지명장싸움과 연산싸움 때 전위의 존재를 인지했는데, 이들은 포군으로 구성된 일종의 선봉대를 이르는 말이라 여겨진다.

전봉준이 1892년 교조신원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호남 어셈블리의 주요 지도자로 부각되었다는 것, 그 결과 백산대회에서 호남창의군(동도창의소)의 대장으로 추대되었다는 것 등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전봉준은 각자기포한 동학군 지도자 가운데 하나(물론 출중한 동학 접주)였을 뿐이지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최고지도자는 아니었다. 물론 전봉준이 용무지(用武地)를 찾기 위해, 내전과 혁명을 도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학에 입도(가탁)하였다는 설, 또는 대원군 세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끊임없이 정변이나 병란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설 등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의 정체성을 논의할 때 그가 스스로 ‘동학을 호호하는 접주’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전봉준은 일본공사관에서 취조를 당할 때, ‘동학이 뭐냐’, ‘왜 입도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동학을 수심정기(수심경천)하여 보국안민하는 일이라는 규정한 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正心) 이외에 ‘협동일치’(『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를 강조하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진술은 최재우와 최시형도 배우고 실천한, 동학에 대한 가장 간명한 설명이다. 전봉준은 김개남과 손화중보다 늦게 입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연원으로 하는 연비(聯臂)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고부봉기 당시부터 정부와 유생들 사이에서 ‘전녹두’라 불렸는데, 녹두는 아명 혹은 별명이라는 것이다. 오늘날도 전봉준을 ‘녹두장군’이라 별칭하나, 어른(1894년 40세)이 되어서까지도 ‘녹두(찌깐하나 야물다는 뜻)’라는 아명 혹은 별명으로 불렸다는 사실은 당시의 호칭 문화를 감안할 때 그가 지역 내에서조차도 명망성이 별로 없었던 인물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대한계년사』를 집필한 정교조차도 전봉준을 ‘전녹도(前鹿島: 屬興陽) 만호(萬戶)’라 기록하는 오류를 범했는데<sup>26)</sup> 이 또한 그의 지역사회 내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전봉준이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중요한 지도자(대장, 영수)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까지 부정해서는 곤란하나, 지나친 영웅화도 위험하다.

## 2. 호남 중심 사건사 서술의 문제점

1차 봉기의 중심 무대는 물론 호남, 특히 전주부 관할 구역이었다. 하지만 무장포고와 백산도회를 전후한 3월 무렵에도, 경상도 북부의 상주·예천, 보은법소 인근의 옥천·영동, 호남북부의 금산·진산, 공주 인근의 이인·궁원 등지에서 각자기포한 동학군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특히 갑오변란 이후 2차 봉기 때는 점거 투쟁의 대상이 읍치를 넘어 감영 소재지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남접지도부나 북접교단의 지시와는 큰 상관이 없는 각자기포한 동학군의 회합자생·자경보위 투쟁이

26) “於是鄉民 推前鹿島(屬興陽)萬戶全琿準爲魁 遂於三月二十五日 與東學徒合衆至五六萬 首蒙白巾手執黃旗 揭以四個名義 一曰不殺人不殺物 二曰忠孝雙全濟世安民 三曰逐滅倭夷 澄清聖道 四曰驅兵入京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大韓季年史』> 甲午年夏四月] 당시 官人의 경우, 공주 사람들이 조병갑을 ‘조고부(조고비)라 불렀듯이, 성씨 뒤에 관직을 병칭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당시 만호제도가 형해화 되었다고는 하나, 녹도 만호는 상당한 벼슬이었다. 고려말 최영 장군도 녹도 만호 출신이다.

었다.

동학농민혁명재단의 사료아카이브에는 <사건 연표>가 DB화되어 있어 세부 항목별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한데,<sup>27)</sup> 사건사 정리 방식은 당연히 남접/호남/전투 중심적이다. 예를 들면, 사건 연표에 보이는 동학군 활동 관련 항목은 모두 780건(1894년은 736건)인데, 그 가운데 호남 동학군의 활동(특히 전투)과 관련한 항목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375건(1894년 361건), 호서는 134건(130건), 영남은 113건(113건), 강원은 47건(46건), 경기도는 27건(21건), 황해는 74건(57건) 등이다. 이를 월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표와 같다.

〈표 1〉 1894년 동학군 활동의 시기별 지역별 추이(『일지』)

시기/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라	7	10	30	68	60	25	32	13	40	22	28	26	361
충청	0	0	2	8	1	6	11	12	9	52	20	9	130
경상	0	0	3	4	3	2	9	18	16	15	21	23	113
강원	0	0	0	0	0	0	0	3	15	10	15	3	46
경기	0	0	0	0	0	0	0	0	6	13	2	0	21
평안 함경	0	0	0	0	1	2	3	1	0	1	0	0	8
황해	0	0	0	0	0	0	0	2	1	7	40	7	57
합계	7	10	35	80	65	35	55	49	87	120	126	68	736

동학군의 활동과 관련한 전체 항목을 월별로 나누어 보면, 1894년 1월부터 1894년 6월까지의 항목은 231건, 7월부터 12월까지의 505건으로, 1차 봉기 때보다 2차 봉기 때 훨씬 많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27) 주요한 분류의 항목은 <교조신원운동(이필제 관련 사건 포함)>(총 74건), <동학농민군 활동>(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평안도·함경도, 황해도: 총 780건), <반동학군 활동>(중앙정부, 관군, 일본군: 총 901건) 등이다.

수 있다. 위 집계만을 놓고 보면, 1894년 동학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공주 점거투쟁이 한창이던 10월과 11월이며, 그 중심 무대는 10월의 경우는 호서(52건), 11월은 해주성 점거투쟁이 한창이었던 황해지역(40건)이었다. 황해지역 동학군이 해주성을 물러난 것은 11월 6일이었다. 위의 표를 토대로 1894년 사건의 시기별·지역별 추이를 정리하면 전체 736건의 사건 가운데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음(361건)을 알 수 있으나, 1894년 어셈블리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9월부터 11월 사이로 좁혀 보면, ▲ 9월에는 전라도 40건, 경상도 16건, 경기도 15건 ▲ 10월에는 충청도 52건, 전라도 22건, 경상도 15건, 경기도 13건 ▲ 11월에는 황해도 40건, 전라도 28건, 경상도 21건, 충청도 20건, 강원도 15건 등으로 사건의 중심 무대가 지역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볼 때, 4월과 5월에는 호남, 8월과 9월에는 영남, 10월에는 호서, 11월에는 황해도 지역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4월과 5월 호남지역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연히 남접집단의 1차 봉기 때문이나, 9월에 접어들면서 영남, 호서, 기호, 해서 등지에서 동학군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에 기초해 볼 때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크게 보면 경부·경의 병참선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 수비대가 예방적 선제적 차원에서 인근의 동학군을 탄압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 수비대는 8월과 9월에는 문경, 상주, 예천, 9월과 10월에는 남한강 주변의 호서와 기호, 11월에는 황해도 지역의 동학군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였다. 전주화약 이후 주춤하다가 9월 들어 다시 호남 동학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삼례 재기포 무렵부터였으나, 10월 들어 투쟁의 중심 무대가 공주(충청감영)로 옮겨지면서, 상대적으로 볼 때 호남보다는 호서지역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후속연구에서 다룰 터이나, 대원군이나 고종의 밀사들이 가장 먼저 접촉한 것은 전봉준 등 남접 지도부가 아니라 오히려 경사와 가까운 호

중의 동학군 지도자(서장옥, 서병학, 장두재, 안교선, 임기준, 홍재길), 특히 북접교단의 영향 아래 있었던 지도자(손병희 휘하의 이용구, 이종훈 등)들이었다. 왜냐하면 대원군 세력이든 고종 세력이든 1차 봉기의 주체인 남접집단을 끌어들이며 쿠데타를 도모하는 경우, 그 위험부담은 배가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쿠데타 세력은 처음부터 호남 동학군보다는 경사와 가까운 호중·호서, 기호·해서 등지의 동학군을 끌어들이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전봉준은 신문 과정에서 대원군(밀지, 밀사)과의 관계를 일체 부인하였는데, 일본공사관 측도 그가 밀사들과 직접 접촉했다는 증거(증언, 물증)를 제시하지는 못했다.<sup>28)</sup>

부여 성검평 민씨가는 서울에서 궁궐 호위 무관으로 활동했던 이유상, 그리고 공주 감영 비장 이영해 등을 끌어들이 임기준 집단과 함께 항일의려를 형성하는 활동을 추진했으나, 대원군 효유문이 발표됨과 동시에 노성 윤씨가, 광산 김씨가, 은진 송씨가 등 호서 노론가의 호응이 부진하자, 9월 9일 충청감사 박제순과 안민약조를 체결한 뒤 자진해산했다. 다른 한편, 송정섭을 밀사로 한 조가밀교 사건에 노성 윤씨가 가밀접하게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최익현이 소모장으로 추대되어 노성까지 직접 왕립했다는 사실, 송정섭이 고종 명의의 밀교를 노성 윤씨가 뿐만 아니라 호서노론의 핵심 세력인 은송, 광김 문중에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 등도 2차 봉기의 중심 무대가 호남이 아니라, 호중과 호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28) 재판 과정에서 전봉준이 밀지사건(특히 대원군)과의 관련성을 애써 부정한 것은, 실제 밀사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사실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이들(서장옥, 장두재?)을 통해 모종의 협의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발각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天祐俠(재조선 일본 낭인 집단) 관계자들이 전봉준을 직접 찾아가 만난 것과 달리, 대원군이나 고종의 밀사들이 전봉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급적 삼갈 이유도 실패하거나 발각되었을 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후속연구 참조)

임술년이나 갑오년이나 도회지(都會地) 점거투쟁의 전개양상(발통 → 취회 → 등소 → 봉기)과 형태(집회, 시위, 점거, 농성, 답판)은 대체로 유사했다. 큰 차이는 갑오년의 경우 각자기포한 동학군이 도(道) 단위의 연대투쟁을 벌였다는 사실,<sup>29)</sup> 특히 감영급 도회지를 점거하는 투쟁을 넘어, 경사직향·구병입경·기병부경 등의 구호처럼 궁극적인 투쟁 무대가 경사로 상정되곤 했다는 사실 등이다. 이는 양 시기의 어셈블리를 비교할 때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만약 동학군의 기대나 희망처럼 갑오년에 경사를 점거할 수 있었다면, 경사대도회(京師大都會)<sup>30)</sup>는 국왕직소(卣闈)를 넘어 병란이나 정변, 내전이나 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잠재성)이 충분했다. 하지만 갑오변란 이후 구병입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내포 동학군의 사례처럼 각자기포한 동학군은 자경보위를 위해 읍치나 감영급 도회지를 점거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상례였다.

### 3. 전투 중심 사건사 서술의 문제점

1894년 10월과 11월, 효포와 우금티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접전(충돌·싸움)을 언급하면서, “무장봉기, 즉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내전이나 혁명이 아니라, 대의명분을 앞세운 일종의 A/O 투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특히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실증하는 것은 네 편의 서평을 통해

29) 공주 점거 투쟁 시기 남북접 간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각 포접간 연대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보이나, 도별 간의 경계와 구분은 여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정부(충청감영)가 의도적으로 ‘湖南賊(南匪)論’을 유포한 것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였다.

30)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동학군은 ‘\*\*\*[지역=도회지 명칭] + 대도회’라는 호명을 자주 사용했으나, 경사대도회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각자기포 회립자생 자경보위 등의 조어(약어)처럼 서술상의 필요 때문에 京師大都會라는 용어를 만들어 보았다. 어찌 보면,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京中民會)는 동학식으로 호명하면 일종의 경사대도회였다.

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듯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그 나름대로 사료적 근거를 제시하며, ▲ 남북접 동학군은 당초의 합의대로 금강 남북으로 기각지세를 형성한 뒤 경군과 영병, 이교와 시민의 내응과 호응을 유도하고자 했다는 점 ▲ 대교, 이인, 효포, 우금티 등 금강 남북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남북접 동학군과 일본군 및 관군과의 충돌 사건도 무장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무장시위에 가까운 사건이었다는 점 ▲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접전 과정에서 사망한 동학군은 속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1천여 명 내외)는 점 등을 강조하고자 애를 썼다.

1894년 동학 어셈블리와 관련한 한국사 교과서나 개설서 가운데는 당연히 전쟁·전투, 생포·포로, 함락·점령, 승리·패배, 화약(和約)·항복 등 전쟁과 관련한 용어가 무수하다.<sup>31)</sup>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제목의 ‘사건 지도’도 마찬가지이다. 위 지도에 사건 명칭이 병기된 곳은 모두 36곳(1차 9곳, 2차 27곳)인데, 1차 봉기 시기의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그리고 2차 시기의 용인 김량장터 집결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가 전투(24개 사건), 혹은 점령(고부관아 점령, 전주성 점령, 안성관아 점령) 관련 사건들이다.<sup>32)</sup>

넌리 알려져 있듯이, 무장 포고 무렵 남접 지도부는 4개 항의 명의(名義: 대의명분)를 발표했는데 첫 조항은 불살인불살물(不殺人不殺物)이다. 물론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항에 들어 있는 “구병입경하여 왜이(倭夷)와 권귀(權貴)를 축멸·진멸한다”라는 구호는 무장투쟁론을 정당화할

31) 선행연구에서, 당시 일본군이 동학군 사망자를 ‘戰死者’라 규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원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필자의 오류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전투상보>의 ‘賊徒의 死者’(죽은 놈=자)를 戰死者라 번역했으나, 이는 오역임이 분명하다.

32) 사건 명칭을 병기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들도 대부분 크고 작은 충돌 사건(전투?)들이라 짐작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효포나 우금티싸움조차도 ‘전투’라 호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수 있는 주요한 근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멸한다는 구호는, 전쟁·전투를 행하여 총칼로 죽인다(殺)는 뜻이 아니라 쫓아내(驅逐) 없앤다(滅)는 뜻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듯싶다. 왜냐하면 위의 구호들과 짝하여 등장하는 성도(澄清聖道)와 성훈(以從聖訓)은 살륙과는 거리가 먼 ‘거룩한 말씀’들이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터이나, 최제우는 양구출래(洋寇出來)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무기 확보와 식량비축 등 보다는 주문과 영부를 통한 수심정기, 칼노래·칼춤을 통한 신명고취 등을 더 강조하였다.<sup>33)</sup> 이런 태도는 최시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시형도 제자들이 도병재(刀兵災)를 피하는 방법을 묻자 공작평화(工作平和), 즉 ‘서로 만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즉 상대가 바라는 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는 담판 행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sup>34)</sup> ‘공주 점거투쟁의 기본원칙’이었던 최시형의 폭거중지 혁심개도(止其暴舉 革心改圖 則天意可回 師冤可伸 生

33) 『日省錄』; 사료 고종시대사1 > 고종 1년 > 1864년(고종 1년) 2월 > 1864년(고종 1년) 2월 29일 > 경상 감사 서헌순, 최제우 등 동학도에 대한 신문 결과를 보고함. <〈崔)福述四招〉 참조. 洋寇出來를 빌미로 식량과 무기를 약탈하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최제우는, “서양 도적(洋寇)이 나오더라도 주문과 칼춤으로 도적을 막을 것이고, 天神(하늘)의 도움을 받게 될 것(造化者 無爲而化 一필자)인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답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名義에 보이는 聖道와 聖訓도 이런 뜻임이 분명하다. 전봉준도 심문 과정에서 유사한 질문을 받았는데, 전후 맥락(동학을 酷好한다고 말한 대목 등)으로 미루어 보면 그 대답은 최제우의 그것과 동일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봉준은 “然則 日兵이며 各國人이 京城에 留住하는 者를 驅逐하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그러미 아니라 各國人은 다만 通商만 하느디 日人은 率兵하여 京城에 留陣하는 故로 我國境土를 侵掠하는가 疑訝함이니다” 라고 답변했다.<〈재초문목〉>

34) 남개천이 三災(특히 刀兵災)를 피하는 법을 묻자 최시형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敵兵來襲 殺害人民之時 使義氣男兒 接近於敵前 以充其所欲而工作平和則 可免也(『해월 신사법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전봉준이 재판 과정에서 밝힌 ‘請問’, ‘詰問’을 최시형이 말한 ‘공작평화’, 즉 ‘대의명분을 앞세운 정치담판’과 유사한 뜻으로 이해했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척사유생들이 주도한 을미(이설), 병오(최익현), 정미년(이인영)의 의병도 직접적인 무장투쟁보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정치담판을 중시하였다.

命可保) 유시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었다고 판단된다. 1차 봉기 시기 전봉준도 초토사에게 보낸 원정(原情)을 통해, “자신들이 부득이하게 무기를 든 것은 다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手執兵器聊爲保身之計而已)을 거듭 강조하였다.<sup>35)</sup>

개창기 이래 동학 공동체(道中)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흔히 최 선생의 문도, 혹은 도유(道儒: 道人)라 자칭했으나, 동학 어셈블리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창의군, 혹은 의군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동학군 스스로는 물론이고 당대의 어떤 사료도 동학군을 오늘날의 군인이나 병사와 유사한 존재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 선행연구에서 필자는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주체를 일률적으로 동학군이라 호명했는데, 이때의 군(軍)은 농사꾼(農軍), 나무꾼(樵軍) 등의 표현처럼 당연히 군인(병사)·군대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요컨대, 당시의 군·당 등은 모두 무리, 즉 특정한 공동체나 집단을 지칭하는 병농일치(兵農一致) 사회의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다. 당시에는 ‘일없이 놀고먹는 사람들’을 유군(遊軍)이라 표현하기도 했다(영호 대접주 김인배가 진주 지역에 게시한 9월 2일자 초차괘방).

이준용을 앞세운 쿠데타 주도 세력도 당연히 동학군을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전투를 수행하는 무력 집단(병사, 군인)’으로 상정(想定: 看做)하지 않았다. 쿠데타 세력이 이들을 경사로 끌어들이려 한 이유는 인중승천(人衆勝天)이라는 말뜻 그대로 많은 사람을 모아 백성(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쿠데타 주도 세력은 30만 정도(주로 기호와 호서)의 동학군을 경사로 끌어들여 종로에 만인소청을 설치한 뒤 그 분위기(위세)를 틈타 자기 휘하의 병대를 동원하여 정변이나 병란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했듯이,

35) 今日之事出於不得已之情景 手執兵器聊爲保身之計而已 事到此境 則億兆同心八路詢議上奉國太公監國 以全父子之倫君臣之義 下安黎民 更保宗社 誓死不變矣。(東匪討錄) > 湖南儒生原情于招討使文)

▲ 내부 주사 출신인 정인덕(정동 거주, 배제학당 교사 역임), 임진수, 박세강<sup>36)</sup> 등이 동학군 지도자들을 만나 구병입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를 포기하고 각국 영사관의 협조(동의와 지지) 가운데 종로에 만민소청을 설치한 뒤 상하의원(上下議院) 설립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는 점 ▲ 손병희 휘하에서 황산도소를 근거지로 하여 활약한 이용구(편의사)가 선무사 정경원과 더불어 정인덕 등 대원군의 밀사를 만나 만민소청의 소두를 자청했다는 점 ▲ 기포령 시기 최시형이 청산도회를 소집하여 보은도회 때처럼 국왕직소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 등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sup>37)</sup>

물론 병농일치 사회의 경우, 어셈블리 참여자들이 자발적(관행적)으로 무장을 갖추는 경우가 흔했다. 게다가 당시는 총포가 관아나 일반(양반가, 포수)에 상당 정도 보급되어 있던 때였다. 물론 관아에서 총포를 탈취하는 행위는 지방수령을 살해하는 행위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에 속했다. 하지만 5·18 광주 민중항쟁 때 시민들이 우발적·자발적으로 경찰서나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했듯이, 동학군의 무기 탈취 행위도 내전이나 혁명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우금티싸움에서조차도 동학군은 적군을 죽이기 위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 ‘총을

36) 밀지사건 때 이른바 ‘대원군의 밀사’로 활약한 정인덕(정동 거주, 배제학당 교사 역임), 임진수(이후 일진회 평의원으로 활동함), 박세강(공주 점거 투쟁 직전에 체포 처형됨) 등은 박준양(주모자)이 내부참의였을 때 내부 주사직을 수행한 인물들이다.(『대한계년사』: 후속연구 참조)

37) 대원군 밀사들이 동학군 지도자들에게, 구병입경을 통한 쿠데타나 병란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니, 정부와 각국 공관을 상대로 上下議院 설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제안하였으나, 동학군 지도자들은 오로지 ‘伸冤’ 한 가지만 고집했다고 한다.(임진수 〈초차문목〉, 〈재차문목〉 참조) 이로 미루어 보면 밀사들이 주로 접촉한 지도자는 서장옥·장두재, 안교선·임기준 집단 뿐만 아니라, 이용구(호서 편의사)와 이중훈(기호 편의장) 등 복잡계 지도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후속 연구 참조)

든’ 것일 뿐이었다. 김정한은 광주항쟁 시기 시민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의 폭력은 대항폭력(counter-violence)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폭력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반폭력(反暴力)’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sup>38)</sup> 이런 식의 해석은 동학군의 폭력을 언급할 때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쥬디스 버틀러의 언급처럼, 어떤 형태와 수준으로건 인민이 무장을 하는 경우, 무력 충돌 과정에서 폭력 자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른바 폭력의 ‘회색지대’로 돌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sup>39)</sup> 2차 봉기 시기 이른바 늑도(勒道)나 설분투쟁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반사회적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학군의 기포를 곧바로 무장투쟁이나 폭동으로 간주한 것은 권력, 특히 ‘진압군’의 시선일 따름이다. 동학군의 기포/의거는 곧바로 무장봉기(투쟁)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기포/의거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의기를 내외에 드러내기 위해 ‘포를 일으켰다’, ‘거사/거의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나 개설서들은 ‘황토현·우금티 전투’ 등을 중심으로 사건사를 서술(구성·재현)했으므로, ‘우금티 전투’의 패배 원인을 설명할 때도 당연히 일본군의 최신식 무기, 동학군의 무기 열세와 훈련 부족, 군사 전술상의 오류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광주민중항쟁의 실패 원인으로 시민군의 무기 열세, 훈련 부족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엉뚱한 설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자를 비교하는 것, 또는 이를 언급하

38) 김정한은 광주민중항쟁 시기 시민군의 무장 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절대 전쟁(absolute war)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반(反)전쟁이었으며, 국가폭력과 대결하는 대항폭력이 아니라 차라리 폭력에 대항하는 반(反)폭력(anti-violence)”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1894년 동학군의 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김정한, 2012, 「(기획: 사회운동과 폭력) 5·18 무장투쟁과 1980년대 사회운동-대항폭력의 과잉과 반폭력의 소실」, 『역사문제연구』 28, 119~143쪽.

39)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옮김, 2020, 「‘우리 인민’-집회(ASSEMBLY)에 대한 사유들」,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집회의 수행성 이론(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을 위한 노트』, 창작과 비평사, 268쪽.

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고 조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양자는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또 그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영웅적인 투쟁, 숭고한 희생의 이미지로 동학 어셈블리를 역사화하거나, 기억·기념하는 행위는 그래서 더 위험하다.

## 맺음말

앞에서 정리한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비판은 주로 개별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제목에 걸맞게 ‘넘어서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려면, 개별사건들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요컨대, 동학 어셈블리(1892-1904) 전체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서술이 가능하려면 개별사건들을 넘어 전체 사건에 대한 새로운 호명은 물론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대안) 개념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화행론(話行論)을 들먹일 것도 없이, 새로운 말은 새로운 사유와 상상을 유발하고, 새로운 사유와 상상은 또 새로운 행동과 실천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동학 어셈블리라는 낯선 용어와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상상, 즉 새로운 ‘말 걸기’와 ‘말 섞기’를 자극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과거의 역사, 그것도 우리 한국 역사를 다룬 글이니, 어셈블리라는 외국말보다는 조선의 정치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학 기포, 도회·의거 등 당대의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비판과 충고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무리와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동학 어셈블리라는 용어와 개념을 고집한 이유는 도회(도시/집회)와 폴리스polis(도시/정치politics의 어원)가 그러하듯이, 어셈블리(집회/의회)의 중의적(重義的: **Double Meaning, Ambiguous Expression**) 의미를 그대로 살리려면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

다는 판단, 그리고 생소하고 생경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말 잡기 싸움의 도발성을 배가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sup>40)</sup>

누차 강조했듯이, 동학 어셈블리는 일괴암적인(monolithic) 단일 사건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누적)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다사건(eventful)이다. 따라서 사건사의 대상이나 범위, 서술 목적이나 의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호명, 다른 사건사 정리가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필자가 다사건적인 분석 방법을 중시한 것, 단일 사건보다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누적) 과정을 중시한 것, 사건사의 분석대상, 특히 사건사 정리의 대상 시기를 교조신원운동 때부터 갑진민회운동 때까지로 넓힌 것 등도 모두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요컨대, 동학 혹은 동학 어셈블리의 성격과 의미,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개별사건들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창기(1860-1863) 이래, 은도기(隱道=伏流期: 1864-1891), 현도기(顯道=化現期: 1892-1894), 전환기(1895-1904) 등을 거치며 고조와 퇴조를 반복한 동학 어셈블리, 특히 현도기와 전환기의 동학(주체와 목적, 사상과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41)</sup>

끝으로 한가지만 더 언급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동학의 종지(宗旨: 主旨, 主義)를 언급할 때, ‘오도(吾道: 造化者)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는 말, 혹은 천도교의 종지인 인내천(人乃天: 事人如天) 등을 강조했으나,

40) 질 들뢰즈 등 프랑스 철학자들은 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걸 즐길까? 이런 질문에 대한 들뢰즈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독자들에게 생경함을 안겨 주고 새로운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 주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낯설게 하는 것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유가 일어나고 활발해진다.”, “진정한 학문의 능력은 새로운 개념이나 단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계열 7: 신조어들』, 107~114쪽, 참조(질 들뢰즈, 1999,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41) 농민전쟁론처럼 단계적 발전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어셈블리의 고조와 퇴조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 것일 뿐이다. 네 개의 시기로 나누었으나, 가장 큰 획기는 역시 1894년 이전과 이후이다.

최제우·최시형·이필제·전봉준 등 모든 도유(道儒)와 도중(道中, 道衆)이 배우고 실천한 동학의 종지는 보국안민<sup>42)</sup>이었으며, 그 실천 방법은 포덕·포접이라는 용어처럼 동귀일체(同歸一體: 협동일체, 대동단결), 즉 어셈블리 그 자체였다. 최제우와 전봉준은 재판 과정에서 ‘동학이 무엇 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즉각, 수심정기하여 충효하고 보국안민하자는 일이라 답했다. 동학 경전(포덕문과 논학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학은 사세(斯世: 우리 세상)의 사민(斯民: 우리 백성)을 위한 사학(斯學: 우리 학문), 즉 우리 민중이 스스로 배우고 실천해야 할 보국안민 지학(輔國安民之學)이었다.<sup>43)</sup> 후속연구의 제목이기도 한 ‘동학 어셈블리(1892-1904)’는 다음의 다섯 가지 가설에 기초한 사건 명칭이자 역사 서술 개념이다. 즉 첫째, “동학이 어셈블리(사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셈블리라는 사건이 오히려 동학을 만들었다(evented)”는 것, 둘째, “동학의 종지는 무위이화(無爲而化)나 인내천(人乃天)이 아니라 전봉준도 강조했듯이 수심정기하여 보국안민하는 일, 그 자체였다”는 것, 셋째, “남접집단이나 호남 동학군도 특별한 변혁(지도) 사상이나 강령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보국안민의 종지를 실천하기 위해 모인 동학 공동체의 일부였다”는 것, 넷째,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이후에도 동학 공동체는 영학회·진보회 등을 매개로 보국안민의 종지를 실천하기 위한

42) 保國, 報國, 輔國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영호, 2004, 「동학·농민의 일본인식과 ‘보국안민(輔國安民)’ 이념」,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참조. 천도교 교단사 자료에도 당연히 동학의 종지와 관련하여 보국안민의 (大)道, (大)策, (大)計 등의 표현이 자주 보인다.

43) 필자는 『동경대전』의 〈포덕문〉과 〈논학문〉에 기초하여 동학을, “斯世의 斯民을 위한 斯學=東學, 즉 輔國安民之學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위의 ‘이 斯字’는 ‘가르다’, ‘조개다’ 등 안팎을 구분한다는 의미, 즉 ‘결합전 분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라는 말과 그 뜻이 정확히 일치한다. 동학 경전에 자주 보이는 斯道, 斯世·斯地, 斯民(吾道受於斯布於斯) 등의 斯字는 유학 경전의 斯文·斯學처럼 ‘正統’이 아니라 ‘우리’를 의미한다. 요컨대, 동학이란 우리 세상 우리 땅의, 우리 민중을 위한, 우리 민중의 배움과 실천이다.(후술 참조)

어셈블리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 다섯째,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조선왕조 사회의 대파국과 함께 보국안민 어셈블리의 주체인 민중(會衆), 혹은 근대적인 의미(신분제를 넘어선, 주권재민 사상을 담지한)의 인민이 출현(appearance)했다”는 것<sup>44)</sup> 등이 그것이다.

앞서도 거론했듯이 동학 농민전쟁(혁명) 연구자들은 사건사의 서술(분석) 대상을 가급적 좁히거나, 특정 사실을 과장(조작)하는 방식으로 농민전쟁론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그럴 때 개별사건은 물론이고 전체 사건에 대한 이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동학 어셈블리가 가진 ‘사건들로 충만한’(eventful)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분석대상 시기와 범주를 넓혀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누적) 과정을 두루 주목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894년 동학 어셈블리는 미숙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한’ 사건(내전 혹은 혁명)이 아니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등장한 일련의 사건들, 즉 사건의 연쇄와 누적 과정에서 민중 혹은 인민이 출현(등장)하고 결국은 이들에 의해 조선왕조 사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어떤 개별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결과와 영향, 성격과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동학 어셈블리(1892-1904)와 3·1 만세운동, 4·19 학생 의거와 5·18 광주민중항쟁 등 민중들의 자발적·자율적인 어셈블리가 우리 역

---

44)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 과정에서 등장한 변혁주체 민중론은 구조사적인 관점에서 ‘특정 계급의 형성’과 더불어 존재 자체의 변혁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는, 사건사적인 관점에서 동학 어셈블리라는 사건을 매개로 민중 혹은 혹은 근대적인 의미의 인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출현)’했다는 점을 더 주목하였다. 필자가 생각하는 민중이란 1894년 동학농민혁명, 3·1 독립만세운동 등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어셈블리 투쟁 과정, 즉 모이고 모아 점거하고 담판하는 투쟁 과정에서 등장한 일종의 ‘會衆’이다. 이같은 민중 개념은 E.P 톰슨이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making)을 thing이 아니라 happening으로 이해한 것과 유사한 발상에 기초한 것이다.(후속연구 참조)

사의 큰 흐름을 뒤바꾸는(변화시킨) 계기와 동력을 제공했다. 이런 주장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자 현실이다. 우리 역사의 흐름을 크게 뒤바꾼 사건은 내전이나 혁명이 아니라 민중들의 자발적인 어셈블리 그 자체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강한(strong) 국가’(사실은 외세종속적인 식민·괴뢰·독재국가)를 향해 끊임없이 청원하고 탄원하는 ‘약한(weak) 사회’<sup>45)</sup>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 사학계는 농민전쟁론이나 불세비키(전위당) 혁명론 등에 휘둘러, 민중들의 자발적인 어셈블리가 가진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탐구하지 못했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1894년 동학 어셈블리 때부터 최근의 촛불·탄핵 어셈블리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전통)는 우리 역사의 보고이자 자산이다. 과거 역사의 성취와 한계를 실사구시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K-어셈블리의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K-어셈블리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앞세운 이유는,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은 특정한 정치지도자나 정당의 지도가 아니라 종종 민중들의 자발적·자율적인 어셈블리에 의해 뒤바뀌기도 했다”는 점, “과거에 그러했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러하니, 과거 역사를 인계손익하는 가운데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중사학은, “과거 역사를 매개

---

45) 신기욱은 ‘강한 국가 ↔ 약한 사회론’의 변형인 이른바 강한 국가 ↔ 투쟁하는 (contentious: 대의명분 등을 내걸고 논쟁하는) 사회론에 입각하여, 사회운동 갈등 → 이슈의 제도화 → 사회 변동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기욱, 「식민지의 사회운동과 역사변동」,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전통과 현대, 2001; 신기욱·한도현, 「식민지 조합주의 1932-1940년의 농촌진흥운동(『Colonial Coporatism: The Rural Revitalization Campaign, 1932-1940』)」,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편저, 도면희 번역,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 —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삼인, 2006, 참조.

로 민중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자발적, 혁명적 흐름을 변혁의 동력으로 바꾸어내는데 기여하는 역사학, 즉 민중의 과거 삶을 소재로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변혁을 향한 새로운 촉발과 감응(感通)을 야기하는” 역사학이다.

투고일 : 2025. 10. 9. 심사완료일 : 2025. 10. 30. 게재확정일 : 2025. 11. 10.

## 참고문헌

### 〈단행본〉

- 지수결, 2025,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역사비평사.
- 왕현종, 2024, 『민중을 바라 보는 방법』, 소명출판.
-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2020, 『어셈블리-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제언』, 이승준·정유진 옮김, 알렙.
- 이영호, 2020,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푸른역사.
- 채오병·전희진, 2016, 「인관성, 구조, 사건」, 『(사회학총서 10) 사회사/ 역사사회학』, 다산출판사.
- 주디스 버틀러, 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집회의 수행성 이론(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실 옮김, 창작과 비평사.
- 趙景達, 『異端の民衆反亂 一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박맹수 역, 『이단의 민중 반란』, 역사비평사, 2008]
-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정창렬 저작집 1) 갑오농민전쟁』, 선인, 2014]
-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편저, 도면희 번역, 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삼인.
- 석현호·유석춘 편저, 2001,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 〈논문〉

- 도면희, 2025, 「답사와 구전을 통한 동학농민군의 공주 전투 재구성-정선원, 2025,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 전투 연구』(모시는사람들, 2024)」, 『역사와 책임』 제16권, 민족문제연구소, 276~281쪽.
- 유바다, 2025, 「(서평)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동학농민혁명연구』 제4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29~243쪽.
- 김현주, 2025, 「(서평) 어셈블리라는 렌즈로 본 동학군의 ‘1894년 의거」, 『역사비평』 제151호, 역사비평사, 605~613쪽.
- 권기하, 2025, 「(서평) 어셈블리’는 ‘농민전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지수결의 위 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역사와 현실』 제135호, 한국역사연구회, 199~216쪽.

- 도면희, 2024, 「(서평) 혁명적 농민운동론으로부터 'A/O 투쟁론'으로-지수걸 저,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역사비평사, 2024)」, 『역사와 책임』 제15호, 민족문제연구소, 388~394쪽.
- 김정환, 2012, 「(기획: 사회운동과 폭력) 5·18 무장투쟁과 1980년대 사회운동-대항폭력의 과잉과 반폭력의 소실」, 『역사문제연구』 제28권, 역사문제연구소, 111~133쪽.
- 신영우·배항섭·정창렬, 1999, 「제2차 농민전쟁」, 『신편 한국사 39』, 국사편찬위원회.

〈Abstract〉

## Moving Beyond the Peasant War Theory Centering on South Headquarters and Honam

Ji, Su-gol\*

After the publication of my book, *The Gongju Occupation Struggle of the Donghak South-North Headquarters in 1894*, four reviews appeared, most of which focused their criticism on my conceptualization of the “assembly.” Their critique is valid, for the notion of the “Donghak Assembly” was intended as an alternative interpretive framework to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Donghak Peasant War. My deliberate use of the term “Donghak Assembly” was meant to provoke scholarly debate; paradoxically, this provocation seems to have obscured rather than illuminated the substantive issues I sought to raise.

The objective of the Donghak forces was not to “advance on and enter the capital (Seoul),” but to occupy Gongju. Their strategy did not rely on direct military confrontation but on eliciting favorable responses from government troop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large-scal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South-North Donghak Headquarters aimed to build an anti-Japanese solidarity through the Hoseo Dohoe (reg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this solidarity, they sought to engage in occupation protests and political negotiations. To continue interpreting the movement in terms of the established codes of “South Headquarters,” “Honam,” or “battle” risks distorting its historical character and

---

\* Emeritus Professor, Gongju University

significance. Seeking to move beyond such interpretive confines, this study expands the scope of analysis from the Gongju Occupation Struggle to the broader concept of the Donghak Assembly.

**Key word :** Donghak Assembly, Namjeop-Honam Peasant War,  
Gongju-Occupation-Struggle, Dohoi·Eugeo



##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원도연\*

### 〈목 차〉

머리말: 백산성지와 부안

I. 백산의 장소성과 시민혁명

II.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의 현황과 활용

III. 부안 시민혁명의 전당의 방향과 활용

맺음말

### 〈국문초록〉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백산은 어떤 의미일까. 백산대회는 1894년 1월의 고부봉기와 3월의 무장기포에 이어 일어난 중대사건이었다.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은 무장에서의 혁명적 선언에 이어 백산에 모여 직접 군대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돌입했다.

전라도 일대의 동학농민군들은 이곳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혁명군대의 편제를 구성하고 군대의 목표와 행동강령을 정했다. 백산은 이로써 한국 근대사에서 매우

\* 원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 백산대회는 동학농민군이 혁명군의 진용을 구축한 ‘결진’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당시 민중들의 주류를 이루었던 농민들이 ‘경계를 넘어’ 하나의 의지로 모인 시민대회이자 출정식의 성격이 강했다. 백산대회 이후 한국사회는 전통사회에서 유림들이 주도하던 일련의 ‘복합상소’ 방식에서 민중이 주도하는 시민대회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백산대회가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이 스스로 모여 권력에 맞선 무력항쟁까지 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는 늘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저항을 통해 진전되었다. 백산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근현대 한국 민중운동사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백산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훗날 3.1운동과 4.19, 80년 5월 민주화투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

부안에 새롭게 건립될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방향성은 첫째, 역사공간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점, 둘째, 근현대 시민혁명 기념공간이라는 점, 셋째, 예술적 혁명 기념 공간, 넷째, 축제적 장소성, 다섯째, 공간운영의 수익모델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 백산대회, 시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근현대민중혁명

## 머리말: 백산성지와 부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백산은 ‘약속의 땅’이었다. 백산은 해발 47.4m의 낮은 구릉에 가까운 야산이지만 정상에 서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진강(東津江)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고부천(古阜川)이 흐르는 천연의 요새로 결코 낮지 않은 산이다. 백산은 고부군을 중심으로 부안현(扶安縣)·정읍현·김제군·태인현(泰仁縣)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전라도 일대 농민군들이 대회를 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고부에서 봉기하여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들은 당시 고부 땅이었던 백산을 중심으로 이동했고, 동시에 전라도 일대 농민군들이 함께 모여 혁명군대로 출정하는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 특히 농민군들은 무장기포 후 현실적인 위협이 될 감영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백산

이 매우 중요했다. 전주에서 출발한 감영군이 동진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유일한 포구인 군포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곳을 경계하고 방어하는데 백산은 최적의 장소였다.

백산은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안고 동학농민군이 혁명의 시작을 알린 장소였다. 전라도 일대의 동학농민군들은 이곳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혁명군대의 편제를 구성하고 군대의 목표와 행동강령을 정했다. 백산은 이로써 한국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

이외에도 농민군들이 이곳 백산을 혁명군이 모이는 약속의 장소로 삼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는 생거부안(生居扶安)으로 상징되는 부안의 풍요였다.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들과 이에 호응한 농민군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혁명의 대의는 완성되었고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병참이었다. 부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인 김제평야가 있는 김제와 바다의 보고인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고창과 맞닿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에서 기포한 전봉준 등은 부안 동학지도자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으며 백산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안의 동학군 지도자들의 존재다. 부안의 동학 지도자들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체 과정에 크게 두드러진 인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안이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뜨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부안의 농민군들은 부안의 방식대로 투쟁했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 중 김기병, 김병철 등은 1차 농민봉기에 적극 참여하여 반봉건 투쟁에 나서며 주력으로 활동했다. 반면 김낙철, 김영조, 윤상오 등은 일찍이 최시형에 의해 동학에 입도하고, 광화문 복합상소 등 교조신원운동 당시부터 활동한 양반 출신의 동학교도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전봉준 등의 1차 봉기에 호응하였으나 이후 독립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집강소 통치기에는 농민군과 반농민군 사이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부안의 질서

를 지키는 활동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부안 동학농민혁명은 부안이 가진 지역특성과 함께 이 곳 출신 지도자들의 활동방식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인 과제들에 앞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백산’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백산대회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백산대회를 기념한다는 것은 ‘백산’의 장소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백산대회에 대해 우리가 가진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은 백산을 기념하는 방식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 I. 백산의 장소성과 시민혁명

### 1. 백산의 장소성

공동의 경험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특정공간은 ‘장소’가 되고 그 공간의 성질을 우리는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고 한다. ‘나의 살던 고향’이라든가 ‘그녀와 걷던 길’ 등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주관적 체험에 의해 각별한 의미가 붙여지고 그들의 삶이 반영된 특별한 장소들이다.(김한배, 1998)

그렇다면 백산은 어떤 곳일까. 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공간은 압축된 시간을 담고 있다’고 했고 ‘장소는 정지,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자 고요한 중심이라고 했다.(Yi-Fu Tuan, 1995; 8) 벤야민 역시 장소감은 개인적 경험과 느낌에 통합되고 도시의 의미는 사람들의 삶의 사건을 통해 해석된다고 했다.(W. Benjamin, 1998; 58-59)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백산대회를 단일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떤 사회사적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가 그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남겨져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백산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백산은 그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과 기념공간이 들어섰다. 그러나 백산성지는 사건의 의의와 중대성에 비해 기념사업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전북지역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필두로 각 지역에서 기념관 및 기념공원을 조성해왔다. 그렇다면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백산은 어떤 방향성과 가치로 기념사업을 수행하며,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1894년 백산대회는 동학농민혁명사의 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대회였다. 백산대회는 동학농민군이 혁명군의 진용을 구축한 ‘결진’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당시 민중들의 주류를 이루었던 농민들이 ‘경계를 넘어’<sup>1)</sup> 하나의 의지로 모인 시민대회이자 출정식의 성격이 강했다.<sup>2)</sup> 백산대회 이후 한국사회는 전통사회에서 유림들이 주도하던 일련의 ‘복합상소’ 방식에서 민중이 주도하는 시민대회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백산대회가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이 스스로 모여 권력에 맞선 무력항쟁까지 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는 늘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저항을 통해 진전되었다. 백산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근현대 한국 민중운

---

1) 1894년 1월 고부봉기에서 농민군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월경’이었다. 전봉준 등 혁명의 지도부는 고부의 경계를 넘어 봉기를 혁명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했으나 고부의 향촌 주도층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 고부봉기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혁명적 전환이 즉각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2)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여 제작된 SBS 드라마 <녹두꽃>에는 ‘경계’에 의미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우금치 전투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농민군들은 진퇴를 고민하며 한 자리에 모인다. 그 자리에서 주인공 백이강은 천민출신의 동료들에게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았다’며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연설한다. 이 장면을 본 고부의 황진사는 그의 친구 전봉준에게 이들이 ‘경계를 넘었다(극복했다)’고 말한다.

동사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백산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훗날 3.1운동과 4.19, 80년 5월 민주화투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sup>3)</sup> 그런 의미에서 백산은 근대 시민(민중)혁명의 출발을 기념하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백산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중저항의 기념비적인 공간이며 현대적 시민혁명의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림 1〉 백산대회, 이기홍 화백의 ‘전야’(前夜, 1994)

특히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안 지역사의 관점에서도 백산대회는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1894년 3월 26일(음력) 백산대회의 전야(前夜), 백산 일대에는 전라도 각지에서 몰려든 농민군들이 피워올린 횃불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했다. 그리고 이 횃불의 전통은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당시 부안군 전체에 밝혀진 촛불투쟁으로 이어졌다. 대규모 시민집회에서 촛불이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저항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밝혀진 것은 2003년 부안이었다. 그리고 부안에서 켜진 촛불시위는 2016년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sup>4)</sup>

3) 백산대회 이전 1892년부터 동학교단이 주도한 교조신원운동 역시 대중집회의 양상을 보였지만, 이는 종교의 자유와 교주의 신원을 위한 집회로 백산대회와는 성격과 내용이 달랐다.



〈그림 2〉 2003-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 촛불집회

## 2. 백산대회와 시민혁명의 조건

시민혁명을 결정짓는 요건은 연구자와 시대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혁명의 시기에는 기존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이념과 사상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질서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모순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결과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차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혁명은 불씨를 키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는 극도로 부패하거나 왜곡되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러 민중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전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무조건 혁명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실천적 지도자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혁명은 다가오지만 많은 경우 체제 내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해소되거나 계급적

- 
- 4) 핵폐기장 반대투쟁에 대해서는 지금도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그 투쟁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그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준 부안군의 역동성은 놀라운 것이었다. 핵폐기장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부안군과 군민 전체의 열정은 2000년대 이후 지역단위에서 벌어진 시민운동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서구 각국의 근대혁명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철저하게 민중들의 주도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되고 이것이 국가적 단위에서 역사적 흐름으로 형성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사 전체에서도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백산대회는 혁명군의 진용을 구축한 것 뿐만 아니라 혁명의 정신과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백산격문과 4대 명의(名義) 및 12조 기율은 혁명의 대의와 명분, 목표와 전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의를 일으켜 여기에 이름은 그 본뜻이 결단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도탄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하고 강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이전들은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원한이 깊은 사람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나라. 만일 이 기회를 잃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짧은 격문을 통해 동학농민군은 “우리가 의를 일으켜 여기에 이름은 그 본뜻이 결단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도탄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라는 혁명의 대의와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혁명의 목표는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하고 강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며, 혁명의 공동전선을 구축할 이들은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이전들은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원한이 깊은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격문과 함께 발표된 4대 명의는 동학농민군의 실천강령을 구체화한 것이며, 12개조 기율은 농민군 스스로의 규범을 정한 것이다. 백산대회는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이 봉기

혹은 기포의 수준에서 완전히 경계를 넘어 국가적 단위의 혁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동학농민혁명과 시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내내 이어져온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커져서 쌓여 폭발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전개되었다. 그것도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형태가 아니라 지방도시에서의 일어났으며 혁명의 지도부는 동학교단의 지도부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혁명의 전개는 전세계 민중혁명의 전개와 매우 유사하다.

동학농민혁명과 가장 유사한 전개를 보인 것은 시기가 훨씬 앞서기는 하지만 1525년에 일어난 독일농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농민전쟁은 1525년 2월 16일 메밍겐 자유시에 딸린 25개 촌락이 반란을 일으켜 시참사회의 치안관들에게 경제조건과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촌락의 농민들은 부채노역, 토지이용, 숲과 공유지의 지역권 문제, 예배와 수금에 관한 종교적 요구사항 등을 호소했다.

당시 농민들은 예상밖으로 농민-도시(지배계급)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선언서를 내놓았다. 농민들의 고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기초한 12개 조항의 정강이 나온 것이다. 당연히 메밍겐시 참사회는 농민들의 요구 대부분을 거부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훗날 메밍겐에서 제기된 개혁안이 이후 상슈바덴 서약동맹에서 발표한 12개조 정강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독일농민전쟁은 1524년부터 각지에서 시작된 민란까지 포함하여 중앙유럽의 독일권역 전체에서 일어났다. 30만명의 농민들이 봉기했으나 빈약한 무장상태와 귀족들의 강경한 진압으로 약 1년 동안 10만여명이 학살당했고 농민군은 패배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이들은 벌금

을 부과받았고, 농민전쟁의 요구사항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농민전쟁은 급진적 성직자(주로 재세례파)들의 지지와 지도를 받은 농민들의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반란의 성격을 가졌다. 독일농민전쟁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넓게 일어난 민중봉기였다.

근대시민혁명을 대표하는 1789년 프랑스혁명 역시 그 출발은 농민봉기였다. 1780년대 프랑스의 농촌지역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1784년과 1788년의 대흉작으로 위기에 빠졌다. 곡물 가격은 두 배로 상승했고, 영주들이 부과하는 가혹한 세금은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 1720년부터 1788년 사이에 프랑스 각 지역에서 4,400건의 집단 시위가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3천건 이상이 1765년 이후에 발생했다. 이 시위들은 이들은 대부분 식량 폭동의 수준이었지만 서서히 반봉건 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했다.

프랑스 농촌의 투쟁에 힘입어 1789년 봄 프랑스 전체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제안을 시작했다. 마침내 프랑스 국민들은 1789년 7월 파리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면서 국가와 귀족 권력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을 시작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637년부터 2년여간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의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일본 규슈 최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동쪽으로 사가현을 서쪽으로는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곳이다. 1637년 이곳에서는 일명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乱, 1637-1638년)이 일어났다. 농민반란의 원인은 역시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의 강압적인 세금 정책과 기독교 탄압이었다. 지속적인 종교적 탄압과 과중한 세금으로 신음하던 농민들은 1637년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를 중심으로 농민과 사무라이 약 3만7천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시마바라 성을 거점으로 2년여간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막부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참가자 대부분이 학살당했다. 이후 막부는 일본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금지하는

강경 정책을 시행했고 일본은 이후 한국과 달리 시민혁명의 전통이 거의 무너졌다.

동학농민혁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 바이아(Bahia)주의 칸우두스(Canudos)에서 일어난 농민전쟁도 주목할만하다. 칸우두스는 브라질 바이아(Bahia) 주에 위치한 도시로 1896에 시작되어 2년여에 걸쳐 전개된 농민전쟁의 중심지였다. 이 농민전쟁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격렬한 내전 중 하나로, 농민과 정부군 간의 충돌이었으며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

19세기 후반 브라질 북동부는 가뭄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때 안토니우 콘셀레이루(Antônio Conselheiro, ‘조언자 안토니우’)라는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여 가난한 농민과 하층민들을 이끌고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는 사회적 평등과 공유 경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세금과 억압을 비판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 원주민, 흑인 해방 노예들이 칸우두스로 모여들었고, 약 2만~3만 명 규모의 자급자족 마을이 형성되었다. 칸우두스 공동체가 급속하게 성장하자 브라질 정부는 이를 견제하여 공동체 자체를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시작했다.

브라질 정부는 1896년부터 4차례의 군사 공격을 감행했는데 초반 세 차례의 공격에서는 칸우두스 공동체가 방어에 성공했으나 네 번째 공격에서 1만 명이 넘는 정부군이 총공세를 받았다. 1897년 10월 칸우두스는 결국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도자 안토니우 콘셀레이루도 전쟁 중 사망함. 공동체의 주민들 대부분도 학살당하거나 강제로 이주를 당했다. 이 사건은 브라질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농민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이후의 농민 운동과 토지 개혁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II.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의 현황과 활용

### 1.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현황과 부안의 기념유적

2021년 기준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의 수는 총 378 개소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유적지는 311개였으며 기념물 및 기념 시설은 67개소로 나타났다.<sup>5)</sup> 2021년 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유적지 311개 중 현재 기념시설이 있는 곳은 90개소였으며, 안내판 등 최소한의 기념시설이 없는 유적지도 195개로 확인되었다.

〈표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의 권역별 분포

	계	경기관	강원	충북	충남권	전북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유적지	311 (89)	5(2)	14(6)	21(5)	62 (12)	93 (42)	72 (14)	33(5)	11(3)
기념시설	67	1	0	7	9	24	12	11	3
계	379	6	14	28	71	117	84	44	14

\*경기권(서울), 충남권(대전·세종), 전남권(광주), 경북권(대구), 남권(부산·울산)으로 통합

\*( ) 안은 유적지 중 기념공간 및 기념시설이 설치된 유적지의 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각 시도별로 보면 역시 전북지역이 93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남권(72개), 충남(62개), 경북(33개), 충북(21개) 순서로 집계되었다. 2005년에 비해 90개의 유적 및 기념시설이 더 늘어난 것이다. 충북지역은 2차 기포 당시 동학농민군의 기포와 관련된 지역과 김개남의 전투경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동학

5) 이 조사결과는 2021-202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수행한 「동학농민혁명 기념 유적 조사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22년 이후 각 지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념시설은 이 통계에서 빠져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고창군이 세운 '녹두장군 전 봉준 장군 동상'이나 2024년 전주시가 완산칠봉에 세운 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 등은 이 통계에서 빠져있다.

을 창도한 최제우 관련 유적과 2차 기포 이후 동학농민군의 전투 관련 유적들이 다수 세워진 것도 이채롭다.

그러나 전체 유적지 311개소 중 195개 장소에는 아직 어떤 형태로든 기념시설과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북과 충남 등이 동학농민혁명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별 기념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적지를 현장의 성격별로 분류하면 전투·집결지로 대표되는 활동유적이 218개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동학농민군들의 전투와 집결 뿐만 아니라 모의·점령지 등이 포함됨. 인물 유적은 76개로 주로 동학농민군들의 출생·성장·은거·피체·순절지 등이었다.

부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다음 <표 2>와 같다. 백산성지는 국가사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재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을 앞두고 있다. 백산성지는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3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기념물로 <동학혁명백산창의비>가 세워져 있고, 입구에 비석이 있으며 안내판 정리는 양호한 편이다. 산성 정상에 안내판,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기념탑 옆으로 팔각지붕의 정자인 ‘동학정’이 있어 백산 주변의 들판 조망을 볼 수 있다. 다만 백산에 큰 나무와 숲이 우거져 동학정에서도 주변 경관을 제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근 들판을 조망하는 것이 백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백산의 나무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조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정상의 안내판 주변에 백산성을 원표로 주변 지역 거리가 표기된 안내판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2〉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 현황

유적명	주소지	설명	현황
부안 동학농민군 백산대회지(국가사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9	무장기포 후 농민군 진영을 갖추고 대회를 연 곳	기념비, 기념탑, 안내판
부안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낙철 도소지	부안군 행안면 역리283	김낙철이 주로 활동한 부안 동학세력의 도소	안내판
부안 동학농민군 성황산 주둔지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산 4-1	황토현 전투에 앞서 주둔했던 부안관아 서쪽 산	
부안 관아 동학농민군 점령지터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39-2	백산성 주둔 농민군이 군기를 탈취한 관아	안내판
부안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기병 행적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16	부안농민농민혁명군 대장 김기병의 행적비	

부안 성황산은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 앞서 주둔했던 부안 관아 서쪽에 있는 산이다. 1894년 4월 5일 전주 진격을 위해 부안지역의 농민군과 태인 쪽으로 온 정읍 농민군 등이 주둔했던 곳이다. 부안의 동학군 지도자 김기병 등이 무장기포 이후 부안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확보한 후 황토현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진을 친 장소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현 서림공원(부안군청 뒤편)으로 공원길 따라 차량 진입 가능한 상태다. 다만 서림공원 안내판은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실은 기록이 없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156개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전체 유적지 중에서는 정읍시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고창군 21개, 김제시 8개, 전주시 16개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표 3〉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시군별 분포 (단위 : 개소)

지역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장수	계
유적수	21	18	11	2	6	3	2	156
지역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유적수	7	2	5	16	61	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전북지역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기념사업이 크게 편차를 보인다. 전북 외 지역으로는 공주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상주군이 10개소, 전남 무안군이 8개 등으로 나타남. 유적의 지역별 분포는 대체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데,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하거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현장에서 유적지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중 단순한 표지석이나 기념탑, 기념비 등의 구성에 그치지 않고 해설공간, 전시공간, 관리체계 등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무안군이 조성하고자 하는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은 기념관과 기념공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곳이다. 특히 백산이라는 야산과 그 아래 펼쳐진 들판, 그리고 그 위에 조성되는 기념관은 하나의 통합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6개소다. 정읍의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1963-2004)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념공원으로 황토현 전투를 기념하는 장소성이 강조된 곳이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2015.4)은 장흥 석대벌 전투를 기념한 곳이며, 순창녹두장군 전봉준관(2006.12)은 전봉준 장군 피체지로 인물을 기념한 곳이다. 전주한옥마을 동학혁명기념관(1985.5)은 천도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으로 동학 자체를 기념한다고 볼 수 있고,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2019)은 전남 진도에서 일본으로 수집되었다가 한국으로 봉환된 무명농민군을 모신 장소이며, 전주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2024)은 전주입성을 기념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표 4〉 동학농민혁명 주요 기념공간 및 공원 현황

명칭	지역	관리주체	공간 구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1963-2004)	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지	문화재청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사적 지정</li> <li>•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총괄</li> <li>• 전시관, 교육관, 기념탑, 전봉준 동상, 제민당 등</li> </ul>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관 (2015.4)	전남 장흥	장흥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흥 석대들전투 기념지</li> <li>• 기념전시관, 야외조형물, 체험실</li> </ul>
녹두장군 전봉준관 (2006.12)	전북 순창군 피노리	순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봉준장군 피체지 기념</li> <li>• 피체 당시 주막 재현, 농촌생활 체험관(녹두관), 캠핑/숙박시설</li> </ul>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2019)	전주시 완산	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명 농민군지도자 안장</li> </ul>
동학혁명기념관 (1985.5)	전주시 풍남동	천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혁명 전시관 및 강연장</li> </ul>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2007)	충북 보은 보은읍	보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취회 기념지, 보은전투</li> <li>• 상정탑, 돌성, 민중의 광장, 하늘길 계단 등 역사문화생태공간</li> </ul>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2010~)	충남 예산 관자리	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자리 전투 기념</li> <li>• 기념비 조성, 기념탑(예정)</li> </ul>
전봉준 공원 (1997)	전북 정읍 내장산	정읍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장산 입구에 조성</li> <li>• 주탑과 부탑으로 구성</li> </ul>
우금치전적지 (1973)	충남 공주 우금치	문화재청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금치 전투 기념</li> <li>• 기념탑</li> </ul>
삼례봉기 역사광장 (2002)	완주군 삼례	완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례집회 기념, 조형물과 공원</li> </ul>
고창 전봉준생가 (2001)	전북 고창군 당촌	고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봉준 생가터 복원</li> <li>• 뚜라조각공원 (민간)</li> <li>• 전봉준장군생활전시관 (민간)</li> </ul>

## 2. 최근 역사기념공원 및 기념관의 사례와 시사점

기념공간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 것인지 또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와 공간 구성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념관 혹은 기념공간이 혁명의 전체 과정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하

며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비교적 최근에서 세워진 한국의 기념공간 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묘역이 모범적인 조성과 활용으로 손꼽히고 있다. 봉하묘역은 본래의 묘역이 갖는 비장함과 우울감을 최소화하면서 정중하고 비교적 밝은 이미지로 공간을 조성했다. 하나의 공간에 묘역을 중심으로 생가, 사저, 부엉이바위, 봉화산, 봉화농장, 화포천 등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공원은 모든 국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그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단순한 조경과 시설을 통해 추모객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그림 3〉 봉하묘역 컨셉 스케치 및 일대 모습<sup>6)</sup>

6) 출처: <http://www.iroje.com/>



〈그림 4〉 윤동주문학관 공간구성 중 열린 우물<sup>7)</sup>

윤동주 문학관도 근대기를 빛낸 시인이자 항일운동가를 기념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 윤동주문학관은 서울시 종로구청이 학창 시절 종로에서 하숙하며 살았던 그의 발자취와 세상을 향한 시선을 기억하고자 2012년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가압장 건물을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가압장의 원형을 되도록 그대로 살리면서 윤동주의 주요 시어인 ‘우물’을 주제로 리모델링했다. 문학관은 윤동주 시인의 친필원고와 사진이 전시된 시인채, 가압장 물탱크를 활용한 열린우물과 닫힌우물로 구성되었다. 특히 열린우물은 아무런 설비 없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을 주고 닫힌우물은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다루는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7) <https://shindonga.donga.com/3/all/13/830004/1>



〈그림 5〉 Vietnam Veterans Memorial 전경

미국 워싱턴의 베트남 전쟁 기념관(Vietnam Veterans Memorial)도 매우 의미심장한 역사기념공간이다. 이곳은 베트남 전쟁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다. 설계자는 이 기념공간을 통해 전쟁의 실상과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참전자와 전사자들에 대한 기억을 정직해야하며 전쟁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곧 순수한 비정치적인 접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명확히 기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간구성 및 전시특성을 보면 수직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히려 땅속으로 가라앉은 수평적인 벽을 강조. 베트남전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5만 8천여명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Holocaust Memorial)은 더욱 극적이다. 이 곳은 유대인 박물관과 기념정원은 과거에 대한 독일인의 속죄의 뜻을 담은 대표적인 장소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조성했다.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 살해된 육백만 유대인 피해자의 기념을 위한 장소로, 독일 베를린

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기념공간은 1만9000m<sup>2</sup>(약 5758평)의 부지에  
최고 4.7m인 다양한 높이의 회색 콘크리트 기둥들로 이뤄져 있다.



〈그림 6〉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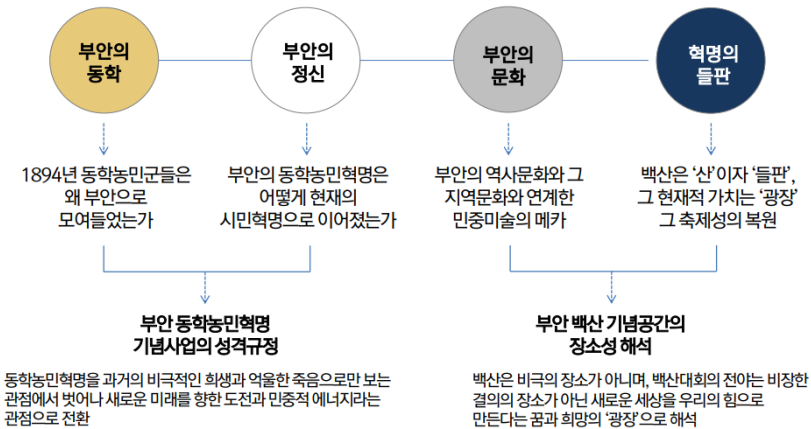
### Ⅲ. 부안 시민혁명의 전당의 방향과 활용

#### 1. 시민혁명의 전당을 위한 방향성

부안의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은 크게 다섯 가지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공간으로서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곳으로 부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맥락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조선이 겪고 있던 국가적 위기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해석, 동학의 출발과 부안지역 동학세력의 형성과 저항에 대한 시대적 맥락이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왜 농민군들이 부안의 백산으로 모여야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부안이 가진 풍요와 지형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부안이

왜 ‘약속의 땅’이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근현대 시민혁명 기념공간으로서의 방향이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 민중저항의 기념공간으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즉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한국 근현대사의 민중저항과 현대적 시민혁명 정신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기념공간과 차별화될 수 있다. 특히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당시 부안군 전체에 밝혀진 촛불투쟁이 2016년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촛불항쟁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7〉 시민혁명의 전당 공간 및 콘텐츠 구상의 기본방향

셋째, 예술적 혁명 기념공간으로의 방향이다. 예술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기념방식으로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민중미술이라는 예술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혁명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시민혁명의 전당을 포지셔닝하고 공간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안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넷째, 축제적 장소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비장함과 희생적 관점보다 백산대회의 축제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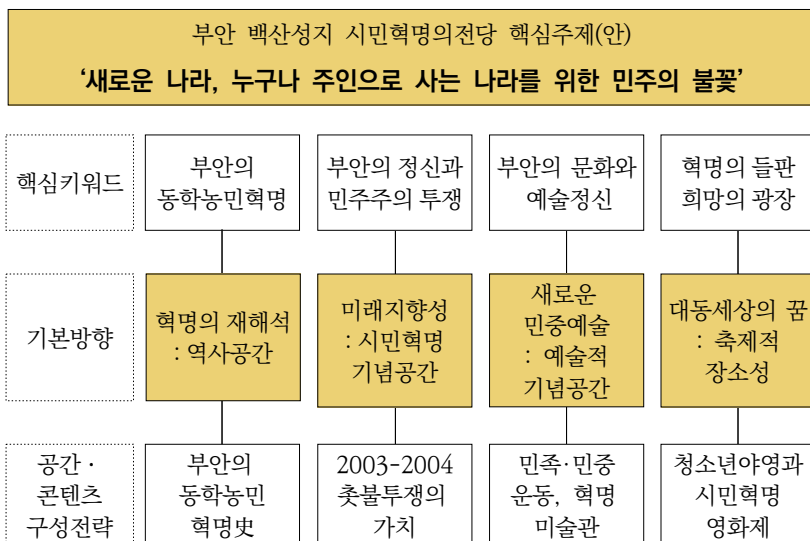
백산은 호남 일대의 농민군들이 모여든 약속의 장소로 백산대회 이전부터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어 야영하면서 대회를 준비했을 것이다.

1894년 백산의 횃불은 비장함과 희생의 관점보다는 민중적 열망과 희망,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강력한 결의의 장소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의 전당 공간과 콘텐츠는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와 다른 축제적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 이는 백산대회 당시 대규모 야영을 현대적 청소년 교육캠프 및 캠핑문화로 발전시키면서 과거를 현재로 연결하는 장소로 브랜딩하는 활용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섯째, 공간운영의 수익모델 고려해야 한다. 세계시민혁명 전당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역사박물관이나 기념관의 경우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조성후 초기단계를 단순히 유지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폐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시민혁명의 전당도 초기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감안하여 기존 단순 기념관 개념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 보다는 수입구조를 감안하여 운영단계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축소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 2.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비전과 활용전략

위에서 정리한 방향성을 토대로 백산성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비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백산대회와 시민혁명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혁명을 재해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정한 것이다.



〈그림 8〉 부안백산성지 세계시민혁명의전당 콘텐츠 구성체계

다음 <표 5>는 현재 부안군에서 기본구상으로 수립한 기념관의 구성에 따라 전체 공간의 활용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사와 ‘부안의 정신’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명칭에 맞게 전시콘텐츠를 통해 구현하며, 부안의 문화와 예술정신은 「혁명미술관」으로 그리고 혁명의 들판으로서 시민참여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먼저 지하 1층의 컨셉과 핵심용도는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 작품’과 사무공간이다. 기념공간으로서 경건한 마을과 ‘기념’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내부로 접근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지하의 정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상징하는 민중미술작품을 전시하고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며, 사무공간 및 수장고를 조성한다.

지상 1층은 ‘민중미술관’과 ‘백산 레고하우스’, ‘굿즈 판매와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혁명미술관을 상징할 수 있는 ‘민중미술

관'을 조성하고, 레고라는 어른과 아이들의 공간으로 '백산 레고하우스'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민중미술과 레고 하우스와 연관된 기념굿즈 판매점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일반 군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조성하여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레고하우스와 굿즈 판매장은 유료화를 통해 기념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사업이 되어야 한다.

지상 2층은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부안 시민혁명 정신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현재 부안군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미디어 전시는 자주 교체해야하는 트렌디한 내용보다는 단순하면서 '사진찍기 좋은' 내용으로 조성하여 최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많지 않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혁명영화제, 군민들을 위한 영화관, 홍보영상 감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영상과 음향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영화관을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명의 들판이다. 기념관 옥상은 조망공간으로 조성하되 '나의 아버지' 전봉준과 같은 컨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산의 핵심 컨셉인 '혁명의 들판'을 기념관 옥상에 조성하여 백산의 들판과 그 의미를 생각하고 백산들판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들판을 그냥 조망하기 보다 생각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동학농민혁명과 백산대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시민혁명의 전당' 옥상을 잔디광장 형식으로 조성하고 그 광장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포토존 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조형물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전봉준 장군과 부안의 어린이 등을 컨셉으로 하고 조형물의 주제를 '나의 아버지'로 하여 전봉준 장군의 뜻과 의지가 후세대에 친근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게 하면 이곳이 다른 지역의 기념관과 다른 특색을 가질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도시의 상징은 그 도시가 겪어온 전통과 역사속에서 형성되었으나 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시는 상징과 이미지에 의

〈표 5〉 시민혁명의 전당 공간 층별 구성

구분	핵심주제	주요 스토리
별판의 전봉준 옥상공간	별판을 바라보는 전봉준	옥상공간에 별판을 상징하는 잔디밭 조성 잔디밭에 들판을 바라보는 전봉준 동상 건립
부안역사관 1894~2004년 상설전시실(2층)	1894. 백산대회에서 2004년 촛불투쟁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농민혁명과 백산대회</li> <li>① 동학농민혁명과 백산대회</li> <li>② 부안에 흐르는 개혁가들의 사상</li> <li>③ 2003년 핵폐기장 반대 부안시민투쟁</li> <li>■ 촛불투쟁은 2019년 촛불항쟁으로 진화</li> </ul>
소극장/회의실 커뮤니티실(2층)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	계단식 광장형 커뮤니티 공간 - 50명 내외 소공연 및 영화, 회의공간
백산민중미술관 기획전시실(1층)	한국민족민중 미술 전문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안을 한국 민족민중미술의 메카로 : 제주 4.3, 5.18 등 민족민중미술작품 전시</li> <li>② 연간 2~4회 기획전 진행 : 민족민중미술의 서정적인 그림 전시판매</li> </ul>
1층 혁명굿즈매장	혁명굿즈샵	동학농민혁명의 상징과 미술작품, 인물을 주 제로 한 다양한 굿즈와 역사퍼즐 판매
동학역사놀이터 레고하우스(1층)	레고게임으로 혁명과 놀기	동학농민혁명의 사건을 레고게임으로 제작 레고와 퍼즐게임으로 청소년 혁명놀이터 운영
지하 진입공간	백산기념관 상징공간 조성	백산대회 상징 민중미술 대작 설치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 조형
지하 사무공간 등	공간운영 및 사업기획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사무공간 원장실 등 운영관리 필수공간
지하 수장고	민족민중미술 메카	민족민중미술 작가들의 기존 작품 등을 보관 그 외 미술작가들의 작품 유료보관

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도시의 상징은 때때로 전통 또는 공동체, 집합의식 등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며 그것은 연속성(continuity)을 본래적인 속성으로 한다. 그것은 전통이 역사를 통해 형성된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 즉 문화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Durkheim, 1982)

현대사회는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정신과 상징은 시민적 노력을 통해서 구축되고 지속된다. 부안은 백산이라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을 재창조해야 하고 이를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맺음말

혁명을 기념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매우 위태로운 작업이다. 혁명에 대한 기억과 평가는 각 집단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무려 1백여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이후에는 비교적 통일된 관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일관된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부안의 백산성지는 동학농민혁명 전체 과정에서 매우 의미있는 장소다. 1894년 백산대회가 열린 이곳은 혁명의 목표와 지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군대가 조직되고 진군이 시작되었다는 상징적인 장소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에서 민중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혁명을 선언한 사례는 많지 않다. 많은 경우 혁명은 정치세력의 교체기나 대단히 특별한 권위와 재능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민중혁명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백산은 그 민중혁명의 결의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표출한 상징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부안군의 백산성지 기념사업은 이런 점에서 백산대회의 가치와 의미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타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명확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부안의 백산성지가 가진 장소성을 들판으로 설정했다. 들판은 농민들 특히 민중들의 장소다. 그러나 그 들판을 소유하고 농민들의 ‘일하고 분배받을’ 정당한 권리를 어지럽힌 것은 양반과 권력자들이었다. 농민들은 수세대에 걸쳐서 이 들판에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겪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들판은 동학농민혁명의 본질인 썸이다. 백산성지는 권력자의 시선이 아니라 농민의 시선에서 들판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들판의 의미를 콘텐츠로 구현하는 것은 민중미술이 될 수 있다. 한국 민중미술의 작가들은 일찍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고, 그 억압을 뚫고 일어난 민중들의 투쟁에 주목했다. 이들 대부분은 그 투쟁의 출발점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이 일생을 거쳐 해온 의미있는 작업을 어디에선가 기념하고 한데 모아야 한다면 가장 적합한 선택지 중의 하나는 백산이다.

투고일 : 2025. 10. 10. 심사완료일 : 2025. 10. 28. 게재확정일 : 2025. 11. 3.

## 참고문헌

### 〈논문〉

- 김정수, 200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문화관광학회, 75~96쪽.
- 박맹수, 2009, 「전라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08~140쪽.
- 박명규, 1997,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한국사회사학회 편, 『사회와 역사』 제51집, 문학과지성사.
- 박준성, 2006,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을 찾아서(3)」, 『내일을 여는 역사』 제26호,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22~232쪽.
- 이진영, 2001, 「茂長起包의 성립과 全羅道 高敵地域의 동학농민혁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46~76쪽.
- 조성운, 2016,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 실학』 제61권, 역사실학회, 323~347쪽.

### 〈단행본〉

- 김한배, 1998, 『우리 도시의 얼굴찾기』, 태림문화사.
- 문경민·김은정·김원용, 1995, 『동학농민혁명 100년-혁명의 들불, 그 황톳길의 역사찾기』, 나남출판.
-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 Mike Savage and Alan Warde. 1993,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김왕배, 박세훈 역 (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 Mircea Eliade, 1998, *Image et Symboles*.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 Warter Benjamin, 1992, 『베를린의 유년시절』, 박설호 편역, 솔.
- Warter Benjamin, 1983,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 Yi-Fu Tuan, 1995, *Space and Place*, 정영철 역,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

### 〈기타〉

- SBS드라마, 2019, 『녹두꽃』, <https://programs.sbs.co.kr/drama/nokduflower/main>, 2025년 8월 9일 검색.

## 〈Abstract〉

# The Significance and Direction of the World Citizen Revolution Memorial Center at Baeksan, Buan

Won, Do-yeon\*

What is the significance of Baeksan in the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Baeksan Rally (Baeksandaehoe) was a momentous event following the Gobu Uprising in January 1894 and the armed mobilization in Mujang in March. After a revolutionary proclamation in Mujang, peasants from across the Jeolla region gathered at Baeksan to formally organize their army and launch a full-scale armed struggle.

The Donghak Peasant Army from the Jeolla area assembled here,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ir revolutionary forces and setting the army's objectives and code of conduct. Baeksan thus became a critically important historical site in modern Korean history. While the Baeksan Rally is sometimes viewed as the troop formation where the Donghak Peasant Army solidified its revolutionary ranks, it was strongly characterized as a citizens' convention and a departure ceremony where the peasants, who constituted the mainstream of the populace at the time, united with a single will, "transcending boundaries." Following the Baeksan Rally, Korean society transitioned from a series of "complex appeals" (복합상소) led by the Confucian literati in the traditional era to a method of citizen-led popular assemblies.

---

\* Professor, Dept. Game contents of Wonkwang University

In particular, it was extraordinary that the Baeksan Rally saw peasants from the entire Jeolla region voluntarily gather to even declare armed resistance against the powers-that-be. Throughout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democracy and a just society have always been advanced through resistance from below against unjust authority. In this sense, the Baeksan Rally can be seen as the first starting point of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people's movements. The form and content of the Baeksan Rally later continued to influence the March 1st Movement, the April 19th Revolution, the May 1980 Democratization Struggle, and the subsequent Candlelight and Light Revolutions.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newly established World Citizen Revolution Memorial Center in Buan should encompass the following five points: first, its function as a historical space; second, its role as a memorial space for modern and contemporary citizen revolutions; third, its character as an artistic memorial space for revolution; fourth, its nature as a festive place; and fifth, the necessity of having a sustainable revenue model for space operation.

**Key word :** The Baeksan Rally (Baeksandaehoe), People's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World Citizen Revolution Memorial Center, Modern and contemporary citizen revolutions

##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접주 허선의 가계검토\*

나하나\*\*

### 〈 목 차 〉

머리말

I. 임실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II. 허선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활동

III. 허선의 가계검토

맺음말

### 〈국문초록〉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지역에서 출발하였으며, 임실지역은 동학 지도자 최시형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동학교인과 농민군이 함께 봉기를 일으키고 집강소를 세웠던 지역이다. 임실지역 중 '청용면 조항마을'은 동학 2대 지도자인 최시형이 장기간 머물면서 전라도 지역에 포교했던 곳으로 많은 사람이 동학에 입교했고 혈연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동학이 확대되었다. 빠르게 확장된 동학의 교리는 동학농민혁명의 평등 및 부패척결과 맞물려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통합되었다.

\* 이 논문은 『전북사학회 제82회 학술연구발표회』(2021.6.)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로

그 중 동학 접주 허선(許善)은 최시형의 임실 정착과 포교를 도왔던 인물이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참여자이다. 그러나 허선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최시형과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로 잠시 그 이름이 언급될 뿐 허선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가족관계 및 인적 사항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허선이 동학 이후 1905년 천도교로 명칭이 바뀐 이래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시기에 사망하고, 후손들은 모두 천도교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임실을 떠났기에 그의 행적을 증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번 줄고를 통해 임실 접주 허선의 생몰년과 집안·집터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제어** : 동학, 임실동학, 접주 허선, 허선, 허선 가계도, 최시형 포교터

## 머리말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제폭구민(除暴救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 아래 반봉건·반외세 농민 혁명이라 규정하고 있다. 1860년 수운(水雲) 최재우(崔濟愚)가 창시한 동학은 시천주(侍天主)의 평등사상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새 세상을 염원하며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주체적 사상이자 종교였다. 이러한 평등과 새 세상을 지향하는 동학의 교리, 권력을 독점하며 비리와 부정을 일삼던 관료에 대한 저항, 그리고 조선에 침투하여 농촌 경제를 파탄시킨 일본 등 외세의 이권 침탈에 대한 반발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결집하였으며, 이는 곧 제국주의에 대한 항거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중 전라도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전라도는 경제적 수탈이 심했던 곳으로 많은 농민들은 부패한 지도층과 쌀을 수탈해 가는 외세에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하여 각 군현에서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확대되어 갔다.

이 중 임실지역은 동학 지도자 최시형과 관련이 깊은 곳이며,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과 함께 봉기를 일으키고 집강소를 세웠던 지역이다. 임실지역 천도교인들이 작성한 『천도교임실교사(天道敎任實敎史)』<sup>1)</sup>에 의하면 임실지역 중 ‘청웅면 조항마을’은 동학 2대 지도자인 해월신사(海月神師)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이 장시간 머물면서 전라도 지역에 포교를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청웅면 조항마을을 중심으로 임실지역으로 빠르게 확대된 동학의 교리는 동학농민혁명의 평등 및 부패척결과 맞물려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통합되었다.<sup>3)</sup>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전라도 지역은 동학의 지도자 최시형이 와서 포교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 후 집강소의 영향 아래 있었던 지역으로 더 많은 참여자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직접적인 사료와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 중 동학 접주 허선(許善)은 동학교도로 최시형이 조항마을에 와서 포교활동을 할 때 유숙할 수 있게 도왔던 인물로 교조신원운동을 위한 동학관련 취회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2009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의해

---

1) 『天道敎任實敎史』는 임실출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승우(崔承雨, 1861~1926)의 후손인 최동안(崔東安, 1915~2007)이 중심이 되어 천도교 임실교구에서 임실지역 천도교인들의 활동을 정리한 것(1973년 草稿, 1981년 刊行)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동학 지도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

2) 현재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조항마을) 1093번지’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당시 최시형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포교 활동을 한 곳으로 이곳이 최시형이 머물렀던 ‘허선의 집터’로 알려져 있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전라북도 1-』, 124~127쪽).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73명 중 915명이 전라북도 참여자이며, 이 중 85명의 참여자가 임실지역과 관련됨 [참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dpr.go.kr/commit/>, 2025년 9월 8일 검색)].

등록된 참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선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최시형과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에 잠시 그 이름이 언급될 뿐 허선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가족관계 및 인적 사항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고는 2019년 임실이 본적인 한 신청자가 임실 접주 ‘허선(許善)’이 증조부라고 진술하며 유족등록신청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임실 접주 허선에 대한 인적 사항 등 가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I. 임실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19세기 전라도 지역은 개항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정치적 침략과 경제적 수탈로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시기이다. 게다가 풍부한 곡창지대였기에 탐관오리의 수탈 대상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궁핍해졌다.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은 일 년 내내 땀 흘려 일해도 수확량의 대부분을 조세와 잡다한 세금으로 빼앗겼으며, 이는 그들이 해마다 부채를 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잘못된 정치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종교를 찾게 했다.

당시 동학은 1860년에 1대 지도자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창도한 이래 조선 후기의 봉건적 모순 극복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면서 세력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동학은 경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제적 수탈이 많았던 전라도에서도 급속히 퍼지게 되었다. 교세의 확장 속에서 사회변혁지향 세력도 동학농민혁명 주도 세력으로 동학에 입도하였다.<sup>4)</sup>

『천도교임실교사』(1981)에 의하면 임실지역의 동학은 포덕 14년인 1873년 3월에 동학 2대 지도자 해월신사(海月神師) 최시형(崔時亨)이 김신종(金信鍾)을 데리고 조항마을(鳥項峙)에 들어와 설법을 하면서 정착되었다고 한다.<sup>5)</sup> 동학이 임실지역에 포교 된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로 지도자의 직접적인 설법을 통해 확대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후 1892년 11월에 삼례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면서 입도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1910년 박래홍(朴來弘, 호 玄波, 1894~1928)이 작성한 「全羅行」에는 임실의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任實은… 靑雄面 새목티는 甲午年間에 東學 諸頭領의 居所이였음으로 海月神師 자조 行次하시며 恒言하사대 「任實은 山氣가 조흐니 사람이 만히 살갓다」하신바 甲午年 東學亂時에 一郡이 道家안인집이 거이업스되 遭變者는 只三人뿐이라한다<sup>6)</sup>

이러한 기사는 동학이 임실에 들어온 이후 대다수의 사람이 동학에 입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동학이 임실에 일찍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임실이 전라도 동부 산악권과 서부 평야지대를 연결하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4) 조성운은 공주, 진천, 진주 등지에서 변란을 도모했던 이필제(李弼濟, 1825~1871)가 동학 포교 초기에 문경에서 최제우를 만나 입도했고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이었던 서병학, 서인주, 전봉준, 김개남, 김성기, 유태홍, 김재홍, 손화중 등도 사회변혁을 지향하던 세력이었다고 보고 있음(조성운, 2014,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의 관계-포점제와 관련하여-」, 『역사와 교육』 19, 114~115쪽).

5) …任實邑에서 南쪽으로 距里 約 三十里에 位置한 새목치(鳥項峙)라는 재가 있다… 海月神師께서 이마을에 布德十四年 西紀 一八七三年 癸酉 三月에 日字未詳 長水敎人 金信鍾을 다리고 오시여 許善氏家에 자리를 定하시고 道場을 베풀러 說法布敎하시자…(천도교 임실교구, 1981, 『天道敎任實敎史』, 7~8쪽).

6) 玄波, 1910.5.15., 「全羅行」, 『天道敎會月報』 167, 천도교회월보사 (천도교중앙총부, 1978, 『天道敎會月報』 19, 426쪽).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상황과 처음부터 동학 교단의 지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출발하고 덕망과 학식, 재력을 갖춘 인물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임실지역의 최봉성 일가와 김흥기 일가의 동학 입도를 통해 동학 지도자의 입도 및 포교 양상이 친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또한 김흥기는 최봉성의 사위로 이 또한 일가로 이루어졌다. 1997년 이진영은 임실지역 농민군 지도자들의 본관과 출신지 등의 행적을 정리하였는데, 대다수가 혈연과 친족으로 이루어져 동일한 본관과 지역으로 정리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하지만 이 중 이병춘(李炳春), 허선(許善), 표응삼(表應三), 신명화(申明燁) 등의 본관과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록하지 않고 있다.

1890년대 초반 동학교단은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1892년 11월 삼례취회에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1만여 명의 교인이 모였고, 1893년 보은취회에서는 2만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모였다.<sup>9)</sup> 조선정부는 확산하는 동학을 억누르고자 동학금지령을 내리고 동학교도의 탄압도 자행하였다.<sup>10)</sup>

고부봉기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확산됨에 따라 동학의 교리와 같은

7) 동학의 임실 포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임실의 대접주였던 최봉성과 그의 사위 김흥기, 아들 3형제[최승우, 최유하, 최동필], 김영원, 한영태 6인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형제결의를 맺고 포교에 전력을 다한 인물로 알려져 있음(임실군지편찬위원회, 2020, 「임실의 역사」, 『임실군지』 1, 54쪽).

8) 이진영, 1997, 「전라도 임실현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전북사학』 20, 397~399쪽.

9) 천도교 임실교구, 1973, 『天道敎任實敎史』, 3~4쪽.

10) “1863(고종 원)년 최제우를 체포하여 대구부(大丘府)의 옥에 가두었다가 이듬해 1864(고종 1)년에 참수하였다.… 이때에 주군(州郡)에서 동학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구니 교도(敎徒)들이 분노하여 모여 상소를 올려 교조의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하고 관리의 포학상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최제우 처형 이후 동학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음(『고종실록』 31, 고종 31년 2월 15일 임술).

뜻을 가지고 있었던 농민군들은 1894년 백산창의문을 통해 전국 각지 동학교도들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이에 3월 25일에 백산대회의 임실 지역 대표 접주들이 농민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이때 참여한 임실 지역 접주로 최승우(崔承雨)·최유하(崔由河)·임덕필(林德弼)·이병춘(李炳春)·최우필(崔祐弼)·조석휴(趙錫休)·이만화(李萬化)·김병옥(金秉玉)·문길현(文吉鉉)·한영태(韓榮泰)·이용학(李龍學)·이병용(李炳用)·곽사회(郭士會)·허선(許善)·박경무(朴敬武)·한군정(韓君正) 등 16인이 기록되어 있다.<sup>11)</sup> 이 중 도접주(都接主)는 최승우이며, 김신중·이병춘·김학원·김영원·최유하·허선·조석휴·박경무 등은 접주(接主)로 알려져 있다.<sup>12)</sup>

전봉준의 농민군과 합세한 임실지역 동학농민군들은 백산대회를 통해 대장에 전봉준(全琫準, 1855~1895), 총관령(總管領)에 손화중(孫華仲, 1861~1895)·김개남(金開南, 1853~1894), 총참모(總參謀)에 김덕명(金德明, 1845~1895)·오시영(吳時泳), 영솔장(領率將)에 최경선(崔景善, 1859~1895), 비서(祕書)에 송희옥(崔景善)·정백현(鄭伯賢, 1869~?)을 임명하고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sup>13)</sup>

백산에 모였던 동학농민군은 관군과의 접전 끝에 전주에서 화약을 맺으면서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때 임실지역은 7월 7일에 농민군과 규합하여 임실읍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실 집강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기 어려우나 당시 임실현감 민충식이 동학에 입교<sup>14)</sup>하고 김개남과 결의형제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폐정개혁에 적극

11) 오지영, 1940, 「檄文」, 『東學史(草稿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叢書』 1, 456~457쪽).

12) 천도교 임실교구, 1973, 『천도교임실교사』, 6쪽.

13) 오지영, 1940, 『동학사』, (『東學思想資料集』 2, 467~468쪽).

14) 임실현감(任實縣監) 민충식(閔忠植)은 1894년 9월에 김개남의 도성찰(都省察)이 되어 김개남과 함께 활동하였고, 전주성에도 함께 들어갔다가 임실로 돌아온 후 일본군에게 잡혀 구금됨.(『양호우선봉일기』, 갑오(1894)년 12월 1일).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민충식을 파출(罷黜)함(『고종실록』 32, 고종31년 12월 12일).

적으로 동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강소 설치 후 8월에 1만여 명의 임실지역 동학농민군이 합류하였고, 일본군과 합세한 관군과 공주에서 대접전의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농민군은 패하여 퇴각하고, 임실지역 동학농민군도 흩어져 회문산(回文山)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동학농민혁명 이후 임실지역 동학농민군들은 일본의 내정간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이어나가는 전라도 의병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전라도 지역 3.1운동은 동학이었던 천도교(동학)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sup>16)</sup>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서가 천도교 전주교구를 통해 임실교구에 3월 2일 전해지면서 임실지역에서 적극적인 3.1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임실지역에서 3.1운동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른 사람이 80여 명<sup>17)</sup>에 이른다.

이처럼 동학교리가 임실지역에 빠르게 확산하며, 동학교도의 사상과 맞물려 있던 동학농민혁명의 임실지역 참여는 당시 민중들의 생활상과

---

15) 임실군지편찬위원회, 2020, 「임실의 역사」, 『임실군지』 1, 54~55쪽.

16) 3·1운동은 주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전북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본산지로 천도교가 조직적으로 확대되어 있었기에 기독교와 함께 천도교가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이 특징임(윤상원, 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 57, 5~6쪽.)

독립선언서의 호남지역 배포를 맡았던 인종익(印宗益, 1871~?)은 천도교인으로 1919년 2월 28일 독립선언서를 받아 전주에 도착하여 천도교 전주교구에 전달했으며, 김진옥(金振玉, 1881~1931)은 전주교구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가 3월 2일에 천도교 임실교구의 교구장 한영태(韓榮泰, 1878~1919)에게 전달하면서 임실지역에 만세운동이 시작됨. 특히 임실지역은 천도교인의 전파가 많았고 3월 12일 임실을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남(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사(하)』, 『독립운동사』 3, 국가보훈부 공훈전사사료관, 502~503쪽).

17) 〈己未三一運動紀念碑〉(임실군 운암초등학교 앞 소재)는 1983년 6월 17일에 참여자의 후손들이 세운 비석으로 〈甲午東學革命記念碑〉와 〈戊寅滅倭運動紀念碑〉까지 세 개가 함께 세워져 있음. '己未 三一運動 謀議者 名單'에는 8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후손들이 선조들의 이름을 작성한 것으로 더 많은 참여자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됨.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임실지역은 동학이라는 종교로 먼저 시작했지만, 평등과 부패에 대한 대응으로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3.1운동의 민족운동까지 연결된 것이다.

## II. 허선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활동

허선(許善)은 전북 임실군 청웅면 조항마을에 거주했던 동학교도로 2대 지도자 해월신사 최시형(崔時亨)이 허선의 집에 거주하면서 설법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천도교임실교사』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任實古號는 雲水이며 任實邑에서 南쪽으로 距里 約 三十里에 位置한 새목치(鳥項峙)라는 재가 있다. 이 鳥項峙 맞닥 밀테있는 基當時 拾餘戶되는 새목터 鳥項峙라는 마을이 있다. 海月神師께서 이마월에 布德十四年 西紀 一八七三年 癸酉 三月에 日字未詳 長水敎人 金信鍾을 다리고 오시여 許善氏家에 자리를 定하시고 道場을 베푸러 說法布敎하시자 이 所聞이 넓이 퍼져 遠近人士雲集拜謁하고 說法을 들은 선비들은 선비의 本議를 저버리고 돈에만 눈이 어두운 自己네 꿈인 卜術 地理述 醫術 그밖에 여러 가지로 速富가 되어보려는 속 시험이었던 그들 뜻과는 正反對가 됨으로 모두 물너나고 其中에서 崔胤成 許善 表應三 崔胤項 崔胤官 金榮遠 崔承雨 申明燁 金學遠 等 많이 三十五日間이란 長期的 說法과 敎理를 배우는 途中…<sup>18)</sup>

이를 통해 동학 지도자 최시형이 허선의 집에 머물며 동학을 포교했고, 허선은 마지막까지 동학교리를 익혔던 인물 중 한 명이었음이 확인된다. 허선은 임실지역에서 최초로 동학에 입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

18) 천도교 임실교구, 1981, 『天道敎任實敎史』, 7~8쪽.

알려져 있다.<sup>19)</sup>

『천도교임실교사』의 기록과 임실지역 천도교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조항마을] 1093번지’는 허선의 집터로 알려져 있다.<sup>20)</sup> 1894년 9월 재봉기 이후 우금치전투 등 격전이 벌어지는 시기의 대부분을 최시형은 임실군 청웅면 새목터[조항마을] 허선의 집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했다고 한다. 이후 전라도 농민군이 재봉기하자 최시형은 자신을 찾아 허선의 집까지 온 송병희를 만나 충청도 보은으로 북상하였다.

1970년대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영원(金榮源, 1853~1919)의 손자인 김정갑(金正甲, 1917~2017)이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137번지’가 최시형의 설법 장소라고 안내하여, 바로 아래인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093번지’가 최시형이 설법 당시 머물렀던 허선의 집터로 알려졌다. 현재 ‘1137번지’에는 <최시형 설법터>라는 표시석이 세워져 있다.<sup>21)</sup> 이렇듯 허선은 동학 지도자 최시형을 통해 임실지역 동학 포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임실에서 이른 시기에 입도한 인물로 알려진 것이다. 또한 1892년 삼례취회(參禮聚會)<sup>22)</sup>에 참여하고, 1893년 서울 북합상소문자리에 참석한 임실대표 중 한 명이다.

---

19) 성주현은 표영삼(1999, 「전라좌도 남원지역 동학혁명운동」, 『교리교사연구』 2.)의 논문과 『천도교임실교사』를 근거로 임실에 동학이 들어온 것은 1880년이며 허선(許善)과 김학원(金學遠)이 1880년 3월 10일에 가장 먼저 입도했다고 보고 있음(성주현, 2005,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1900~1919)」, 『문명연지』 14, 23쪽).

2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전라북도 1-』, 124~127쪽.

21) 표지석에는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137번지’가 <해월신사 동학교리 설법장소>로 “...주치리 새목터 허선의 집에서 35일간의 설법을 시작하신 것이 처음이며...”라고 새겨져 있음.

22) ‘삼례취회’는 동학교도 탄압에 대해 포교의 자유를 얻으려는 민소운동(民訴運動)에 대해 최시형이 입의문(立義文)을 지어 도도(道徒)에 전하면서 1892년 11월 1일(음)에 수천의 동학도가 삼례에 모인 집회임.

布德 三三年 단기 四二二五 서기 一八九二 壬辰 十一月 三日 參禮聚合 모  
음에 任實서 崔承雨 李炳春 金신중 金永遠 金병옥 崔由河 허선 趙錫休 黃  
히영 朴敬武 李鍾根 金학원 등이었다. 布德 三四年 단기 四二二六 서기  
一八九三 癸巳 三月 서울복합상소문자리에 任實 崔承雨 金신중 金영원  
이병춘 조석휴 金영원 허선 한영태 등이 임실지방대표로 참석하였다.<sup>23)</sup>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에 적극 참여한 허선은 동학교도 중 임실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선은 1906년 제29교구장으로 선임되고, 1907년 정주순독(定住巡督)과 원직교수(原職敎授) 선정 추천인, 정주교사(定住敎師)로 선임<sup>24)</sup>되었으며 1907년 11월 30일에 의암성사(義菴聖師) 손병희(孫秉熙, 1861~1922)에게 ‘미암(溪菴)’이라는 도호를 직접 받았다.<sup>25)</sup> 이러한 행적은 허선이 동학교단에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허선은 종교인으로서 동학교도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도 직접 참여하여 임실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접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1894년 9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어난 후 최시형은 각 포의 접주들에게 “교도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sup>26)</sup>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많은 접주가 무장봉기하여 전봉준과 함께 2차 봉기에 합류하였다. 허선 또한 1894년 갑오년에 도접주(都接主)로서 봉기하는 농민군을 규합하였고, 임실에 설치된 집강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sup>27)</sup>

23) 천도교 임실교구, 1973, 『천도교임실교사』, 천도교 임실교구, 5~6쪽.

24) 이동초, 2005, 『天道敎會 宗令存案』,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38~39쪽, 118쪽, 128쪽.

25) 『천도교서』, 1920. (사운연구소, 1996,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8, 338~340쪽).

26) 이돈화, 1933, 『天道敎創建史』, (한국학문헌연구소, 1987, 『東學思想資料集』 2, 아세아문화사, 155쪽).

27) 『천도교회사초고』에는 1894년에 기포한 임실군 접주는 최승우(崔承雨), 최유하(崔由河), 임덕필(林德弼), 이만화(李萬化), 김병옥(金秉玉), 문길현(文吉賢), 한영태(韓

동학교도이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임실접주였던 허선은 1907년 동학 지도자 손병희에게 도호를 받았다는 기록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천도교임실교사』를 해제한 『任實東學史』(2006)에 ‘허선’의 당호는 국당(菊堂)으로 갑오(1894년)·갑진(1904년)·기미(1919년) 3대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천도교임실교사』 원문과 대조해 보면, 이는 임실지역 ‘허성(許誠)’에 대한 기록으로 이름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sup>28)</sup>

허선은 동학교주 최시형이 임실에서 포교활동을 할 때 숙식을 제공하며 포교활동을 도왔으며, 이를 계기로 임실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입교한 인물이었다. 또한 교조신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을 이끌었던 접주 중 한 명으로 임실지역 동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이나 후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신상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실지역 동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자료에서 ‘허선’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시형의 포교를 도와준 인물로만 간단히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

榮泰), 이용학(李龍學), 이병용(李炳用), 곽사회(郭士會), 박경무(朴敬武), 한군정(韓君正), 조석걸(趙錫杰), 이병춘(李炳春), **허선(許善)** 등이며(천도교 임실교구, 1981, 『천도교임실교사』, 16~17쪽), 김정갑(참여자 김영원 손자)은 1894년 당시 임실에는 31명의 접주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함(표영삼, 1999,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27쪽).

28) 『任實東學史』에 천도교 개인별 공적을 기록한 부분에 ‘허선(許善)’의 행적이 “堂號 菊堂, 청ونغ면 옥석리 새목치 출신이고 교훈은 인법포 연원대표. 포덕 55(1914)년 제5대 임실교구장을 역임, 갑오·갑진·기미 3대 운동에 그 공이 지대하신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전북역사문화학회, 2006, 『임실동학사』, 113~114쪽). 그러나 『천도교임실교사』(1973·1981) 확인 결과 이는 ‘허성(許誠)’의 기록으로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파악됨.

### III. 허선의 가계검토

허선은 1907년에 ‘미암’도호를 받은 이후 행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허선의 생몰년과 가계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임실지역 주요 접주 중 한 사람이나 임실지역 동학과 천도교에 대한 기록인 『천도교임실교사』에서 인물 행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는 임실접주 허선에 대해 알려진 바도 없고 허씨 성을 가진 주민이 한 가구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허씨가 많이 살았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sup>29)</sup>이 있고, 조선총독부 임신토지조사국에서 발행한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에서 1914년부터 2003년까지 임실 청웅면 옥석리의 허씨 소유의 토지가 스물두 개 번지에서 확인되었다.

오늘날 허선의 집터로 알려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093번지’는 지목이 밭[田]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공적서류로 확인할 수 없으나,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066번지’의 「제적부」에서 ‘허선’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밭으로 집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허선의 집터로 알려진 ‘1093번지’와 145m, 최시형이 설법한 장소인 ‘1137번지’와 200m 떨어진 곳이다.

허선의 집터가 최시형 설법장소 바로 아래인 ‘1093번지’로 알려진 것은 최시형이 허선의 집에 은신하면서 설법했다는 이야기가 천도교인 사이에서 전해짐에 따라 설법 장소를 기준으로 허선의 집터를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허선의 집터를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보다 당시 상황에 따라 전승되는 내용과 취합하여 예상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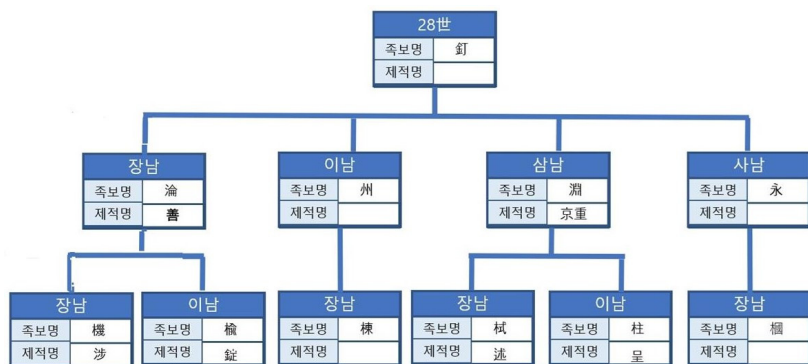
---

29) 청웅면 마을 이장 김○택(1970년생)과 김○기(1944년생) 증언.

허선의 이름이 확인되는 「제적부」상 주소인 ‘1066번지’의 호주는 ‘허섭(許涉, 1883~1942)’으로 양천허씨(陽川許氏)이며 그 부친 허선(許善)은 1908년 2월 7일에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임실 점주 허선의 행적이 1907년 이후 확인되지 않는 것이 1908년 2월에 사망한 이유와 상통한다.

『양천허씨세보(陽川許氏世譜)』 중 「도사공파」에서 허선의 가계가 확인되는데, 허선의 족보명은 ‘허륜(許淪)’으로 양천허씨도사공파(陽川許氏都事公派) 29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허선의 부친 허정(許釘)은 대가 끊어진 집안의 봉사손으로 입적하였다. 그렇기에 허정의 양부와 친부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승손(承孫)’으로 양천허씨의 제사를 받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허정의 선대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어 자세한 집안의 이야기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묘가 청ونغ면 조항리 와우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허정은 부친 때부터 조항마을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양천허씨 도사공파 세계도

출처: 『陽川許氏世譜』, 1993, 64쪽, 541~542쪽.

허정의 아들인 장남 허선을 포함하여 4형제 모두 ‘임실군 청ونغ면 옥석리 조항마을’에 모여살고 있었다.<sup>30)</sup> 『양천허씨세보(陽川許氏世譜)』에

허선은 1843(癸卯)년 6월 12일생으로, 2월 7일에 사망하여 임실군 청  
 웅면 조항리 와우동에 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족보에서는 허선의  
 사망 연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제적부」에 1908년 2월 7일에 사망으  
 로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록되어 허선이 1843년부터 1908년  
 까지 6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허선은 경주김씨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허섭(許涉, 죽  
 보명 機, 1883~1942), 차남이 허정(許錠, 족보명 楡, 1887~1952)이  
 며, 전주에 사는 최판동(崔判同)과 결혼한 딸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된다. 족보에는 허선의 부인 경주김씨 묘가 ‘남원군 덕과면 망동마을’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허선의 장남 허섭의 「제적부」에 모친 김  
 양춘(金良春)이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  
 어 허선의 부인 묘가 임실이 아닌 남원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本	戶主トナリ	戸主トナリ	其年	父	母	姓	名	生年月日	父	母	姓	名	生年月日	父	母	姓	名	生年月日	父	母	姓	名	生年月日
陽川	前戶主	許善	其年	許善	長男	許	涉	閏四月廿九年	許	大	金	良	閏四月廿九年	許	大	金	仁	四月廿九年	許	大	金	仁	四月廿九年
		許善	其年	許善	長男	許	涉	閏四月廿九年	許	大	金	良	閏四月廿九年	許	大	金	仁	四月廿九年	許	大	金	仁	四月廿九年
		許善	其年	許善	長男	許	涉	閏四月廿九年	許	大	金	良	閏四月廿九年	許	大	金	仁	四月廿九年	許	大	金	仁	四月廿九年

〈그림 2〉 허섭 「제적부」:

‘전호주’이자 ‘부친’에 ‘허선(許善)’의 이름이 확인됨

- 30) 임실 접주 허선과 동생인 허경중(許京重, 족보명 淵, 1849~1905, 2020년 참여자  
 등록)은 바로 인접한 곳에 기거하였으며, 허선 형제 「제적부」에도 사형제가 모두  
 근처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됨.

허섭의 장남인 허량(許亮, 족보명 許亮萬, 1926~?)은 부친 허섭이 사망한 1942년 이후에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로 이주하였다.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는 허선의 부인이자 허량의 조모인 김양춘의 무덤이 있는 곳이며, 허섭의 부인 김몽희(金夢喜, 1901~?)의 본적지이다.<sup>31)</sup> 즉 허량은 부친 허섭의 사망 이후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외가인 남원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온 가족의 이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허선의 동생 허경중(許京重, 1849~1905)의 유족들은 증조부 허경중이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재산을 제공하였고, 이후 천도교 박해를 피해 자주 이주하여 재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허선의 후손들이 임실을 떠나야 했던 연유와도 상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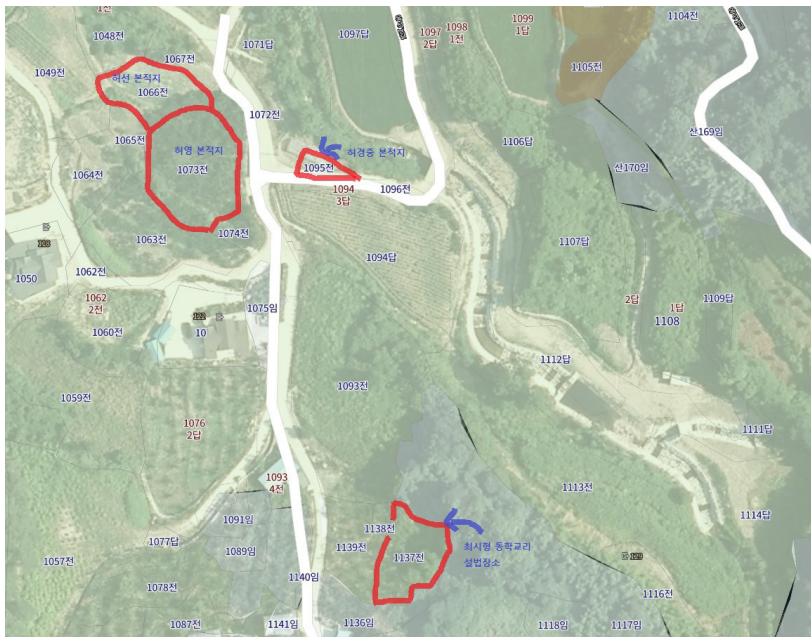
허선의 후손들이 임실을 떠나게 되면서 임실지역에서는 접주 허선의 생애를 증언 해줄 후손과 자료들이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서 찾기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허선의 행적을 파악할 길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 살았던 허선 후손의 옛「제적부」를 통해 허선의 생몰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웅면 옥석리 1066번지’가 허선의 거주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청웅면 옥석리 1093번지’가 〈허선 집터〉로 알려진 이유는 동학 지도자 최시형의 설법장소인 ‘청웅면 옥석리 1137번지’와 맞닿아 있는 지리적 상황과 천도교인 사이에서 내려오는 구전으로 그 장소를 추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공문기록 상 ‘1093번지’는 지목이 밭으로 사람이 살지 않아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최시형의 설법장소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청웅면 옥석리 1066

31) 1915년 조선총독부 임신토지조사국에서 발행한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원도-017(566·569·570·614[堡]·620번지)」에서 김몽희의 부친 김창길의 토지소유사실을 확인함(참고: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2025년 9월 25일 검색)

번지'가 허선과 그의 가족들이 살던 곳으로 그 주변에 허선의 형제인 허경중(1095번지)과 허영(許永, 1915~?, 1073번지) 이 모여 살면서 최시형의 설법을 도왔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동학에 입도하고 임실 접주로 활동했던 장형(長兄) 허선을 도와 형제들이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형제의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천도교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선의 후손들은 고향인 임실군 청웅면 조항마을을 떠나 외가인 남원으로 이주하였고, 동생인 허경중은 후손들에게 천도교인임을 숨기고 지내면서 간간히 집안 선조들의 이야기가 전승되었던 것이다.



〈그림 3〉 임실 청웅면 옥석리 최시형 설법장소와 허선 형제들의 본적지

## 맺음말

전라도 임실은 동학의 지도자 최시형이 직접 교리를 설파하고,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동학에 입교했던 지역이다. 임실지역은 동학교단의 특성에 따라 혈연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동학이 확대되었다. 동학 지도자와의 인연은 임실지역 동학교도들이 적극적으로 교조신원운동 등에 활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뿐 아니라 교단의 의견에 따라 고부봉기 이후 많은 농민들이 잘못된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전봉준의 농민군과 함께 봉기했던 1894년 3월 봉기에 맞추어 임실의 동학지도자들도 기포하였다.

1894년 당시 허선은 임실을 대표하는 접주 중 한 사람으로 교도를 이끌고 농민군과 함께 하였다. 특히 허선은 최시형의 임실지역 포교를 돕고 기거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많은 사람이 동학에 입교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 인물이다. 이에 임실지역 최초의 동학 입교자로 보는 시선이 있으나, 그의 자세한 행적을 알기 어려웠다.

임실지역 천도교 관련자를 작성해 둔 『천도교임실교사』의 인물란에 접주였던 허선은 기록되지 않았고, 다른 기록을 통해 허선이 동학교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일말의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실지역의 동학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인물이나 그의 일대기를 알지 못해 많은 선진연구에서 간략히 기술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임실지역의 동학을 연구할 때 김영원·최승우의 후손이 주도하여 편집된 『천도교임실교사』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임실지역 접주는 대부분 참여자 김영원과 최승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그 후손들이 임실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구전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선과 관련된 「제적부」를 보면, 허선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1905년 천도교로 명칭이 바뀐 이래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시기에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1907년 지도자 손병희에게 직접 도호를 하사받고 천도교 내에서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1908년 사망함에 따라 허선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허선의 사망 이후 그의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조정 및 일본 정부의 천도교(동학) 박해를 피해 고향인 임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접주 허선의 행적을 증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달해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허선은 임실지역을 대표하는 접주였으나, 그의 자세한 일대기를 알 수 없었다. 이번 논문을 통해 허선의 생몰년과 집안·집터·최시형과의 관계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하고자 했으며, 앞으로 허선의 후손들에게 허선의 이야기를 듣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찾을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행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이에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조사로 좀 더 풍부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 2025. 10. 4. 심사완료일 : 2025. 10. 29. 게재확정일 : 2025. 11. 10.

## 참고문헌

### <자료>

『고종실록』.

『陽川許氏世譜』, 1993.

오지영, 1940, 『東學史(草稿本)』.

이돈화, 1933, 『天道敎創建史』.

### <단행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전라북도 1-』.

사운연구소, 1996,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이동초, 2005, 『天道敎會 宗令存案』.

전북역사문화학회, 2006, 『임실동학사』.

천도교 임실교구, 1973, 『天道敎任實敎史』.

천도교중앙총부, 1978, 『天道敎會月報』.

한국학문헌연구소, 1987, 『東學思想資料集』.

### <논문>

성주현, 2005,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1900-1919)」, 『문명연지』 제6권 제1호, 한국문명학회, 5~33쪽.

윤상원, 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 제57호, 전북사학회, 5~34쪽.

이진영, 1997, 「전라도 임실현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전북사학』, 제20호, 전북사학회, 391~411쪽.

조성운, 2014,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의 관계-포접제와 관련하여-」, 『역사와 교육』 제19호, 역사와교육학회, 105~130쪽.

표영삼, 1999, 「전라좌도 남원지역 동학혁명운동」, 『교리교사연구』 제2호, 천도교중앙총부, 52~108쪽.

\_\_\_\_\_, 1999,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제5집, 한국동학학회, 21~83쪽.

## 〈기타〉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원도」.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Abstract〉

#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Imsil and the Family Tree of Heo Seon

Na, Ha-na\*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1894 originated in Jeolla Province. The Imsil region, deeply connected to Donghak leader Choi Si-hyeong, was where Donghak believers and peasant soldiers rose up together and established a training center. Among the Imsil areas, Chojang Village in Cheongung-myeon was where Choi Si-hyeong, the second leader of Donghak, resided for an extended period and preached the religion throughout Jeolla Province. Many people converted to Donghak, and the movement rapidly expanded through blood relation. The rapidly expanding doctrines of Donghak, coupled wit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s emphasis on equality and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led to its unification in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1894.

Heo Seon, a Donghak leader, assisted Choi Si-hyeong in settling in Imsil and spreading the religion, and was a participant in the 1894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wever, there are few records of Heo Seon. His name is only briefly mentioned in research on Choi Si-hyeong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Imsil. However, no direc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im, and even his family relationships and personal details remain largely unknown.

---

\* Completion of a doct., Dept. History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e died during a time when he should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movement, following the change of name from Donghak to Cheondogyo in 1905. His descendants all left Imsil due to the persecution of Cheondogyo and financial difficulties, leaving no one to testify to his activities or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is dissertation seeks to identify the birth and death dates of Imsil Jeopju Heo Seon, his family and home site, and his relationship with Choi Si-hyeong.

**Key word :** Donghak, Imsil Donghak, Jeopju Heo Seon, Heo Seon, Heo Seon family tree, Imsil Choi Si-hyeong missionary site



---

부 록

---

연구소 소식

위원회 명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연구소 발간 자료

---



## 연구소 소식

###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출범

- 출범일자 : 2023. 4. 1.
- 연구소장 :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등재일자 : 2023. 5. 24.
- 등재대상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

### □ 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입구
- 참석 : 이사장,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 재단 직원 등

###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3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 사업 논의 등

###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 2023. 6. 29.(목) 14:0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일시 : 2023. 8. 29.(화) 10:30 ~ 12: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앞
- 내용 : 등재 인증서 전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
- 참석 :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신순철(재단 이사장), 임상규(전북부지사),  
이학수(정읍시장) 주영채(유족회장) 등 200여명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8. 29.(화) 14:3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발간

- 발간일자 : 2023. 8. 30.
- 수록자료
  -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 천우협(天佑俠)
  - 남정여록(南征餘祿)
  -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

□ 부안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0. 26.(목) 11:00 ~ 18:00
- 장소 :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주최 : 부안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
- 주제 : 홍재일기(1866~1911)로 본 격동기 조선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 정읍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3.(금) 14: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만석보 위치고증과 활용방안 모색

□ 고창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15.(수) 14:00~18:00
- 장소 :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실
- 주최 : 고창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이해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11. 23.(목) 16: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6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논의

□ 군산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5.(토) 14:00 ~ 17:30
- 장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공연장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주제 :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 장흥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9.(수) 14:00 ~ 18:00
- 장소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후원 : 장흥군
- 주제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동학농민혁명 학술지 창간

- 제호 : 동학농민혁명 연구
- 창간호 발간일 : 2023. 11. 30.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발간

- 발간일자 : 2023. 12. 15.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4. 1. 30.(화) 14: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연구비 기부

- 기부자 :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전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장)
- 기부액 : 2,000만원(정읍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금)
-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 일시 : 2024. 5. 11.(토) 17:3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발간

- 발간일 : 2024. 5. 31.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기간 : 2024. 6. 27.(목) ~ 6. 28.(금)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2024 정읍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7. 11.(목) 13:3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과 서훈 학술대회(국회토론회)

- 일시 : 2024. 8. 13.(화) 14:00 ~ 18:00
- 장소 : 국회 제3세미나실
- 주제 :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 후원 :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4 인제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8. 19.(월) 13:50~18:00
- 장소 : 인제 기적의 도서관
- 주최 :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제 :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 워크숍

- 일시 : 2024. 8. 29.(목) 16:0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전북 정읍)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 방안 모색

####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6 발간

- 발간일자 : 2024. 8. 30.
- 수록자료
  -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祕書類纂 朝鮮交涉資料)
  -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日淸戰役間ニ於ケル帝國駐劄部隊ノ行動)
  - 내란실기 조선 사건(內亂實記朝鮮事件)
  - 조선폭동실기(朝鮮暴動實記)
  - 동아선각지사기전(東亞先覺志士記傳)

####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9. 11.(수) ~ 9. 12.(목)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 □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 일시 : 2024. 10. 15.(화) ~ 10. 16.(수)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남원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0. 23.(수) 14:00~18:00
- 장소 :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주관 : 남원문화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후원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대동세상을 꿈꾼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세계기록유산

□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0. 30.(수) 14:00~18:00
- 장소 :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2층 공연장)
- 주최 : 완주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1. 15.(금) 11:00~17:00
- 장소 : 고창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 주최 : 고창군
- 주관 :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새롭게 밝혀진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활동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4. 11. 22.(금) 16: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24년 연구조사 사업 실적 및 25년 주요 사업 논의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3호 발간

- 발간일 : 2024. 11. 30.

□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개최

- 일시 : 2025. 2. 11.(화) 15: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저작물 : 지수걸(공주대 명예 교수), 2024,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5. 2. 11(화) 14: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 내용 : 25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제2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취임

- 취임일자 : 2025. 4. 1.
- 연구소장 : 김양식(전 청주대 교수)

□ 연구비 기부

- 기부자 : 신영우 (전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충북대 명예교수)
- 기부액 : 1,000만원(고창 녹두 대상 수상금)
-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 일시 : 2025. 4. 25(금) 15: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4호 발간

- 발간일 : 2025. 5. 31.

□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 일시 : 2025. 6. 25.(수) 13:3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

- 기간 : 2025. 6. 26(목) ~ 6. 27.(금)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황토현 권역 어울림 센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
- 일시 : 2025. 7. 24.(목) 14: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 일시 : 2025. 8. 20.(수) 14:30~18:30
- 장소 :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
- 주최 : 부안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 발간

- 발간일자 : 2025. 8. 30.
- 수록자료
  - 법부 검사국 기안 (法部 檢事局 起案)
  -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 법부 사리국 기안 (法部 司理局 起案)

□ 제2회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학술대회

- 주제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 일시 : 2025. 9. 16.(화) 14:00~17:30
- 장소 :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 2층 시청각실
- 주최 :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 후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 지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일시 : 2025. 9. 30.(화) 14:00~18:00
- 장소 : 고창 청소년수련관
- 주최 : 고창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북사학회

□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연구
- 일시 : 2025. 10. 23.(목) 14:00
- 장소 : 정읍시청 구절초회의실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 주제 :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모색
- 일시 : 2025. 10. 30.(목) 14:00 ~ 17:00
- 장소 :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
- 주최 : 동학농민혁명태안군 기념사업회
- 후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지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김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
- 일시 : 2025. 11. 06.(목) 13:30~18:00
- 장소 :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 주최 : 김제시
- 주관 :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5. 11. 20.(목) 16: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참석 : 김양식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25년 연구조사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사업 논의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

편집위원 \_배향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강윤정(안동대 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_민회수(홍익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

편집간사 \_오진경(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

## 윤리위원회

---

윤리위원장 \_왕현중(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

윤리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

윤리간사 \_오진경(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개정 2024. 8. 14.

개정 2025. 3. 21.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영문으로는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라고 표기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재단은 학술지 발간 및 연구윤리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개정 2024. 2. 23.〉

**제4조(발행인 및 권한 위임)**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발행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단, 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에게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7조(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23.>

**제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위촉 및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하거나 연구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조(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2. 23.〉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1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12조(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편집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활동 〈개정 2024. 2. 23.〉

**제15조(편집간사의 임무)** 〈삭제〉 〈개정 2024. 2. 23.〉

**제16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결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정받은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반기별로 1회(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7조(편집회의의 권한)** 〈삭제〉 〈개정 2024. 2. 23.〉

**제18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2. 23.〉

### 제3장 원고의 투고

**제19조(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재단‘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1894.or.kr/paper/>)에 회원가입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3. 원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다.
6.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표를 달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표를 달고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에 \*표를 단 경우에는 \*\*표로 구분한다.
9.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60일 이전(4월 1일,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본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 제20조(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제1저자: 제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나. 제2저자: 제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다. 제3저자: 제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21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1.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3.>
-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5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제22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 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 라.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 2. 23.>

가. 편집용지: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좌우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나. 문단모양: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격(160%)

다.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0Pt, 장평 95%, 자간 0%)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2. 목차

가. 장은 I. II. III.,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나. ‘서론’, ‘결론’ 등의 명칭은 ‘머리말’, ‘맺음말’로 통일한다.

다.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3. 표와 그림

가.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예시)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명)

나.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가.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나.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1\\_001\\_002](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1_001_002)), 2023. 5. 11.

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제24조(각주의 표기)’를 참조한다.

5. 주제어·참고문헌·초록 〈개정 2024. 2. 23.〉

- 가. 국문초록의 말미에는 한글 주제어 5개 내외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의 말미에는 영문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기재한다.
- 나. 참고문헌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
- 다.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제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참고문헌과 초록의 분량은 전체 원고 분량에 포함된다.

**제24조(각주의 표기)** 각주의 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전 표기 순서

- 가. 논문 및 저서의 출전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 나. 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예시) 홍길동, 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0쪽.
- 다. 전자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 날짜’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

- 가.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 ‘편’, 구미어 편서의 경우 ‘ed.(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 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등 원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 뒤 괄호를 한 후 역자명 등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3. 출판연도

- 가. 저자명 다음에 표기하고, 초판이 아닌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판’자를 더하거나 책명 뒤에 괄호로 ‘개정판’임을 명시한다.
- 나. 출판연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2022·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상)·(중)·(하), 출판사.

#### 4. 논문명, 책명, 잡지명

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명은 원어를 사용하여 작은 겹낫표(「」)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큰 겹낫표(『』)로 묶는다.

나. 구미어로 된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Akira Iriye, 1981, “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1, February, pp.191~193.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p.1~5.

다. 논문이나 책의 부제는 ‘ - - ’ 사이에 표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 부제 - 」, 『책명 - 부제 - 』, 출판사, 인용면수. 단, 구미 논저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라. 책의 편자나 공저자를 명시할 경우, 책명 뒤에 괄호로 묶는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출판사명, 인용면수.

마. 인용 한문원전의 권수를 표기할 경우, 권수 뒤에 십표를 찍는다.

예시) 『仁祖實錄』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바. 잡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3집, 3호, 통권3 등 → 3

12권의 2호 → 12-2

#### 5. 출판지역 및 출판사

가. 출판지역 및 출판사의 표기는 책명 뒤에 십표를 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

예시) 『한국사입문』, 한국문화사.

『朝鮮史入門』, 東京: 日本書店.

나.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三國遺事』 高麗大 晚松文庫本(영인 출판사, 연도)

## 6. 인용면수

가. 면수 뒤에 ‘쪽’을 붙인다.

나.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면수 사이에 쉼표를 하고 끝에 ‘쪽’을 붙인다.

예시) 3쪽, 15~18쪽.

라. 한문 고서의 앞·뒷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표시한다.

마. 구미 논저의 면수 앞에는 ‘p.’ 또는 ‘pp.’를 붙인다.

## 7. 반복 인용 <개정 2024. 2. 23.>

가.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위의 논문’으로, 바로 위가 아닌 더 앞에서 인용한 것은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 뒤에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나. 구미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 8. 재수록 <개정 2024. 2. 00.>

가. 동일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나. 이후 다른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A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B 저자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 9. 사료 원문 인용

가. 사료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로 묶는다.

예시) 『續大典』, 刑典, 禁制. “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 10. 기타

가. 각주가 문장형(~이다, ~한다, ~하라 등)으로 끝날 경우, 마침표를 찍는다.

나.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중복 표기할 경우, 바깥 괄호는 중괄호([ ])로 표기한다.

예시) ~라고 이해한다.[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한국사연구회 편), 면수]

## 제4장 원고의 심사

**제25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재단의 운영위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와 동일소속기관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4. 2. 23.>
4.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투고할 경우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 종료 후 지급되는 심사비는 [별지4] 논문심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 결과 회신이 제출시한을 경과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단계)** 학술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1. 예비심사는 학술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

- 저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4. 재단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 논문 및 비평 논문, 서평, 연구 동향, 자료 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심사 내용 및 방식)** [별지5] 논문심사서에는 심의·검토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활용의 타당성: 20점
  - 나. 논문 작성의 성실성: 20점
  - 다. 논지의 정확성: 20점
  - 라. 연구의 독창성: 20점
  - 마. 학계의 기여도: 20점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 불가(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29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 나.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다. (A,A,D)(A,B,D)(A,C,C)(A,C,D)(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라. (A,D,D)(B,D,D)(C,D,D)(D,D,D) - 게재 불가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학술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 종합평가가 동점일 경우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5.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30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확인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 제5장 원고의 게재

**제31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별지6]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고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판정 후 5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하며, 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칙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심사결과 반영)** 심사결과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자는 이를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33조(이의 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게재 증명)** 투고자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별지 7]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23.>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논문제목

- 국문:
- 영문: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4.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발간물의 발행인은 저자 혹은 본 발간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귀중

[별지 2]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4호 관련)

게재심사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우편물 수취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심사 희망 전공 분야		
연구비 지원 논문	연구비 지원기관		
	지원연도/과제명		
<p>본인(기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하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자 :                    (인)</p>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논문’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3]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5호 관련)

# 연구윤리 협약서

(대표) 필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소 속			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p>위 (대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 필자 성명 :                      (인)</p>			

[별지 4] (제25조 제5호 관련)

### 논문심사비 지급기준

구분	금액	비고
일반논문심사	5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긴급논문심사	7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별지 5] (제28조 관련)

# 논문심사서

심사위원	성명	㉠	소속, 직위	
	계좌번호			
논문제목				
게재예정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00호	년	월	일 발간
심의사항	심의 · 검토의견			점 수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종합의견				종합평가
				(            점)

※ 가. 점수: 각 항목당 20점을 배점하며, 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종합평가: A. 게재(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C. 수정 후 재심사(70점 이상), D. 게재 불가(70점 미만) 입니다.

※※ 종합 의견 외에 추가되는 평가는 별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별지 6] (제31조 제2호 관련)

『동학농민혁명 연구』 투고 원고 수정사항

이름		소속	
논문 제목			

심사 사항	수정 위치	수정 내용

※ 작성 요령

- ‘심사사항’란에는 보내드린 종합심사의견의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 본문 란에는 본문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느 페이지 몇 번째 줄인지만 밝히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저자께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심사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위치,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서식에 따라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의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1. 저자

저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2. 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논문 제목	
게재 학술지	

위와 같이 논문을 게재함(게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연구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

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 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윤리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이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8조(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한다.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 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다.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 연구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 1권(2006)

취어(聚語),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 양호전기(兩湖電記),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

#### ▶ 2권(2006)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

#### ▶ 3권(2007)

수록(隨錄), 동비토록(東匪討錄), 김기술 문서(金箕述 文書), 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 동요일기(東擾日記), 토비대략(討匪大略), 소모일기(召募日記)

#### ▶ 4권(2007)

금번집략(錦藩集略), 홍양기사(洪陽紀事), 남유수록(南游隨錄), 피난록(避亂錄), 동비토론(東匪討論),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 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갑오해영비요전말(甲午海營匪擾顛末)

#### ▶ 5권(2008)

영상일기(嶺上日記),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갑오사기(甲午事記), 갑오약력(甲午略歷),  
겸산유고(謙山遺稿), 동도문변(東徒問辨),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염기(廉記), 강재유고(剛齋遺稿), 난파유고(蘭坡遺稿), 연파집(蓮坡集), 오남집(吾南集),  
사복재집(思復齋集), 복재집(復齋集), 송사집(松沙集), 면앙집(勉菴集), 육유재유고(六有齋遺稿),  
담원문록(蔭園文錄), 호산집(壺山集), 영회당사집(永懷堂史輯), 영회기(永懷記), 한달문 옥중서신(韓達文 獄中書信), 거의록(學義錄), 취의록(聚義錄),  
김상철이력행장(金相徹履歷行狀), 봉남일기(鳳南日記)

## ▶ 6권(2008)

시문기(時聞記), 약사(若史), 경란록(經亂錄), 갑오동란록(甲午東亂錄), 갑오기사(甲午記事), 의산유고(義山遺稿), 복암사집(復菴私集), 금산의병순의비(錦山義兵殉義碑), 홍성금석문(洪城金石文), 갑오일기(甲午日記), 정운경가 동학고문서(鄭雲慶家 東學古文書), 세장년록(歲藏年錄), 나암수록(羅巖隨錄), 시경록(時經錄), 기문록(記聞錄), 농산집(農山集), 유하집(柳下集), 백곡지(柏谷誌)

## ▶ 7권(2010)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장계(狀啓), 계초존안(啓草存案), 찰이전존안(札移電存案), 금영래찰(錦營來札), 순천부포작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현포작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섬계역포작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소착즙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所捉什物并錄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명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將領姓名並錄成冊)

## ▶ 8권(2010)

선봉진정보초첩(先鋒陣呈報牒), 선봉진서목(先鋒陣書目),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 ▶ 9권(2011)

갑오실기(甲午實記), 소모사실(召募事實), 교남수록(嶠南隨錄), 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효유문(曉諭文), 전주부전전라도각읍상납증비류소탈전곡미태구별성책(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米太區別成冊),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구모관사조약별록성책(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도인경과내력등 문건(道人經過來歷等 文件), 공산초비기(公山剿匪記), 모충사 전망장졸씨명록(慕忠祠 戰亡將卒氏名錄), 호연초토영각읍절의열행인성명성책(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남정일기(南征日記), 사정일기(沙亭日記)

## ▶ 10권(2012)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백석서독(白石書讀), 노정약기(路程略記), 선유방문명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 11권(2013)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釋史), 본교역사(本敎歷史)

▶ 12권(2014)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중범공초(重犯供草), 이병휘공초(李秉輝供草), 이준용공초(李峻鎔供草), 동학관련판결선고서(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贈), 곡성군수보장(谷城郡守報狀),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略記),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 나주명록(羅州名錄)

▶ 13권(2015)

대선생주문집(大先生主文集), 대선생사적(大先生事蹟),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천도교서(天道敎書)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 1권(2015)

종리원사 부 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순교약력(殉教略曆), 고흥군 교구역사(高興郡敎區歷史), 균암장 임동호씨 약력(均菴丈林東豪氏略曆), 이종훈 약력(李鐘勳略曆)

### ▶ 2권(2015)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창계실기(蒼溪實記)

### ▶ 3권(2015)

학초전(鶴樵傳) 1

### ▶ 4권(2015)

학초전(鶴樵傳) 2

### ▶ 5권(2015)

미나미고시로문서(南小四郎文書)

### ▶ 6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 ~ 3

### ▶ 7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4 ~ 6

### ▶ 8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7 ~ 10

### ▶ 9권(2017)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溪中日韓關係史料)

▶ 10권(2018)

별계(別啓), 사법품보(司法稟報)

▶ 11권(2019)

동학농민군 편지(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김진휘 등이 보낸 통문, 이병립 등이 작성한 품목, 민영주가 작성한 간찰,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에게 내린 유서, 수령이 풍헌 등에게 보낸 전령,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 도약장소에서 사사로이 보낸 통문, 민준호가 작성한 간찰, 유학 김영택을 별감으로 임명하는 첩, 유학 김성택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첩,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북하면 도면정 성하동이 작성한 보고, 예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순포증군이 집사에게 보낸 전령, 도통장이 작성한 통문, 나주 목사가 발급한 완문, 나주 목사가 홍우전에게 발급한 물침첩, 전라도 관찰사하 한학모에게 발급한 표, 남평 현감이 이정돈에게 발급해 준 물침표,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 서산 유희장이 작성한 통문, 해미 염솔면 이석노 등이 작성한 단자, 의정부나 나주 목사에게 보낸 관, 어천면 주인에게 보낸 전령, 구본협 등이 작성한 상서, 수곡리에 거주하는 대소 민인이 작성한 등장, 어상천 면장 등이 작성한 완문, 조호승 등이 작성한 등장, 백기효를 장흥 도방수장으로 차정한 문서 등, 방수장 박모가 작성한 서목, 북삼면 상유사 황모 등이 작성한 첩정, 이서면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외귀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강계 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 이재희가 작성한 원정, 고산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이도재가 순천 조 석사에게 보낸 간찰,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등오면 의거소 좌목,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서, 담양 사인 구상순이 작성한 통문), 춘당록(春塘錄)

▶ 12권(2020)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현감 하첩 5점, 소모관 전령, 1895년 초토사 첩정, 1895년 호남 초토사 서목, 순찰사 효유문, 능주 오면재 문서, 오통절목, 방화적 절목, 의관령 방화적 조목, 화북면 첩정, 각 동 입규 조목, 화북면 품목, 입규 조목, 조약 절목, 화북면 집강 명단, 유희성책, 황해도 강령현민 등장, 영천 안핵계초, 도소 사통, 동학소 입전기, 간찰 6점)

▶ 13권(2021)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집〉

겸산집, 고당집, 고현유고, 급산집, 당천집, 돈현유고, 동와유고, 방려문집, 병암집, 사남유고, 송재집, 심석재집, 우인당유고, 율은집, 지암집, 청사유고, 취목현유고

▶ 14권(2022)

〈일본 사료〉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

▶ 15권(2023)

〈일본 사료〉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찰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 16권(2024)

〈일본 사료〉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 내란실기 조선 사건, 조선폭동실기, 동아선각지사기전

▶ 17권(2025)

〈동학농민군 재판 기록〉

법부 검사국 기안, 법부 형사국 기안, 법부 사리국 기안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수록 논문 목록

### ▶ 창간호(2023)

#### 〈일반논문〉

배항섭,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김양식,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신진희, 경북 예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 〈특집논문〉

유바다,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정을경,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조재곤,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전경목,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 〈자료소개〉

신영우, 갑오일기 해제  
갑오일기 영인본

### ▶ 제2호(2024)

#### 〈특집논문〉

왕현종, 19세기말 고부지역 수리시설 운영과 만석보 수세 징수  
조광환,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홍성덕, 1894년 고부 '만석보'의 위치 재검토

#### 〈일반논문〉

조재곤,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이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김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징 및 현황과 활동거점 연구  
신영우,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신순철,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서평〉

이영호, 우리가 겪은 그들의 전쟁

-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조재곤, 푸른역사, 2024) -

〈자료소개〉

이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왕현중,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조선사편수회, 1934)

▶ 제3호(2024)

〈특집논문〉

정경호,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유바다,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김태웅,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한동훈, 청일전쟁 전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권의석,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일반논문〉

녹두팀·박정민,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엄찬호,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남경국,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

홍성덕,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자료소개〉

이병규, 이풍암공실행록(李豐菴公實行錄)

김희태, 포살동도수효급소희죽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 제4호(2025)

〈특집논문〉

김양식,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중심으로 -

성주현, 김동규 기증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일반논문〉

신진희,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혁명

김현선, 자운(紫雲) 이증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홍성덕,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활용방안

〈서평〉

유바다,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저, 2024, 역사비평사) -

##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5호

인 쇄 \_2025년 11월 26일

발 행 \_2025년 11월 30일

발행인 \_신순철

발행처 \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_063-530-9432 / 팩스\_063-538-2893

편집인쇄 \_(주)학술교육원(earticle.net)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50, 701호

전화\_0505-555-0740 / 팩스\_0505-555-0741

pISSN 3022-2435 / eISSN 3022-3873

비매품

본 학술지의 판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  
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